

THE COMET

丑 則 三



第 35 號



일러두기

1. 한자로 된 지명과 인명은 한자 병기를 원칙으로 함(한국, 중국, 일본).

◆ 한국 지명과 인명은 한문 직역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한자 병기함.

大邱 → 대구(大邱)

安東 → 안동(安東)

李承晩 → 이승만(李承晩)

金貞烈 → 김정렬(金貞烈)

崔用德 → 최용덕(崔用德)

金日成 → 김일성(金日成)

등등

◆ 중국 지명과 인명은 중국 발음에 따른 현재 표기법으로 함.

臺灣 → 대만(臺灣)[타이완] 또는 타이완

北京 → 북경(北京)[베이징] 이하 같음.

上海 → 상해(上海)[상하이]

香港 → 항항(香港)[홍콩]

金門島 → 진먼다오(金門島)

安東 → 안동(安東)

瀋陽 → 선양(瀋陽)

延安 → 옌안(延安)

蔣介石 → 장제스(蔣介石)

毛澤東 → 마오쩌둥(毛澤東)

등등

◆ 일본 인명과 지명은 일본어로 표기

羽田 → 하네다(羽田)

東京 → 도쿄(東京)



茨城 → 이바라키(茨城)
 横須賀 → 요코스카(横須賀)
 久里濱 → 구리하마(久里濱)
 立川 → 다치카와(立川)
 土浦 → 쓰치우라(土浦)
 相模原 → 사가미하라(相模原)
 目黒 → 메구로(目黒)
 昭和 → 소와(昭和)
 등등

2. 한자로 된 나라이름과 지명은 옛 이름을 현재 명칭으로 수정 처리함(한국, 중국, 일본 제외).

◆ 나라이름

丁抹 → 정말(丁抹)[덴마크 또는 덴마크]
 瑞西 → 서서(瑞西)[스위스] 이하 같음.
 越南 → 월남(越南)[베트남]
 和蘭 → 화란(和蘭)[네덜란드]
 瑞典 → 서전(瑞典)[스웨덴]
 波蘭 → 파란(波蘭)[폴란드]
 등등

◆ 지명

華府 → 워싱턴
 壽府 → 제네바
 등등

3. 자주 나오는 한자는 이해하기 쉽게 의역하여 사용하였음.

其(後, 一) → 그 (후, 1)

然이나 → 그러나
 此(에) → 이(에)
 등등

4. 숫자 표기는 천 단위로 나눠 표기함
 3000명 → 3,000명
 등등

5. 한글 표기법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은 수정 처리함.

◆ 인명, 나라이름, 지명은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나포레옹 → 나폴레옹
 나폴레온 → 나폴레옹
 에밀·솔라 → 에밀·졸라
 트루만 → 트루먼
 스타—린 → 스탈린
 처어칠 → 처칠
 궤에테 → 궤테

펜실바니아 → 펜실베이니아
 모스크와 → 모스크바
 베르링 → 베를린

치리 → 칠레
 로오마 → 로마
 로시아 → 러시아
 란든 → 런던
 루우마니아 → 루마니아



필란드 → 핀란드
 헝가리이 → 헝가리
 불가리아야 → 불가리아
 토이기 → 터키
 포올랜드 → 폴란드
 등등

◆ 한글 맞춤법 표기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받았)읍니다. → (받았)습니다. (왔)읍니다 → (왔)습니다
 이루워질 → 이루어질
 (없었)드(라면) → (없었)터(라면)
 할려면 → 하려면
 키로 → 킬로
 메터어 → 미터
 가(요) → 까(요)
 문직이 → 문지기
 부째한다 → 붙잡는다
 (사나이)었어 → (사나이)였어
 알다싶이 → 알다시피
 더부러 → 더불어
 날으는 → 나는
 (남)어, 었 → (남)아, 았
 반짝어리는 → 반짝거리는
 죄그만 → 조그만
 별서 → 별씨
 올 꺼야 → 올 거야
 씨운 → 씩운

오랭개 → 오랑개
 왔오 → 왔소
 마조 → 마주
 발르고 → 바르고
 무우 → 무
 나헌테 → 나한테
 여니때 → 여느 때
 미룰려 → 미루려
 하루밤 → 하룻밤
 서둘를 → 서두를
 즐거히 → 즐거이
 고(코)저 → 고자
 등등

◆ 정확한 외래어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젯트 → 제트
 파이로트 → 파일럿
 파이롯트 → 파일럿
 레셋손 → 리셉션
 포오카아 → 포카
 부릿지 → 브리지
 카바레 → 카바레
 샴펜 → 샴페인
 인터뷰뷰 → 인터뷰
 댄스파아티어 → 댄스파티
 코-쓰 → 코스
 스케줄 → 스케줄
 퍼어센트 → 퍼센트



테이블 → 테이블
 쏘피아 → 소파
 데리케이트 → 델리케이트
 쿠우·데타아 → 쿠데타
 씨어클 → 씨클
 에피쏘오트 → 에피소드
 뉴앙쓰 → 뉘앙스
 등등

6. 본문에서 사용한 부호는 현재 사용법에 따라 수정 처리함.
 원문에서 대화일 경우 「대화 내용」— 대화내용」인 경우 → “내용”로 표시함.
 원문에서 사용한 「, 『, 『가 책, 논문일 경우 → 「」로 표시함.
 원문에서 지명이나 인명에 「」로 표기한 경우 → 「」삭제함.
 원문에서 … 혹은 ……… 로 점의 숫자가 다른 경우 → ………로 통일함.
7. 본문에서 대화내용은 그 맛을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표시법과 상이할 수 있음.
8. 본문에서 안보이거나 누락된 글자가 있을 경우에는 □로 표시함.
9. 이해되기 어려운 단어 등에 대해서는 그 바로 옆에 []을 넣어 용어에 대한 영어 표현이나 아주 간단한 설명 또는 완벽한 용어로 이해에 도움을 주기위해 첨가하였음
10. 원문에 오류 등에 대해서는 주석이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아울러 본문에서 어려운 한자의 의미가 필요한 경우 주석을 달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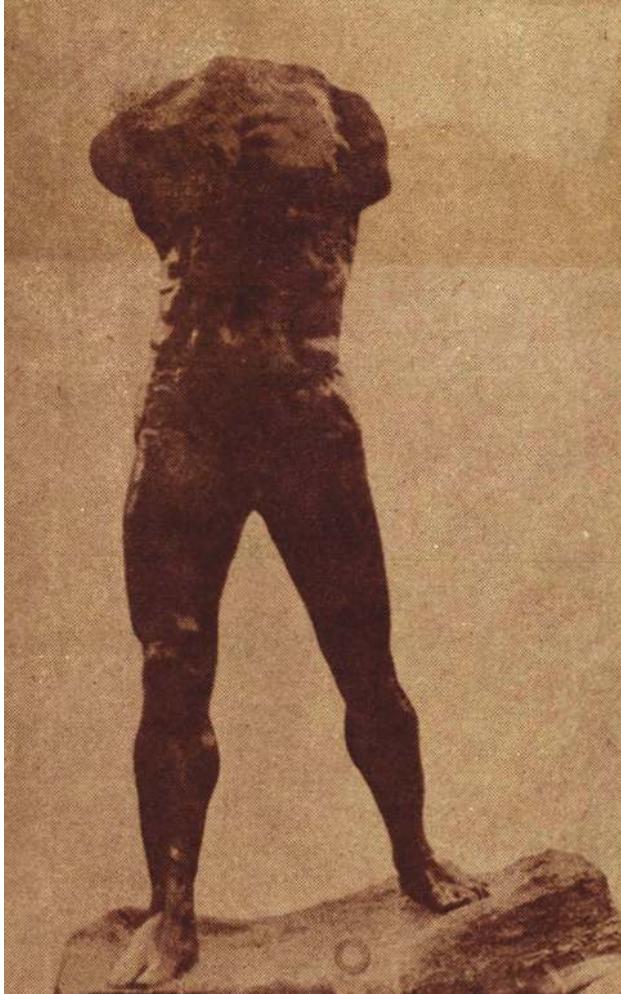
코메트 제35호 목차(目次)

〈목차(目次) 컷·비(扉) 컷〉	이희세(李喜世)
★ 단테의 꿈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D. G. 로세티 작(作)
화보(畫報)	
◇ 훈시(訓示)하시는 이승만(李承晩) 대통령(大統領) 각하(閣下)	
◇ 지나간 10월 1일	
〈권두언(卷頭言) 통일달성(統一達成)을 위(爲)하여	김기완(金基完) 2
공군장병(空軍將兵)에게 부치는 글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김정렬(金貞烈) 4
제3회(第三回) 국군(國軍)의 날 기념사(記念辭)참모총장(參謀總長) 장덕창(張德昌)	6
〈메시지〉	
한국공군(韓國空軍)에 기대(期待)함	미국대사(美國大使) 월터 다울링 8
한국공군(韓國空軍)에 기대(期待)함	필리핀대사(比律賓大使) 에두아르도 키태로 10
한국공군(韓國空軍)에게	서독공사(西獨公使) 리하르트 헤르츠 12
UN은 반성(反省)이 있어야 한다	황성수(黃聖秀) 14
세계(世界)의 불안지대(不安地帶) -중동사태(中東事態)가 뜻하는 것-공진항(孔鎭恒)	21
대만사태(臺灣事態)의 전망(展望)	김광섭(金光涉) 24
핵실험중지(核實驗中止)와 유도탄(誘導彈)의 장래(將來)	고정훈(高貞勳) 31
전력론(戰力論) 완(完)	이경춘(李慶春) 38
스위스의 표정(表情) <기행(紀行)>	장기영(張基永) 44
시원(詩苑)	
애기(愛機)와 가을	박두진(朴斗鎭) 46
물고기인 항공기(航空機)는	김규동(金奎東) 50
하늘을 간다	신석초(申石艸) 78
포물선(拋物線)	김용호(金容浩) 80
기상음(機上吟)	박목월(朴木月)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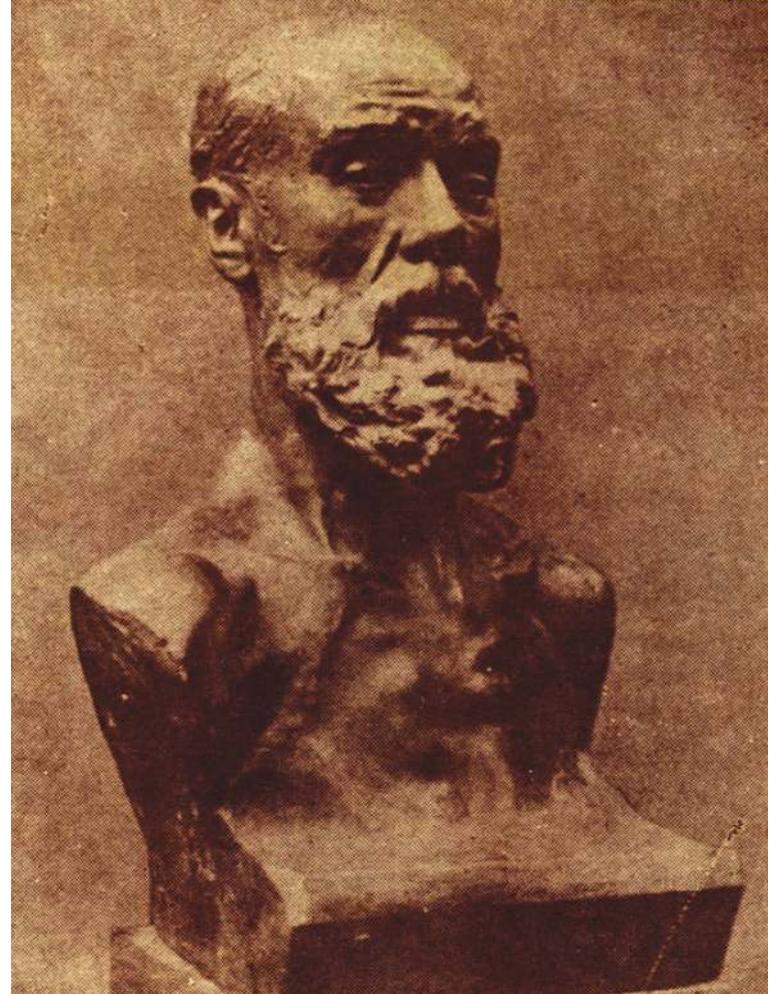
아가와 엄마와 낮잠	김남조(金南祚)	84	최근(最近)의 세계지도(世界地圖) 군인(軍人)과 독서(讀書) 인공강우(人工降雨)의 이론(理論)	최복현 149 양주동(梁柱東) 158 정창희(鄭昌熙) 162
공중(空中)과 우주(宇宙) -이는 분할(分割)할 수 없다- 무너지는 우주(宇宙)의 신비(神祕)	T. D. 화이트 외지(外誌)에서	52 56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와 불랑기(佛狼機) -국사상(國史上)에 나타난 병기(兵器)이야기-	홍효민(洪曉民) 171
<항공교육시안(航空教育試案)> 항공지식(航空知識) 보급(普及)의 길	김택진(金澤辰)	63	미명(未明)의 셋별이 찬란(燦爛)할 때까지 -고인(故人)을 회상(回想)하는 어느 책자(冊子)에서-	K.C.K 생(生) 182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에게 반문(反問)한다	김창순(金昌順)	70	베스트 골프 (IV)	토미 아머 185
수필(隨筆) 꿈 장터 근처	조훈파(趙欣坡) 이종환(李種桓)	88 91	<창작(創作)> 언덕 위에서 장가는 잘 갔는데 종착역(終着驛) 부근(附近) 이원애사(梨園哀史) 상(上)	김팔봉(金八峰) 194 염상섭(廉想涉) 204 김이석(金利錫) 218 홍은표(洪銀杓) 228
나의 공군시절(空軍時節)	박병래(朴秉來)	96		
★ 창군(創軍) 제10주년(第十週年)을 맞는 제트 조종사(操縱士)의 수감(隨感) 파일럿의 변(辯)	민경수 김동호(金東皓)	98 102		
만화(漫畵) 창공원무곡(蒼空圓舞曲) 하늘은 나의 벗 하늘의 소(笑) 파일럿은 살아있다	김경언(金庚彦) 이상호(李相昊) 신동헌(申東憲) 임창(林創)	108 110 112 114		
기계종횡(奇計縱橫)하는 독일(獨逸) 첩보전(諜報戰) 플라리스 탄도탄(彈道彈) 미국(美國) 군사력(軍事力)의 위치(位置)	우향(雨香) 홍소우(洪小宇)	118 122		
헨슨 볼드윈 작(作), 이인섭 역(李仁燮 譯)		129		
기백론(氣魄論) 현대정치(現代政治)의 해명(解明)	이은상(李殷相) 김경수(金敬洙)	135 142		

명작조각(名作彫刻)



걸어가는 사람, 오귀스트 로댕 작(Auguste Rodin 作)

명작조각(名作彫刻)



로렌스의 초상, 오귀스트 로댕 작(Auguste Rodin 作)

취미(趣味)의 미술감상(美術鑑賞)

‘단테’의 꿈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작(作)

로세티(Dante Gabriel Rossetti)는 1828년에 나서 1882년에 죽은 영국의 화가이며 시인.

그는 페르디난트 1세²⁾에 반(反)해 나폴리³⁾에서 영국으로 망명한 이탈리아인을 아버지로 하고 런던에서 출생, 1848년 매독스 브라운⁴⁾의 문하에서 미술 수업. 나중에 라파엘 전파(前派)를 벗들과 결사(結社). 그의 사실주의적 언명(言明)에 상관없이 그의 작품은 신비적이고 시(詩)적이다. 그의 그림은 정열에 넘치는 서정적인 것이며 남방(南方)적 상징주의의 뜨거운 입김이 느껴진다.

× ×

〈단테의 꿈〉은 이탈리아 시인 단테의 「새로운 삶(Vita Nova)」의 1절, 즉 단테가 그 애인 베아트리체를 사별(死別)하고, 그 시체를 보러가는 꿈을 꾸는 것을 그린 것으로서, 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며, 녹색과 붉은색의 따뜻한 그라데이션(계조(階調))을 이루어 많은 사람의 절찬을 받았다.

× ×

방 안에는 꽃이 가득히 뿌려져 있고 정면 침대 위에는 금발에 흰옷을 입은 베아트리체가 금방 숨을 진 모습으로 누워 있다. 검은 옷을 입은 단테는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모를 몽롱한(반수반성(半睡半醒)) 상태로 사랑의 천사한테 이끌려 왔다. 두 날개를 가진 사랑의 천사는 한 손으로는 시인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는 시인의 가슴에 화살을 겨누는 채 베아트리체를 입 맞추고 있다. 녹색 옷의 두 꿈의 여인은 이제 영원히 베아트리체를 덮어버릴 흙이불 - 거기 꽃이 가득히 얹혀 있다. - 의 양끝을 쥐고 있다.

× ×

이것은 1969년에서 71년까지의 작품으로 리버풀⁵⁾ 워커 아트 갤러리⁶⁾에 보존되어 있다.

1) Dante Gabriel Rossetti

2) Ferdinand I

3) Napoli

4) Ford Madox Brown

5) Liverpool

6) Walker Art Gallery

자유(自由)가 아니면 죽는 청년(靑年)이 되라

(대통령 각하 유사에서)



지나 월 일일



↑ 공중 시위를 관람하기 위해 운집한 시민들.



↑ 공중 시위를 보시고, 미소하시는 리 대통령 각하.



↑ 낙하산 부대의 낙하시범 광경

← 푸른 하늘에 은빛 무늬를 그리며 나는 우리 F-86제트기 편대 비행.



↑ 대회장에 휘날리는 태극기



← 특수비행을 (※ 글자 짤림) T-33



← 지상목표를 명중시켜 화염이 중천(中天)

<유시 초>

이번에 미국 정부로부터 다시 10대의 제트기를 우리 공군에게 양도한 것을 감사히 생각하는 바이다. 지금 우리는 싸우고 있는 바, 이는 곧 평화를 위한 싸움이다. (중략)

그래서 우리는 적과 싸울 수밖에 없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또한 무기가 필요한 것이다.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 그 무기를 주었는데, 이를 위해서 나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미국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하는 바, 이제 그들은 우리가 민주주의의 지팡이가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기를 주는 것이니, 우리는 강폭(強暴)한 적을 막는 데 이 기계의 능력을 잘 발휘하도록 써야 할 것이다. …… (후략)

(1955. 8. 17. T-33제트기 인수식에서)

× × ×

이번에 우리가 다시 새 무기를 받게 되는 자리에서 말하게 되니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이다. ……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지금까지 나라를 지켜온 것은 우리 애국 청년들이 남의 노예가 되지 않겠다는 열렬한 용맹을 가지고 나는 까닭이며 …… 그러므로 우리가 맹세한 것은 끝까지 나아가서 나라에 목숨을 바친 굳은 마음을 변치 말고 지켜나가야 할 것이며 …… 국권을 공고히 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남의 노예가 되어서는 살지 않는 국민이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만 하겠다.

(1957. 7. 5. 제트기 인수식에서)

× × ×

지난 40년 동안 소련은 세계 정복을 꿈꾸며 많은 나라들을 허위선전으로 기만했고 많은 나라를 군사력으로 위협했다. 소련은 또한 많은 자유 우방국가를 그들의 위성국화(衛星國化)했으며, 그 결과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그들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 그들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미국을 침략하려 하지는 않는다. 대신 겉으로는 친절한 웃음을 띠고 속으로는 계속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 ……

다행히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이 현상을 파악하고 그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번 이 공군본부 청사의 준공은 그 물적인 증거이다. 오늘 낙성식을 맞이해 미래를 바라보고 거기 준비를 갖추는 안목을 가진 미국의 여러 친구들에게 영원히 가시지 않는 감사의 뜻을 표한다.

(본부청사낙성식(本部廳舍落成式)에서)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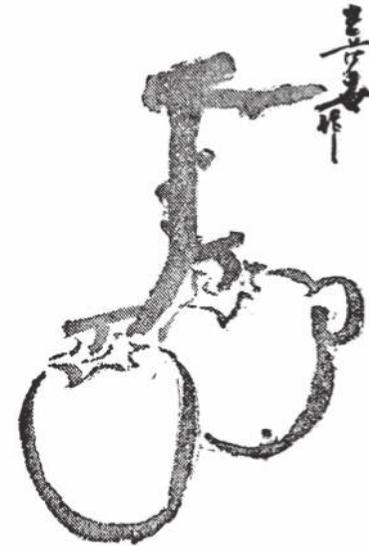
(전략) 학교교장 이하 교직원 장교 여러분이 다 잘 해나가는 것을 치하하는 동시에 우리 장병들이 부지런히 공부해서 국권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나가는 것을 내가 치하하며 더욱 바라는 것이다.

(중략) 각국의 군인들 중에서 우리가 전면에 서서 잘해나간다면 칭송을 들어야 할 것이니, 이러한 각오를 더 굳게 가지고 나가기를 바라며 간단한 말로 치하하며 또 더욱 기대하는 바이다.

(제6기공사생 졸업식에서)

코메트

THE COMET



제35호

통일달성(統一達成)을 위(爲)하여

정훈감(政訓監) 김기완(金基完)

10월이다. 하늘이 높고 땅이 살찐다 하여 예로부터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라 일컬어 왔다. 들로 나가면 웬만한 짜증쯤은 참을 수 있는 계절이요, 찌푸린 주름살이 퍼질 수도 있는 환경과 분위기다.

수확의 계절이다. 고난과 노력의 보수를 받아들여 흥겨운 철이다. 또한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타난 결과로 지난날의 자기 족적(足跡)을 반성할 수도 있는 달이다.

해마다 이달이 오면 우리 공군은 생일을 맞는다. 벌써 생일잔치하기를 열 번째다. 희열과 낭만이라는 가을의 생리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탄생을 국민들과 더불어 진정 축복하고 기뻐하며, 아울러 그 탄생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자각하는 모임을 갖는 것이다.

10년이란 세월이 짧은 것 같으나 한편으로 산천이 변한다는 연륜이라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오늘 10월 1일, 우리는 국방의 의의를 새롭게 하면서 창군 10년간 튼튼히 변하며 자라난 우리의 모습과 힘을 과시하며 자랑하고 있다.

그 기쁨, 그 자랑은 비단 우리만의 자랑과 기쁨이 아니다. 온 겨레의 기쁨이요, 자랑이며 우리를 도와준 우방뿐만 아니라 모든 자유민의 기쁨이며 자랑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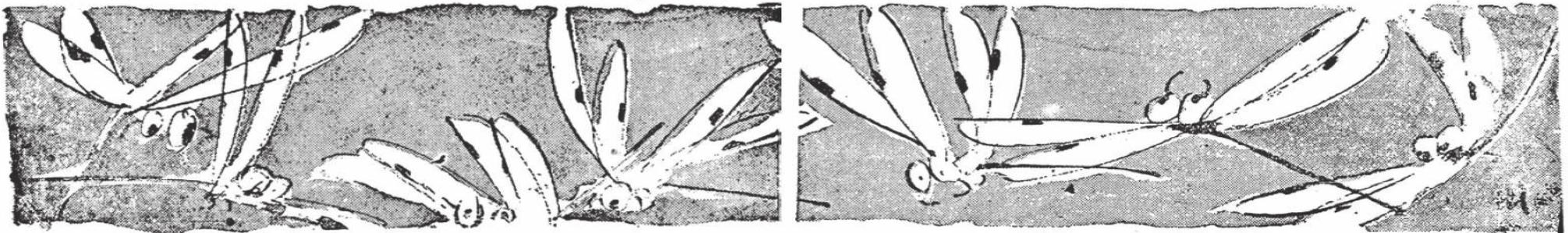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오늘의 모습과 힘만으로써, 해결될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 보다 변한 모습이, 보다 강력한 힘이 우리의 과업달성에는 요구되는 것이다.

통일 달성을 위해 우리는 무한한 발전이 있어야 한다. 자기의 현 위치를 인정하며 창군의 의의를 명심하고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정확하고 갖추어서 튼튼히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의 전투 장비가 방위뿐만 아니라 통일 전투 외 일선을 담당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강화되어야 함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우리의 일거일동은 오직 조국의 통일을 위한 데 기초를 두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뚜렷하고도 강력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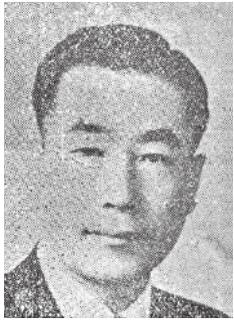
10월, 국군의 날을 맞는 소회.



공군장병(空軍將兵)에게 부치는 글

국방부장관(國防部長官)

김정렬(金貞烈)



10월 1일은 제3회 국군의 날인 동시에 항공일(航空日)이다.

오늘의 항공일은 우리 공군의 창설 제1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6·25 전란이 일어나자 연습기(練習機)에 폭탄을 싣고 손으로 적진에 투척하던 그날에 비해 당당한 제트기부대를 가지고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우리 공군의 비약적인 발전은 실로 대한민국의 자랑거리라 할

것이며 이 오늘의 성관(盛觀)을 가져오기 위해 순국일념으로 분투를 거듭하여 온 수많은 공군용사들에게 치하를 아끼지 않는 바이다.

근대전(近代戰)이 총력전(總力戰)이라 하는 것은 누구나가 주지하는 일이다.

전투력만이 아니라 정치력, 경제력, 정신력 등이 혼연히 하나가 되어 근대전의 전력을 형성하는 것이라 하지만 또 전투력 그 하나만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군, 정부, 민간이 혼연일치(渾然一致)하여 이것을 뒷받침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은 역시 거듭 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맞이하는 항공일도 따라서 비단 공군창설기념일로서의 의의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항공에 대한 인식을 또 한 번 새로이 하고 여기에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를 아끼지 않을 결의를 또 한 번 굳게 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늘 국군의 날이자 항공일이라는 뜻깊은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공군력이 근대적 전투력의 중핵(中核)임을 다시 한번

명기(銘記)하고 공군증강을 기해 가일층(加一層)의 노력을 경주(傾注)해야 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공군장병들로서는 우리 공군에 대한 중외의 성원과 기대에 수응(酬應)하여 맡은 책무를 완수할 결의를 새롭게 해야 될 줄 믿는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군의 전통적 단결정신 밑에 끊임없이 새로운 전술 전기를 연마함과 아울러 왕성한 투지를 배양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상시 임전태세(臨戰態勢)를 견지하여 어느 곳에서 적의 공격에 직면하더라도 능히 격파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오늘 뜻깊은 항공일을 맞아 우리는 장족의 발전을 한 공군의 현상에 만족해서 안 될 것은 물론, 적의 공군력을 능가하고 어떠한 침공에서도 조국의 하늘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공군의 육성을 위해 총 매진해 줄 것을 거듭 강조하는 바이다.

제3회(第三回) 국군(國軍)의 날 기념사(記念辭)

공군참모총장(空軍參謀總長)

공군중장(空軍中將) 장덕창(張德昌)



격동하는 국제정세(國際情勢)로 자유세계의 안위(安危)가 일대 시련에 직면한 오늘 이 마당에서 제3회 국군의 날을 맞이하게 되어 창군 10년간의 위업을 회고해 볼 때 감회 실로 무량함을 금할 길 없는 바입니다.

그동안 창군의 대의를 위하여 헌신해온 국군장병과 애국적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중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며 아울러 우방 미

국을 비롯한 자유세계 여러 국민들의 물심양면

의 원호(援護)와 격려에 깊이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국군탄생의 역사와 나란히 하여 열 개의 연륜을 쌓은 우리 공군의 발자취가 실로 고통스러운 형극(荊棘)의 길이었다고는 하지만 이제 강력한 최신식 무기로 장착된 또 하나의 전투비행단을 증설하려던 우리의 숙원(은 마침내 성취되었으며, 이에 따르는 각종 부대도 증강·확장되어 명실상부한 전술 단위(戰術單位)의 현대 공군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되어 우리 국군뿐만 아니라 전 국민 여러분과 축하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공산주의자와의 투쟁에서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이며, 충성스럽고 용맹한 우리 공군장병은 불철주야(不撤晝夜) 끊임없는 교육 훈련을 통해 적침(敵侵) 시적에게 치명적인 응징을 가할 만반의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는 바입니다.

세 번째의 국군의 날을 맞이하게 된 오늘 본인은 전 국군장병과 함께 오로지 창군의 지상목표인 국토방위를 위해 신념과 확신을 더한층 굳게 함과 동시에 자유세계의 국민 공통의 생활방식을 수호하는 세계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일익(一翼) 될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맹세하는 바입니다.

한국공군(韓國空軍)에 기대(期待)함

주한 미국대사(駐韓美國大使)

월터 다울링¹⁾



이제 자유세계는 지구를 둘러싸는 수많은 고리 모양으로 방위의 철쇄(鐵鎖)를 굳건히 하였다. 이 가운데 가장 신뢰할 만한 것 중의 하나로써 대한민국이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공세의 의미를 직접 체득한 귀국은 어떠한 무력침략이라도 방어할 중요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 필요한 군사력을 준비해 놓았다. 만약 그러한 공격이 있을 때, 대한민국 공군은 한국의 독립과 국토를 수호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은 한국의 육·해군과 아울러 공군에게 그 국경 바깥으로까지 미치는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 자유세계의 방위진(防衛陣)에 부가(附加)하여 한국의 군사적 능력은 공산 침략의 방위자인 동시에 침략에 대한 불변의 목고(警告)가 되고 있다. 이러한 의

미에서 한국 공군은 세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중대한 공헌을 하였고 또 현재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파괴력이 지구상 모든 국가라도 파멸 속에 몰아넣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계 평화는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생맥(生脈) 가운데 공군이 행하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임무가 있다. 직접적인 관찰을 통해 나는 한국 공군의 부차적인 공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이 주 업무의 부산물인 것은 사실이나 한국의 발전과 그 평화스러운

1) Walter C. Dowling

생활을 위해서는 현저히 눈에 띄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한국 내의 다른 기구(機構)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고도의 기계공학상의 조예(造詣)가 한국 공군에 의해 수천 명의 한국 청년들 가운데서 질적으로 또는 그 범위에 서 발전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한국에 실시 중인 공업 현대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현대 공학의 발전된 분야에서의 많은 교육받은 전문 기술자들이 요구된다. 이것은 주로 기계공학 및 전기공학의 광범위한 분야를 말하는 것이지만, 통신 정밀 금속공업, 수리학(水理學) 등도 포함된다.

지난번 나는 김해(金海)에 있는 공군 기술학교를 방문할 기쁨을 가졌다. 거기에서 나는 교육자거나 피교육자이거나 막론하고 그 진지하고 열성적인 태도에 감동하였고, 그들이 모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교관들은 모두 관록(貫祿)이 있는 교관들이었다. 그리고 비교적 역사가 오래 지 않은 한국의 과학 및 공예학(工藝學)의 현황을 생각해 볼 때, 여기에서 피교육자에게, 습득되어지는 정치(精緻)한 조예(造詣)는 정말 놀랄 만한 것이었다.

이러한 교육의 효과는 몹시 복잡한 F-86 제트기를 이들 학생들이 능숙히 조종하고 있고 또 비행기가 공장에서 나왔을 대와 조금도 다름없이 호조(好調)로 조종되고 있다는 데서 곧 실증된다. 또한 현재 상당수의 한국 공군이 전문적인 기술교육을 받기 위해 미국에 파견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 증거가 되며, 더 그 증거를 찾자면, 한국 공군 자력으로 수립한 특히 공수업무(空輸業務)에서의 비행안전 기록을 보면 이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나는 일찍이 미 공군 장교들이 한국 공군의 정비능력은 그들과 같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바가 있다.

그러나 공군 기술학교 학생 전부가 군인으로서 생애를 보내려고는 하지 않는다. 매년 여기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시민으로서의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배출되어 나간다. 비록 공군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훌륭한 능력을 공군에서 잃게 된다는 사실을 섭섭히 생각은 하겠지만, 조국의 발전에 요구되는 기계공학을 위해 중요한 밑받침을 마련하고 있다는 데서 자랑스런 것을 느껴도 좋을 것이다.

능률적인 군사적 방위력으로서 또 조국의 경제 발전을 위한 주역군으로서 대한민국 공군은 그들의 조국에 긴요한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공군(韓國空軍)에 기대(期待)함

주한 필리핀대사(駐韓比律賓大使)

에두아르도 퀸테로



대한민국 공군 창설 제10주년 기념일을 맞이하여 한국 공군 전 장병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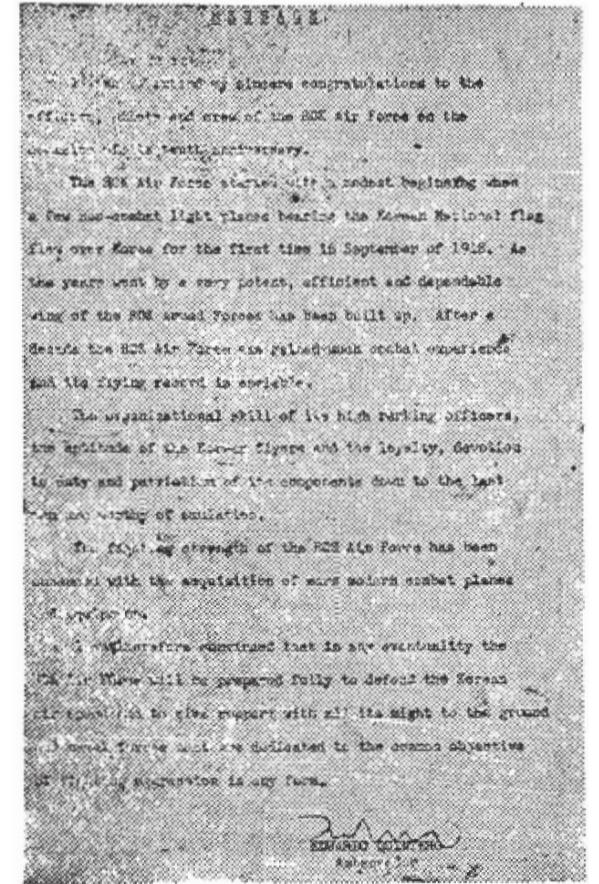
한국 공군은 1948년 10월 태극기 표식을 단 몇 대의 비전투용 경비행기가 한국 상공에 처음 날아오름으로써 조출한 그 첫 발자국을 내디뎠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유능하고 힘 있는 그리고 믿음직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의 일익으로 육성되었습니다. 그

뒤로 1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공군은 많은 전투경험을 쌓았으며 그 비행기록은 타의 선망(羨望)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위급 장교들의 탁월한 조직능력과 조종사의 우수한 기량, 그리고 상하일체(上下一體)의 책임과 애국심에 대한 충성과 헌신, 이러한 것은 과연 타의 모범이 될 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의 전투력은 현대적인 전투기와 장비의 도입으로 더욱 강화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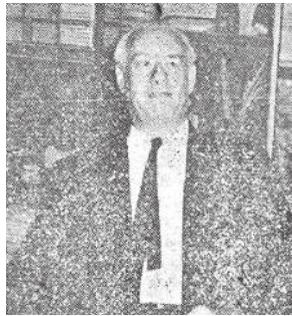
그러므로 본인은 한국 공군이 필시 한국 상공을 수호하기 위해 충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은 물론 어떠한 형태이건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싸워 이길 공동목적 아래 있는 육군 및 해군을 지원할 충분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을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한국공군(韓國空軍)에게

주한(駐韓) 서독공사(西獨公使)

리하르트 헤르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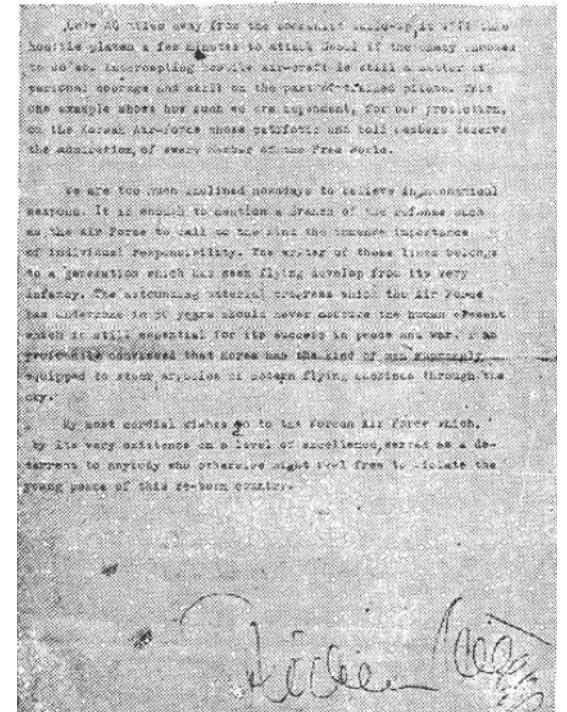
공산군과 대진(對陣)하고 있는 전선에서 불과 40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수도 서울은 현재 적이 마음만 먹는다면 수 분 내에 적기의 공격을 받게 되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러한 적기를 요격하는 것은 순전히 유능한 조종사의 용기와 기량에 의존하고 있다. 이 한 가지 예는 그 애국열과 용감성으로 전 자유세계 우방국가의 칭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공군에게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명시해준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 지나치게 과학무기를 믿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특히 공군과 같은 국방의 분단(分團)에서는 개개인의 책임의 중요성을 마음에 불리일으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필자는 항공이라는 것의 초창기부터 그 발전 과정을 목격해온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50년 동안의 세계 공군의 눈부신 발전은 결코 인간적인 요소를 위축시키지 않았으며, 현재도 전쟁과 평화문제에서의 공군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한국 공군이, 현대적 항공기라는 큰 배를 대공에 달리게 할 수 있는 고도의 기량을 갖춘 군인들을 가지고 있음을 간절히 느끼는 사람이다.

우수한 실력과 수준을 간직함으로써 이 재생한 국가의 오래지 않은 평화를 교란하려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그 굳건한 방지자(防止者)가 되고 있는 한국 공군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유엔(UN)은 반성(反省)이 있어야 한다

황성수(黃聖秀)

1

국제연합의 제도와 운영문제에 대해선 이미 지난 연말에 군 방송을 통해 전후 10여 차례에 걸쳐 강연한 바도 있다. 이 원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주로 UN이 당면하고 있는 긴박한 문제점의 지시와 동시에 그의 결점을 척결하고, 아울러 앞으로의 UN은 어떠한 규제와 원칙 밑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찰해보기로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오묘한 이론의 연구는 가급적 피하고 한국이 놓여 있는 국제적 위치를 기점으로, 이에 따르는 국제정세의 연관성 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뤄 보기로 한다.

오늘날 UN은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정부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의 법—헌장—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사회—국제연합기구—임에는 틀림없다. 그 존재는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인간에게는 매우 자극적인 것이며, 독립과 주권을 사랑하는 국민에게는 아주 고무적인 것이다. 따라서 세계법과 세계사회의 가능성도 여기에서부터 탐구되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비록 그 존재가 맹아에 불과하고 그 활동이 단편적일지라도 침략을 방지하고 세계평화의 유지에 혼신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에게 UN이라는 공동체야말로 강렬하게 인상적인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간에 계속되어 온 UN의 활동은 너무나 다른 곳이 많고 불완전해서 정말로 UN이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지금까지의 생각은 한낱 꿈으로 된 감도 없지 않다. 물론 우리의 조국통일은 우리의 손으로 이룩되어야 하고 또한 이룩되고야 말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와 국민의 공통의 소망과 이상인 세계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UN의 노력에는 항상 경건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늘과 같이 극악한 공산국가들에 의한 행동방식으로 인해 저지되고 파양될 때,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와 같은 UN의 노력과 권고에만 악착스럽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UN이 통일을 위한 성급한 계획을 마련하지 않을 때, 그리고 공산국가

의 지속적인 거부권이 행사될 때 여기에 대한 자율적인 강력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동시에 과거 한국전쟁 때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은 UN현장의 다양성과 강력성을 계속 발휘할 수 있는 기능적 변화의 방향으로 우리의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2

대체로 오늘날 UN이 당면하고 있는 커다란 고민은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권한배분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UN 자신의 반성도 자연 이 두 가지 문제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우리는 먼저 양자에 대한 권한 문제를 논하면서 UN기구가 태어나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신중한 검증 없이는 정확한 토의가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엄격한 의미에서 UN의 역사를 따진다면, 그것은 1943년 9월 21일 미국의회를 통과한 풀브라이트 결의(fulbright Resolution)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해 5월 9일에는 독일군의 항복이 있었고, 이로부터 넉 달 후인 동년 9월 8일에는 이탈리아의 무조건 항복이 있었다. 태평양 전쟁에서도 전년부터 시작된 솔로몬 군도(群島)의 작전에서 일본군은 퇴각하기 시작하여 이 해에 들어서면서 전세는 더욱 유리하게 전개되어 일본군의 패망은 거의 결정적인 단계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전후의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하여 영구적인 평화건설은 오직 국제기구의 결성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동시에 여기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참가를 주장하고 전기(前記)한 풀브라이트 결의를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 후 미국은 가일층 UN기구 설립에 대한 열의 있는 활동을 계속했다. 이것의 가장 대표적인 의사표시로 동년 10월 19일에서부터 10월 30일까지 십여 일에 걸쳐 있었던 미·영·소 3국의 모스크바 회담, 그리고 동년 11월 5일 미국 상원을 압도적으로 통과한 코넬리 결의(Connally Resolution)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모스크바 회담에서나 풀브라이트 결의 그리고 이번의 코넬리 결의에서는 다만 UN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고, 그것의 명확한 성격규정은 후일로 미뤄졌던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발의(發議)로 워싱턴 교외 던바튼 오크스(Dunbarton Oaks)에 모인 미·영·중·소의 4개국 회담에서는 국제기구의 성격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주권평등(主權平等)의 원칙과 세계평화의 유지에 대한 대국 간의 책임과 협력을 결정하는 소위 대국주의의 이점을 결정하기에 이르

렸다. 국제총회의 기관으로서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安全保障理事會)를 구상한 것도 실은 이와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실천시키기 위한 징표라고도 볼 수 있다. 즉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할 책임을 안전보장이사회에 두고 이사회는 자기의 결정으로서 가입국의 분쟁 해결을 권고할 수 있고, 침략행위와 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가입국이 경제적·군사적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권한까지 부여하기로 구상되었다. 이와 같은 구상은 총회나 이사회에 아무런 집행권도 부여되지 않고 단순한 권고기관에 불과했던 전쟁 전의 국제연맹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서 평화 유지의 기구로서는 진일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이사회의 결의가 침략행위를 저지하고 제재수단을 결정하는 강력한 강제력이 있어서 국제연맹 시대와는 달리 그것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다수결에만 의지할 수는 없었다. 이사회의 결정이 단순한 다수결에 의지할 때는 자국의 의사에 반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지역을 위해 자국의 병사가 희생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육해군 간부가 미국의 병력 사용에 대해 거부권을 요구한 것도 사실 이와 같은 사정에서 온 것이었다. 여기서 이와 같은 대국 간의 필요 이상의 과중한 희생을 거부하고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된 것이 이른바 대국 간의 거부권이다. 이 상으로 우리는 거부권 문제가 구체적으로 대두되기까지의 국제연합의 결성과정의 일면을 보아온 것이다. 이 이외에도 일반적인 역사적인 필요한 설명은 앞으로 있을 거부권, 유엔 상비군 지역협정, 국제연합강화군(國聯強化軍) 등 이 글이 문제 삼을 일련의 UN의 반성점에 대한 설명을 돕는 범위 내에서 더욱 상세하게 논급(論及)하기로 한다.



3

오늘날 우리가 UN의 반성을 촉구하는 허다한 문제들을 논하기 앞서 간과할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점은 헌장 원문에 대한 법률적 토의의 옳고 그름은 고사하고, 1950년의 한국동란을 계기로 국제연합의 중심점에 비상한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이다. 오늘날의 총회는 지금까지 안전보장이사회만이 행사할 수 있

다고 믿었던 대부분의 권한을 인계받고 있으며, 이와 같은 총회의 능력의 원천은 실로 침략에 대항하려는 전진기지로서의 UN의 소신일지언정 결코 헌장 조문의 문구에 있는 것은 아니다. 1950년 11월 유엔 총회가 「평화를 위한 단결의 결의」(Uniting for Peace Resolution)로서 “평화의 유지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가진 기관이 그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는 총회가 국제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는데 유효한 집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헌장 제1조 목적 중 제1) 총회결의도 따지고 보면 헌장의 어느 조문에도 총회에 그와 같은 권한이 있다고 명기한 규정은 없다. 안전보장이사회의 필요한 조치가 거부권으로 인해 행동이 저지될 때 총회가 평화를 파괴한 사태를 검토하고, 침략의 사실을 결정하는 동시에 자국의 무력을 포함한 침략을 격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가맹국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조차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무의미한 것이다. 헌장 제24조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해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관한 주요한 책임」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주요한 책임이란 안전보장이사회가 전적인 책임을 갖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총회가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직체제와 가맹국 정부가 총회의 권고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무력에 대한 보증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총회의 권고의 실효성을 가맹국의 「평화를 위한 단결」의 노력과 또한 안전보장이사회 또는 총회의 요구에 따라 언제든지 자국의 무장군대를 출동시킬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연합의 직무수행 중에 있는 손해배상에 관한 원칙을 결정하는 가운데 헌장의 해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국제법에 따르면, 비록 헌장에 명백한 규정이 없다 할지라도 국제연합기구는 그 의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이 암암리에 부여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하여 소위 명시권한설(明示權限說)을 명백히 긍정함으로써 국제연합 각 기관의 권한에 대한 정밀한 해석설(解釋說)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있다. 만약 헌장이 개인의 사권(私權)을 규정하고 있는 무역협정과 같은 규약사항에 관한 기술이라면 물론 정밀한 것이다. 그러나 헌장은 법문(法文)이 틀림없으나 동시에 다수 국가 대표자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대한 소망과 온갖 이상(理想) 그리고 도의적 감정을 집약한 하나의 정치문서이기도 하다. 따라서 헌장은 이미 존재하는 세계 국가의 통치를 목적하기보다는 전 인류가 기대하는 미발달한 국가사회를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가맹 국가들이 헌장의 정신보다 자구해석(字句解釋)에만 집착한다면, 국제연

합기구는 멀지 않아 신기루와 같이 사라질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다음으로 생각할 점은 거부권 문제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수없이 논의되어왔고, 또 그것에 대한 비판이 여러 면에 걸쳐 가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논급을 피하고자 한다. 다만 여기서 특기할 사실은 거부권에 의한 국제연합의 안전보장기능의 상태를 구제하기 위한 국제연합 강화 등이 미국이 제안하여 1950년 11월 3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고 통과되었다는 사실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이제 그 중요한 점을 간단히 열거해보도록 하자. 첫째로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 행사로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 저해될 때, 총회는 병력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는 것, 둘째로는 국제연합 가맹국은 언제든지 국제연합이 명하는 임무에 한할 수 있는 병력을 각국의 국군 중에 항상 유지한다는 것, 셋째로는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당사국의 동의를 얻은 후 현지에서 분쟁에 관한 독자적인 조사를 행하고, 이것을 총회에 보고하게 할 평화감시위원회의 설치, 넷째로는 24시간의 예고로서 회의가 소집될 수 있도록 총회의 수속 규칙을 수정할 것들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부권 행사로 인한 국제연합 기능의 마비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것으로써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실 국제분쟁의 당사자인 경우에도 거부권의 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현 국제연합기구 아래에서는 총회 중심주의와 지역적 집단 안전보장으로 발전될 도리밖에 없다.

셋째로 유엔 상비군 문제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지위를 받게 될 UN 상비군은 그동안 5대국의 참모총장에 의한 군사위원회는 조직되었다. 하지만 현장 제43조에 규정하는 특별협정, 즉 가맹국이 부담할 병력, 원조, 편익 등의 문제에서 마소 양 진영의 분담 병력에 대한 기준의 견해 차이로 오늘날까지 성립을 보지 못하고 있음은 침략자를 제재할 집단안전보장기구로서의 UN의 크나큰 결함이다. 이와 같은 UN의 약점을 보완하고 안전보장이사회나 총회의 제약 없이 지역적인 집단안전보장기구로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자는, 즉 국제연합의 정신을 지역적으로 살려보자는 안이 근래에 와서 활발히 추진되고 또 실천되고 있음은 크게 주목할 일이다. 물론 이와 같은 지역주의가 국제연합의 세계주의와 병립하게 된 데는 중남미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 미국과의 관계를 빼고는 설명될 수 없다. 하지만 오늘날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의 발전은 국제연합이 바라는 대로 목적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오늘날 세계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가장 고무적

인 것이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문제 삼은 것은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의 비상군을 UN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이상으로 우리는 UN의 기구와 운영의 양면에 걸쳐 지금까지의 경과를 회고해 보고, 거기에 깔려 있는 모순과 반성점을 아울러 적절해 보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UN과 한국과의 관계를 약간 고찰해보기로 한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 괴뢰는 대한민국에 전면적인 공격을 해 왔으며, 이에 대한 UN은 그들의 무력행위를 침략행위로 규정하는 동시에 즉시 38선 이북으로의 철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와 같은 유엔 결의를 완전히 묵살하고, 마침내 중공군의 개입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마침내 UN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짓는 동시에, 1951년 5월 총회는 국제연합으로서 처음으로 국제경제제재인 중공 및 이북괴뢰 치하의 지역에 군수품목의 수출금지를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보다 앞서 1950년 10월 7일 총회는 맥아더 장군에게 민주적이며 독립된 통일정부 수립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본 바 있었다.

첫째, 전(全) 한국을 통하여 안정상태를 확보할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둘째, 주권 한국에 통일되고 독립되고 민주주의적인 정부의 수립을 위해 유엔 주재 하에 선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

셋째, 평화의 회복, 선거의 시행, 통일정부를 수립하는데 유엔 기관과 협력하기 위해 남북한국인의 모든 방면과 대표기관을 초청할 것,

그러나 이와 같은 UN의 결의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한걸음의 진전도 보지 못한 채 그 후의 휴전협정 성립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1947년 11월 14일 40 대 0, 기권 6으로 한국의 자유선거와 정부 수립을 감시하고 원조하기로 한 UN결의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실로 이와 같은 UN결의에 의해 UN 감시 하의 자유선거를 거쳐 수립된 합법적 정부이기 때문이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1948년 12월 12일의 UN 총회에서 48 대 6의 절대다수로 승인받았고, 동시에 UN은 다시 신(新)한국위원단을 파견하여 한국의 완전통일을 원조하도록 결의했다. 이와 같이 UN은 한국에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로 대한민국 정부를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한민국에 무력으로 침략한 이북괴뢰와 중공을 침략자로 규정했음

에도 불구하고, 또 통일되고 독립된 민주주의적인 정부수립을 위해 선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우리는 통일정부의 수립을 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는 앞서 말한 UN결의의 위반일 뿐 아니라 국제간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이 목적을 위해 평화에 대한 위협의 방지 및 제거와 침략행위에 대해 유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한 UN 목적의 위반이다. 우리는 UN의 이와 같은 모순되고 역설적인 자기행위에 대해 앞으로 UN 헌장에 입각한 정도(正道)적인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을 주장하는 동시에, 그 비위를 규탄하고 시정하는 방향으로 온갖 역량을 경주(傾注)해야만 할 것이다.

5

이상으로 우리는 한국과 UN을 일환으로 계기(繼起)된 지금까지의 과정을 회고해 본 동시에 그의 문제점도 몇 차례 지적해 보았다. 사실 현상이 바라는 국제정치의 유지와 신장에는 공산국가들에 의해 존중되고 이행될 도덕적 수준과 이를 강요할 수 있는 힘의 실천이 필요하다. 이것 없이는 앞으로 자유국가는 적의와 공포의 중심에서 벗어나 항구적인 평화를 건설하는데 꽤 어려울 것이다.

세계(世界)의 불안지대(不安地帶)

— 중동사태(中東事態)가 뜻하는 것 —

공진항(孔鎭恒)

소련이 중동지역에서 그 침략의 계획을 성취시키느냐의 여부는 세계의 전체 정세에 대해 앞으로 크나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우리는 중동이 인문적 지리적 또는 역사적으로 어떠한 지대임을 알아보는 동시에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중동은 아라비아 반도를 비롯해 카스피 해와 지중해 사이에 뻗어있는 광대한 지역에 살면서 대부분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셈족¹⁾을 가리키는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반 정도만 기독교 신자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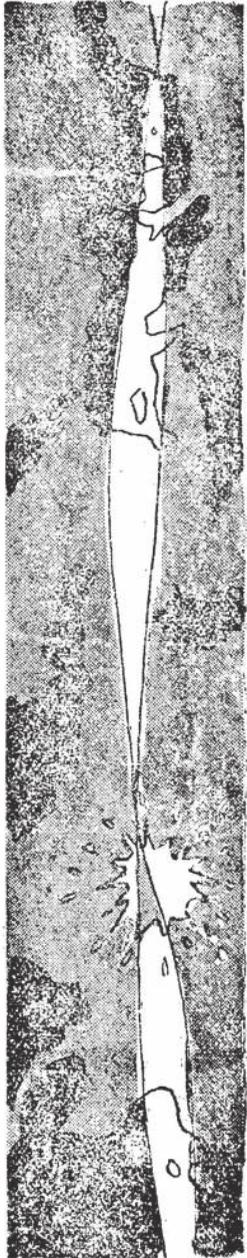
셈 종족은 고대문명의 선구자로서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을 창조한 사람들이다. 더구나 이슬람교의 창건 이후 중세에는 북 아프리카와 지중해 연안을 휩쓸던, 다시 말하면 스페인 남단에 그라나다 제국을 건설하여 과학, 예술 및 교역과 항해술로 휘날렸고,

근세에 이르기까지 오스만 제국의 무력이 그리스를 정복하며 한때 비엔나까지 위협하던 만만치 않은 문명의 창조력과 정치력을 가졌던 종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아라비아적 문명은 7세기에 마호메트가 이슬람교를 창건한 이후 종교적인 신앙과 정열로써 중동지역의 모든 문화를 이슬람화하고 모든 인민들을 이슬람화하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슬람교 문명이 바야흐로 기울어져 갈 때 서구의 새로운 세력이 치밀한 조직과 과학을 가지고 나타나 북 아프리카와 중동의 일부를 식민지화하고 시장화함으로써 최근에 이르기까지 아라비아적 세력은 시들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다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베르사이유 조약에 의해 영국(英國)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한 위임통치권을 잡았을 때 자멘호프 박사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조직체 <시오니즘>의 활약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에게 양도하기로 했는

1) Semitic



데, 이것이 자라서 오늘날 이스라엘 자유국이 탄생한 것이다.

거기에서 천여 년 동안 아라비아인에게 점령당했던 이 팔레스타인을 나라없이 세계를 방랑하던 유대인에게 돌려보낸 일은 마치 잔잔한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격의 파문을 일으켰다. 이후 이스라엘과 아라비아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반목이 일어났다. 이리하여 오랜동안의 암투의 결과로 폭발한 것이 곧 1956년 10월에 발생한 영·불·이스라엘 합작하의 수에즈 운하 침격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결국 유엔의 간섭으로 영·불·이스라엘의 모처럼의 시위가 좌절되고 말았고 이로 말미암아 영국 수상 이든이 물러나는 큰 파문을 정계에 일으켰다. 이때 새로이 등장한 인물이 이집트의 수상 나세르이며,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지 못하는 반동으로 소련이 불기 시작하여 모스크바를 큰집으로 삼게 되었다. 이외에 그는 아라비아 연맹을 조직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아라비아적 문화와 인민들을 조직하는 일을 도모했다.

소련이 서방국가와 대립해가는 중동지역에 손을 뻗친 것은 사리(事理)의 당연인 동시에 민중의 세력을 조장하여 기성 정권을 전복하는 행동을 고취시켰다. 이런 사태의 표현이 곧 레바논 혁명사건이며, 이란 왕국의 왕권 전복운동이었다. 그러나 영·미는 요르단을 포함한 이들 지역의 유전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이들 지역의 공산화에 대한 위험성을 간파했기 때문에 지난 번 미군은 레바논에, 영국군은 요르단에 각각 상륙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미·영의 중동지역에 대한 대담한 군사적 행동은 제2차 세계대전의 휴전 이후로 처음 있는 사건이었다. 반면에 소련은 그 쾌거를 하염없이 쳐다볼 뿐이었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외교적 실책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영은 유엔의 명령 아래 언제든지 이 지역으로부터 병력을 철수시켜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물자 원조와 기타 조치를 통해 중동의 공산화를 막으려고 애쓸 것이다. 미국이 물자원조와 현실주의로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전부 성공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중동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는 커다란 의문이다. 동시에 아라비아 국가들이 서구문명에 귀의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종교신봉의 정열이 강렬한 이 종족들이 무신주의(無神主義) 공산세력에 그렇게 쉽사리 복종할지도 미지수다.

타오르는 사막의 작열과 오아시스의 그늘을 찾아가는 낙타 위의 아라비아인에게 계급의식이나 자본주의의 중요감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들은 오직 한 주먹의 떡과 내세에 대한 영생의 신념을 추구할 따름이다. 더구나 1953년 스탈린 사후로 오늘날 후르시초프를 중심으로 세력의 암투가 그치지 않는 이때, 또 헝가리 혁명과 폴란드의 반공의거 이후로 위성국가들의 민심을 수습하기에 여념이 없는 이때, 공산 지도자는 중동을 공산화하고 다음에 아프리카를 공산화하는 위업을 달성하기에는 이미 탄력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레바논의 미군 상륙과 아울러 소련의 당황하고 무능한 태도가 이를 충분히 증명해준다.

중동은 큰 별 티키가 소련과 접경하여 가로질러 있고, 그 인민은 어디까지나 종교적인 만큼 쉽사리 공산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세기적으로 내려오는 서구에 대한 악감정 때문에 쉽게 미·영에 굽히지 않은 채 자주적인 태도로 그럭저럭 나아가리라고 본다. 앞으로 미국이 단지 물자원조를 떠나서 사상 또는 교육, 선전으로 이 지역에 침투해간다면 장래의 귀추(歸趨)는 달라질 것이다. (끝)

대만사태(臺灣事態)의 전망(展望)

—중공(中共)의 무력행사포기(武力行使拋棄)가 긴급(緊急)—

김광섭(金光涉)

9월 4일—중공군이 마조도(馬祖島)[마주다오], 금문도(金文島)[진먼다오]를 맹렬히 포격하기 시작한 지 열사흘째 되는 날—중공 괴뢰정권은 영해에 관한 새로운 결정을 다음과 같은 성명(聲明)을 발표했다.

1. 중공의 영해는 12마일까지 확장되며 이 규정은 중공에 속하는 모든 영토에 적용된다.
2. 어떠한 외국의 군용선박이나 어떠한 외국 항공기도 중공의 허가 없이 중국 영해 또는 영공을 침입해서는 안 된다.
3. 어떠한 외국 선박이든지 중국 영해를 항해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제정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4. 전항(前項)의 규정은 대만 및 팽호열도(澎湖列島)[펑후다오]에 적용된다. 대만과 팽호 지역은 아직 미군에게 점령되고 있다. 이것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보전과 주권에 대한 불법 침해이다. 대만, 팽호도 및 기타 이와 같은 지역은 아직 수복되지 못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은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이들 지역을 수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대만 및 그 밖의 점령당한 모든 지역의 수복문제는 외국의 개입이 허용될 수 없는 중국 국내 문제이다.

중공 정권은 미국 정부가 미·중 상호방위조약으로 말미암아 자유중국의 방위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일련의 고위층회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상과 같이 발표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대만해협에 제7함대를 파견하고 대만의 중립을 선언하였다. 이듬해인 1951년에는 체이스 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미국 군사고문단이 대만에 파견되었고, 1953년 2월에는 대만 중립화의 해제가 발표되었다.

그러나 그해 7월에 한국전쟁이 휴전되고, 이듬해는 인도차이나 전쟁이 종결되

자 중공은 자유중국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연안도서(沿岸島嶼)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개시했다. 이로 말미암아 자유중국 대만이 침략의 위협을 받게 되자 미국과 자유중국은 1954년 12월 2일 워싱턴에서 미·중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55년 3월에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은 자유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지역을 방해(防海)할 것이냐 하는 방해지역 범위가 때때로 논란이 되었다. 미국 정부는 대만과 평호열도만을 방위할 것이라는 공식적인 표명을 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대만과 평호열도 방위, 다시 말하면 안전보장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고려할 여지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1949년 중공이 본토 연안에 있는 자유중국 산하의 섬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이래 1955년 1월에는 중공의 치열한 공격도 있었다. 그런데 자유중국은 강산도(江山島)[장산다오]와 대진열도(大陳列島)[다천레다오]가 대만 본토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본토 수복의 전진기지로서는 부적당하다는 결정 아래 포기하고 만 일이 있었다. 그리하여 대륙 연안에 있는 자유중국 장악 하의 도서로서는 마조도와 대금문도, 소금문도 및 그 주변에 산재해 있는 작은 섬들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래도 중공은 항상 대만을 해방시키고야 말겠다는 결의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호언하는가 하면, 또 수시로 금문도와 마조도에 포격을 가했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은 대만해협에서 언제 어느 때 위급한 사태가 돌발할는지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고려하여 의회에 대해 미군의 출병권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같은 요청을 심의한 미국의회는 1955년 대만해협에 대한 출병권을 대통령에게 승인하였다. 출병 권한을 부여받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번에 발생한 대만해협의 긴장사태에 처해서도 과연 금문도와 마조도에 대한 중공의 공격이 금문·마조도에 상륙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대만 본토를 공격할 전주곡이냐 하는 중공의 계략을 검토하는 일련의 고위 군정회담(軍政會談)을 가지고 있을 때 중공은 그의 영해를 12마일로 확장한다는 선언을 발표했다. 그러나 거의 이와 때를 같이하여 미 국무장관 딜레스 씨는 “대만의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인정될 때에는 자유중국의 본토 연안에 있는 여러 도서들을 방위하기 위해 지체 없이 미군을 투입하겠다.”고 중공에 대해 경고하였다. 딜레스 국무장관은 자기 이름을 발표하는 같은 성명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위

싱턴에서 미 합동참모본부 고급 장성들로부터 대만해협의 긴장상태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청취한 다음 로드 아일랜드 주 뉴포트의 하계 백악관에서 머물고 있는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더불어 1시간 45분 동안이란 장시간의 협의가 있는 다음 발표된 딜레스 성명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결정임에 틀림없다. 딜레스 장관은 그의 성명을 통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금문도·마조도 그리고 그 밖의 연안 도서에 대한 공격이 자유중국의 본토인 대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단언하는 데 서슴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딜레스 씨는 “대통령과 나는 중공 정권이 한국에서 저질렀던 바와 같이 세계질서의 밑받침이 되는 기본원칙을 또다시 무시하지 않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 다시 말하면 영토적 야욕을 달성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키지 말라는 것이다.”라고 충고했다. 대만해협에서 중공군이 군사적인 침략행위를 감행함으로써 일어난 긴급사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초의 태도를 명백히 이해하기 위해서 같은 성명의 주요한 골자를 뽑아보면 이렇하다.

1. 대만이나 금문도 및 마조도는 결코 중공의 관할을 받은 적이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13년여 동안 이 지역들은 중화민국인 자유중국의 권한 아래 있었다.
2. 미국은 자유중국과의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대만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의무를 지고 있으며 대통령은 미국의회의 상하 양원 합동결의안에 의해 금문도 및 마조도와 같은 관련 지점의 확보 및 보호를 위해서 미국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주: 민주당 웨인 모스 의원은 이견)
3. 앞서 말한 3개 지역이나 또는 이중 하나라도 점령하려는 중공의 어떠한 기도도, 세계의 질서가 입각하고 있는 바 어떠한 나라도 새로운 영토를 빼앗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원칙을 위반하게 될 것이다.
4. 중공군은 약 2주일간에 걸쳐서 금문도에 치열한 포격을 가하고 있으며, 포격 및 소형 해군 선박들을 사용함으로써 민간인, 군인을 합해서 총 약 20만 5천 명이 거주하고 있는 금문도에 대한 정기적인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 북경의 관영방송은 군사사전에 의한 그들의 목적은 대만과 금문도 및 마조도의 무력해방이라고 여러 차례 발표하고 있다.
5. 중공군의 호인장담과 그들의 오늘까지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진의

가 대만 및 연안 도서의 무력해방을 위한 전면적 공격을 개시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또한 미국의 실질적인 병참원조(兵站援助)를 받고 있는 자유중국군이 과감하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방위적인 반격으로 오늘까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중공군의 이러한 공세를 저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도 아직 확연하지 않다.

딜레스 장관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위촉을 받아 극동에서의 무력행사로 일어난 이러한 사태는 자유세계의 입장과 미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하리라는 것을 지적하고, 미국이 묵묵히 중공의 처사에 따르기만 한다면 세계 도처에서 평화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중공이 그의 영해를 몇 마일로 인정하고 있었는지는 몰라도 12마일로 확장한다는 것은 지난 봄 제네바에서 열렸던 국제해양법회담에서 소련이 주장한 12마일 영해설을 따른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금문도와 마조도를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영해 범위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선언한 것은 금문도와 마조도 및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작은 섬들이 자기들의 영해 안에 위치하고 있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대만해협에 진출해 있는 미 해군 제7함대의 활동을 견제하려는 데 그 주목적이 있음은 명백한 일이라 하겠다. 중공이 그들의 영해를 12마일로 확장한다는 선언을 발표할 때까지는 아직 미국이 대만 사태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려고 검토하고 있을 때이다. 중공은 그들의 영해 한계를 설정하여 미국정부의 정책 수립에 압력을 가하려는 배짱이었던 모양이다. 그래서 1955년에 자유중국이 일강산도(一江山島)와 대진열도를 포기했던 것처럼, 그러한 조치를 또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중공의 영해 한계를 12마일로 확장한다는 선언이 발표된 다음날, 미국 정부는 딜레스 국무장관의 성명을 통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만 팽호도는 물론 대만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중국의 금문·마조도 공격도 방어해야 할 책무를 갖고 있음을 천명했던 것이다.

미 국무성 대변인 조셉 S. 리프 씨는 “미국은 12마일 영해한계선을 인정한 적이 절대로 없다.”고 미국 정부의 공식 태도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제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 시대부터 영해를 3마일로 인정한 이래 오늘날까지 이를 견지해 왔다. 현재도 소련, 인도네시아, 아이슬란드 같은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

든 나라가 3마일 영해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제 관례로 되어 있다. 지난 4월 제네바에서 열렸던 국제연합 해양법제정의회에서도 3마일설, 6마일설, 12마일설 등 이론(異論)이 많아 결국 미국도 각종 한계를 내세우는 여러 나라 대표들의 주장을 절충하는 타협안으로서 “6마일의 영해한계와 독점적인 어로권(漁撈權)을 행사할 수 있는 부가적인 6마일의 어로선”을 제안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소련의 반대로 말미암아 채택되지 못함으로써 영해의 한계는 최종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기는 했으나 그것은 국제법 관례상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공의 12마일 영해 주장은 아무런 합법적 근거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선전으로밖에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면 어째서 중공이 그의 영해를 12마일로 확장한다는 것을 선언했을까.

금문도·마조도 및 그 부근 도서들은 중국 본토에서 불과 2마일 내지 8마일 지역에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마조도는 본토 연안과 평행으로 12마일에 걸쳐 복주(福州) 앞바다를 가로막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중국이 본토를 수복(收復)하는 군사작전을 전개할 때는 자유중국의 전진기지로서 유리한 군사지대가 된다. 이번에 중공이 포격을 집중시킨 대소 금문도에는 주민이 약 4만, 수비군대가 약 4만5천을 헤아리고 있는 곳인데, 8월 23일 중공군이 포격을 개시한 이래 9월 5일 현재 14만5천 발가량의 포탄이 이 지역에 투하되었고 군과 민간 사상자도 8백여 명을 헤아릴 정도로 치열했다.

이렇게 자유중국으로서도 어느 모로 보나 빼앗겨서는 안 될 이 지역 모든 도서에 대해 중공은 12마일 영해를 주장함으로써 미군의 개입을 견제하고 같은 도서를 포위하는 작전을 유리하게 전개하려는 데 그 근본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중공군이 이번에 금문도와 마조도에 대해서 적극적인 군사적 행동을 취하는 것이 같은 도서와 함께 대만, 팽호열도를 탈취하려는 계획인지, 아니면 그러한 맹렬한 공격을 가함으로써 미국과 자유중국이 같은 도서를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것인지 아직도 중공정권의 포격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곤란한 처지다.

중동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앞서 개최되었던 유엔 긴급 총회에 출석한 그로미코 소련 외상은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문제에 관해서 “중국정부가 이번 긴급총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것은 소련 정부의 신념이다. 우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유

엔에서 정당한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은 소련이 과거에도 총회가 있을 때마다 중공에 유엔 가입을 노력해 왔지만 제13회 유엔총회를 앞두고 항례(恒例)의 선전공작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또 중공이 예년에도 유엔총회를 전후해서 금문도, 마조도를 공격한 일이 있던 사례로 볼 때 이번 중공의 포격작전도 중공이 유엔 가입을 위해 미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공이 한국전쟁에서 유엔으로부터 침략자의 낙인을 받은 이상 중공 자신이 낙인을 씻을 수 있는 일을 행동으로 실증하기 전에는 중공의 유엔 가입을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제13회 유엔총회를 앞두고 그의 예방선으로서 8월 11일에 중공의 유엔 가입 거부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미국이 중공의 유엔 가입을 거부하는 미국정부의 태도를 거듭 성명하는가 하면, 중공이 선언한 12마일 영해 주장도 묵살할 뿐 아니라 과거 대만과 팽호열도를 방위하겠다는 방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공이 탈취하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금문도, 마조도도 미국이 자유중국과 함께 방위하겠다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결의를 확인한 중공은 또 하나의 새로운 제의를 했다. 딜레스 국무장관이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장시간 회담한 후 미국이 금문도와 마조도의 본토 연안 도서를 중공의 침공으로부터 방위하겠다는 성명이 나온 다음날인 6일, 중공은 포격을 중지하는 동시에 주은래(周恩來)[저우언라이] 중공정권 수상이 “대만 해협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 미국과 중공의 대사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주은래가 1955년 봄 반등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아프리카 회의에서 대만 해협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더불어 회담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이래 그해 8월 1일부터 미·중공 대사급 회담이 개최되었다. 알렉시스 존슨 당시의 주체코슬로바키아 대사가 미국을 대표했고 옥병남(玉炳南) 위빙난 주핀란드 대사가 중공을 대표하여 금년 봄까지 무려 2년 반 동안 80여 차례의 회담을 지속했다. 이 미·중공 대사 회담은 중공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의 송환문제와 대만해협에서의 무력행사 포기문제를 의제로 결정하고, 80여 차례의 회담을 진행하는 도중 중공이 억류하고 있던 미국인의 일부가 송환되었을 뿐이며, 양측이 송환하도록 합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 일부를 중공은 아직도 억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대만해협에서의 무력행사 포기문제는 양 대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미국과 중공은 무력행사를 부인한다는 것에만 합의를 보았다고 했다. 중대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중공이 1955년 12월 1일에 제출한 최종적인 원안에서 “중공과 미국은 두 개의 중국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력행사에 호소하지 않고 평화적인 협상으로 해결할 것을 결의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미국은 대안으로서 1956년 1월 12일 “미국과 중공은 평화적인 협상의 해결을 도모하며 대만지구에서 무력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한다.”라는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중공은 대만이라고 명기하기를 거부했으며 이 대목이야말로 미·중공회담의 핵심이다.

이렇게 대립된 가운데 교착상태를 지속하고 있던 미·중공 회담은 미국이 알렉시스 존슨 대사를 지난 봄 인도네시아 주재로 임명한 이래 미국은 대사급 이하의 외교관 회담을 제의했다. 이때 중공은 회담의 하급(下級)화를 반대하고 새로운 미국 대사를 임명하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7월 28일 델레스 미국무장관은 무력행사 부인에 관한 일련의 새로운 회담을 바르샤바에서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중공은 지금까지 델레스 제의에 대해 일언반구의 반응도 보이지 않다가 9월 6일 자기의 새로운 제의인 것처럼 미·중공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다.

이로써 중공의 무력침략 행동은 그 고비를 넘긴 것 같이 생각된다. 하지만 앞으로 개최될 유엔총회를 통해 또 미·중공회담을 통해서 대만의 해방을 주장하고, 유엔에서의 중국대표권을 계속해서 주장하리라고 보인다. 대만해협의 긴장상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환영받고 있는, 미국의 태도가 변함이 없고 또 중공이 대만 및 연안도서를 무력으로 탈취하려는 침략행위를 계속하는 한 아무런 기대도 걸 수 없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9월 8일)

핵실험중지(核實驗中止)와 유도탄(誘導彈)의 장래(將來)

—평화(平和), 군사(軍事) 양면(兩面)에 공헌(貢獻)될 것인가?—

고정훈(高貞勳)

핵무기 및 열핵무기의 실험을 항구적으로 금지하게 되기까지는 아직도 수년의 시일과 허다한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에 제네바에서 열리는 핵무기실험금지회의가 어느 정도로 실질적인 성과를 올리게 될는지 예측하기 곤란하거나 지난번 제네바 기술자회의가 관련국 정부에 건의하기로 채택한 감시안에는 핵무기 보유 국가들이 단시일 내에 실천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원자과학자들이 채택한 감시안의 개요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제 미, 영 양국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이 건의안 전문을 추려보면 대강 다음과 같다.

<감시(監視)를 위(爲)한 건의안(建議案)의 요점(要點)>

동서 양 진영을 대표한 원자과학자들이 7, 8월 두 달에 걸쳐 제네바에서 토의한 결과 채택한 건의안은 180개소 내지 170개소의 육상감시소를 설치할 것과 10척의 감시선을 해상에 배치할 것을 그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160 내지 170개소의 육상 감시소 가운데서 110개소는 대륙에 배치하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북미 대륙 = 24개소

유럽 대륙 = 6개소

아시아 대륙 = 37개소

오스트레일리아 = 7개소

남미 대륙 = 16개소

아프리카 대륙 = 16개소

남극지대 = 4개소

그리고 여타의 50 내지 60개소는 도서(島嶼)에 배치되기로 결정되었다.

감시기관은 공중에 살포된 원자회(原子灰) 기타 증거물을 수집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고려해서 이 건의안은

(1) 공중에서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 사용될 항공기는 원자회를 실은 기류가 위치하고 있는 해당국가 소속 항공기라야 한다. 그러나 미, 영, 소 기타 감시권을 가진 국가의 대표는 감시원의 자격으로 앞서 말한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2) 진위가 확실하지 않지만 핵무기실험을 의심케 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국제감시기관이 감시반을 해당지구에 파견하여 진상을 조사케 한다.”

고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각 감시소에 배치될 인원은 30명 내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 보조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감시소의 과학적 성능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을 보면

(1) 지상 10킬로미터 이내의 공중에서 실험되는 1킬로톤 이상의 핵무기에 관해서는 완전한 가시가 가능하나 지상 10킬로미터 이상으로부터 50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도에서 실험될 경우에는 감시가 불완전할 가능성이 크다.

(2) 대양일 경우에는 1킬로톤 이상의 핵무기가 해저에서 실험되는 것을 거의 완전히 감시할 수 있다.

(3) 대륙일 경우에는 1킬로톤 이상의 핵무기가 지상에서 실험되는 것을 거의 완전히 감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감시소가 보유한 과학적 성능의 한계에 관해서 건의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극히 교묘한 계획 하에 지하에서 실험되는 핵무기 폭발은 지진과 혼동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실험을 탐지함

에 있어서 감시소는 많은 과학적 제한을 갖게 될 것이다.

(2) 지상 30킬로미터로부터 50킬로미터에 달하는 고도에서 실험될 경우에도 현 감시 성능은 많은 제한을 받게 될 것이며, 인공위성의 사용, 전이층 현상의 기록 등에 의한 탐지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감시소와 거리가 먼바다 한가운데 또는 진앙점(震央點)부근 먼 바다 한가운데에서 실험되는 것을 탐지함에도 이점이 많을 것이지만 폭발된 현장이 알려지기만 하면 진상조사는 비교적 간단할 것이라고 한다.

이 외에 감시소가 적용하게 될 탐지방법에 관해서는 4개 기본 요령이 채택되고 있는데 첫째로 음파를 탐지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원래 핵무기가 공중에서 폭발할 때에는 강렬한 음파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음파는 원거리에서도 용이하게 탐지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음파탐지기로서 1킬로톤 이상의 핵무기 실험은 완전히 탐지할 수 있으며, 3개 감시소의 보고를 종합하면 실험지점을 용이하게 지적할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 핵무기가 수중에서 폭발할 때에도 강렬한 수중음파를 발생시키는데 작은 핵무기의 경우라도 그 수중음파는 1만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원자회를 실험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공중에서 폭발하는 핵무기는 방사능을 가진 재를 저공(低空)에 살포하는데, 항공기로 수집된 원자회를 실험하면 거의 정확한 폭발지점과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고 한다.

셋째로 진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의한 것인데 지하 및 해저에서 폭발하는 핵무기는 원거리에서 탐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진동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넷째로 라디오 전파를 감시하는 방법이 채택되고 있다. 대기권에서 폭발하는 핵무기는 감마 래디에이션의 결과로 강렬한 전파를 발생시킨다고 한다. 핵무기를 특별하게 포장함으로써 전파의 발생을 제한할 수 있으나, 감시소의 증설 및 여러 감시소의 종합탐지 등으로 핵무기 폭발은 뇌광(雷光), 기타 자연현상과 식별될 수 있을 것이며 지목된 폭발지점에서의 현장조사는 진상을 쉽게 파악할 것이라고 한다.

<실험금지(實驗禁止)가 실현(實現)될 때까지의 곡절(曲折)>

대개 상술한 바와 같은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무기실험금지감시안의 골자다.

그런데 상기 감시안에는 감시소 내지 감시기관을 운영할 책임자 또는 그 인원 구성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러한 규정은 정치적 고려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관계국 정부가 임명하는 외교대표회담에서 토의될 성질의 것이라는 해석을 취한 것이 기술자들의 태도였다. 그러므로 10월 말부터 제네바에서 개최될 관계국 대표자회의는 기술자들이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간과한 문

1) Gamma Radiation

제들을 토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문제의 토의는 필히 많은 국제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며 동서 양 진영이 각각 10월 말부터 열리는 회의를 선전무대로 이용할 우려가 다분하다.

원래 기술자회의가 열리게 된 경위도 소련의 역(逆)선전을 봉쇄하기 위한 시도에서 나온 면이 더욱 강했던 반면에, 진지하게 토의할 의도에서 합의된 면이 매우 약했던 것이 사실이다. 소련의 역선전은 7월 1일 제네바 기술자회의가 실제로 열리는 바로 3일 전까지 계속되었고, 공산 측 대표가 이 회의에 참석할 것인지의 여부가 6월 25, 26일경까지도 확실치 않았었다. 소련의 선전은 제네바 기술자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미영 양국이 핵무기실험을 일단 중지해야 한다고 고집했던 것이다. 주지된 바와 같이 소련은 금년도에 필요했던 핵무기 실험을 전부 완료한 후인 지난 3월 일반적으로 핵실험 중지를 선언했다.

지난번 제네바 기술자회의가 개최되기까지의 경위도 상술한 바와 같으며, 이 회의에서의 전망도 처음에는 암담했다. 대체로 이 회의가 어떠한 합의에 도달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다. 소련은 처음부터 감시제도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 왔었고, 소련영토 내에 감시반을 설치하는 안에 대해서는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해왔었다.

그러므로 과학자들이 순전한 기술적 고려에서 건의안에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건의사항을 이번 의회에서 공산 측이 곧 수락할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내에서도 찬반의 의견대립이 심하여 국방성과 원자력 위원회는 처음부터 공산 측과 협정체결을 반대해왔고 현재도 그렇다고 한다. 국방관계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기관이 소련의 약속을 불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반대파가 특히 중시하는 점은 전반적인 군축(軍縮)이 실시되지 않는 한 핵무기실험의 금지는 군사적으로 소련에게 유리하고 미국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에 있다고 한다. 소련의 일반 병력 및 재래식 화력(火力)의 보유량은 미국에 견줄 바가 아니다. 미국이 공산 측의 인해전술 및 일반 화력에 대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 측의 전력을 능가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이유는 핵무기 발전 및 핵 화력의 보유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반적인 군축이 실시되지 않고 다만 핵무기 발전만 제지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미 국방성이나 원자력위원회가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상 말한 바에 비추어 핵무기 실험 금지 문제는 껍데기와 그릇의 도면이 작성

되었을 뿐이고, 이 도면의 청사진이 되고 필요한 형태를 갖춘 후 그 내용을 알차게 하려면 아직도 장구한 시일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유도탄경쟁(誘導彈競爭)의 전망(展望)>

원자탄이나 수소탄(水素彈)을 비롯한 각종 핵무기의 제한이란 문제가 상식적이고 항례(恒例)적인 군축문제 논의의 범위를 넘어선 가장 큰 이유는 유도탄의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원자무기나 수소무기의 천문학적 인 파괴력이 인류에게 준 충격 또는 핵무기 실험이 초래한 방사능 원자회(灰)의 해독 등이 군축문제 토의의 성격을 달리하게 만드는 동시에 핵무기 실험 금지를 논의하도록 자극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리고 핵무기 실험중지 논의와 관련해서 이러한 일면이 중시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단지 천문학적인 파괴력이나 방사능 원자회의 해독만으로는 인류의 위기감을 그렇게까지 절실한 것으로 만들거나 핵무기 보유 국가의 과학자가 핵무기 실험의 금지를 그토록 진지하게 논의하도록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천문학적인 파괴력은 원자력의 평화적 사용을 통해 인류의 위기감을 조성하는 원인으로부터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는 원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으며, 방사능에 관한 문제는 '깨끗한 폭탄'이라고 불리는 전술용 핵무기의 발전으로 점차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 수소 핵폭탄의 발전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폭탄을 목표로 투하하는 방법이 기존처럼 비행기로 운반하는 것이라면, 근대전의 양상은 2차 대전 말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국가의 핵심적 문제는 로켓의 발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즉 폭탄을 '보다 더 빨리 그리고 보다 더 멀리 운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종적인 결정권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련이 인공위성 제1호, 제2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한 의의는 자못 큰 것이다. 그리고 '스푸트니크'가 인류에게 준 충격은 실로 대단했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된 후 120일 만에 미국도 '익스플로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리하여 동서 양 진영은 '인류의 최종무기'라고 불리는 유도탄 시대에서 경쟁하게 되었다.

로켓의 원리는 지극히 간단하다. "야구 시합에서 '피쳐'가 볼을 던지듯이 어떠한 물체를 어떠한 목표에 던지는 것"이다.

만일 어떠한 물체를 시속 1만5천 마일의 속도로 던질 수 있다면 대륙횡단 유

도탄의 로켓이 되는 것이다. 'ICBM'이란 약자로 알려진 대륙항단 탄도유도탄은 1만5천 마일 시속으로 던져진 물체가 지구인력에 의해서 지상에 낙하될 때까지 대륙이나 대서양을 횡단하게 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이다. 그런데 물체가 1만8천 마일 시속으로 던져지면 이 물체는 대륙이나 태평양을 횡단할 뿐만 아니라 지구를 일주하고 대기권 밖으로 나간다. 대기권 밖에서는 공기의 압력이 거의 전무하니 이 물체는 지구인력의 작용만으로 낙하하기 마련이다. 이 물체의 원심추진력이 지구인력과 균형을 맞추게 되면 이 물체는 궤도 위에서 위성속도를 갖게 된다.

그리고 근래에는 달나라에 발사되는 로켓을 시험하고 있다. 달나라에 도착하자면 지구인력권(地球引力圈)을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지구인력권을 벗어나게 하려면 2만5천 마일 시속으로 물체가 발사되어야 한다.

원자탄이나 수소탄이 시속 1만5천 마일의 로켓으로 발사된다면 과거에 항공기가 폭탄을 운반하던 시대와 어떤 차이가 나타날 것인가는 상상하기 쉽다. '스위치'를 넣기만 하면 원자탄, 수소탄을 폭대기에 실은 '로켓'이 지구상 가장 먼 목표로 순식간에 날아간다. 따라서 로켓을 최종무기라고 부르는 것이 조금도 무리가 아니다.

원래 로켓의 발전, 그 자체는 제한될 이유가 없다. 원자탄이나 수소탄을 탄두로 장치하는 대신 인공위성 또는 천체여행선 등을 발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면 로켓은 발전될수록 환영할 만하다.

그런데 유도탄의 탄두라고 불리는 폭탄장치에 관한 문제에는 소위 리엔트리(대기권으로의 재진입)²⁾라는 중대한 난관이 있다. 즉 대기권 밖으로 나갔던 폭탄이 다시 대기권으로 낙하할 경우 그 포장에 공기의 마찰로 연소되기 마련인데, 이 난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항공기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기존의 로켓 장치로 발사하는 경우와 그 성격을 달리하는 이 리엔트리 문제는 야금학(冶金學)과 이에 따르는 모든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을 요구한다. 미국은 얼마 전에 리엔트리 실험에서 성공했다고 발표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국민에게 그 표본을 공개한 적이 있다. 그 표본은 수백 마일까지 상승했다가 다시 대기권을 무사히 낙하하여 지정된 바다 한가운데로 귀착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탄두의 귀착문제가 해결된 것이 사실이라면 시속 1만5천 마일 속도로

2) Re-entry

원자탄이나 수소탄이 발사될 단계에 돌입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최소한 인공 위성을 다시 지구상으로 귀환하게 하는 문제의 하나가 해결된 셈이다.

이렇게 유도탄 부분의 로켓이나 리엔트리 등 모든 문제는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발전이 바로 군사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 전환될 것이다. 마치 항공기나 선박의 발전이 평화, 군사 양면에 동시적으로 공헌하듯이 로켓이나 리엔트리 문제도 그렇다.

따라서 우주여행이라는 학술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을 위한 로켓 부분의 발전은 바로 그만큼 큰 비중의 군사적 의의를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평화 목적을 위한 연구, 실험, 발전을 제한할 이유는 없는 만큼 로켓의 발전은 그대로 계속될 것이며, 유도탄을 제외한 다른 부분의 실험은 핵무기 실험 금지와 관계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저자(著者)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논설위원(論說委員)>

원자식(原子式) 우주(宇宙) '로켓'

미(美) 금년 가을(今秋)에 실험예정(實驗豫定)

미국은 원자력 추진식 우주 로켓 및 비행기 제조를 위한 실험을 금년 가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 미국 과학자가 12일 보고했다.

이 실험은 로켓과 비행기에 장치될 가능성이 농후한 소원자로(小原子爐)로서 행해질 것이라고 캘리포니아 대학의 H. L. 레이놀즈 박사는 말했다. 소원자로는 직경 1피트 미만의 우라늄 핵으로 제조되고 있다고 박사는 원자력 평화회의에서 말했다.

다음 단계는 원자로에서 더 많은 전력을 발생케 하는 일이며 이것은 '로켓' 추진에 필요한 수소 또는 다른 가스에 가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레이놀즈 박사는 말했다. 이것의 실험은 '로스 알라모스' 과학실험소에서 제작된 원자로로, 금년 가을 네바다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리버모어의 방사능실험소에서 제작된 원자로에 의한 다른 실험들도 '머지않아' 실시될 예정이다.

이 연구들은 로켓 비행기에 추진력을 제공할 램제트¹⁾ 기류 및 선박에 사용할 원자로에 관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레이놀즈 박사가 선언했다.

1) Ramjet

전략론(戰力論) 완결(完)

(군비(軍備)를 중심(中心)으로 한

몇 가지 기본적 사고관(基本的思考觀)에 대(對)한 시비(是非)

공군대령(空軍大領) 이경춘(李慶春)

제4장(第四章) 군비(軍備)와 경제(經濟)의 균형성(均衡性) 문제(問題)

군비를 구성 면에서 분류한다면 인적 및 물적인 두 종류로 고찰할 수 있다. 물적인 면이라는 것은 군대가 사용하는 물적 수단을 의미하며, 이용 가능한 자원 생산력, 재정부담력, 과학기술의 발달, 즉 국가 경제의 제반요인에 의해 제약되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 군비가 경제적 요소에 제약을 받는다면 전쟁도 분명히 경제적 요소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전쟁상태 혹은 전쟁규모의 변화는 실로 이 경제적 발전에 수반하여 변천된 것이며, 또 전쟁수단·전쟁기술의 변천 역시 경제변화의 반영인 것이다.

국민경제가 전쟁으로 진출한 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한층 결정적으로 되었다. 객관적 조건이나 주관적 조건에서도 국가나 국민의 경제적 운명은 즉각 생존의 운명으로 융합되어, 필연적으로 불가피한 전쟁은 무제한적인 성격을 발현하였다. 이처럼 현대전의 전쟁수단이 섬멸성(殲滅性), 기동성을 주로 하며, 광대한 전선에서의 거대한 장기 소모전을 뚜렷이 보이고, 무력전이 그대로 생산전(生産戰), 보급전(補給戰)으로 전화되었다. 과거와 같이 경제 전쟁에 대한 부분적 봉사 내지는 협력이라는 관계는 총력전으로 변하여 그 모든 활동력을 전쟁 수행력으로 바꾸어놓았다. 재정·금융·자원·공업·산업·무역·교통·운수 등 경제의 모든 활동은 종합 전력화되어 국민의 소비생활마저 전쟁수행의 일부를 분담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전쟁양상 하에서 전쟁과 경제의 상관성이 이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 국민의 대부분이 그 불가분의 관련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전란을 체험한 국민이면서도 현존하는 무력, 즉 군대만 있으면 전쟁이 2년 혹은 3년 자동적으로 계속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단순히 전쟁의 파괴성에서 오는 영향만을 받는 듯한 관념을 갖고 있다.

그것은 한국 국가경제가 힘이 없어 모든 것들을 군사원조와 경제원조에 의존했다는 특이한 조건 때문이기도 하다.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국가가 현존하는 군비를 보유하면 언제든지 전쟁은 가능하다는 착각과 환상을 가지게 된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고를 기초로 현대식 군비와 국가 경제력을 숙고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국가경제는 고도의 국방경제체제로 편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대 군비는 특징상 막대한 재정적 규모를 필요로 하며, 또한 고도의 과학기술을 요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보유한 국가 경제력과 기술로서는 현대의 군비를 독립적인 견지에서 논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미국이 원폭 완성에 지출한 연구비는 20억 달러이며, 이에 더해 간접비(間接費)는 그 이상으로 막대하고, 유도탄 연구에 5년간에 4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으며, 전자병기 연구에는 20억 달러 이상을 사용했다고 한다.

한국군이 과거에 유일한 전투기로 사용한 F-51 1대에 5만 달러였으나, F-86 전투기는 25만 달러가 되었고, 또 이것도 점차 시대적인 유물로 변할 운명에 있으며, 이에 대처해야 할 F-100, F-102, F-104형은 65~70만 달러, B-52는 8백만 달러에 달한다. 이와 같은 고가의 현대무기는 그 성능의 발달로 불과 3, 4년도 못 되어 폐품화한다는 현실을 보더라도 경제적 능력의 중대한 연관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근대 군비의 정비를 위한 자재·기술·생산·설비 등을 고찰한다면 최신기 1대에 소요되는 전선의 길이는 전투기에 10여 km, 폭격기는 60km 이상이며, 중량당 1톤에 소요되는 m/h는 B-29가 6천9백 시간, B-47이 5천8백 시간으로 1대를 완성하려면 총 3백4십6만4천 시간이 소요된다. 초음속 제트기 생산을 위해서는 7만5천 톤급의 '프레스' 1대 75달러와, 5만 톤급 1대, 3만5천 톤급 3대, 2만5천 톤급 4대가 필요하며, 또 중형폭격기 1대 제작에 소요되는 공구는 6만 개이다. 1만 5천 개의 볼트 공(孔)은 5천 분의 1부터 5만 분의 일이라는 오차 내에서의 정밀도와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이와 같은 간단한 예를 보더라도 현대식 군비의 수행은 광역의 자원적 기초와 방대하고 고도화된 생산기구, 끊임없이 총력적인 노력, 과학기술의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강대한 국가에서도 정치활동의 과반을 넘는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경제적 능력을 살펴보면, 국가경제의 주간인 농업에서도 매년 200만 석 이상의 쌀을 수입하여 국민의 식량을 해결하며, 공업에서는 중공업은 말할 것도 없고 공업 중에서 가장 발달된 섬유공업에서도 그에 소요되는 원면의 95퍼센트 이상은 수입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재정 규모를 통한 국제경제의 능력을 보면, 90년도¹⁾ 예산에서 정부 예산 총규모 중 불과 30퍼센트만이 국가재원에 의한 부담이며, 기타 70퍼센트는 외국 원조에 의존하고 있다. 국가세출의 54퍼센트인 국방비 중 국내재원 부담은 20퍼센트뿐이며, 그밖에는 모두 외국 원조에 의존하여 현 병력을 정상시의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간단한 몇 가지 예만 보더라도 한국의 국가경제력이 현대식 군비를 논하기에 얼마나 영세한가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능력 정도로 아무리 충동원하더라도 현대전쟁의 거대한 소모성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OA(미국대외사업처)가 미 의회에서 발표한 ‘대한경제원조(對韓經濟援助)의 목표’를 보면 “한국이 외부의 실질적인 원조 없이 1949~50년의 생계수준에 해당하는 국민생활을 유지하고, 동시에 강대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에 의한 군사적 공격에 대하여 그 침략을 격퇴하기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건전한 경제를 남한에서 발전시키는 것”이며, 그 제1차에는 “대한민국의 효과적인 방위력을 위한 경제기반의 개발”이라고 나와 있다.

여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정부는 입법형태로서 혹은 정부의 정책형태로서 어디까지나 장차 한국의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질 기초가 될 수 있는 경제 기초를 이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결코 현재의 한국경제 능력으로 한국의 필요한 방위력에 대한 부담을 늘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로서 미국은 영세한 경제능력의 한국이 군비 충족에 대한 과중한 소모로 경제 파탄을 초래하여 공산주의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온상지를 조작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파인리스(Fainless) 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대외원조 견해에 대해 “자유의 궁극적 승리를 위해 이 계획이 장래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논하고, 그 원조의 중점을 변경하자고 주장하며, 과거와 같은 증흥(贈興)식 원조는 점차 감소시키고

1) 원문의 90년도는 오기로 보임. 50년도로 추정되지만 확실치 않음.

차관 형식으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현대 미국은 원조에 대한 재검토가 실시되고 있는 동시에 원조는 계속될 것이나, 원조형식 혹은 방법상 증점변경이 있을 것은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피원조국인 한국에도 무의미한 원조의 허실 혹은 비효과적인 운영의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 하원 분과위원회에서 민간인과 신문기자들에 대한 질문에서 ICA 일반국장 프레드 브리클리 씨는 “1950년 이래로 공산주의자들이 새로운 군사행동에 착수하지 않는 것을 볼 때 1년에 40억 달러를 지출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군이 휴전선을 지켜주고 있는 것만 해도 4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 전액은 한국전쟁의 1년간 비용보다 적은 것이다.”라고 답했다.

한국경제의 파탄을 방지하여 한국전쟁의 파고를 복구하는 데 미국이 현재까지 한국에 제공한 원조액수는 20억6백만 달러이다. 이에 비해 지난 한국전쟁 1년의 소비가 40억 달러 이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국민총소득이 15억 미만인 한국경제로서 근대전쟁을 충당한다면 국민총소득을 전부 소비한다 하더라도 불과 3, 4개월밖에 지속될 수 없다. 국민의 생활을 최저로 유지하면서 전쟁을 수행한다면 아무리 국가경제를 충동원해도 한 달도 충족시키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명백한 사실에 입각하여 국가 존명을 위한 국방과 군비임에 비추어 참다운 그 의의에 퇴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연합적인 상호원조의 정신에 투철하여 집단방위의 전략 속에서 자국의 능력에 상응하는 부담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계획 아래 전력배양을 도모하고, 공산군의 침략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엄존을 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국가경제의 파탄을 방지하는 것도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현명한 방책이라 믿는다.

결론(結論)

국제정치의 소산으로서 탄생한 대한민국은 그 출발점에서부터 독립을 보장해 준 국제정치의 모순된 여파 때문에 하나의 숙명적인 과업을 부여받았으며 그 과업이란 너무도 냉혹하고 또 크다.

달성해야 할 과업이 무엇인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것들을 수행하는 데 예상되는 장애의 크기에 비해 이에 소요되는 국력은 너무 미약하며, 한국은 “대포와 버터” 모두가 필요한 처지이다. 그러나 “대포와 버터” 이 양자는 모두 자력으

로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에 놓여 있다. 즉 이것이 한국의 비애이며 딜레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들은 모두 그대로 체념할 수 없는 것들이다. 3천만 국민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공산주의의 노예를 감수하느냐의 양자택일은 거북이가 목을 감춘다고 위협을 방지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를 회피할 수 없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박력 있는 실천과 과감한 투쟁만이 요구되며, 그 투쟁은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분석에서 이루어진 명석한 통찰과 냉정한 판단에 따라야 한다.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 봉착해도 한국의 운명은 한국 국민이 최후까지 해결한다는 정신무장의 강화와 견고한 각오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이미 현대 국제정치의 추세는 주권 국가의 범위를 초월한 보다 넓은 테두리 속에서 국가의 활로를 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내부에서 약소국의 지위에 있는 한국은 자국이 처한 위치에 대해 명백히 인식하고, 보유하고 있는 여러 능력 자체에 대한 정확한 한계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독립국가의 권리와 민족적 자존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엄연한 사실은 이렇듯 단순한 민족 감정으로서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엄존과 국민의 안녕복지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면에서는 국제정치의 본질을 감안해볼 때 지금의 공산주의를 포함한 평화기 구인 국제연합에서의 한국 문제 해결은 기대하기 곤란하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 가능한 것은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와 동시에 민주진영의 일환으로서 연합적 통합체제에 한국은 깊은 이해와 관용과 인내로서 이를 신뢰하며 또 의지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 민주 우방의 내부에서 정치적인 고립을 피해야 하며, 국내적으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정치적인 노력과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불필요한 불안을 제거하여 상호부조의 협조정신을 발휘하고 국가이해의 상호충돌을 야기하지 말아야 한다.

전쟁이 하나의 정치적 연장이라는 이론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전략이 정략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주권국가의 경향성으로부터 비약한 보다 고차원적인 정치이념에 입각한다면 국가 목적의 달성을 위한 전략관 또한 그 기초로서 수립될 것이다. 한국이 원하는 현대적 군비의 보유는 현재와 같은 단순한 양적으로서의 자위적 군비를 지양해야 한다. 완전한 정치적 이념

의 융합에 따른 연합적 집단방위의 전략구상 하에서만이 질적인 면에서 현대적 장비의 군비를 보유할 수 있다.

앞서 말한 고차적인 정치이념의 확립과 연합적인 전략관에 깊은 신뢰와 자신을 가진다면 필연적인 귀결로, 현재와 같은 자국의 경제적 능력을 벗어난 과중한 부담 때문에 국내 경제의 불안정성을 조장하고 있는 내부적 위기는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양(量)적 군비에 의한 자위(自慰)에서 탈피하여 자국의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을 분담함으로써 미래에는 자주적 전력을 보유할 수 있는 제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고관이 당면한 한국의 현실과 부합되는 구체적 실천수단을 유도할 수 있는 근본적 문제이며,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는 견실한 관념이라 믿는다.

스위스의 표정(表情)

장기영(張基永)

산천이 수려하고 풍광이 수려한 천연풍경이 세계에서 으뜸이라 세계의 공원이 라는 칭호를 받고 있는 접이라든가, 정치와 사회가 안정되고 도의나 문화가 고도로 발전된 점에서 지상천국이라고 칭찬받아 그 땅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인사들에 의해 소개된 기행문에서도 스위스는 오늘날까지 수없이 선전되고 있다. 따라서 내가 새삼스레 여러 말을 안 해도 뜻 있는 사회인은 이미 잘 아는 바일 것이고, 또 내가 스위스를 방문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여러 번 들러본 곳이니 만큼 이 나라에 대해 관광객으로서의 감흥에는 새로운 바가 없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별로 새로운 기행의 자료도 없다는 것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굳이 이 나라에 대한 감상을 종합하여 결론만 몇 가지 적어본다.

이 나라는 산천경계가 세계 제일이라 하지만 국토의 대부분이 험준한 산악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국민이 생활해나갈 천연자원, 특히 의식(衣食)을 생산할 토지의 자원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빈약하다. 그러나 그들은 굶주리지 않고 고도의 문화와 도덕과 공업산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농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들은 목축이나 세공업으로 근근이 살아왔으나 시대의 진운(進運)을 앞지르는 연구와 창안(創案)을 게을리하지 않아 정밀기계가 발달했고 발전시설이 완비되어 지금은 세계에서 우수한 공업국이 되었다. “문명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다.” 하지만 천연자원이 궁핍한 민족이라고 해서 모두가 스위스와 같이 문화와 산업과 도의가 발달하는 것은 아니다. 스위스의 민족성이 우월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 나라의 정부와 국민이 다 같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협력한 피와 땀의 결정인 것이다.

이 나라는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 관광객들이 쓰는 돈이 국민소득과 국가재정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나라의 산악이 수려하고 수많은 호숫가의 풍경이 어느 곳에서나 일대 장관을 이루어 기후풍토가 관광에 좋고 정양(靜養)에 적합하여 세계 각국의 부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물론이고, 국제적 정치회담이나 문화적 사업적 회합의 장소를 선택하는 데 우선 이 나라를 첫손가락에 꼽는 것은 이 나라 민족이 타고난 천부(天賦)의 혜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천

부의 혜택을 고도로 활용하는 것은 스위스인의 노력이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이 이용할 때 호감과 위안을 가질 수 있는 교통, 건물 등 시설에 대한 부단한 개량과 접대방식을 새로이 연구하고 향상시킨 것이 외국인에게 스위스의 매력을 더욱 자아내게 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나라 국민 전체의 생활 분위기가 외국 사람에게 평화롭고 고결한 인상을 주는 것이 지상천국이라는 칭찬을 받는 것이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면, 여행객이 가방을 잠시 정류장에 잠시 맡겨두려고 하니 역무원 말이 아무 데나 놔두라고 한다. 사실 트렁크나 기타 물건을 대합실이나 길가에 놓아두었다가 몇 시간 뒤 돌아와도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있다. 행정의 이상사회란 산에 도둑이 없고 길에 떨어진 것을 줍는 사람이 없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말 그대로가 스위스의 표정이다. 국민들의 생활상을 보면, 산림은 무성하고 도로 연변이나 주택 주위는 예술적으로 매만져놓아서 도로는 어디든지 수리되고 깨끗하며 주택의 분포나 그 주위의 치장은 한 폭의 살아있는 그림과도 같다. 여기에 살고 이 속에서 움직이는 인간은 사회질서와 공중도덕이 고도로 발달되어 있으니 불경 속 서방정토(西方淨土)를 다시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 천연의 풍물을 이어받은 것은 그들의 선천적 행복이겠으나, 이것을 잘 이용하여 그 아름다움을 향락하는 것은 그 민족의 후천적 노력에 있었다.

그들의 정치는 발달되고 안정되어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치 싸움은 눈에 띄지 않고 국민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국법과 도의를 지키고 묵묵히 일하고 있다. 이러한 지상천국적 행복은 결코 우연이나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장구한 세월을 두고 자중하고 인내하고 노력한 결과인 것을 깊이 배우고 싶었다.

스위스의 표정은 이만 그치고 이번 나의 여행 용건의 소득을 몇 가지 덧붙여 두기로 한다. 나의 이번 여행은 유럽 각국의 텅스텐 소비업자인 기업가들 회의에 참석하기 위한 것인데, 스위스 제네바 호수 북쪽에 있는 로잔느에 4일간 체류했다. 이 회의의 목적은 텅스텐의 국제시세 폭락으로 인한 ‘대한중석(大韓重石)’의 활로를 타개해보려는 것이었다. 회의결과의 중요한 결론은

1. 이 회의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은 대한중석의 현재 곤경을 타개하 (77항 하 단으로)

애기(愛機)와 가을

박두진(朴斗鎭)

가을 바람은 금빛 바람—

골짜마다 가득가득 백과(百果)들 무르익고
오곡(五穀) 풍등(豐登)하게 온 들에 파도치는
아, 여기 이렇도록 기름진 우리들의 국토(國土)
가을이면 한결 더욱 아름답고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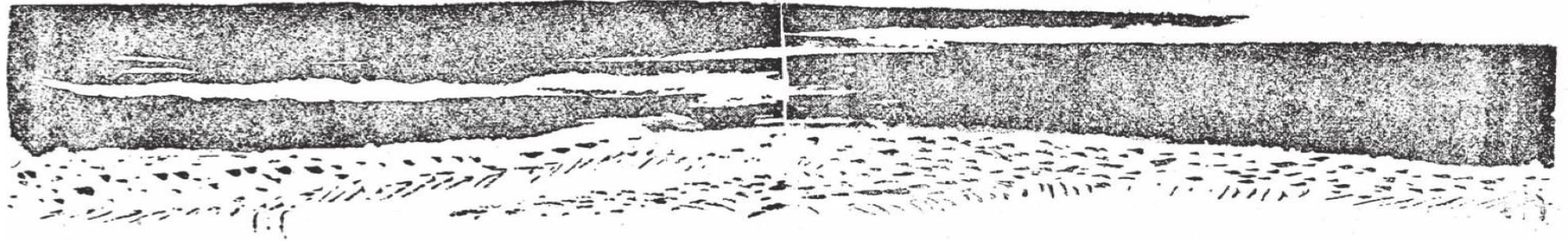
가을 바람은 푸른 바람—

언제나 높아있고 아득하고 맑지만
저렇듯 자꾸만 푸르려만 지는
고요하고 경건하고 폭은한 하늘
가을이면 한결 더욱 아름답고나.

가을의 마음들은 순후한 마음—

시달리고 찢기위, 비록,
쓰라림과 아픔에 거칠었어도
그래도 아직은
안으로 한줄기씩 흐르는 핏줄
서로 보는 눈길 속에 따뜻하게 영겨
하나로의 혈족(血族) 수수하고 어질은
언젠가는 난만(爛漫)하게 다시 피어질 인정(人情)
아, 가을이면 더욱 고은 마음씨들아.

그
하나로의 몸둥이인 우리들의 이땅을
하나로서 받들리울 우리들의 창궁(蒼穹)을
하나로의 핏줄기인 우리들의 겨레를
이대로 갈리인채
이대로 찢기운채





이대로 더럽힌채
참고 있으랴?

아, 애기(愛機)!
가을을 하늘을 내 조국(祖國)을 나르는
삼만(三萬) 천(千) 오백(五百) 피트의 고공(高空) 위에서
부르릉! 부르릉!
수리처럼 팽팽한 투지(鬪志)에 싸여
너는,
나보다도 세차게 분노(憤怒)하고 있구나.

잃어버린 반(半) 땅
잃어버린 반(半) 겨레
잃어버린 푸르른 반(半) 하늘을
한 가슴 한 눈속에 모두어 넣고
뿌르르르..... 뿌르르르..... 떨고 있구나,
아, 꿈에도 못 잊히울 우리들의 실지(失地)

신의주(新義州), 만포진(滿浦鎭), 중강진(中江鎭), 혜산진(惠山鎭)을
무산(茂山)을 회령(會寧)을 온성(穩城)을 나진(羅津)을
그 하늘을 이 나라로 휘날리고 싶어

남동남(南東南)
남서남(南西南)
남(南)으로 남(南)녘으로 기수(機首)를 돌린 때도

애기(愛機)! 너는
자꾸만 억세게 깃쪽지를 사납혀

북동북(北東北)
북서북(北西北)
북(北)으로 북(北)녘으로 북반부(北半部)를 향(向)하여

스스로의 기수(機首)를 돌려 날아가려 드는구나.

<시(詩)>

물고기인 항공기(航空機)는

김규동(金奎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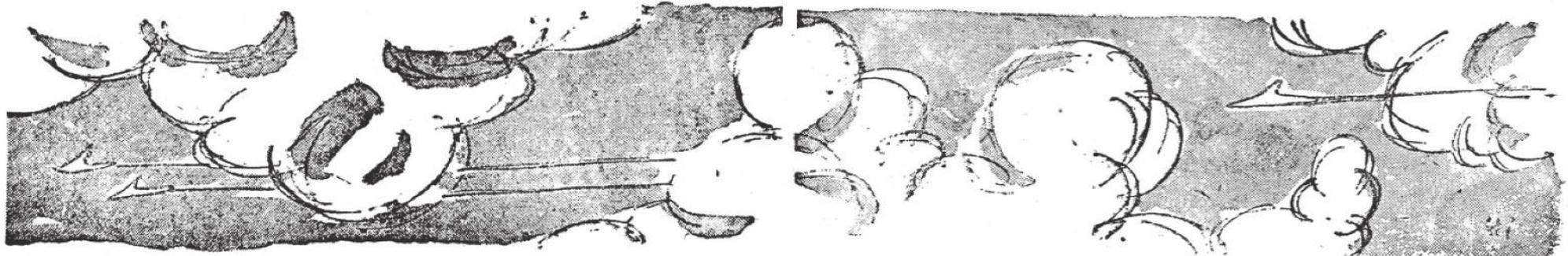
내가 사장(砂場)에 누워 덩굴 때
서남(西南)쪽에서 날아온 항공기(航空機)는
물고기처럼
미끈거렸다.

은빛 바늘이
눈부신 기체(機體),

나는 꿈을 꾸다.
하늘을 나는—
항항(香港), 로스앤젤스, 파리, 런던,
또는 기억(記憶)에 생생한
서부전선(西部戰線)을—

하늘의 수심(水深)에 깔앉아가는 엔진소리
그것은
머나먼 향수(鄉愁)와도 같이
내 가슴의 벽(壁)에서 멀리 꺼져 간다.

하늘의 푸르름.
휘날리는 기(旗),
한대(台)의 비행기(飛行機)가 남긴 「이미지」는
하얀 신작로(新作路)길처럼 멀리 뻗어 갔다.



공중(空中)과 우주(宇宙)

—이는 분할(分割)할 수 없다—

미 공군대장(美空軍大將) 토마스 D. 화이트¹⁾

10년이 약간 경과하는 동안에 열핵무기와 대륙간유도탄 또는 폭격기 등이 다 같이 발전되면서 국제간의 상호관련성도 근본적으로 변모되었습니다.

이 국제 상호관련성은 머지않아 인간의 능력으로 우주에 도달하기 위한 여행에 의해 복잡해질 것입니다. 급격하게 공학이 발달한 오늘날 세계는 전 인류의 이익도 될 수 있겠으나, 문명화된 세계를 파괴할 수 있는 큰 희생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공군은 모든 힘으로 전쟁을 예방하도록 꾀하고, 또한 발전하는 우주에 관한 지식으로 평화적인 이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 확립을 위해 미합중국은 전쟁을 위한 임시변통이 아닌 항구적인 준비 상태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전쟁 방지를 주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방지군이 전쟁에만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 목적은 달성된 것입니다. 어쨌든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하도록 요구받는다면, 그들은 승리를 기할 수 있게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군의 군사력에 관한 미 공군의 기본이념이란 두말할 필요 없이 융통성 있는 공격력이 필수조건입니다. 이러한 힘들은 우리나라의 목적을 옹호하도록 세계 어디서든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특히 강한 방공(防空)이란 강한 방위력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최상의 공격군을 가지고 적의 침공을 막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가짐으로써 전쟁을 방지하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난 시대에서 전쟁 방지를 위한 미국의 형태는 현재 그 관념이 변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저장(貯藏)과 동원능력 또는 현존하는 군대의 규모와 능력 그리고 대양(大洋) 덕분에 여유 있는 방호(防護)를 함으로써 실존했습니다. 전쟁의 방지는 동원능력이라든가 또는 거리(距離)의 장단점 가지고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도탄(誘導彈)

공군의 재량은 부여된 임무에 의해 항상 발전되어 왔고, 또 이러한 기초에 입각하여 장래에도 기획될 것입니다. 공군이 어떤 병기체계를 확립한다는 것은 보다 나은 전투능력을 만들어낸다는 말입니다. 순간적인 경고로 보복할 수 있어야 하고, 강력한 공격군의 융통성과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오늘날엔 진정한 전쟁방지를 의미합니다.

이 전쟁방지의 역량이란 가상의 적이 미합중국이나 그 동맹국을 공격해 보더라

¹⁾ Thomas Dresser White

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확신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미국 공군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전쟁방지의 역량이 뛰어나야 하고 또 현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역량은 그들이 꼭 필요로 하는 모든 경우에 적응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융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미국 공군의 진보되고 개량된 기술은 1945년의 B-29 원자 폭격기와 1958년도의 B-52 제트 핵폭격기를 비교해보더라도 명백하듯이 팔복할 정도로 진척되었습니다. 항공술이나 우주과학은 모두 세월의 흐름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크게 발전될 것입니다.

미국 공군은 중장거리 유도탄 설계에 착수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도탄의 전투역량이 사람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초기의 유도탄이 후에 발전 확보된 것에 비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훨씬 없을지라도 사람을 쓰는 것보다 전투 역량이 진보된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 공군은 이 유도탄 병기가 작전에 투입될 경우 유도탄의 후방지원의 준비와 작전상 사용의 세부적 계획 아래 유도탄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도모하고 진전시킬 수 있도록 고려 중입니다. 유도탄 제조계획은 근래에 공군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선적인 기획입니다. 탄도탄이나 유도탄이 사람이 조종하는 항공기를 대체하면서 이와 양립하게 된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기 능력, 신속한 재(再)행동 그리고 많은 공군 임무의 경제적 실천과 더 많은 효과를 내는 유도탄은 작전상 또는 실제로 적을 공격할 때 위약성(危弱性)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병기의 선택과 사전에 군기구(軍機構)를 결정하는 것은 정확성, 실제성, 탄두 중량, 운반할 수 있는 능력, 거리, 가격, 공격 목표의 형태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들입니다.

천문과학(天文科學)

간혹 탄도유도탄이 궁극의 병기인 것처럼 잘못 알고 있지만, 이것은 확실히 궁극적인 병기가 될 수 없다는 의심이 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험상으로도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에서 결정적일 수 있는 단순한 병기 또는 병기체제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도탄은 재래식 항공기로부터 우주항공기로 개조되면서, 아무리 중요한 과정이라지만 다른 단계로 고려치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주와 공중을 논의할 때 둘 사이에는 아무런 구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모든 실제 목적을 위해서 공중과 우주는 작전 분야에서 항구적이고 분할할 수 없는 것으로 귀착됩니다. 마치 육지와 바다를 내려다보고 우리의 자유로운 행동을 공중에서 가능케 하여 통제력을 가졌던 과거처럼, 미래에는 지구의 대기층을 통해 지구표면에서 우리가 행동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끔 우주를 통제할 역량을 갖게 될 것입니다.

공군에서는 사람이 조종하는 항공기로 수년간에 걸쳐 우주 변두리를 개척했습

니다. Bell X-2 로켓 연구기는 이븐 킨클로(Iven Kincheloe) 대위를 태우고 매시간 1,900마일이라는 속도로 지구상 약 25마일 높이를 비행했습니다.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X-15는 이 X-2보다도 속도나 고도가 훨씬 월등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공군이 갖고 있는 계획은 초과음속으로 지구대기층에 되돌아오기 전에 여러 번 우주를 돌게 하는 것입니다. 병기 분야처럼 이 계획도 조종에 의한 우주비행을 확신케 하는 최초·최대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은 지구 주위를 계속 도는 데 사람을 태운다든지 유성(遊星) 근접이나 우주 외부로 띄워 보내는 것 등을 포함하여 여러가지 가능성을 실현할 것입니다. 일들이 순차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기술적으로는 수년 내에 사람이 탑승한 우주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기술적 경쟁은 전례 없는 발전을 보여주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수했다고 생각되던 출력(出力)은 벌써 여러 번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장비도 사람이 탑승하고 달에 도달하도록 하는 우주비행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공군경험요소(空軍經驗要素)

공군에서 공중과 우주의 장래성에 대해 종합하도록 방대한 작전 관념을 가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공기보다 무거운 잔멸(殘滅)을 날리기 시작한 이래 공군 자체는 비행기를 기초적인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후 광범위한 지식의 발전과 작전 경험 및 실질적인 기술 등이 축적되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공군은 우주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군이 비행과학 분야에서 성숙되었다는 것은 아무튼 대단히 가치 있고 중요합니다.

항로, 속도, 고도의 특성, 항공기의 탑재능력, 공군에서 공중전에 대한 기술적 발전 등의 지속적인 개발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월등히 숙달되었고, 더구나 한국 전쟁 동안에 더 많이 개량되었습니다. 적의 방위를 뚫고 중심부(縱心部)에 들어가거나 적 병력의 근원지를 공격하는 전략 공중전은 공군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창자이며 기술이자 경험입니다. 오늘날 공군의 작전상 구조(構造)는 직업화한 공군장병의 헌신적인 봉사와 우수한 장비로 이룩된 알찬 경험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 형태의 우수한 특징이란 신속한 재기(再起)와 융통성, 선택된 화력, 기동성 또 침입능력 등입니다. 거리, 속도, 항로, 고도 그리고 전술 등 조합된 무제한 수와 불분할(不分割) 장애(障礙), 무제한 등 매개된 작용과 더불어 미 공군은 이 무제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군은 과제에서 과제로 또는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대단히 필요한 화력을 대적(對敵)시킬 수 있고, 평화를 목적으로 하는 박애주의와 정치적 또는 심리학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도탄들은 이러한 강력한 작전상 경험이 합쳐질 때 아주 효력 있고

효과적으로 폭발됩니다. 우주 첨단으로 보내는 시험 항공기의 조사와 유도탄의 발전은 비록 '맨하탄 계획'(MANHATTAN PROJECT)의 범위와 목적이 우수하더라도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효력 있는 탄도유도탄과 시험항공기가 실제로 우리 공군의 작전상 무기로 간주될 것입니다.

공군은 이미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예상되는 난점과 새로운 문제를 통해 그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합중국과 그 동맹국들은 앞으로 닥쳐올 전쟁에 대해 항상 끈기 있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미국의 화력이 최고일 때 가능합니다.

최상의 화력을 가지려면 주야로 1년 365일 비상하고 신속하고 힘 있게 반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힘은 침략자의 공격을 어렵게 할 것입니다. 공군은 산출 가능한 최고의 공군력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창업에 공헌할 것입니다.

붙임말

본 기사는 미국 공군의 탄도유도탄보고서의 서문으로 미 공군 참모총장에 의해 서술된 것입니다. (KTH 번역)

비행(飛行)접시는 존재(存在)하나?

접시 목적설(目擊說)은 근거(根據) 박약(薄弱)

미하원(美下院) 우주위(宇宙委)가 보고(報告)

‘하원우주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의 한 비밀보고는 비행접시들에 관한 보고가 거듭해서 조사를 받음에 따라 그것들을 자연현상이라는 견지에서 설명하기 쉬워지고 있다는 공군장교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명백한 사실은 비행접시들이 다른 세계로부터 온 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공군은 경험을 통해 어떤 의미 있는 말이 전파되면 수백 종의 새로운 목격담이 뒤이어 쏟아져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불행히 이 목격담의 대부분은 가상(假想)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연구력에 무거운 부담을 준다. 신비의 장막을 벗기려는 시도들은 실패했고 유일한 결과는 새로운 준종교적인 비행접시를 믿는 사람들이 외계로부터 지혜 있는 존재들이 도착한 ‘사실’을 공개하라는 소리를 높이게 된 것뿐이다.”

이와 같이 잠정적인 결론은 ‘하원우주위원회’가 비행접시들 또는 공군이 말하는 미확인비행물체(UFO)에 대한 공청회를 여는 것을 중지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분과위원회가 그 중간보고에서 행한 여섯 개의 견의들 중 하나이다. 6개 견의안은 분과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분과위원회보고서의 다른 견의안은 12월에 전국 우주계획 발전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 11일에는 공간추진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것, 이 위원회 위원들이 전국의 여러 우주시설을 시찰할 것 등이다.

무너지는 우주(宇宙)의 신비(神祕)

외지(外誌)에서

일순(一瞬)의 광음(光陰)도 나에게는 불가사의(不可思議)이며,
일촌(一寸)의 공간(空間)도 신비(神祕)로운 것이다.

- 월트 휘트먼¹⁾

공군(空軍)에서 우주군(宇宙軍)으로

탄도유도탄 계획으로 우주로 침투하며 유인 항공기로 우주의 일단을 허물어 트린 미국 공군은 지구의 대기권을 일탈해 아득하게 먼 우주로 유인 로켓을 발사하는 작업을 맡은 필연적인 기관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의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로 긴장과 활기를 띠기 시작한 이 나라의 군사적 우주정복 사업은 지금 최고조를 향해 매진하고 있다. 국방장관 네일 H. 맥켈로이 씨는 1958년 2월 7일 신문기자 회견 자리에서 유인 우주항공기의 연구발전은 미국 공군의 책임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이것이 결정으로 이끌고 그 결정은 이 나라의 우주계획을 촉진시키고 있다.

미 공군 참모총장 화이트 대장은 일찍이 "대기권과 우주정복의 실제적인 목적을 실천하기 위해 부단한 작전을 편성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어떤 때는 스푸트니크 1, 2호의 거의 신경질적인 영향을 받아서 우주계획은 마치 전혀 새로운 군사 임무와 같은 때도 있었다. 이와 같은 정세는 2개의 결과 중 하나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었다. 즉 모든 실제적 목적을 위한 새롭고 제4의 군사업무가 되느냐, 아니면 우주계획을 위해 3군 간에 가열찬 경쟁을 전개하느냐?

양자 어느 것을 주저해도 이 나라에 커다란 손실일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 정부는 공군에게 우주계획을 위한 막대한 양의 투자를 한 것인데, 만일 어떠한 다른 기관에게 이 사명을 위촉했다면 지탄과 중복과 낭비를 초래했을 것이다.

공군의 탄도유도탄 계획에서 우주정복의 발판이 되는 연구상, 생산상의 기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우주 의학계획은 우주비행을 위한 생물학적 기초를 세웠다.

반세기의 역사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미 공군은 이렇게 지성에 도전하며 환상하는 정열의 가능성을 가지고 우주의 경계선에 서 있는 것이다. 다행히 미 공군은 불면불휴(不眠不休)의 경험과 기술, 교리와 철학을 토대로 이와 같은 중대한 임무에 접근할 수 있었다. 우주의 경계선을 왕복하는 것이 결코 단순한 일은 아

1) Walt Whitman

니되 그것은 그 유성의 평화와 안전의 담보물이며 역설적으로 우리는 지구의 자유를 같이 보존하기 위해 그 유성으로 반드시 대피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격심한 교육적 감각이 공군의 어깨에 부과되었다. 피스톤 추진식 항공기에서 전면적인 제트 추진식으로 전환되는 과도기에서 이미 조종사의 조종석²⁾은 유도탄 계획으로 꼭 차 있었으니 공군 장병들은 동시에 이중삼중의 부담을 받았다.

기술적인 선풍(旋風)으로 조종사들은 유도탄이 비행계획에 포함되기도 전에 이미 우주선으로 돌진했다. 대륙간 횡단 탄도유도탄까지도 아직 최후의 무기가 되지 않고 다만 지구의 대기권의 유인 항공기와 천체 건너편의 막막한 우주여행 사이에 존재하는 막간(幕間)에 지나지 않았었다.

오늘의 공군은 내일의 우주군을 기약하며, 오늘의 시작은 내일에 조작하게 될 매개체에 대해 알기 위한 것이다. 우주군은 인력, 중력, 기상 등과 같은 낯은 문제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식품, 항행(航行) 등과 같은 새로운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우주군의 조종사들은 이착륙, 비행 임무 수행에 시간 단위를 떠나서 몇 주, 몇 개월, 혹은 연간 단위를 사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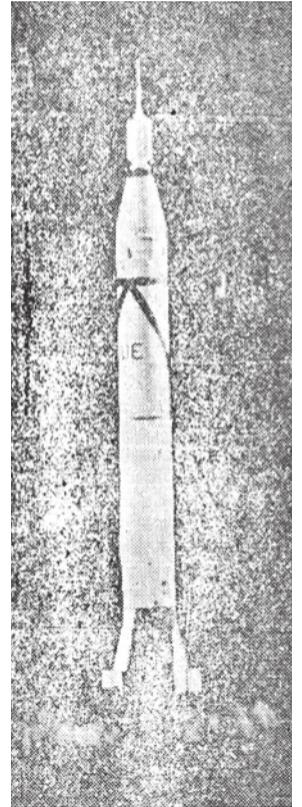
이상(理想)과 목표(目標)는 우주정복(宇宙征服)

우주는 실로 광대무변(廣大無邊)한 것이다. 그 광대함은 실로 인간의 지성으로 상상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광막한 우주를 비유하는 비근한 예가 있다.

영국의 천문학자 제임스 진 경(卿)은 "우주에 산재한 성좌(星座)의 수는 마치 세계의 바닷가에 깔려 있는 무수한 모래와 같다. 이 천체의 중심을 이루는 태양은 단지 이 별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날 공군은 우주의 대기권의 경계선에서 있다. 그들은 지구의 대기권 내에 있으면서 우주에서와 똑같은 조건에 있다. 그리고 머잖아 4백 내지 5백 마일 상층 혹은 외부에 있는 진정한 우주로 진출할 것이다. 대기권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공군은 고도 10만 피트 이하에 있는 대기의 99퍼센트를 통과할 것이며, 대기

2) Cockpit



권 내에 존재하는 5개의 기층을 통과할 것이다.

대류권(對流圈)= 고도 10마일 이하에 존재하는 가장 낮은 기층으로 오늘날 재래식 항공기가 가장 손쉽게 비행하는 층이다. 이 층의 상부는 적도에서 5만4천 피트 상공이며 극지에서 2만8천 피트이고, 중위도(中緯度)에서 3만6천 피트 상공이다. 이와 같이 고도의 차이는 지구가 타원형이기 때문이다. 대류권의 20퍼센트가 산소이며 나머지는 질소이다.

성층권(成層圈)= 10마일에서 16마일 상공을 말한다. 이곳에서 절대압력이 평균 피트마다 212파운드로 떨어질 때 어떤 왕복기관의 출력은 영점(零點)으로 감소될 수 있다. 성층권으로 가는 중도인 약 6만3천 피트 상공에서 인간의 피는 들끓어 오를 것이다. 조종실은 밀폐되어야 한다. 외부의 기온은 화씨(F) 영하 70도이다.

중간층(中間層)= 성층권에서 25만 피트, 약 50마일 상공 사이를 말한다. 이곳에는 태양에서 복사하는 대부분의 자외선을 흡수하는 오존이 집결되어 있으며 온도는 증가되고 지구로 향하는 우주선(宇宙線)에 대해 장벽을 이루고 있다. 미공군의 데이비드 시몬즈 소령은 작년 이곳에서 기구를 타고 32시간이나 체류한 적이 있었으나 외부 기온이 화씨 50도나 되는 가장 따뜻한 곳인 15만 피트 상공까지는 못 올라갔다. 그런데 중간층 상부의 약 50마일 상공에서 수은주는 무려 영하 104도까지 내려간다.

전리층(電離層)= 25만 피트인 48마일 상공에서 200 내지 300마일 상공까지 뻗어있으나 과학자들 사이에 일정한 의견이 없다. 이곳에서 기온은 급상승하여 300마일 상공에서는 2,200도가 된다. 이곳에서는 음향이 없다. 일명 이온층이라고도 불리는 이 전리층에서는 격심한 전리작용이 일어난다. 이 층에서 원자와 분자가 강력한 전자파(電磁波)의 폭풍을 맞고 대전(帶電)하거나 전리된다. 이 전리층은 전리된 분자로 구성된 4개의 상이한 층을 이루고 있다.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층을 D층, 다음이 E, F, 그리고 최상이 F-2층이다. 전리층은 전파(電波)를 전달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외기층(外氣層)= 이 층의 상부한계는 정론이 없고 약 1,000마일이라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어떤 전문가들은 지구의 기체가 이보다도 더 먼 곳에서까지 떠난다고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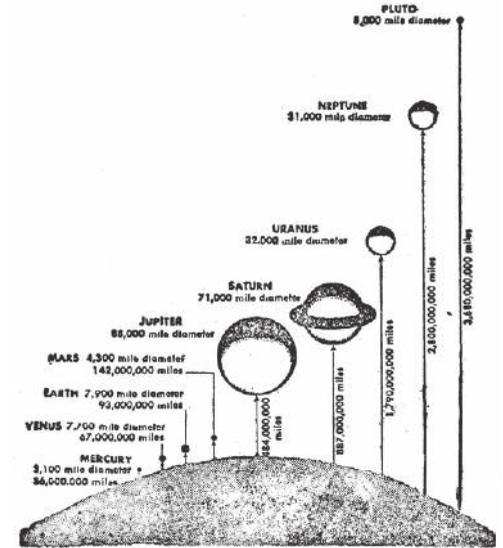
과학자들의 의론과 이따금씩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과학소설가들의 환상을 떠나서 공간을 통과하여 시간과 거리를 정복하려는 인류의 노력은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불가피하게 이끌어 갔다. 더 멀리 더 빨리 날고 싶은 그들의 야망은 그를 공기가 희박하여 인력(引力)이 적은 더욱 높은 곳을 날게 하였다.

여기에서 인간은 신체상으로도 기계적으로 하나의 정점인 제한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인간과 기계는 작용을 계속하기 위해 호흡을 해야 한다. 1만5천 피트 이

상 상공의 조종사는 산소보급을 받지 않고 작용할 수 없으며 2만 5천 피트 이상 상공에서 엔진 역시 슈퍼 충전기를 요한다.

그러나 상승도는 점차 증가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공군은 고도 1만5천 내지 3만5천 피트에서 싸웠으나 한국전쟁 당시 MIG 통로에서의 공중전은 고도 4만5천 피트에서 전개되었다. 오늘날 미 공군의 일선 공군기는 고도 7만 피트까지 상승하게 되었다.

실험분야에서 음의 장벽을 뚫고 속도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은 마침내 인간이나 기계나 똑같이 산소를 보급 받아 가면서 높은 고도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1947년 10월 처음으로 7만3천 피트의 고공에서 음속을 돌파했고 아서 키트 머레이는 X-A를 타고 9만4천 피트 고공을 비행했고 최근 실험비행 중 순직한 킨첼로 대위는 X-2를 타고 12만6천2백 피트를 상승하여 세계기록을 세웠다. 이들의 이상과 목표는 한결 같이 우주정복에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맹렬한 유인, 무인의 실험은 진정한 우주비행에 앞서는 전주곡에 지나지 않았다. 대기권 내에서의 비행과 마찬가지로 우주비행의 원리도 물리학적 법칙에 의존한다. 항공학이 비행과학인 것과 마찬가지로 천문학은 우주비행의 과학인 셈이다.



<광대한 태양계>

추진력(推進力)의 문제(問題)

1686년 아이작 뉴턴은 그의 운동법칙 중 제3법칙에서 “모든 운동은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라고 선언했다. 이것이 바로 프로펠러든 제트든 혹은 로켓이든 모든 추진장치의 기본 원리가 되었다. 항공역학적으로 추진기는 엔진의 에너지를 공기에게 전달한다.

제트나 프로펠러는 모두 공기를 후방으로 밀어내면서 전진 추력(推力)을 얻는다. 그러나 공기가 없으며 따라서 매개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여행에는 반드시 원시적인 추진장치로 알려져 있는 로켓을

3) Super Charger

사용한다. 로켓은 자신의 힘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기를 필요치 않는다. 로켓은 연료와 산화제를 가지고 있다. 로켓은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알 수 있듯이 반작용에 의해 추진력을 얻어 우주로 비행할 수 있다. 미국의 로켓 선구자인 로버트 고다드 박사는 1919년 이미 이 사실을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까지 이 로켓의 발전상태는 대기권을 벗어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지구에서 발사된 로켓은 대기권의 인력(引力)과 싸워야 하며 상당한 중력을 극복해야 한다. 한 개의 로켓을 수직으로 발사했을 때 중력 하나만으로 매초 시속 20마일의 속도로 속도를 지연시킨다. 항공역학적 인력을 가산하면 속도는 70퍼센트가 소모된다. 이 때문에 한 개의 로켓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는 거대한 추진력이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의 대륙간 횡단 혹은 중간 거리용 탄도유도탄은 이렇게 하여 우주정복의 발판이 되고 있다. 지구 표면의 한쪽에서 5천 마일이 넘는 그 반대쪽으로 수소탄두를 운반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우주로 통과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거리 유도탄의 군사적 요청은 우주에 향해 무거운 짐을 충분히 운반할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의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물리적 증거로서 우리는 지금 지구를 회전하고 있는 스푸트니크 1, 2호가 익스플로러 등 인공위성을 목격했다.

사실 인공위성을 궤도 위에 올리는 것은 필요한 추진력만 얻으면 비교적 간단한 일이다. 지구 반대쪽의 지정된 장소에 수소탄두를 투하하는 것보다도 더욱 간단한 일이다. 유도문제 역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칙적으로 인공위성은 시속 1만8천 마일을 초과하는 속도로 또 2만5천 마일을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발사해야 한다. 이 범위의 속도는 궤도속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 속도야라 지구의 인력이 로켓을 후퇴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지구의 탈출속도는 시속 2만 5천 마일이다. 이 속도에서 우주선은 지구의 중력을 극복할 수 있다.

지구를 통과하는데 스푸트니크나 익스플로러의 타원형 궤도는 유도의 부정확에서 초래되는 결과이다. 하나의 완전한 궤도는 대단히 원형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궤도를 취할 때 인공위성은 영구적으로 회전한다. 타원형 궤도로서는 조만간 대기권으로 낙하하여 스푸트니크 1호처럼 용해되어 버린다.

미국 공군의 유인 인공위성은 달나라에 영구적인 기지를 설치함으로써 관측과 정찰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데 효시가 될 것이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불과 23만 9천 마일 내외이다. 이곳에 가는 여행은 5 내지 7일이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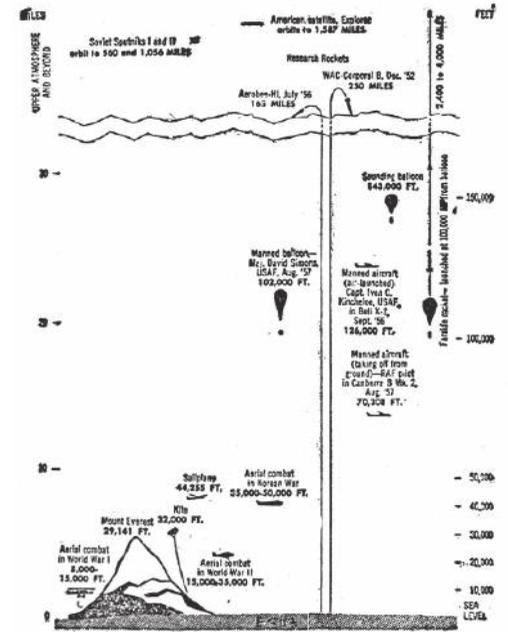
달나라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귀중한 제안들이 여럿 제기되었다. 어떤 사람은 달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지구를 지배하는 것이며, 더구나 이렇게 되면 달나라에 군사력을 축적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공군의 연구발전국 차장으로 있는 호머 보세이 준장은 “달은 군사전문가들의 이른바 고지를 중요시하는 데 관한 완전한 실례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달에서 지구를 내려 볼 때 달은 최고의 정찰지역이 될 수 있으며, 달 표면에서 보는 지구는 공기 없는 우주와 경계하고 있으니 아주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달에서 지구를 향해 유도탄으로 보복적 공격을 가할 경우 지구에서 달로 향해 발사하는 추진력의 불과 20퍼센트 밖에는 필요치 않다. 또 이곳에서 유도탄이 발사된다면 인공위성을 사용한 우주정거장에서 유효하게 조작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에서 발사된 유도탄의 경우는 대기의 저항, 기상, 그밖에 여러 장애로 조작성이 불가능하다.

이곳 달나라에서는 지구에서 느끼는 중력의 6분의 1의 중량으로 무거운 짐도 손쉽게 이동하여 군사시설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고, 지구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에 무기를 안전하게 숨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전투 및 작류 부대는 달 표면에 포진하고 보복적 공격력은 달 뒷면에 적재할 수 있다.

지구로부터 달로 가는 길은 정말 신비로운 우주여행이다. 우주의 □점에 도착하려면 먼저 일정한 속도, 일정한 시간에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로 가는 중단까지 오고, 그곳에는 다른 궤도로 달리던 다른 우주선이 통과할 것이므로 그쪽 우주선으로 환승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한 다음 달나라로 향하는 것이다. 우주선이 지구의 인력권을 벗어나서 달의 인력권에 들어오면 다시 속도는 증가할 것이므로 달나라의 뒷면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주선의 속도를 늦추는 제동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 로켓의 반분사장치(反噴射裝置)가 가동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주선 진로의 각도 문제일 것이다. 일분일초의 각도도 정확하기란 어려운 것이며 약간의 오차도 수만 마일의 오차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물론 정확한 계산기가 대부분 해결해 준다고 하지만, 계산기는 어디까지나 지면상의 계산에 그치는 것이며 실지로는 많은 난점이 있을 것이다.



<인간의 우주 침투 과정>

지구로부터 엄청난 원거리에 있는 태양계의 행성을 점령하려면 전면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추진장치가 필요하다. 가공할 속도로 태양계로 날아가려면 대량의 화학연료를 운반할 수는 없다. 백만 마일의 탈출속도로 지구에서 달나라로 여행하는 데 수일이 걸린다면, 화성(火星)까지 가는 데 8개월이 걸리는데 여기에 필요한 연료는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태양에 가장 가까운 수성(水星)에 가기 위해 중량과 속도보다도 더욱 연료의 질이 문제가 될 것이다.

우주(宇宙)의 국제적(國際的) 관리(管理)

인공위성이 차례차례 우주로 발사되는 최근에 이르러 일종의 국제적 관리제도 설치나 군비축소에 대한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일찍이 이와 같은 제안을 한 바 있다. 정부나 의회들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 중 한 제안은 국제연합이 우주를 관리하는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직체의 가치나 궁극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심각한 문제는 주권과 국제법에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국제 지구물리학 관측연도(觀測年度)는 국제법상 새로운 세대를 창조했다. 외계는 어느 한 나라의 영공이 아니라는 것이다. 캐나다의 공중 법률학자이며 '국제공수연합회(國際空輸聯合會)'의 법률 고문인 존 쿠퍼 씨는 미국이나 소련이 국제 지구물리학 관측연도 계획을 발표할 때, 어느 쪽도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허락을 요청한 일이 없다고 말했다. 어느 국가도 상대방의 인공위성이 자국 상공을 통과한 사실을 영공침범이라고 항의한 일이 없다는 사실은 우주는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원칙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적했다.

쿠퍼 씨는 현 정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첫째, 현재까지 국가 영공의 한계는 비행기나 기구가 떠올 수 있는 정도까지의 대기권까지다.

둘째, 인력을 가지고 있고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大氣)가 희박한 상공의 한점(一點)부터 외계는 세계의 어느 국가나 정부의 주권에도 속하지 않는다.

셋째, 이와 같은 공간을 규정할 모종의 국제적 협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해줄 것은 미국이 비록 소련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지만 우주 자체가 전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구보다도 높은 위치에 있으므로 최상의 정찰 및 유도탄 기지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항공교육시안(航空教育試案)>

항공지식(航空知識) 보급(普及)의 길

김택진(金澤辰)

여기 드리는 항공교육시안은 서기 1952년에 입안되었으나 사정상 발표되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책 사이에 헛되어 끼어 있었는데, 이번 코메트 '항공일 특집호'에 실려 겨우 하늘빛을 보게 되었다. 입안하던 때와 지금과의 시간적 거리는 겨우 6년밖에 안 되나 그동안 과학의 발달, 특히 항공계의 발전은 적지 않아 이 시안을 그대로 발표하기에는 낯 뜨거워지는 면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을 전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업데이트한 것으로 만들기에 너무도 주어진 시간이 없으므로 할 수 없이 일부 수정만 하는 정도로 여러분 앞에 보여드림을 너그럽게 용서하기 바란다.

서론(序論)

유사 이래 장구한 시간을 두고 새와 같이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보고자 하는 욕구는 우리 인류의 최대 숙망(宿望)의 하나였다. 이 어려운 과제를 둘러싸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 Da Vinci), 오토 릴리엔탈(Otto Lilienthal), 옥타브 샤투트(Octave Chanute) 등 말할 수 없는 많은 생각을 가진 선배들이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으나 그것은 그리 쉽사리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19세기 말에 와서 그 금단의 인류비행도 드디어 이루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 인류비행의 성취가 어제 같지만 벌써 오늘날의 항공기는 눈부신 변화를 거듭하여 옛날의 그림자를 찾기가 어려우며, 지금은 비상한 발전을 하고 말았다. 그러므로 이 항공기는 성숙한 현대문명의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후세에 우리 현대인의 지능을 말하는 오벨리스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니 신라와 고구려의 빛나는 문화와 웅대한 기상을 계승하여 다시금 조국을 재건하며 용비(雄飛)의 길을 걸어 보려는 이 민족이 어찌 현대문명의 극치이며 과학의 최신 첨단 길을 걷고 있는 항공기의 발전사상 한 페이지를 기록조차 남기지 못할 것이며, 또 우리는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 항공기가 우리의 눈앞에 난무하는 꼴을 보고 마음 편할 도리가 있겠는가.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난관이 숨어 있다. 첫째 항공기는 근대과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만큼 고도로 세련되고 정밀하기 때문에 항공기에 대한 위대한 발명과 놀랄 만한 발견이 있을지라도 그 나라의 과학과 공업력이 이에 수반되지 않으면 발명이 살아나지 않고 헛되어 매장되어 버리는 예를 여러 번 볼 것이다. 그래서 이 항공기를 우리의 이기(利器)로 삼아 활용하려면 국가의 과학수준이 높은 동시에 이에 대한 국민 일반의 지대한 관심과 이해협조가 요청된다. 또 우수한 항공기를 생산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사정으로서 거리가 좀 떨어

져 있음을 느낀다.

여기서 항공교육을 국민교육의 제1 과제로 삼아 널리 국민의 교양으로 항공지식을 보급시켜 과학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력배양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항공교육을 실시하는 데 고려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지도할 수 있는 기회와 조직에 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도과목에 관한 것이다. 전자에 대해서는 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으로 취급하여 지도하는 학교항공교육과, 항공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키며 민중을 계몽시키는 민간항공교육의 두 가지 방식이 있다. 후자는 설계, 생산, 조립, 정비, 조종의 다섯 가지 과목으로 나누어 지도하는 것이다. 이는 어느 정도 공통된 기초교육을 거쳐 마지막에는 다섯 과목으로 나누어 선택하도록 해서 지도하는 것이다. 학교항공교육에서 저급 학생에게는 일단 공통된 기초교육을 받게 하고 고급학생에게는 지면에 의해 각 과목별로 지도받게 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러면 아래 지도조직과 교육과목에 대해 분류해보겠다.

항공교육(航空教育)

A. 학교 항공교육

a. 국민교육 항공교육(정규 과목)

- I. 제1학년, 비행기 이야기. 종이로 접는 비행기.
- II. 제2학년, 두터운 종이로 만든 글라이더, 팔랑개비
- III. 제3학년, 두터운 종이와 나무토막으로 만드는 글라이더.
- IV. 제4학년, 봄철(기상관측(氣象觀測)) 기압(기압계, 대기의 압력, 개입(晴晴)), 비(우(雨)), 기류, 기압과 천기(天氣)), 여름철(기류관측), 가을철(자연, 기상관측, 주야의 장단), 공기(공기의 실재), 겨울철(기상관측, 풍향, 얼음과 눈), 대와 나무로 만드는 모형 글라이더
- V. 제5학년, 연과 비행기(공기부력, 양각(仰角)과 양력(揚力), 비행기), 바다(파도, 바다와 기상), 여름하늘(여름 기상, 구름, 장마), 연장과 힘(지레, 비탈, 중력, 중심, 물체의 놓임), 석유발동기(내연기관), 프로펠러, 대와 나무로 만든 동력 비행기.

b. 중학교 항공교육(정규 과목과 특별교육 활동)

- I. 제1학년
 - a. 일반과학(정규 과목), 공기의 실재, 공기의 시간점유, 공기의 무게, 공기의 열 영향, 공기의 압력(대기의 압력, 기압계, 대기압력의 변화) 기상대기의 상황, 구름의 생성, 바람, 폭풍우, 기상대, 힘과 에너지(밀도, 유체의 압력, 부력, 물체의 운동, 힘의 정의, 에너지), 물(물의 비등과 빙결, 아이스크림, 수분과 지온(地溫))
 - β. 특별교육활동, 모형 글라이더 만들기, 모형 글라이더 성능연구.

II. 제2학년

a. 특별교육활동, 모형비행기 만들기, 모형비행기 성능연구.

III. 제3학년

- a. 일반과학(정규 과목), 전기(전기의 발생, 전기의 종류, 피뢰침, 음(음의 발생, 청음기관과 음의 전달), 간단한 기계(지레, 도르레), 큰 기계(유체의 동압력(動壓力), 비행기, 내연기관), 동물계(조류, 형태, 조류와 인생).
- β. 특별 교육활동, 고성능 모형비행기 만들기, 고성능 모형비행기 성능연구.

c. 고등학교 항공교육(공업고등학교 물리계통과 학생을 제외).

I. 제1학년

- a. 과학과 물리(정규과목) 계량과 단위(중량, 천칭, 밀도, 압력, 기압계), 물성(物性)(유체의 압력, 부력, 비중), 열(열량, 비열(比熱), 열의 이동, 열팽창, 용해, 고체화, 용융(融熱), 증발, 액화, 비등점, 온도)
- β. 특별교육활동, 고성능 모형비행기 공기역학적 성능연구, 글라이더 초급 동승 훈련, 글라이더 정비.

II. 제2학년

- a. 과학과 물리(정규 과목) 힘과 운동(작용, 반작용, 반작용의 법칙), 힘의 비김(조합(鈞合), 힘의 3요소, 힘의 합성 분해, 짝힘(偶力)), 힘의 능력, 물체의 중심과 놓임, 직선운동, 속력, 속력의 변화와 힘, 낙하운동, 힘과 가속도, 운동의 제2법칙, 관성, 운동량과 역적(力積), 만유인력과 중력, 회전운동, 기계와 일, 지레, 일, 일의 단위)
- β. 특별교육활동, 고성능 모형 항공기재료 역학적 성능 연구, 고성능 모형항공기 설계, 중급 글라이더 단독 활공훈련, 활공기 정비, 가솔린 엔진 모형비행기 연구.

III. 제3학년

- a. 과학과 물리(선택과목) 운동과 힘(관성, 유체의 마찰, 유체의 압력, 유체 중의 물체와 받는 저항), 일과 에너지(위치 에너지, 열에너지) 전동기와 동력(열기관, 내연기관) 동력의 기회적 전달(일의 손실률, 여러 가지 전동법(傳動法))
- β. 특별교육활동 고성능 모형비행기 연구, 가솔린 엔진 모형비행기 설계, 로켓 엔진과 제트 엔진 모형비행기 연구, 중급 글라이더 동승 범주(帆走)훈련, 글라이더 정비.

d. 공업고등학교 항공교육(물리계통의 학생)

I. 제1학년

- a. 과학과 물리(정규과목) [일반고등학교와 동일]
- β. 특별교육활동, 고성능 모형항공기 성능 연구, 고성능 모형항공기 설계, 가솔린 엔진 모형비행기 연구, 글라이더 동승훈련, 글라이더 제작과 정비.

II. 제2학년

- α. 과학과 물리(정규과목) [일반고등학교와 동일]
- β. 특별교육활동, 고성능 모형항공기 성능연구, 기술린 엔진 모형항공기 설계, 로켓과 제트 엔진 모형 항공기 연구, 글라이더 단독 활공 및 동승 범주 훈련, 활공기 제작과 정비, 비행기 조종훈련, 비행기 정비.
- III. 제3학년
 - α. 과학과 물리(정규 과목) [일반고등학교와 동일]
 - β. 특별 교육활동, 고성능 모형항공기 성능연구, 중급 글라이더 단독 범주훈련, 활공기 제작과 정비, 비행기 조종훈련, 비행기 정비, 비행기 조립과 분해, 로켓과 제트 엔진 모형항공기 설계와 연구.
- e. 대학항공교육
 - I. 모형항공기 연구 클럽활동, 고성능 모형항공기 연구와 설계, 기술린, 제트, 로켓 엔진 모형항공기 연구와 설계, 모형항공기 연구와 설계지도, 항공사상(航空思想) 보급운동 참여.
 - II. 글라이더 클럽활동, 중급 글라이더 범주훈련, 고급 글라이더 범주훈련, 글라이더 조립정비, 글라이더 설계와 제작, 글라이더 비행장관리운영과 참여, 글라이더 클럽 운영, 글라이더 훈련지도, 항공사상 보급운동에 참여.
 - III. 비행 클럽활동, 비행기 조종훈련, 비행기 조립 정비수리, 항공사상 보급운동에 참여, 비행장 관리에 노력.
 - IV. 로켓 연구클럽, 로켓과 제트 엔진 연구, 설계, 로켓과 제트 엔진 항공기와 유도탄 연구설계.
- B. 국민항공교육
 - a. 기술지도
 - I. 기술자 육성
 - α. 강습회
 - 1. 모형항공기 제작강습회
 - 2. 글라이더 제작 정비 강습회
 - 3. 글라이더 조종강습회
 - β. 기술클럽
 - 1. 모형항공기 연구클럽
 - 2. 글라이더클럽
 - 3. 비행기 조종클럽
 - γ. 기술학교
 - 1. 글라이더 제작학교
 - 2. 글라이더 조종사 양성소

- 3. 비행기 제작학교
- 4. 비행기 조종학교
- II. 지도자 양성
 - α. 모형 항공기 지도자 양성소
 - β. 활공교사 양성소
 - γ. 비행기 모형지도자 양성소
- b. 항공지식 보급 장려
 - I. 항공 강연회 개최
 - II. 선전영화 촬영과 영사회 개최
 - III. 선전국어 및 포스터 모집 및 가두 첨부(貼付) 선전
 - IV. 각종 항공 경기회(競技會)개최
 - V. 선전 공개 비행회 개최
 - VI. 동승 및 유람비행
 - VII. 항공전시회 개최
 - VIII. 항공기념행사 개최 및 주간 설정
 - IX. 항공사업 장려금 보조
 - X. 공로표창
 - XI. 항공단체 조직, 조성
 - XII. 항공기념 건축 건립

이상 항공지도사항과 방법의 개략을 제시했는데 이 가운데 초등학교(국민학교(國民學校))와 중학교의 것은 이 시안을 입안할 때 쓰이고 있던 교과과정에 맞추어 만든 것이므로 현재에는 약간 교과과정이 달라졌으나 이 시안을 적용할 수 없을 정도의 개정은 없다.

그러면 다음 본문에서 앞서 말한 시행방법을 살펴보겠다.

본론

학교항공교육

1. 주지(主旨)

휴머니스트인 훔볼트(Humbolt)가 말하기를 “너희들의 청년을 보아다오. 그러면 너희 나라를 알 수 있다.”고 했다. 그렇다! 청년은 미숙하고 사려분별이 완전하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의 기력과 정의에 불타는 이상, 그들의 과단성 있는 행동들은 능히 무슨 일을 맡겨도 성취하고야 말 것이고 큰 탈은 없을 것이다. 금세기에서 항공발전에 많은 기록을 남긴 독일, 특히 활공사의 전반기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한 독일의 업적은 말 그대로 독일 청년이 쌓은 업적이었다. 피와 땀으로

물든 활공기의 기록과 발전은 청년이 아니면 그 기록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또 하늘이 부르는 매력이 없었다면 독일 청년들의 비육지탄(髀肉之嘆)의 한을 토할 길이 없었을 것이다. 비록 히틀러 같은 지도자의 잘못으로 독일의 청년들은 결국에 그릇된 길로 인도되고 말았고, 나라는 패망했을지라도 조국을 위해 충성을 다한 정성은 길이 역사에 빛날 것이다. 이렇게 청년이 항공계에 공헌한 것은 독일 청년뿐만 아니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독일의 청년은 특히 '베르사이유(Versaille) 조약'이란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고, 또 청년들이 몸부림치는 것을 그렇게 전환시킨 위대한 선각자와 선도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그런 환경과 지도자에 대해 논할 필요는 없다. 다만 청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매력 있는 하늘로 나아가는 게 좋겠다고 역설하고자 한다. 그것이 국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그러면 이 나라의 청년들도 인류문화의 찬란한 업적을 남길 때가 반드시 돌아오지 않겠는가? 대한의 청년들이여! 하늘은 그대들을 부른다. 그 푸르고도 맑고 무한한 포용력 있는 하늘로 활개 펴고 마음대로 훨훨 날아보라.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으니 너희가 타는 항공기를 너희 자신이 만들어 타라. 결코 남의 것만은 타지 말라. 바로 여기에 학교 항공교육의 목적이 있다.

2. 초등학교 항공교육

제1항 지도방침

초등학교 아동에게 항공교육을 하지만 직접 항공기 실물을 보여주지는 않으나 다음에 의해 지도할 것.

1. 각 교과에는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아동에게 항공기에 관련된 교재를 택해 항공기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도록 할 것.
2. 항공기는 현재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어 보이는 바와 같이 전투, 곧 인명살상용구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평화적 운수 기관으로 사용하는 것이 더 크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할 것.
3. 항공기는 현대과학의 결정(結晶)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연구함은 현대인의 필수 교양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할 것.
4. 이과 시간에 학습한 학과를 모형항공기로 실험하여 이과 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5. 치밀한 공작기술을 습득하게 하는 동시에 참을성 있고 끈기 있게 일을 완수하는 습성을 가지게 할 것.
6. 재료의 사용법, 공작법 등 모형 항공기 제작에서 설계도에 의해 정확히 공작하고 튼튼하게 만들되 조금이라도 재료를 헛되이 쓰지 말고 가볍게 만들도록 하며, 또 아동들이 상호 협조하여 공동으로 제작함으로써 단체 협조정신을 갖도록 하여 개인별 작자가 따로따로 제작하는 것보다 노력과 시간의 절약이 되며, 또 정확한 공작품을 산출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할 것.

7. 항상 창의, 개선하는 연구 태도로 공작에 임하도록 할 것.
8. 아동이 의무적으로 정규 시간에만 공작을 하지 않고 과외에도 제작 연구하도록 격려 시도하여 아동의 재능을 신장 발전하게 하고, 절차탁마(切磋琢磨) 노력하여 작업하는 습성을 갖도록 하며, 경기회 등을 개최하여 경쟁심을 조장하고 패기를 양성하도록 유익할 것.

제2항 제1학년

1. 비행기 이야기(미술과)

요지(要旨).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지도함.

- 가. 항공기의 자세의 아름다운 점이 곧 기계적으로도 우아함을 나타낸다는 점을 강조. 곧 아름다운 항공기는 성능이 좋은 항공기라는 점을 강조. 초창기 항공기의 형태는 매우 기이했으나 차차 항공기가 진보하면서 매우 아름다워졌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 항공기에도 진선미 삼위일체설을 어릴 때부터 인식하게 할 것.
- 나. 인류비행이란 우리 인류가 갖는 동경의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갖 고난을 겪으며 노력했으나 최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항공기는 피와 눈물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
- 다. 항공기의 종류를 제시할 것.

2. 종이로 접는 비행기(공작과)

요지. 보통 쓰는 종이로 접어 날려보되 그 나는 상태를 잘 관찰하도록 하며, 나는 물체에 대한 흥미를 갖도록 하는 동시에 연구 관찰하는 태도를 갖도록 함.

지도방법(지도방법)

- 가. 종이를 접을 때 처음부터 조심해서 접도록 하며 여러 번 다시 접든지, 아니면 구기지 않도록 정확하게 접도록 할 것.
- 나. 접은 것이 전후좌우 상하 어느 쪽으로 봐도 균형에 맞도록 접게 할 것.
- 리. 결국 여러 가지 날리는 상태 가운데 변화 없이 같은 상태를 오래 유지하여 날 수 있게 날리는 것이 제일 옳은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할 것. 왜냐하면 종이로 접은 비행기도 항공기의 일종인데 이런 신뢰성 없고 불안정한 항공기에는 사람이 탈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것.
- 미. 여러 가지 종이로 접는 비행기가 다 잘 날려면 모양이 균형에 맞게 하고 뒤보다 비교적 앞이 무거워야 안전한 정상비행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하게 할 것. (계속)

나는 이렇게 공산주의자(共產主義者)에게 반문(反問)한다

김창순(金昌順)

1. 어쩌서 종착역(終着驛)인가?

인간사회의 최선의 정치조직 및 사회경제제도는 과연 무엇인가?

이 점에 관해 공산주의자들이 굳게 믿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라고 한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하면 인간은 더 바라 볼 것이 없다고 그들은 신념하는 모양이다.

만일 공산주의자들의 굳게 믿는 대로 공산주의 사회란 것이 인간사회의 종착역이라면 우리 인간은 보잘것없는 숙명론에 빠지고 만다. 인간사회의 진보는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하면서 마침내 정치상태에 들어가고 만다는 것이 되니까.

태고시대로부터 우리 인간은 좀 더 잘 살 수 있는 정치조직과 사회경제제도를 꾸준히 탐구하여 현재를 계승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을, 오늘보다는 또 내일의 진보를 위해 가치창조의 온갖 노력활동을 부단히 지속해왔고, 또 하고 있다.

그래서 진보를 추구하는 인간의 가치창조 욕구는 인간의 주체성이며, 또한 인간의 존재와 더불어 영구 불멸한 것이다. 인간이 자연계의 속물이면서도 보통 물질과 구별되는 것은 인간 특유의 주체성 때문이다. 즉 진보를 추구하는 인간의 가치창조 욕구를 말한다.

공산주의자들의 굳게 믿는 대로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하면 인간세계로서는 종착역이 되고 만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으려면 우선 인간의 주체성부터 무시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 진보를 위한 인간의 가치 창조욕구는 정치, 사멸한다는 논법이 되고 만다. 이것은 인간능력의 유한성을 부정하고 무한성을 주장하는 공산주의자들의 철학과는 어떤 관계가 있다. 다시 말해 인간 노동력만이 가치를 창조하고 소와 말의 노동력은 그렇지 못하다는 공산주의자들의 소견과, 또 인간의 가치창조 욕구는 한자리에 정제하거나 사멸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인간 사회는 그에 따라 끊임없이 진보, 발전하고 있을 뿐 퇴보와 순환 그 어느 것도 아니라라는 굳은 신념은 드디어 허무맹랑한 것이 되고 말지 않는가.

여기에 이르러 인간 능력의 무한대와 무궁한 사회진보를 주장하면서도 공산

주의 사회가 인간세계의 종착역이라고 굳게 믿는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세계는 마침내 이율배반(二律背反)의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지고 말지 않는가.

우리 생각에 인간은 공산주의 사회에 도달하더라도 새로운 권태를 발견할 것이며, 새로운 불만과 반항심을 가질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할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사실이겠는가?

선행사회의 정치철학자들이 여러 가지 구상으로 인간세계의 이상향을 설계해 본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고, 인간은 또한 그런 것들을 체험의 세계로 실천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 어느 하나도 만대(萬代)를 두고 그 이상의 것이 있을 수 없는 최선의 이상향이 되진 못했다.

공산주의란 것도 요컨대 구형 자본주의가 보여준 그 자체의 결함을 발견한 사람들이 사회개조를 위한 새로운 시도였다면 또 몰라도 오직 공산주의만이 신조가 되어야 한다는 법칙은 도대체 누구의 법이란 말인가?

역사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은 구형 자본주의가 자기 수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현대의 자본주의가 구형 자본주의 그대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구형 자본주의의 결함을 공격하던 공산주의자들의 목표물이 소실되었다는 사실도 공정하게 인정하게 되리라.

이것은 최선의 정치조직 및 사회경제제도를 추구하는 인간세계의 지향이 공산주의자들의 독단과 가정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공산주의 사조란 것이 한때 시대를 풍미했다는 것은 우리도 솔직하게 인정하는 바이다. 동시에 그것은 벌써 지난날의 일이었다는 것도 부득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껏해야 하나의 시대적 유물로밖에 더 평가할 도리가 없다. 이것은 누구의 고의가 아니라 공산주의 스스로의 운명일 줄 안다.

2. 왜 하나여야 하나?

러시아에서 실천된 공산주의만이 유일한 공산주의라는 논리는 또 누구의 정설인가?

전통이 다르고 현실도 다른데 러시아에서 실천된 공산주의만이 모든 곳에 적용되어 무결점의 유일한 혁명이론이라고 고집하는 그들의 주장에는 반드시 불순한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레닌은 마르크스의 유산을 독점하기 위해 자

기만이 마르크스의 유일한 제자라고 참칭(僭稱)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도 굳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마르크스주의가 그대로 레닌주의가 아닌 것만도 사실이 아닌가. 마르크스주의의 주요한 부분을 왜곡한 것이 레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를 가장 정확하게 시대 변천에 알맞게 발전시킨 것이 레닌주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무슨 이유가 숨어 있는 것 같다. 마르크스주의가 모아놓은 동지자들을 레닌이 독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마르크스주의의 권위를 뒤집어쓰고 러시아에서 폭력혁명을 수행하자는 것이 레닌주의이기에, 레닌의 반대파인 지노비예프까지도 뭐라고 말했던가.

지노비예프는 그의 저작 『레닌의 추억』 가운데서 레닌주의를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레닌주의란 별 게 아니다. 농업이 지배적인 후진국가에서 미숙한 노동자와 농민을 선전·선동하여 폭력혁명을 일으키는 전략·전술에 불과하다.”

오늘날 그들이 자랑삼아 말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란 것은 지노비예프가 말하는 바로 그 레닌주의를 말한다. 그러한 레닌주의를 그들이 마르크스·레닌주의라고 부르는 까닭은 레닌주의의 본질을 은폐하자는 것이 아닌가?

세계정지사 가운데서 가장 으뜸가는 학정사(虐政史)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에서 폭력 수단이 아니고서는 구질서를 뒤집어엎을 수 없다고 본 것이 레닌 도당이 었다는 것은 역사가의 공론만이 아니라 소련공산당사까지도 부득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소위 마르크스·레닌주의라는 것은 러시아에서의 폭력혁명을 지도한 전략·전술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것이 모든 곳에 적용되어 하나도 잘못이 없는 유일한 혁명이론으로 될 수 있던 말인가? 그것도 러시아의 과거 및 현실과 사정을 똑같이 하는 곳이라면 또 몰라도 어디 그럴 수가 있는가? 이래서 마르크스·레닌주의란 것은 러시아식 폭력혁명을 억지로 수출하고 선동함으로써 세계정복을 탐내는 공산 제국주의의 장신구가 된 것이다.

동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러시아식 폭력혁명이 억지로 수출된 결과는 근대 러시아 제국의 식민지 예속권을 그만큼 확대시킨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이상의 사실을 시인하지 않으려면, 그들은 각자 개인으로서 자유로워야 하고 민족으로서 독립해 있어야 한다. 공산주의자가 군림하고 있는 그 어느 지역에 개인의 자유와 민족의 독립이 있는가?

더욱이 한심한 것은 소련공산당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 하는 공산당은 소련공산당의 탄압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들 사회에서는 소련공산당의 제국

주의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가? 소련공산당은 왜 유고 공산당을 공격하고 있는가? 누가 남의 독자성을 강압하고 있으며 말살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소련 제국주의가 아니라면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소련 제국주의인데 어찌하나. 결국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이놈이며 후추나 고추나 맵기는 매일반인데 이를 또 어찌하나.

오직 하나이기를 강요하는 자가 누구냐? 왜 오직 하나이기를 강요하느냐. 공산주의는 그래야만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나갈 수 있다고 믿는지 몰라도 사실은 소련 제국주의로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가 그렇게 하고 있는 줄 알아야 한다.

3. 빙탄(氷炭)은 불상용(不相容)인데 왜 공존(共存)하지 않느냐?

그들은 우리더러 공존하자고도 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없는 자리에서는 우리를 적으로 몰아대고 있는 것이 그들의 과업이 아닌가?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이외의 모든 것을 정복해야만 된다는 엄청난 야심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의 개념에 의하면 공산주의만이 최고의 민주주의이고, 그 밖의 민주주의는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한다. 하물며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빙탄 불상용(氷炭不相容)의 관계에 있다고 믿는 것이 그들이 아닌가? 그러면서도 때로는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평화롭게 공존하자고 하니 어느 것이 과연 진심인가?

우리가 알기로,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빙탄불상용의 적대관계에 있다고 믿는 것이 그들의 본심임을 의심치 않는다. 필시 거짓이거나 또는 그렇게 주장하는 그들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이 된다. 공산주의의 어느 구절에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친구”라고 쓰여 있지 않을뿐더러, 가는 곳마다 “그것은 빙탄불상용의 적대관계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누가 죽고 사는가의 싸움을 해야 한다고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 된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말인가?

역사의 경험에 따라 판단할 때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득이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그들의 언행이 일치한다는 점도 부득이 시인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는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달콤한 말과 부드러운 교태를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그들의 실질적 행동은 언제든지 자유민주주의의 목을 조르려고 한다는 사실을 지적해 주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자기들끼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죽여야만 공산주의가 살 수 있다고 종지(宗旨)를 널리 퍼뜨리면서, 행동으로도 그 종지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남에게 정직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한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다.

공산주의가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공존하자고 제청(提請)하는 것은 액면 그대로의 진심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면 무슨 필요 때문에 그들이 우리더러 공존하자고 손을 내미는가?

공산주의자들의 힘이 압도적으로 강하다고 가정하고, 우리의 힘이 그것보다 엄청나게 약하다고 가정해 보자. 그때 그들은 우리더러 공존하자고 손을 내밀 것인가?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보요, 그러기를 바라는 것도 바보다.

지난 40년 역사 동안 공산주의는 자기의 힘이 상대방의 힘보다 엄청나게 약했거나 백중지세(伯仲之勢)라고 단정했을 때 그들의 표정과 언행은 그때마다 달라졌다. 자기 힘이 약할 때는 상대방에게 얻어맞지 않도록 곱게 보이자는 것이 그들의 표정이며, 피차간에 힘의 관계가 비등하다고 믿어질 때는 남의 약점을 찾아 다니면서 선수 공격을 취하는 것이 그들의 행동이었다. 하물며 불행히도 우리 힘이 약하고 그들의 힘이 강해졌다고 단정하면 그들의 행동이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우리가 이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라면 공산주의자들은 크게 기뻐할 일이겠지만…….

4. 누가 평화(平和)를 학대(虐待)하나?

평화를 학대하는 자 누구냐?

공산주의자들의 입으로는 평화의 출혈을 애석해하는 여러 가지 '귀중한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것은 '평화 5원칙', '평화협상', '무엇이든지 평화수단으로 해결하자!' 등이다. 이와는 판판인데 어찌 하나.

그들이 신조하는 것은 공산주의 이외의 모든 것이 소멸되고 말살된 후에 오직 공산주의만이 잔존하는 사회라야만 비로소 평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한 평화는 현존하는 평화를 모조리 살육하지 않고서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공산주의 이외의 모든 것은 소멸되고 말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찌 평화를 사랑하는 관념이 있을 수 있겠는가? '소멸'과 '말살'의 과정이 별

써 평화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소멸'과 '말살'은 죽음과 파괴를 동반하게 되니 당장에 평화의 출혈을 강요한다.

인간은 평화의 동물이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가 그들에게 학대를 받아야 할 까닭은 없다. 우리는 기성의 평화 속에서 새로운 평화를 육성할 줄 알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평화의 출혈을 감수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평화문제이다. 이에 대해 공산주의는 어떠한가?

우선 분열, 우선 파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만이 남는 사회가 아니라면 평화는 근본적으로 있지도 않다는 것이 그들의 평화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공산주의는 분열을 조장하고 파괴를 감행하지만, 이것은 침략 행정(行程)이다.

침략 행정을 평화의 행정인 것처럼 꾸며대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위장된 평화문제이다. 이런 줄 모르고 헤매는 사람들이 어수룩한 골짜기마다 꼭 차 있으면 그들에게 유리할는지 모르나 개명천하(開明天下)에 어찌 그런 '요행'이 공산주의 문 앞으로 굴러올 수 있겠는가.

현재로 평화 5원칙, 평화협상, 평화수단 제일주의를 가식적으로 줄곧 표방해야 하는 그들에게는 과연 어떤 사정이 있는가? 아마도 그것은 "공산주의의 침략 위협은 존재하지도 않는데 굳이 왜 필요한가?"의 회의(懷疑)와 긴장의 해이(解弛)를 조성하고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야만 침략의 기회는 도래할 것이라고 계산하는 것이 그들의 심정이 아니겠는가.

평화는 인간사회에서 더없이 중요한 것이 틀림없지만, 그들은 평화의 이름을 팔아서 침략의 야욕을 채우려 한다. 그러므로 통분할 자는 평화의 신만이 아니라 참담하게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는 그들도 알고 있다.

우리가 겪은 공산주의 6·25 불법 남침은 "우리나라에 대한 공산주의 남북통일 방식"이었다. 이것이 공산주의 평화통일을 표방하는 보자기 속에서 튀어나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평화와 침략의 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으로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그들에게 통고하지 않더라도 이 나라 강산의 말 없는 산천 초목까지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니, 지금쯤 그들도 천지신명(天地神明)이 무심치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5. 그것은 간접(間接) 침략(侵略)인가?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패하고 난 북한의 공산당은 또 무엇 때문에 평화통일을 표방하는가? 6·25 불법 남침은 그들의 정치, 군사, 도덕상의 참패를 자초했건만 그들의 침략 의욕만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표시인가?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빌미 삼아 평화의 독약을 팔자는 셈인가?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그들의 평화통일 표방은 지금도 어떤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가?

남북의 민심이 다 같이 통일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반공 민주통일이여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 한 정당의 주장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의의이자 생존적 욕구이다. 실로 이러한 통일이 전쟁이 아닌 평화수단으로 이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솔직히 말해 우리 겨레의 남북 동포가 지금 이러한 심리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은 공산주의자들도 모른 채할 수 없지 않은가?

이러한 마당에 “공산주의가 좋다.”는 말을 입 밖에 냈다가는 삼척동자(三尺童子) 앞에서도 뺨을 맞아야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실정이기 때문에, 그들로서도 또 한 번 평화통일의 간판을 내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민족 누구에게나 다 아는 사실이다.

조리(條理)는 이러하지만 그들은 또 한 번 평화통일을 표방해서 남북 동포들을 기만하며 남한을 간접적으로 침략하는 방편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남북 동포들이 모두 정치 군맹(群盲)이 아니고는 보잘것없고 남아빠진 수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들은 정말로 욕심이 강하고 굶주린 사냥꾼이 공중 높이 날아가는 비둘기떼를 보고 내 품으로 찾아들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장면을 연상해 본 적이 있는가? (끝)

네 번째의 원자잠수함(原子潛水艦) ‘스’ 호(號)

오는 15일(來十五日)에 정식취역(正式就役)

미 해군은 20일 그의 네 번째 원자잠수함 ‘스워드 피쉬’ 호가 15일 뉴햄프셔 주 포트머스 항에서 취역했다고 발표했다.

사는 D. 크래머 중령을 함장으로 할 이 ‘스워드 피쉬’ 호는 2천1백9십 톤의 배수량을 가졌으며, 길이는 2백67피트이다.

이미 취역 중인 미 원자잠수함은 ‘노틸러스’ 호, ‘시울프’ 호 및 ‘스케이트’ 호 등이다.

(45면에서 계속)

는데 후원하기 위해 유럽 내에서 대한중석 판로개척에 적극 협력할 것.

2. 현재 텅스텐 시가로는 그들의 유일한 생산업자인 대한중석이 사업유지가 곤란하니 국제시세를 무시하고라도 대한중석회사가 생산업을 지탱할 수 있는 정도로 텅스텐 매입가격을 올려줄 것.

3. 소련이 자유진영의 산업을 파괴하기 위해 유럽 내에 텅스텐을 텅핑하고 있으나, 유럽 내 텅스텐 소비업자들은 결속하여 대한중석을 사용하고 공산권 내 생산품을 사용하지 않을 것.

이상 회답에서 우선 거둔 소득은 우리 대한중석을 통해 유럽 각국 20여 명의 대표를 모았고, 그들은 모두 나에게 옛날과 같이 호의적이고 친밀하게 장래 상호원조를 굳게 약속했다. 이 회의를 통해 대한중석의 존재가 유럽 각지에 깊이 인식되었고, 따라서 이 텅스텐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의 국위가 유럽에 다시 한번 선전(宣傳)된 것은 국제외교상 지대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믿고 기뻐하는 바이다.

하늘을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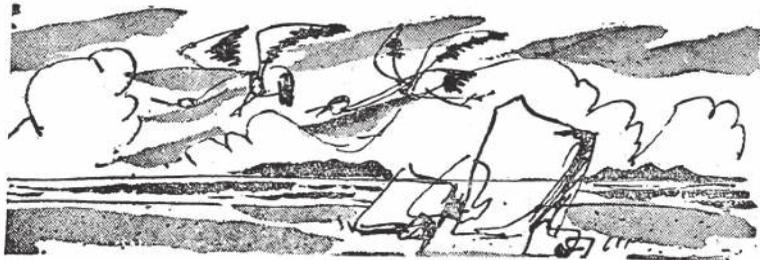
(서정주(徐廷柱)의 학(鶴)에 부쳐)

신석초(申石艸)

새파란 젊음의 물결이
일렁이는 그대 모습에
멋진 우습이 흐르고,

그대 손에 넘노는 갈매의 나래!
쪽빛으로 열리는 쪽빛으로 열리는
하늘을 간다.

(출렁이는 물살도 없이
고운 강(江)물이 흐르듯
천년(千年) 시름의 학(鶴)이 나르노나,
발밑에 감도는 입자없는 구름!
발밑에 감도는 입자없는 안개!
구름으로 솟는 산(山)봉두리를 간다.
깃 깔은 질편한 강(江)위를 간다.



가-없는 천체(天體)의 푸름으로
그대, 한번 맞부딪혀 보노나.
그래도, 저, 사상(思想)으로 나뉘
한 선(線)을 넘지 못한다.

분노(忿怒)하여야 할 임진강(臨津江)을.
초목(草木)도 울어야할 단발령(斷髮嶺)을.

아쉽게 가로놓인 일선(一線)을
그대는 지킨다, 조용히,
때를 기다리며,
조국(祖國)을 위(爲)하여.



포물선(拋物線)

—어느 비행사(飛行士)에게—

김용호(金容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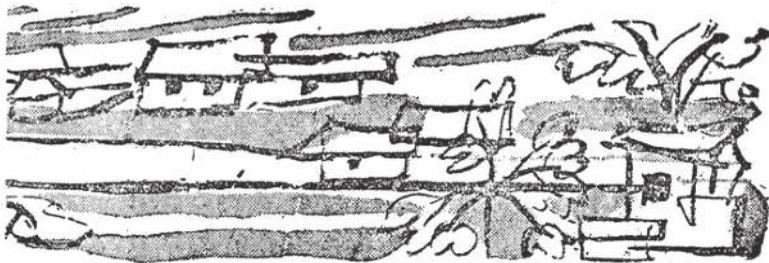
다음에, 다음에, 다음 다음에
연결(連結)하는
선(線).

선(線)의 무용(舞踊).

공간(空間)위으로, 공간(空間)아래로
약동(躍動)하는
점(點).

점(點) 청춘(青春).

속력(速力)속에, 속력(速力)을 망각(忘却)한 안정(安定)된 위치(位置)에서 날개는 수평(水平)을 저울 하고, 다시 부동(不動)의 자세(姿勢)가 분수(噴水)인양 솟구쳐 포물선(拋物線)이 그려진다. 그건 무지개 같은 것. 황홀히 피어 오른 무지개 같은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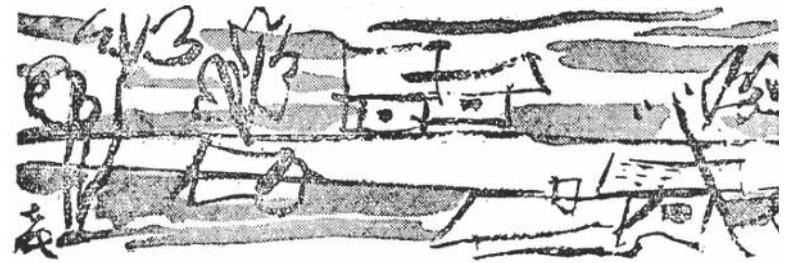
차례로, 차례로, 차례, 차례로
자랑하는
율동(律動)

시(詩)의 역학(力學).

압축(壓縮)되는 지구(地球)의 상층(上層)으로
떨어가는
거목(巨木).

꿈의 미학(美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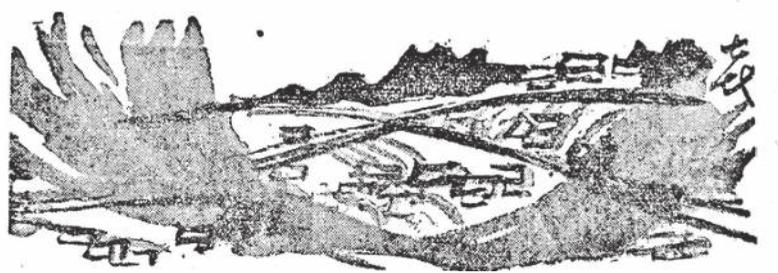
그속엔 동화(童話)가 아기자기하게 꽃피었다. 무한(無限)에서 무한(無限)으로 통하는 길이 있어 날개는 한결 가볍고, 무한(無限)의 한 지점(地點)에서 한폭(幅)의 회서(繪書)로 형상(形象)되는 그 동화(童話), 그건 네가 창조(創造)하는 포물(拋物)선(線)이다.



기상음(機上吟)

박목월(朴木月)

구두는
길다랗고 검으티티한 얼굴에
무표정(無表情)의
깊은 표정(表情)을 하고,
C·46수송기(輸送機)에 앉아 있다.
구두는
무슨 사상(思想)에 잠겼을가.
실은 밑창이 두군데
빵그가 나 있다.
그 구두를 신고
나는 지상(地上)을 굽어본다.
상공(上空) 삼천 피트의
너무나
황홀한 위치(位置).
강(江)은 한 자락 허리띠,
존경(尊敬)과 동경(憧憬)의 눈을 들어



조석(朝夕)으로 우러러 본
준령(峻嶺)은 또한 다소곳이 엮드린 시종(侍從).
고도(高度)를 하강(下降)하면,
마을은 이미 잘 정돈(整頓)한
하나의 모자이크.
일상(日常)의 젖은 꿈을 가져버린
청결(淸潔)한 채색(彩色)무늬.
이만한 위치(位置)에서
지상(地上)을 굽어보신 분들을 생각한다.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분을……
이미 애련(愛憐)의 운층(雲層)을
벗어나와, 기수(機首)는 여전한 상승자세(上昇姿勢).
그 안에 앉아
구두는 고독(孤獨)했다.
무뚝뚝한 얼굴에
눈물을 머금고,
강릉구백리(江陵九百里)를
사십오분(四十五分)에 천천히 왔다.



아가와 엄마의 낮잠

김남조(金南祚)

아가 손 쥐고
아가 함께 엄마도 단잠 자는
눈어린 대낮

아가 얼굴이사
물에 뜬 미끈한 달덩이지
눈이야 감건 말건
흰히 비치는 걸

조랑조랑 꽃이 많은 꽃뭉음이나
잘 익은 과일들의 과일바구니 모양
연방 흘러우는
단 내 나는 살냄새
아가의 향기

꿈결에도 오 가느니
아가 마음과 엄마 마음
금수레에 올라 탄 메아리라 부르라
사락사락 입맞추는 봄바람이라 부르라

아가 한번 눈 떠 보면
엄마도 잠시 깨고
아가 병긋 웃어주면
엄마 가슴은 해맞이

창호지 한 장 너메
누가 오고 누가 가건
우리 애기 옆자리는 엄마의 낙원



한국여성(韓國女性)의 특질(特質)

김동리(金東里)

만주(滿洲)에 오래 있다 돌아온 사람의 이야기다. 하얼빈의 매춘시장에는 한국 여성을 비롯하여 일본, 중국, 만주, 러시아 등 다섯 나라 여성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강한 것이 한국 여성이라 한다. 왜냐하면 그런 데 있는 여성들은 대개 병(특히 성병)으로 인해 쓰러지는데, 다섯 나라 여성들 가운데서 병에 잘 걸리지 않는 것도 한국 여성이요, 병에 걸리더라도 병을 극복하고 가장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한국 여성이었다고 한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만큼의 통계학적 근거를 가진 것인지 모르는 이상, 우리는 그의 말을 어느 정도로 믿어야 좋을지 모를 일이다.

나는 이야기를 듣고, 이 이야기와는 별도로, 한국 여성의 특질이란 것을 생각해 보았다. 한국 여성의 특질은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한국 여성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엄밀히 따져 보면, 실상 '한국 여성'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에 대해서거나 '여성' 일반에 대한 것이다. 그것을 다시 말하자면 전자는 '한국 여성'뿐 아니라 '한국 남성'에게도 공통될 수 있는 점이며, 후자는 '한국 여성'뿐 아니라 다른 나라 여성에도 통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것을 '한국 여성의 특질'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참된 의미에서 '한국 여성의 특질'이란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것을 역사적 사실(史實)에서 귀납(歸納)해 보기로 하자.

삼국시대의 대표적 여성이라고 하면 너무나 광범하다. 신라(新羅)만 두고 보더라도 덕(德)으로는 알영(閼英)(박혁거세비(朴赫居世妃)), 지혜로는 덕만(德曼)(선덕여왕(善德女王))이 있고, 이 밖에 재색정절(財色貞節)에 뛰어난 여성이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정부인으로서 대표적인 여성을 들면 김유신(金庾信)가의 두 고부(姑婦)를 손꼽을 수 있을 것이다.

김유신이 얼마나 훌륭한 인물인가는 여기서 새삼 말할 것도 없지만, 김유신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제일 먼저 그 어머니이시던 만명부인(萬明夫人)을 꼽아야 할 것이다. 유신이 젊어서 여색에 빠졌을 때, 간곡하고도 준열(峻烈)한 훈계로 그가 드디어 말머리를 베게 한 무섭고 현명하고 대찬 부인이었다.

그리고 김유신의 부인 김씨(지소부인(智炤夫人)-태종무열왕(太宗武烈王)의 셋째 따님) 역시 시어머니이신 만명부인과 남편인 김유신의 엄격하고도 준열한 가풍(家風)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둘째 아들 원술(元述)이 천추(千秋)에 통곡을 남기도록 한 강철같이 굳센 부인이었다.

고구려사기(高句麗史記)에도 유명한 여성이 많지만, 가운데서도 특히 뛰어난 여성은 평강왕(平岡王)의 따님으로 온달(溫達)의 부인이 된 여성일 것이다. 이 여성의 천재적인 현명(賢明)과 의협(義俠)은 부왕을 무색케 하고, 바보를 영웅으로 만들어놓았다.

백제사(百濟史)에 나타난 여성으로는 도미(都彌)의 아내가 지킨 정절을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 여성이 군왕의 권위 앞에서도 한 몸의 정조를 지켰다고 해서가 아니라 땅 끝까지 흘러가 남편을 지켜낸 그 무서운 의지는 과연 특출했던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고려조(高麗朝)의 대표적 여성으로는 정몽주(鄭夢周)의 어머니가 알려져 있고, 조선의 여성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이로는 춘향(春香), 심청(深靑), 논개(論介), 황진이(黃眞伊)들이다.

가마귀 싸우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성년 가마귀 흰빛을 새우나니 창파에 조히 씻음을 더러힐가 하노라.

이것은 포은의 어머니가 간신(奸臣)들의 무리 속에서 포은의 충절을 기린 노래(시조(時調))라 하여 특히 유명하고, 춘향의 단심(丹心), 심청의 지성(至誠), 논개의 지조(志操), 황진이의 현명(賢明), 모두 '약한 여성'들의 하소연이 아니고 강한 여성의 소행들인 것이다. 백절불굴(百折不屈)하는 의지의 여성들인 것이다. 이것은 삼국시대의 만명부인도 그렇고, 지소부인도 그렇고, 온달의 처도 그렇고, 도미의 처도 그렇다. 그녀들은 모두 눈물의 주인공이기보다는 의지의 주인공들이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이기보다는 '백운(白雲)이 만건곤(滿乾坤)한 가운데도 '독야청청(獨也靑靑)' 하리라던 '송죽(松竹)'에 가까운 사람들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역사 위에 나타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여성들의 어떤 공통된 특징으로 굳셈과 '의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속일 수 없는 '한국 여성의 특질'이 아닐 수 없다.

악부(惡婦), 독부(毒婦), 요부(妖婦), 한부(悍婦), 음부(淫婦)들이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다 있다. 열녀(烈女), 정녀(貞女), 미녀(美女), 가녀(佳女), 효녀(孝女),

숙녀(淑女)들도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나 다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다 정하고 친절할 것이 여성인 것도 사실이다. 의지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것이 여성이요, 따라서 약한 것이 여성이란 말도 있다. 또 나라와 겨레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소녀의 이야기는 여러 나라 사실(史實)에서 보는 바이다. 그 어머니나 그 지아비를 위해 한 몸을 바쳤다는 이야기는 더욱 많으며, 특히 애인이나 약혼자를 따라서 죽음을 택했다는 이야기는 오늘날도 매일 같이 듣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놀랍고 장하고 가특한 일이나, 또는 아무리 알밋고 쾌짓하고 약랄한 일이라도 그것이 어디서나 다 그만큼 있는 것이 상례라면 그것을 따로 내 세워 누구의 특질로 삼을 수는 없다.

내가 위에서 우리의 역사적 사실을 귀납(歸納)하는데 다른 유명한 여성들을—선악미추(善惡美醜) 간에—다 두고 김유신 집의 두 고부와, 온달의 처, 도미의 처, 포은의 어머니, 춘향, 심청, 논개, 황진이들을 꼽은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다. 이 밖의 다른 유명한 여성들은 다른 나라의 같은 조건의 유명한 여성들과 상쇄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내가 우리의 역사적 사실에서 귀납하여 얻은 '한국 여성의 특질'로서의 결론은 '굳셈'과 '의지적'이요, 이것은 우연일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서두에 기록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와 합치되기도 한다.

웃음이나 몸을 팔아야 하는 여성은 불행한 여성이다. 그러나 '불행'이란 아무에게도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여성은 다 행복을 원하나, 또한 어느 여성에게나 불행이 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불행한 여성'을 도외시킬 수도 없고 여성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미 불행한 가운데서도 역시 강할 수 있다는 한국 여성은 소위 '불행 중 다행'이라고나 할까.

<수필(隨筆)>

꿈

조흔파(趙欣坡)

나는 인생을 세 가지 모양을 맛보며 살아간다. 그 하나는 남들처럼 현실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쓰는 작품세계 속에서, 남은 한 가지는 잠을

자는 동안에 꿈속에서 재미를 보며 인생을 경험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꾸는 꿈은 천연색이 아니라 노상 흑백(黑白)영화 같다. 또 나 자신을 띄워놓고 내가 볼 수 있어서 더욱 좋다. 꿈속에서 활약하는 나는 언제나 용감하고 자유로워 구속이 없다. 미운 놈을 때려주고 아무리 욕설을 퍼붓는대도 잠만 깨면 책임도 후환(後患)도 없으니 후련하고 시원하다. 생시에는 만날 기약 없는 낯은 임도 꿈속에서만은 차비 한 푼 들이지 않고 만나볼 수 있으며, 때로는 그 임과 화촉동방(花燭洞房)에서 단꿈을 꿀 수도 있다. 이것이 생시라고 해보자. 정신적인 부담, 물질적인 희생, 마누라의 강짜, 자녀들로부터의 불신(不信), 도의적인 책임 등등의 골치 아픈 일들을 각오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듯 귀찮은 일을 겪지 않고도 얼마든지 또 하나의 인생을 즐길 수 있으니 꿈이란 진정 고마운 물건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만 하는 것이 하나 있으니 이른바 잠꼬대다. 이놈을 잘못 지껄었다가는 꿈속의 비밀이 들통나기 쉽다.

“영자 씨, 나는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누라하고는 이혼하고 당신과 사랑의 보금자리를 이룩합시다. 네? 영자 씨…….”

어찌고 했다가는 자다가 마누라에게 얻어맞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잠꼬대는 되도록 어물어물, 웅얼웅얼해 치우는 것이 상책이다.

“웅얼웅얼, 웅알웅알, 쫘얼쫘얼…… 음…… 음…… 음야…….”

이렇게 하면 아내는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면서,

“원고 쓰기에 얼마나 고달팠으면 저렇게 잠꼬대를 다 하실까.”

하며 동정해마지 않는다. 남의 속도 모르고 좀 더 대접을 받고 싶다면 건성 잠꼬대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보…… 당신과 결혼한 지가 벌써 몇 해요? 그동안 고생만 시켰구려. 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당신을 호강시켜 줄 테니 당분간 이대로 참아 주오. …… 드르렁…… 드르렁…….”

설마 꿈에서까지 거짓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는 아내인지라 이튿날 아침밥상에는 계란짜개가 한 그릇 오르고, 텀벼드는 애들의 젓가락을 물리치느라 눈총을 쏟 것이다.

“애들아, 아버지 좀 잡수시게 너희들은 콩자반하고 밥을 먹어라.”

몽매(夢寐)에도 잊지 않고 자기 고생을 걱정해 주는 남편이 하도 대견해서 그렇기도 할 게다.

이것은 최근에 내가 구상해본 소설의 소재(素材)이고, 나라는 사람이 이처럼 교활하고 영큼하지는 못하다.

어쨌건 나는 잠을 잘 때면 꿈에 대한 기대가 크다.

(오늘 저녁엔 어떤 꿈을 꾸려나.)

하는 기대는

(다음번엔 ××극장의 무슨 영화가 들어오려나.)

하는 기대보다 훨씬 앞서도록 나를 찌릿찌릿하게 만들어 준다.

옛날, 조(趙)나라 서울 한단(邯鄲)의 소년 노생(盧生)이 여옹(呂翁)을 만나 가난을 불평을 하였던니 노인이 소년을 주막으로 데리고 가 주머니에서 사기 베개 하나를 꺼내더니, 이것을 베고 잠을 자보라 했다. 이때 주막 주인은 술에 수수쌀을 삶고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소년은 잠이 들었다.

그 후 소년은 미인 최씨의 딸을 아내로 맞고 이듬해 진사가 되어 과거에 급제하고 차츰 벼슬이 높아져서 중서령(中書令)이 되고 연국공(燕國公)에 봉함(封函)을 받는 동안 다섯 아들을 낳아 손자 십여 명을 두게 되었다. 나이 팔십을 넘도록 호강을 하다가 드디어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최후의 하품을 하며 문득 눈을 떠보니 그것은 꿈이었고 옆에 여옹이 앉아 있었으며 수수쌀은 아직도 다 익지 않았었다.

비슷한 꿈 이야기로 순우분(淳于棼)의 남가지몽(南柯之夢)에 보이는 조신(調信)의 꿈이 있다. 간단히 소개하면 이러하다. 세규사(世遼寺)의 젊은 중 조신은, 태수 김흔공(金昕公)의 딸을 사모하게 되어 낙산사 대비에게 발원(發願)을 했다. 그러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처녀는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 이 일을 못내 슬퍼한 조신이 대비전에 원망하며 눈물을 흘릴 때 법당 문이 열리더니 그 규수가 나타나 혼가를 빠져나왔다 하며 조신을 사모해 왔다고 이른다. 이에 두 사람은 멀리 달아나 같이 살기를 40여 년, 그 사이에 자식도 다섯이나 생겼다. 그러나 극심한 가난에 쫓기어 이리저리 결식을 하는 중 자식 하나가 굶어 죽었다. 다시 10여 년, 부부는 늙고 살림은 나날이 쪼들려 추위와 주림을 막을 길 없어 마침내 부부는 자식 둘씩을 나누어 데리고 헤어지고 말았다. 눈물을 흘리며 길을 걷던 조신이 돌부리에 채여 깜짝 놀라니 한마당의 꿈이다. 꿈에서 50여 년을 지냈건만 아직 법당 안의 향불은 다 꺼지지 않고 별령거린다. 그는 전비를 뉘우치고 잡념을 버려서 도통한 중이 되었다는 이야기.

내가 바라는 꿈은 이런 것이 다 아니어도 좋다. 악몽(惡夢)이라도 무방하다. 그것을 깨인 뒤의 시원스러운 맛을 버리기 아까워서다. 꿈도 먹어가는 나이를 따라 차츰 그 내용을 달리하는 듯하다. 어릴 때는 공중을 훨훨 날고 낭떠러지에서 구르기도 하며 악몽이라야 기껏 수학선생에게 진땀을 뺐는 정도가 고작이었는데

요즘에 와서는 어지러워진 신변과 함께 꿈의 스토리도 점점 복잡해 가고 있다.

나이 40을 예로부터 불혹(不惑)이라 이르거니와 나는 40이 넘으면서부터 자꾸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난데없는 행운이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꿈을 가지고 그날의 일수(日數)를 점치려는 미신에도 나를 이끌고 간다. 길몽(吉夢)을 꾸는 날은 마음이 흐뭇하고 흉몽(凶夢)을 본 아침에는 공연히 불안하다. 그러나 어느 것이 길이고 흉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길몽은 반드시 있나 보다. 노름판에서는 돼지 꿈을 돈 주고 팔고 산다고 한다. 꿈을 매매한 기록은 멀리 신라 시절 김유신의 누이 문희(文姬)가 그 언니 보희(寶姬)에게서 비단치마 한 갑을 주고 오줌 싹 꿈을 사서 후일 왕후가 된 것이 옛날 책에 적혀 있거니와, 속담에는 또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지 않은가. 어쨌든 내가 흉몽을 꾸었을 때는 늘 원성(元聖)대왕의 흉몽을 길몽으로 해석한 여삼(餘三)이와, 이태조의 서까래 꿈을 해몽한 무학대사를 생각하고 스스로 위안을 받기도 한다.

그런데 요새 웬일이냐. 텅텅히 앉아서 눈만 감으면 어렴풋한 꿈이 눈꺼풀 안에 떠오르곤 한다. 고향 땅 무주공산(無主空山)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 팔순이 다 되신 늙은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고국산천의 모양들이다.

모란봉과 대동강변으로 굽주린 이리떼 모양 험레벌떡 돌아다니는 괴뢰군들의 행악(行惡)도 눈앞에 선하고, 정말 꿈에서는 이들을 무찌르고 복진하는 국군의 모습을 본다.

이 꿈이 실현되는 날, 나는 죽어도 한이 없을 것 같다. 꿈속에 아주 문혀버려도 좋을 것만 같다. <끝>

<수필(隨筆)>

장터 근처

이종환(李種桓)

“세모돌이…… 네모돌이……, 세모돌이…… 네모돌이…….”

요녀석들이 또 몰려왔다.

만년필 잡은 손에 맥이 탁 풀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등을 의자 등애다 기대고 눈을 감았다.

오늘만 해도 벌써 두 번이나 나가서 호통을 쳤건만, 내가 내려가는 기색만 보

면 쪼르르 달아났다가는 어느새 또 몰려와서 약을 올려주곤 하니 요놈들을 도대체 어떡하면 종단 말인가. 어느 한 놈 붙잡히기만 하면 따귀라도 한 대 갈겨주고 싶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4, 5, 6학년 정도라 날째기가 다람쥐 같다.

하기는 별명이란 묘한 것이기는 하다. 전에 통의동 살 때부터 민우는 세모돌이고 혼우는 네모돌이었다. 고바우 김성환 씨가 『새벗』에 그리는 연재만화의 제목이자 주인공의 이름이다. 한 녀석은 얼굴이 세모꼴이고 한 녀석은 네모꼴인 것이다.

판은 두 아이를 나란히 세워 놓고 보면 민우란 놈은 턱이 쪽 빠르고, 혼우란 놈 역시 모는지지 않았지만 등글넓적한 얼굴이 무슨 꼴에 속하느냐고 묻는다면 네모꼴에 가깝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연년생이라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똑같이 나가 놀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별명이 붙은 모양이다. 그것이 이리로 이사를 와서도 꼭 누가 가르쳐 주거나 한 듯 세모돌이, 네모돌이가 되고 말았다.

한번 김성환 씨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집에 데려와 아이들 얼굴을 하나씩 그려 받은 적도 있었지만 얼마 전에 명동에서 만났더니 대뜸 “얘기들 사진 한 장씩 주십시오.” 하는 것이었다. 어디에 쓰려느냐고 물으니, 그 수줍은 처녀 같은 말솜씨로, 이번에 『세모돌이 네모돌이』가 단행본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선생 덕 얘기를 사진을 맨 앞에 넣었으면 모델 같이 재미 있잖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쾌락을 하지 못하고 말았다. 아이들이 거의 종일 놀림을 받고 울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 책에 사진까지 냈다가는 아주 정말 ‘세모돌이 네모돌이’가 되겠으니 말이다. 집에 와서 아내 보고 말했더니,

“지금은 그렇지만 애들이 커서 보면 재미 있잖겠어요?”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재미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어른 위주의 얘기다. 그 아이들이 그것을 재미있어 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적어도 5, 6년 동안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얼마나 상심할 것이냐 말이다.

며칠 전, 깨끗하게 만들어진 단행본 『세모돌이 네모돌이』가 보내져 왔다. 책을 받고 보니, 역시 사진을 줄 것을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 별명이 그렇게 붙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별명이란 그야말로 어느 모로는 재미있기조차 한 것이다.

그보다도, 도시 시끄러워서 견딜수가 없는 것이다. 이층이란 아래층보다도 더 잘 길거리의 말소리나 소음이 들리는 법이다. 밤중에는 길 한 켠에서 구두딴이 아이들의 코고는 소리조차 요란스럽다. 작년 가을 얘기를 하면 알 만하다.

인사동에서 낙원동 시장 골목으로 돌아 들어서는 골목길이라, 김장거리가 나

기 시작해서 없어질 때까지는 이 이층은 바로 시장 한복판인 것이다. 신경질이 나다 못해 나는 이층에서 글 쓰는 걸 포기하고 말았다. 김장때가 아니더라도 온종일 엇장수, 사과장수, 채권 장수, 변소 치워요 장수, 별별 장수들이 목청을 뽑고 는 지나간다.

이런데다가 아이들까지 와서 왁자지껄 시끄러운 데는 질색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자니 울고불고 때리고 싸우고 법석이 그칠 새 없고…….

한길이지만, 병원이랍시고 비교적 깨끗이 비질을 해둔 꽤 넓은 공간이라 이 동네 아이들에게는 안성맞춤의 놀이터인 셈이다. 빨리 개학이나 했으면 싶었다. 나는 소파로 내려와 담배를 피워 물었다. 저녁때까지는 어떻게든지 끝내지 않으면 안 될 급한 것인데 원고는 통 진행이 되지 못한다.

파고다 공원에서 와야 함성이 들려왔다. 씨름을 하는 모양이다. 파고다 공원은 왜 엉터리 관상쟁이, 약장수 따위나 놈팡이들한테 맡겨두고 있는지 잘 모를 노릇이다. 넓지도 않은 공원을 아이들 놀이터로 그것 하나 제공 못 할 게 어디 있단 말인가. 하기가 미끄럼도 있고 풀도 만들어놓기도 했다. 그렇지만 어찌다가 아이들 손을 잡고 기웃해 불러치면 발하나 들여놓을 데가 없이 득실득실 어른들만 깔고 있다.

나는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화가 치밀었다. 누구에게도 아니게 신경질이 발작 일어난 것이다.

갑자기 빠- 하고 민우 울음소리가 났다.

나는 후다닥 그만 일어서고 말았다. 충계를 쓴살같이 뛰어 내려갔다. 아무 놈이나 닥치는 대로 오늘은 기어이 혼을 내주고야 말리라 생각했다. 충계를 뛰어내리는 내 발소리에 조무래기 녀석들은 포탄이 작렬해 퍼지듯 달아나고 말았다.

“어느 놈이야, 어느 놈이 또 놀렸어!”

그러자 민우 옆에 섰던 혼우가,

“재, 재가 칼로, 생철로 맨든 칼로 언니를 막 찌르려고 했어! 막, 죽인다구!”

재라고 가리켜진 5학년 되어 보이는 러닝셔츠 입은 놈한테로 나는 전속력으로 달려갔다. 내 몸이 불편한 것도, 웃웃은 파자마를 걸친 채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막 뛰었다. 그러나 그놈은 나보다 더 빨랐다.

내가 얼마 안 가, 숨을 헉헉 몰아쉬고 서서, 그 녀석도 발을 멈추고 돌아서서 되려 소리를 질렀다.

“내가 어쩔다고 그래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그지? 내가 안 그랬지?”

같이 달아나던 옆의 놈보고 동의를 구하니까, “응” 하고 고개를 끄덕인다. 그

러자 이놈은 더 신이 나서 둘러선 길 가던 사람들을 돌아보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고향을 지르는 것이었다.

“내가 안 그랬는데 괜히 알지도 못하고 지랄이야!”

나는 기가 질리고 말았다. 나 보고 욕을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아이 녀석들이 거짓말을 해도 이제는 아주 능숙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다. 옆에 놈에게 말하자면 허위증언을 시켜가며 딱 잡아떼는 것이었다.

할 일 없이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내 얼굴만 벌게져 있었다.

이층으로 올라와, 원고는 다 틀렸다 생각하고 담배를 다시 한 대 피워 물고 앉았는데 훈우가 올라와서 가만히 이르는 것이었다.

“아빠, 개, 또 왔어. 바로 우리 집 문 앞에 있어!”

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던 차라 나는 곧 발소리를 죽여서 살금살금 내려갔다. 다짜고짜 달려드는 데는 그 녀석도 꿈쩍 못 했다. 상대방에게 이쪽 전투태세를 알리지 않고 기습을 하는 것은 비겁한 방법에 틀림없겠으나 수단 방법을 가릴 겨를이 내게 있을 리 없었다.

목덜미를 바짝 붙잡고

“너희 집으로 가자!”

용서 없이 잡아끌었다.

제가 한 짓이 있고, 또 내 기세가 만만치 않은 것을 알아차리자, 녀석은 조금 반항을 해보다가 단념한 모양으로 눈물을 찝끔거리며 시장 뒷골목으로 앞장서 갔다.

기둥이 비스듬한 조그마한 기와집 아랫방 뒷마루에 앉았던 여인 하나가 밑으로 불이 붙은 듯이 튀어 일어서 나오면서, 소리소리 질렀다.

“아니, 명수야. 이게 웬일이니. 어떻게 된 거니?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보니 그때까지 나는 그 녀석의 목덜미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놓았다가는 놓쳐버릴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다.

여인의 서슬에 놀라며 나는 그때야 목덜미에서 손을 내렸다. 아닌 게 아니라 좀 무안스러웠다.

“글세, 내가 안 그랬는데도 자꾸 나보구 그랬다잖아. 잉, 잉, 잉…….”

아이 녀석은 떠나갈 듯이 울음을 터트린다.

나는 간단히 설명을 했다.

날이면 날마다 꼭 우리 집 앞에 와서 떠드는 통에 병원을 해 먹을 수가 없다고 했다. 글을 쓸 수가 없다고 해서 통할 것 같지가 않아 병원만 팔았다. 실상 아

래층에서는 아래층대로 시끄러워 죽겠다고 야단이니까.

그래, 시끄러워 못 견디겠기도 하지만, 칼로 조그만 놈들을 찢러 죽인다고 하며 들볶으니 좀 주의시켜 달라고 심상치 않은 어조로 설파했다.

그러자 유난히 희게 분칠을 한 여인은 땀국이 흐르는 행주치마에 바람이 일듯이 펄렁대며 찢어져라 소리를 질렀다.

“아니, 그래 그 일로 남의 귀한 자식 목덜미를 졸라 잡고 끌고 오는 거예요? 난, 원, 무슨 도둑질이나 했는 줄 알았네! 그래, 그만 일로 이려고 끌고 오느냐 말이에요! 애들이 행길에서 떠들고 놀기 예사지, 시끄러우면 절간에 가 증질이나 하면 될 거지, 왜 남의 아이 가지고 이 야단이에요. 언서 이 모양이야!”

악을 쓰며 흘겨보는 눈살 앞에 나는 완전히 질리고 말았다. 더 대꾸할 용기가 내게는 없었다. 다시 둘러선 사람들 앞에 얼굴이 벌게져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었다.

아직 자리 속에 있는데, 민우 훈우가 들어와서 잡아 흔들었다.

“아빠, 아빠, 내려가 봐, 우리 간판 있잖아?”

두 놈은 서로 다투어 보고를 하는 것이었다.

“아빠가 어제 흰 빵끼 칠 해둔 데 말이야.”

한글로 간판을 갈아야 한다는 바람에 병원 진료종목 쓰는 간판에도 오늘이라 또 마르면 한글로 고쳐 쓰려고 흰 칠만 해두었던 것이다.

“거기다 새까만 걸루, 누가 세모돌이 네모돌이를 그려놓고, 그 옆에 대머리를 하나 크게 그려놓았어.”

나는 아랫배 근처가 뭉킹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보나마나 어제 그 녀석이 한 짓이 틀림없었다.

나는 잠이 깨지 않아 잘 못 알아들은 시늉으로 그냥, 응, …… 응…… 대답도 아닌 중얼거림을 손짓을 해서 아이들을 내보내고 말았다. <끝>

나의 공군 시절

박병래(朴秉來)

5년 6개월 군인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인상 깊은 일이 많았다.

내가 평생 군인생활을 하겠다고 생각하고서 입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더 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가끔 난다.

그것은 군대생활이라는 것은 다른 사회생활보다 단순하고 순박하고 명랑한 까닭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계급으로나 직책으로나 자기가 맡은 임무를 완수하면 그것에 따라 결과가 나오오, 다른 사회와 달라 주위 환경에 특별한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 군대생활이다. 노병(老兵)으로 입대하여 젊은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게 되니 기분이 항상 젊어(약 20년 젊은 사람)진 것 같아서 활기 있는 생활을 하였다.

추울 때 행진 훈련, 짧은 여름밤에 비상소집 훈련을 씩씩한 정신으로 지지 않으려고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출장을 갈 때 또는 돌아와서 젊은 상관에게 군대식 신고를 할 때 늙은 티를 내지 않고 젊은 사람의 흉내를 내려고 노력한 것이 나의 생활을 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 것 같다.

내가 입대할 때에는 소령으로 임명되어 일개 과원으로 근무하다가 차차 바뀌어 과장으로 또는 부장으로 또는 분원장으로, 부원장으로, 원장으로, 특별 참모로 순조롭게 구슬 꿰듯 직책이 바뀌고 중령, 대령으로 승진되어 또는 은성, 금성 훈련장까지 타게 된 것을 생각하면 행운의 길을 걸은 것 같다.

그간에 하기 어려운 외국 출장도 여러 번 했고 세계 일주도 하여 나의 생애 중 군대 생활 부분이 있을 수 없는 행복한 시절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때 오십 고개 넘는 늙은 병정은 최 장군을 비롯해서 본인까지 여러 명이 가끔 노병의 모임을 열어 유쾌하게 산이고 들에서 논 적도 있었고, 대단장 회의에 소집당해 뻔뻔한 회의에도 참석했으며, 부대장 회의를 소집해 익숙지 못한 지지도 하며 앞날의 발전을 노력한 것도 다 인상 깊은 일들이었다.

외부 상관을 맞이하여 군대 예절을 몰라 쪼쪼맨 적도 있었고 내부 상관을 영접하며 어리둥절한 적도 있었다. 내가 학교를 마치고 연구실에 10여 년, 교회병원(성모병원)에 15년, 병자의 치료에만 종사하다가 군대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치료 이외의 행정 경험을 얻었고, 다수 인원을 통솔하여 보았고 매주 짧은 시간이

나마 연설도 해보았다. 이로써 병자를 치료하는 이외에 여러 가지 나의 능력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다.

행정에는 수완이 있어야 하고, 통솔에는 위엄이 있어야 하며, 연설에는 언변이 있어야 하는데, 나는 이 점에 별로 자랑할 점이 없는 것 같았다.

또 단체생활(군대 역시 큰 단체)에는 전체 인심의 동향을 파악하여 인기를 얻으면 무슨 일이든지 순조롭게 되는 것인데, 나는 이런 점에도 역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 같다. 이러한 내가 순조롭게 승진이 되고 몇 개의 훈장도 받게 된 것은 수십 년간 연구하여 길렀고 자신을 가질 수 있었던 나의 전문 영역인 의술에 전념했던 탓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우둔하나마 자기 직책과 분(分)을 지키기에 노력한 것이 상관과 선배의 특별한 이해와 돌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입대하여 처음에는 있는 살림살이를 약간 처분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 하지만, 피난 중이라 팔아서 쓸 물건도 차차 떨어지고 나중에는 내 아내가 학창시절에 배운 재주로 부인들을 모아 요리강습회를 열어 그 강습회비로 부족한 지출을 충당하는데 애썼다.

병원의 책임을 맡았을 때는 많은 사병의 치료를 위해 타군 부대에 연락해서 부산까지 출장을 간 적도 있었고, 가짜 병으로 제대를 하려고 갖은 꾀를 내서 진단하는 데 고심한 적도 많았다. 어떤 자는 간질병 흉내를 내고, 어떤 자는 위장병 흉내를 내 일주일씩 먹지 않는 자도 있었으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병은 병이 심한데도 전우의 노고를 돕겠다고 진심으로 속히 퇴원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병원 각 처 행정이 바쁠 때는 자진해서 일을 도와주겠다고 나서서 사람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출장을 갔다가 제날에 자기의 맡은 임무를 완수하고 어김없이 돌아와 신고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대의 출장 임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불일만 다 보고 늦게 돌아와서는 앞뒤를 꾸며대려고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여러 개성이 모인 단체생활에는 좋은 자도 있고 좋지 못한 자도 어찌 없으랴. 그러나 군대 이외의 사회보다는 단순하고 모략성이 적고 특별한 악의 없는 일시적인 그릇된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다. 꼭 어린애가 숨바꼭질할 때 머리만 숨기고 엉덩이는 내놓고 나를 찾으라는 식이었다.

부대를 이끌고 야외에 놀러갈 때 규율 있게 시간을 엄격히 하면 훈련이 되고, 규율 없이 무분별하게 지나면 야유회(野遊會)가 아니라 야유회(挪揄會)가 되는 것도 알았다.

부하의 고과표(考課表)를 만들 때 또는 진급을 추천할 때 진속을 명령할 때 공정하게 양심 있게 했어도 환경과 시기를 잘못 타면 오해를 사는 수가 있다는 것도 알았다. 제대를 추천했어도 군비(軍祕)를 지키느라 엄한 태도를 취하다가 오히려 오해를 산 적도 있었다.

이런 것이 내가 군대생활에서 얻은 요모조모의 경험이었다.

군대에서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은 관계로 군 예절에 익숙하지 못해 실패한 몇 가지도 생각한다.

한 번은 최 장군이 목욕탕에 계실 때 모르고 들어갔다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몰라 땀이 찼을 땀이 났으나 더운 목욕탕 속이라 그 땀이 그 땀인지 스스로 모르게 되었고, 보초를 서는 사병에게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모자를 벗고 인사하고 나가다가 통로에서 놀림을 당한 적도 있었다. 그 밖에 군대생활에서 얻은 점도 많다. 신체의 단련도 되었으나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좋은 선배, 좋은 친지를 많이 얻은 것이 큰 소득이라고 생각한다. 제대한 지 2년 반이 가까워도 내가 지나온 사회의 고향 같은 애착감이 스스로 사라지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군에 새로 부대가 증설이 되고 혹은 친지가 승진을 하게 되면 유달리 남보다 기쁘고, 비행사고 있든지 불미한 일이 신문에 나면 걱정이 되는 것이 내가 공군에 애착 있는 연고라고 할 것이다. 약진하는 공군! 발전하여 우리의 국토 공중방위 힘차게 하세.

(필자(筆者) 성 누가 병원 원장, 의학박사)

☆ 창군(創軍 제10주년(第十週年)을 맞는

제트 조종사(操縱士)의 수감(隨感)

민경수

푸른 하늘에 고(孤)를 그리며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날아다니는 제트기 그것은 오직 모질게 약동하는 젊음의 상징이기도 하다.

때로는 해 돋는 바닷가 마을 뭉게뭉게 김북게 물들어 오는 아침 안개를 뚫고,



때로는 낙조와 더불어 잠들어가는 대지를 멀리 별과 벗하며 속삭이듯이 하늘을 나는 우리 젊은 제트 조종사는 언제나 자연의 웅대한 서정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나 이처럼 아름다운 한 폭의 회화(繪畵) 같은 생활 속에 우리의 전력은 배양되고 저 무서운 과학의 최첨단을 가는 신예병기들은 우리의 조종사들의 손에 의해서 지극히 순조롭게 그리고 조심스럽게 운용되어 간다.

무기의 발달은 참으로 팔목 이상의 것으로서 오늘의 신무기가 내일에는 이미 구식화되어 가는 이 지음은 그저 놀랍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전쟁의 용장 F-86F 세이버 제트기도 이미 구식화되었고, 한때 최신을 자랑하던 세계 최초의 실용초음속 전투기 F-100A 슈퍼 세이버도 F-104A 스타파이터의 출현으로 북미대륙방 공의 진렬로부터 점차 제거되어가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이의 전투 폭격기형인 F-100D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이렇듯 발달하는 세계적인 조류에 따라 우리 공군도 무척 발전하고 있다.

1949년 10월 1일에 창립된 우리 공군은 불과 22대의 연습기를 가지고 6·25 동란 초기를 겪었으나 그 후 1개의 F-51D 무스탕 전투비행단을 가지고 동란 전기를 통해서 역전했으며 1955년 6월에는 제트비행단으로 개편하게 된 것이다.

이 동안 우리는 모자라는 비행기와 인원으로 다른 모든 나라의 공군이 그 초창기에 겪은 것과는 색다른 고난을 겪어 온 것이며 이러한 모든 고난이 성공의 싹이 되어 우리는 이미 두 개의 제트 전투비행단을 보유하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오늘날까지 만 10년간, 그것은 오직 우리 어린 공군에겐 지나친, 그러나 지극히 유익했던 시련의 기간이었다. 예부터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한다. 지금 우리는 강산 아닌 훌륭한 공군을 이룩한 것이다.

모든 큰 일에 많은 희생이 동반하듯이, 그간 우리는 다시 없는 훌륭한 공중지휘관이던 군신(軍神) 고 이근석 준장과 고 김영환 준장 그밖에 여러

선배 동료들이 건설도상의 우리 공군을 위해 초석으로 희생되신 것은 우리들 모든 조종사의 뺏속 깊이 새겨져 언제나 가슴 아프게 느껴지게 한다.

이렇듯 변천 발달을 거듭하는 동안 우리 자신의 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왔다.

시속 불과 100마일 미만의 초창기로부터 600마일 이상의 현재에 이르렀고 행

동고도 역시 불과 3천 피트 정도로부터 4만 피트 이상의 성층권으로 옮겨졌다.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초음속과 5만 피트 이상으로 전환되어가려는 찰나에 있다.

근대 공군의 이상은 높게, 빠르게 그리고 멀리 날자는 것이다.

이것은 공기가 희박하고 몹시 추운 곳을 우리가 무쇠도 녹아버릴 듯한 빠른 속도로 날자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4만 피트라고 하면 이것이 어떠한 곳이라는 것은 그리 짐작하기 쉬운 것이 아니다. 불과 수 밀리미터의 두께밖에 안 되는 플라스틱(PLASTIC)의 캐노피(CANOPIE; 조종석의 문) 밖에는 기온이 섭씨 영하 55도, 기압은 지표면의 표준대 기압(760밀리)의 18.5%에 불과한 10.7밀리에 불과한 것이다. 이러한 곳에서 만일 비행기에 고장이 생겨서 조종석 밖으로 튀어 나간다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30초를 넘기지 못하고 의식을 잃거나 혹은 죽어버리고 마는 무서운 세계인 것이다. 그러나 하늘은 이 신비한 대 공간에 무서운 것만을 마련하지는 않았다.

지상에 앉아서서 생각조차 하지도 못할 갖가지 아름다운 것들이 많다.

구름 위를 비행할 때는 구름 위에 던져진 내 비행기에 그림자를 오색찬란한 등근 무지개가 감싸서 언제까지나 정답게 따라 다니고, 3만 피트 이상의 고공을 날 때는 저 아름다운 비행운이 꼬리로부터 길게 늘어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날씨가 몹시 좋은 가을날이면 완전히 동글게 보이는 먼 수평선, 붉게 단풍이 짓든 강산, 답답한 속세와는 지나치게 다른 정상들을 우리는 이 공간에서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낮에만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밤에는 밤대로 또 다른 정경이 짓든다.

고공의 일몰은 지표면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늦다.

땅에서 이미 어둠의 장막이 내려진 비행장을 박차고 고공에 오르면 아직도 그곳에서는 검붉은 저녁노을과 더불어 지면보다 한결 더 장엄한 낙조를 감상할 수 있다.

칠석날이면 으레 오작교를 가려버리기 일쑤인 구름도 우리에게겐 견우직녀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베일로 존재할 수가 없다.

오직 이런 것들만이 하늘에 대한 동경을 자아내는 매혹이어서는 안 된다.

저기에는 좀 더 씩씩하고 사나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

실전(實戰)에서 적기(敵機)를 가상하는 표적에 대해 여섯 문의 기관포가 일제히 불을 뿜을 때 땅덩어리와 하늘이 제멋대로 뒤섞여 움직이는 그 장쾌한 특수 비행.

예전엔 불가능이라고만 알려졌던 음(音)의 장벽을 과학의 힘과 내 정력으로 정복했을 때.

애기(愛機)를 잡아채 올려 중천에 솟아오를 때 고개를 돌려 투하한 폭탄의 명중을 음미하는 쾌감. 이들은 오직 하늘의 용사인 우리 젊은 전투 조종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맛볼 수 없는 색다른 청춘의 향연이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우방인 미국 공군과 합동작전훈련을 한다.

때로는 어깨를 나란히 같이 날고 때로는 서로 적이 되어 상호간의 전투 능력을 측정하고 이를 평가한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우리의 공군을 가리켜 이구동성으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못지않은, 아니 한층 더 우수한 공군이라고 칭찬한다.

그러나 어느 때이고 그들이 이렇게 평할 때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착실한 그들의 전우가 되고 우리의 전력을 한층 더 연마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6·25 동란 중의 일이다.

UN군이 500회 이상이나 출격해서도 끊지 못했던 철교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저 유명한 평양의 승호리 철교다.

UN군 합동작전사령부(JOC)에 있던 전과 확인과 평가를 맡아보던 한 장교가 연일 놀라운 전과를 거듭 올리는 한국 공군을 그의 시야에서 놓칠 리가 없었다. 그는 합동작전회의에서 한국 공군에게 이 철교 절단의 임무를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1952년 1월 15일 우리 공군은 불과 12대의 F-51 무스탕 전투기로 이 철교 5개 소를 폭쇠(暴衰) 절단함으로써 온 세계를 놀라게 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1956년 첫여름 한미합동방공작전이 수행되던 중의 일이다.

미국 공군과 우리 공군이 서로 가상적(假想敵)이 되어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이다.

우리는 30경보전대가 당시 장비했던 이미 구식화된 교육용 레이더와 10전투비행단의 f-86f 전투기 간의 훌륭한 협동으로 가상 적기(미국 공군 전투기)의 침입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살살이 찾아내 요격했다.

그러는 동안 하루는 얇게 쳐들어오는 가상 적기를 비행장 근처에서 요격할 때가 있었다. 이때 요격 공중전에서 우리 공군이 어찌 훌륭하게 싸웠는지 이 작전

을 감독하던 미국 공군의 한 심판과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손뼉을 치고 “원더 풀!”을 연발하는 그의 입에서 가는 한숨까지 새어 나왔다.

이 반면에 우리의 적 비행장 공격은 거의 전부가 성공적인 기습공격을 감행했던 것이다.

이 작전이 끝난 후 그들은 우리 공군을 높이 평가하고 그 눈부신 발달을 극구 찬양했다.

오늘날 한국의 하늘은 순전히 우리 손으로 지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 우리가 쌓아올린 우리의 전투 능력이 결실로 이루어진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미 제5 공군의 총 전술 능력에 해당하는 528대의 전투기와 141대의 폭격기, 30대의 전술 정찰기를 포함하는 총 대수 870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만주와 연해주에는 중공과 시베리아 공군이 더욱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괴뢰에 대한 백업(Back-Up)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현재 우리가 보유하는 병력 장비를 더욱 증강할 것은 물론, 새로운 초음속 공군 건설을 하루바삐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오직 우리 젊은 전투조종사들의 피땀 어린 노력과 백절불굴(百折不屈)의 꾸준한 정력이 필요하며, 마음속에서 초음속을 성층권에서 대 공간(Space)을 지향하는 우리들의 의욕만이 이를 해결하는 관건이다. <끝>

<수필(隨筆)>

파일럿의 변(辯)

김동호(金東皓)

가을 하늘 맑고 높다더니 금년(今年)엔 늦바람난 한량인 양 모진 장마에 피해가 크다. 장마철 하면 누구나가 그렇겠지만 제일 생리에 맞지 않는 게 아마도 조종사들이라 하겠다.

우선 빠른 사지에 허황한 감정을 수습 못 하고 하품만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려니 피곤도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비단 그런 것 뿐만 아니고 활주로

콘크리트 면에 세차게 빗발이 내려치면 시정(視程)이 30량(糧)(좀 때렸나?) 앞이 형편없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놈의 인민군 아저씨들이 가끔 우리 휴전선을 넘실거리는 통에 레이더 강에 걸려 스크램블 운명이 떨어지면 하시라도 떠야 하겠기에 멍청하니 꼬리 긴 F-8G(세이버) 좌석에 앉아서 4, 5시간 지내려면 낮밤의 꿈속을 헤매기도 하고 비상대기 룸(Alert room)에선 “장이야, 궁이야.” 또는 흑백의 치열한 투쟁이 계속 벌어지고……. 학자는 못 되지만 딱딱한 법 이론이나 논리, 경제, 문화 등 전문가적 독서를 아끼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평일이나 휴일이나 그것은 제삼자의 입장에서지 결코 본인들의 생리에는 역시 부합되지 않는다. 어쨌든 비행이 없으면 필요 없는 신경질도 피우고 소화도 안 되고……. 하늘을 나는 데 별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조종사가 된 거고, 하늘을 나는 습성이 붙었다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일종의 스포츠로 생각되기 일쑤다. 논리상으로야 하늘을 지키는 ‘보라매’로서 군세게 하늘을 지키고 조국을 수호하는 것이지만, 자기 능력을 향상하고 기강을 닦아야만 대적(對敵)해서 살 수 있고 한 대라도 더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론이 성립되기 때문에 연역적이지 취미는 아니다. 말하자면 실재적이라고나 할까? 인생무상이라 한다. 오늘의 운명을 모르고 한 가닥 희망과 목적, 야망과 포부를 가지고 사는 게 인생이요,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게 청년이라 한다. 누구나 목적달성과 경시일관(經始一貫)이란 명목을 가지고 험한 가시밭길을 헤맨다. 하지만 심할 땐 일주일마다 예복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에 서서 고인들의 모습을 말없는 사진에서만 찾을 땐 명복의 분향 속에 유명(幽明)의 세계를 상상해 보기도 한다.

유가족의 애절한 통곡엔 착잡한 감정 속에서나 자신을 발견할라치면 서글플 때도 간혹 있다.

하늘은 확실히 귀물(鬼物)이다. 아마도 50년이란 반세기 동안에 대중적이고 광범위하게 발달된 과학으로서 우주과학과 항공학 외엔 비견(比肩)할 아무런 존재도 없다. 우리나라 역시 그러하지만 특히나 광복 10년간의 궤적을 더듬어서 공군만큼 현저한 발전을 보인 규모와 실체를 찾아볼 수 없다 해도 반박할 여지가 없다. 한국인의 손으로 한국 하늘의 음역을 돌파한 것은 불과 20년 전 10월 1일



이라면 그런가 할는지 모른다. 제트기 말이 났으니 말이지 지금 우리 조종사들 중에 제트기 도입을 얼마나 갈망했으며 맑고 아름다운 한국의 하늘을 태극기 선명한 제트기로 날아보겠다고 원했는가?

사실 육상, 웬만한 구름, 산악 해보았자 빨간 산으로 한 번 폭우에 흘러내려 가는 하천의 적갈색에는 이젠 진저리가 나고 몸서리가 치지만 “아침 해 고을시고 아롱지는 노을”에는 감명을 느끼니 말이다.

1955년 초 처음으로 공군 3개년계획에 의해 T-33이 도입되면서 국내에 미국 기지에서 직접 그들과 비교한 훈련을 받은 여러 선배들의 뒤를 이어 속속 제트기의 모습이 고품을 장식하게 되었을 때는 누구나가 다 일곱 살 난 어린이가 동물원에 가는 듯이 작약(雀躍)했다. 물론 그간의 고귀한 희생이 말할 수 없이 많았고 거대한 국가 재산의 손실을 보았다. 최초 희생자로선 고 이재국(李載國) 소령의 순직으로 F-51의 용자요, 사변 당시에 입은 전신 화상에도 불구하고 용약(勇躍) 지원훈련을 받다가 오산 기지에서 순직했고 이역만리 미국에서의 고 이기협(李基峽) 대령의 고귀한 희생은 비단 공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의 비통한 소식이었다. 제트기 하면 복잡하다. 우선 구식 프로펠러형기와 근본적으로 차이 있는 게 연료요, 내연기관이며 속도다. 고성능 항공기이므로 좌석 내에 여과장치와 비행복의 특수성은 일반인으로서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고공비행하면 곧 비행운(飛行雲, Contrail)을 예상하지만, 이는 기온 -37도인 공기의 고도 3만4천~4만 피트에서 보인다. 지상에서 볼 때는 비행기 뒤에 바짝 붙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 3기장(機長) 뒤에서부터 일어난다. 급격히 약 300도의 배기가스가 -37도라는 온도와 충돌하여 포화상태를 만들고 응동(凝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행 구름이니 비행운이라 일컫는 것이 바로 콘트레일이라는 것이다. 보통 고공비행하면 자체에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은 흔히 질문 받는 일이다. 기계 힘과 그 원리는 고사하고 첫째는 산소이다. 만일 산소가 결핍되면 명정상태(銘正狀態)에서 깨끗이 돌아가시기 때문이다. 좋은 예로 제트기 도입을 목전에 두고 고공비행 훈련을 맹렬히 하다가 F-51로 순직한 고 김달휘(金達輝) 소령 같은 분의 경우가 산소결핍증이다.

F-86F의 산소 탑재량이 450Lbs, 350Lbs 이상이면 비행 가능하며, 100Lbs면 저공으로 비행해야 한다. 실제 제트기로 산소결핍증으로 비행에 실패한 예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나 기압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고생한 사람들은 많다. 남한 일

주 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이라면 런던-뉴욕 간 7시간에 비해 느리다고 할는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한국에선 가장 빠른 이기(利器)임엔 틀림없다. 지난 광복10주년 기념식에 참여비행한 제트기 편대를 수원에서 관망한 모 고급장교 부인이 말하기를 “이제 약간 늦지 않을까요?” 한다. 왜냐하면 중계방송에서 공군 군악대가 통과하고 있다고 방송할 때 수원 상공을 통과하고 서울로 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대 군기가 지남과 동시에 1초도 어김없이 사열대 상공 통과를 확인한 후에야 “과연 빠르군요.”라고 한다. 지상에서 쳐다보기에 정말 보기 좋고 깨끗해서 누구나가 타보았으면 한다. 젊으려면 동경의 대상으로 충분한 욕구가 되기 때문에 위험을 예상하는 모험이란 인간본능의 정복욕이 앞서겠지만 아무리 숙달된 조종사라 할지라도 대편대군(大編隊群)의 한 멤버로서 비행할 때는 눈코 뜰 새 없을 뿐 아니라 여름철엔 말할 것도 없이 겨울철에도 온 신경을 집중하고 진땀을 흘린다. 불과 1시간 남짓한 시간 내에 소비되는 시신경 및 모든 말초신경을 동원하기란 산간유곡(山間幽谷)에 걸린 외나무다리 건너는 것에 비교하고도 남는다. 복잡한 기계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서라도 30여 개의 계기와 20여 개의 각종 스위치를 한 눈으로 확인해야 함은 물론, 위험할 때 모든 조치를 치밀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순간의 판단착오로 일체의 생명도 버리고 고가의 국가 재산도 손실할 우려가 항상 있기 때문이다. 엔진에서 배출되는 열이 최고 900도 썩라면 거짓말이라 할는지? 세이버 조종사 한 사람 육성하는 데 추산되는 경비는 1천8백만 원이라 하며, F-86 1대 무려 1억2천만 원이요, 조종사 육성기간이 1년 반이다. 그러니 국가적으로 소중한 보배라고 인정해 주기를 원한다고 나쁜 것은 없지 않겠는가? 조종사와 섭취 영양가를 논의할 전문가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언급을 할 수 없으나 현재 평균을 대략 4200칼로리로 통계수자상 나타나고 있지만, 조리법 및 식성 등에 부합되도록 질적인 수요상태는 말이 아니라 자연히 마땅히 취해야 할 영양을 취하지 못하고 있으니 항공 식량 등 역시 연구해야 할 중대사라 본다. 조종사들의 생활감정, 특히 제트 전투기 조종사들의 두뇌는 이중적인 접착을 요구한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비행만이 온 생활의 전부는 아니니까 말이다. 일단 비번이면 인간 본연의 생활 속으로 돌아서서 언제 몇 분 전에 높은 하늘 대기의 귀물들과 싸웠던가 하는 상태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

즉 생활의 단면을 예리하게 할양(割讓)할 수 있는 차징 스위치(Charging

Switch)를 기민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안사람이나 어린애들이 응성거리는 가정
에 호흡을 맞출 수 있겠는가 말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조종사들의 구호는 항상 “On the day tiger, in the night
gentleman”이라고 한다. “Be Smart, Be Smile, Be Sharp”라 해서 3S를 모토로
하고 있다.

꽤 단순할지 모르나 이것이 비행사들의 일면이기도 하다.

임기응변(臨機應變), 임전필승(臨戰必勝)의 요결(要訣)은 언제나 막간의 현황판
단이 생사를 결정하는 것인데, 긴 담뱃대를 들고 “여봐라.” 하는 식으로 무엇을
해결하겠는가 말이다. ‘하늘은’ 넓은 곳, “하늘은 우리의 활동무대, 하늘 있는 곳
에 우리는 산다.”는 게 퇴역(退役)하신 최용덕(崔用德) 장군의 일상 명언이지만, 얼
마나 단조로우면서 심오한 말인가? 그곳에 유명을 달리한 선배 동료 전우가 항
상 응시하고 고혼(故魂)이 것들이고 있으니 그들의 인정을 위해서라도 불철주
야 날고 날아서 그리고 살려고 한다. 끊임없는 생명(生靈)의 명복과 또 그간 운명
선상에서 항상 변화무쌍한 요람경지(搖籃鏡地)를 개척하고 갈 것이다.

F-86의 연료 탑재량은 848갤런(Galone)이고 1시간 반 내지 2시간 반이면 완
전히 소모하는 ‘날들’이니까 17드램(Dram)이나 되는 양을 소모하는 것을 보면
놀랄 일이 아니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휴전선 근방에 모의 출격을 많이 한다.
지형지물만 가지고 그 경계선을 판단하고 왕래하는 용자들은 확실히 ‘귀신’들이
다. 간혹 부득이한 안전으로 선을 넘어서 말썽이 많고 하지만 그놈의 선을 조금
만 넘으면 그놈의 아저씨들 포화가 뱀이 개구리 잡아먹는 식으로 올려대는 기세
에 있으니 잡친다. 날씨가 아주 나쁠 때가 역시 장마철이라 믿는 것은 지상관제
지휘소다. 상호 협조하여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면 안도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망은 대공(大空)을 꼭 짜고 있으니 그 전파를 타고 안전하게 귀향한다고
는 하나 역시 감감한 방에서 눈에 해로운 빔(Beam) 광선을 따라 눈동자를 돌리
고 노력해주는 관제사들에게 말 없는 감사를 언제나 드리고 있다. 앞으로 확장
될 공군기종의 월등한 발전 등을 목전에 과제로 하고 노력과 패기를 꾸준히 유
지하면서 대한의 하늘을 응시하고 평화의 서광이 비칠 때까지 언제나 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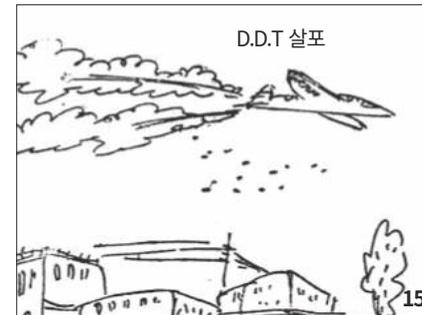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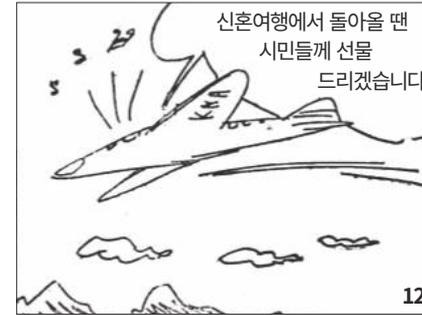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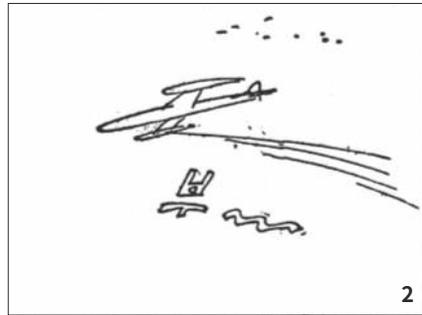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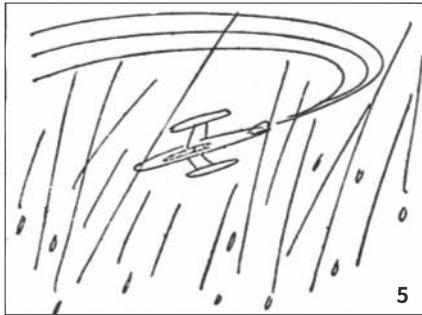
군인권 “어떤 녀석이 진짜 환자인지 알아보게, 매일 아침 저 방을 통해 걸어오시오.”



“그, 과자 참 맛 좋군,
아…… 그렇지 참, 내 딸은 며칠 전에 결혼해버렸어.”



파일럿 “아름다운 역사의 발자국이었지.”
정비사 “글썄요, 숨은 역사의 발자취일지도 모르지요.”



하늘은 나의 벗

<이 상 호>



근무태만(勤務怠慢)
“아 그참 나입니다.”

표류자(漂流者)
“뭍이요!
에어 가솔린이 없다
구요……”



<국군(國軍)의 날> 항공전시회(航空展示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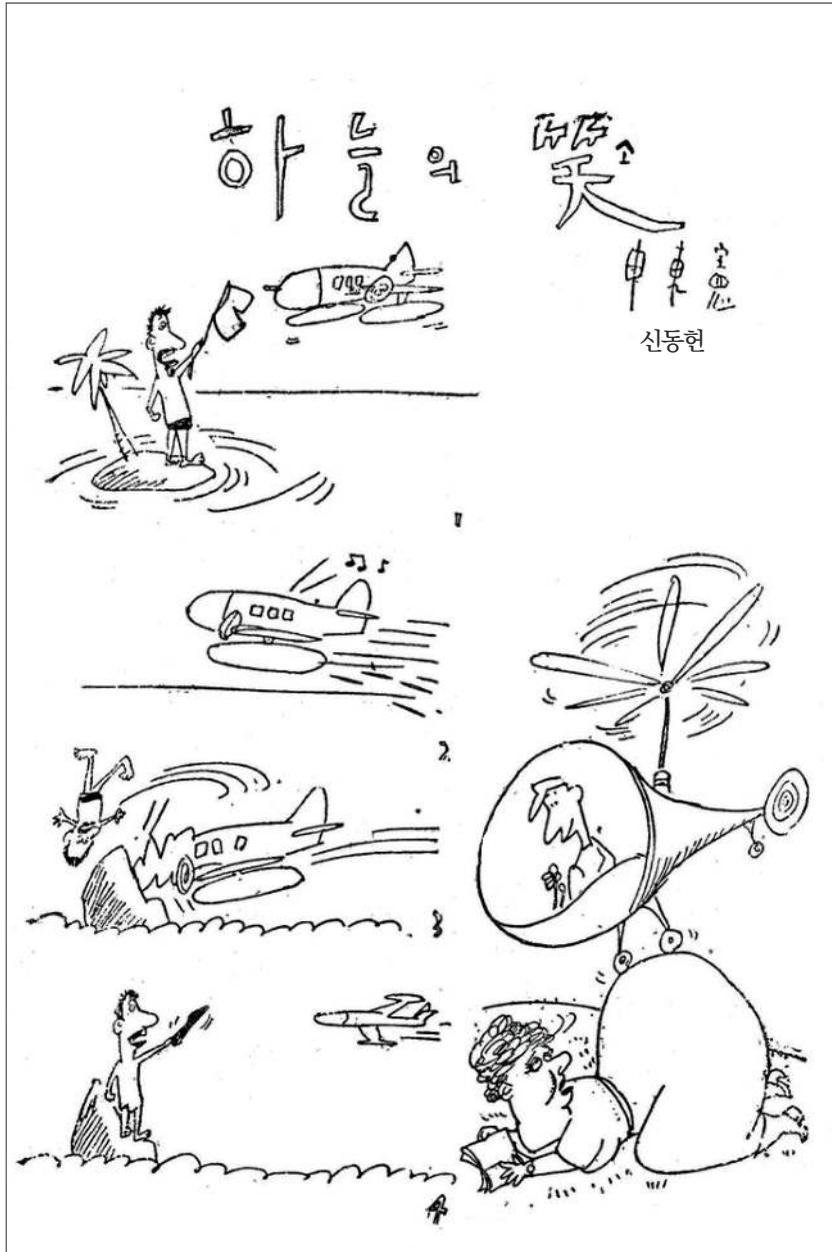


공군(空軍) 모병(募兵) 테스트



부관(副官)
전용기(專用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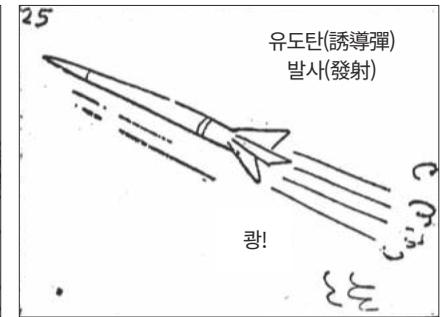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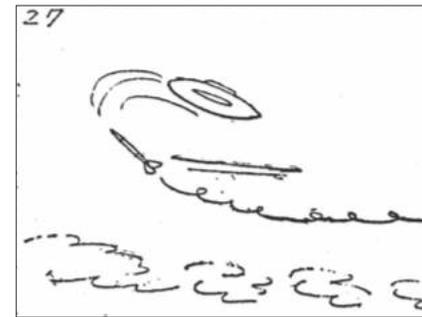




파일럿은 살아있다

임창(林創)





기계종횡(奇計縱橫)의 독일(獨逸) 첩보전(諜報戰)

—파괴(破壞)의 귀축(鬼畜)과 대결(代決)하는 지능파(智能派)—

우향(雨香)

전투·비전투 시를 불문하고 첩보활동의 중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서독 군이 NATO 내부에서 상당한 비중을 갖게 되자 이에 대한 공산 측의 시기(猜忌)는 신경질적인 파괴행동으로 노출되어 드디어는 두 개 독일 간의 첩보전에 불을 질렀다.

교활하기 짝이 없는 온갖 기계(奇計)로 싸워가는 이 제5열전(第五列戰)에서 동서 양 독일의 첩보진영을 장악하고 있는 보스(Boss)를 소개해보면, 동독 국가안전보위상 에른스트 볼베버¹⁾와 이에 대항하는 서독의 라인하르트 겔렌²⁾이다.

이들의 각각 다른 특색은, 동독이 테러와 사보타주를 위주로 하는 데 반해, 서독의 첩보활동은 항시 지능으로 대항해 나간다는 데 있다.

해괴(駭怪)한 폭발사건(爆發事件)

마구에 빠진 채 해를 넘긴 해괴한 폭발 사건이 작년 4월 초 서독 함부르크에서 있었다. 사건의 전말은 대강 이러하다.

즉 함부르크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던 부두 노동자(埠頭勞動者) '라인크'와 '유바브 룩'이란 두 사나이는 이날 저녁 돌연 그들의 방에서 일어난 대폭발로 말미암아 사람의 형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가루가 되어 날아갔다. 당시 서독 경찰에서는 전력을 다해 그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보았으나 오직 그것은 단순한 사고도 아니요, 범죄도 아닌, 정치적 음모로 인해 발생했음을 밝힐 수 있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결론은 그 두 노동자가 옛날엔 서독 공산당 당원이었으며 또 그들이 3년 전에 탈당했다는 사실과 '라인크'의 방 마루 밑에서 약 20리터 가량의 고성능 화약이 든 병을 발견한 데서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단서에서 이들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도 세계적으로 알려진 파괴의 귀축(鬼畜) 볼베버가 지휘하는 파괴·방화·암살단원에 틀림없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이 폭발사건이 배신에 대한 숙청인가 또는 그들이 은닉해 두었던 화약의 일부가 우연히 폭발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어쨌든 서독 경찰의 추정을 수긍한다면 이 사건의 주범인 볼베버란 대체 어떤 자일까?

동독 베를린의 도심부로부터 동쪽으로 약간 떨어진 칼스홀스트 가에 있는 그의 본거지. 그곳에서 부하에 대한 지령을 해머처럼 갈긴다.

1) Ernst Wollweber
2) Reinhard Gehlen



10년전의 게렌

“괜찮겠지. 신중히 해야 돼. 폴란드 정부라고 해서 돌대가리는 아니니까. 로테르담(Rotterdam)에 있는 자재를 감쪽같이 들여다가 A3부에 인계하는 거다. A3부에서는 그 사용법을 알고 있을 테니까. 인계가 끝나면 우리들은 리스본에서 만나자. 알겠지?”

언젠가 이런 지령이 있는 지 나흘째 되던 날 전 세계의 각 신문에서는 영국의 한파이어 호가 대만으로 보낼 석유를 운반하는 도중 인도양에서 기괴한 폭발을 일으키고 석유는 물론 20명의 승무원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이 제5열전에서 사보타주와 테러 전문의 공산주의자, 독일 태생으로 소련 시민권을 가졌으며 국제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제일 첫째로 얹혀있는 냉혹하기 비할 데 없고, 파괴엔 세기적인 기록 보유자, 그가 바로 '볼베버'이다.

이 자의 손가락이 한번 움직이기만 하면 파괴와 죽음과 눈물, 그리고 피의 수라장이 펼쳐진다. 옛날 독일 전함 마르크그라프³⁾호의 일개 수병이었던 그가 지금은 소련이 자랑하는 스파이 조직의 제1인자로서 민주진영을 교란시키고 있다.

볼베버가 음흉한 간첩무대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1918년 독일혁명 당시의 대 혼란기였다. 그는 가까이 지나던 계집들 집으로 잠복하면서 공산당 간부들과 접근하고 간첩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후에 '크라라우'라는 여자로부터 만족할 만한 청년 조수 '막스 헤르츠'를 소개받았다.

헤르츠란 청년은 당시 강도방화죄로 종신형을 받았으나 때마침 일어난 혁명의 대 혼란 틈에 요행히 형무소를 벗어나자 그는 곧 볼베버의 수족으로 별장이나 공장이나 할 것 없이 모조리 불사르기 시작했다.

그러는 동안 볼베버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자 그는 스웨덴 주재 소련 대사관으로 도망쳤다가 다시 모스크바로 향했다.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다시금 간첩교육을 받고 나자 이후 유럽 각처에서는 해괴한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다.

프랑스 세느 강변의 르아브르 항에서는 시한폭탄으로 기선이 분쇄되었고, 동시에 독일의 브라운슈바이크에 있는 로이나 공장은 기묘한 폭발로 날아갔다. 이어서 불가리아의 수도 소피아에 있는 대 연초창고가 불탔고, 영국의 어떤 항구에서는 해군 연습선에 불이 났으며, 독일의 키엘 군항과 베젤 강 하류의 브레멘 항에서도 여러 군데 공장에서 의문의 폭발사고가 일어나 수 척의 배가 파괴 또는 침몰되었다.

그뿐이 아니다.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는 톱 공장이 폭발했고,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세인트-세바스티안, 마드리드 등의 각 도시에서는 경찰서가 각각 폭탄을 얻어맞고 연소(燃燒)되었다. 이러한 공포는 삼시간에 전 유럽에, 국제경찰은 총력으로 그 범인 수사에 들어갔으나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버렸다.

3) Markgraf

조국(祖國)을 분쇄(粉碎)하는 자(者)

1933년 정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나치의 기반이 굳어지자 볼베버는 다시 독일 비밀경찰의 블랙리스트에 제1인자로 기록되어 발 빠른 나치 스파이에 걸려드는 것이나 볼베버만은 체포망을 벗어났다. 한때는 코펜하겐의 경찰들이 그 뒤를 밟는데 성공하여 체포 직전까지 이르렀으나 불행히도 놓쳐버렸다. 이때 위기를 모면한 볼베버는 대담하게도 곧 코펜하겐으로 돌아왔으며, 정부(情婦) 울스트롭의 아파트에 잠복하고 여전히 사보타주와 테러 활동을 계속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작전기지를 스웨덴으로 옮겼다. 즉 스톡홀름에 있던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소련 대사가 굉장한 저택을 제공했다.

얼마 동안 그곳에서 전세를 보고 있던 그는 독일군이 프랑스를 제압할 무렵, 독일 비밀경찰의 감시망을 뚫고 독일 본국으로 잠입하여 그곳의 당원들과 접선하고, 즉시 행동을 개시하여 항공기지, 항만, 기타 군사공장에 대해 무지막지한 사보타주를 전개했을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자의 지하조직체인 소위 '붉은 악단'을 만들어 독일병을 선동했다. 후에는 점령된 프랑스 지구에도 손을 뻗쳐 그곳의 저항운동을 측면으로 원조한 일도 있다. 그리고 독소전이 시작되자 볼베버의 활동은 더욱 맹렬하게 전개되어 독일 군사공장의 기술자들을 피어 사보타주를 전개했다. 공산주의자에게 조국이 있을 리 없었다.

유명한 체코의 스코다 병기공장에서 만들어진 대포의 탄환은, 그 속에 장전되어 있어야 할 화약 대신에 톱밥이 채워져 있었고 탱크의 모터는 30킬로미터만 달리고 나면 다시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전이 끝나자 볼베버는 동독괴뢰정부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했다. 표면으로는 선박국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다른없는 테러와 사보타주 활동을 계속해서 서구 자유진영을 교란시켰다.

어떤 때는 영국의 4발 군용기가 이륙 즉시 추락하여 10여 명의 낙하산부대가 고스란히 없어졌고, 또 그런 사고가 있고 불과 8일째에는 미국에 도착한 2척의 대형 수송선에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했다.

영국의 첩보기관 시크릿서비스(Secret-Service)의 수사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박 사고는 보통 그 석탄 적재 시에 인부로 가장한 테러리스트가 시한폭탄을 석탄창고에 장치했기 때문에 하수인(荷受人)은 알지 못하며, 오직 그 배후에는 반드시 볼베버가 군림하고 있다는 점만 의심할 뿐이었다.

이와 같은 파괴의 귀축이 지금은 공산 동독의 국가안전보위국장으로 승진되어 서독과 정면으로 스파이전을 전개했다.

지능파(知能派의) 제1인자(第一人者)

이와 같은 파괴의 귀축과 맞서는 서독의 첩보기관 제1인자는 누구일까?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뮌헨 교외의 '페어라흐'⁴로부터 호화로운 고급 택시가 수도 본의 아테나워(Adenauer) 수상 관저로 향해 질주한다.

이 차의 주인공을 촬영한다는 것은 아무리 발 빠른 카메라맨일지라도 불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막대한 상금까지 붙어 있으나 오늘날까지 성공했다는 소문을 듣지 못했다. 소위 '얼굴 없는 장군'이라는 별명이 붙은 탓이다.

그래서 본 주제 프랑스 석간지 르 몽드 특파원 조르주의 말을 빌리면 "이 서독 비밀기관의 전능자는 몹시 불쾌한 얼굴을 하고 있으나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다. 자세히 말하면 얇은 입술에 깊숙이 파진 눈, 그리고 그 위로 부풀어 오른 높다란 이마, 뺨뺨이 선 귀……. 대강 이런 것이다."

라고 한 것이 켈렌의 인상이다.

그는 브레슬라우 출판국 지배인의 아들로 18세 때 군대에 들어가 참모본부에서 근무했다. 얼마 후 그는 스파이적 재능을 인정받게 되자 제12과(대동구첩보국) 과장으로 임명되었다.

독소 전쟁 때 그는 수집한 정보자료에 입각해서 소련군이 쉽사리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으나, 히틀러는 "이러한 정보는 징기스칸 이래 처음 보는 위협이다." 라고 외쳤다.

그러나 켈렌의 이러한 전력도 이제는 끝났다. 그의 정확한 자료로 나치의 패배가 역력함을 알았다.

제3제국의 붕괴, 그 다음에 일어날 동서의 대립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상세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고야 말 미·소의 알력에 대비해서 소련에 관한 모든 지도와 문헌 그리고 정보를 각각 3통씩 복사해서 따로따로 은닉해 두었다.

드디어 나치가 붕괴하던 날 켈렌은 대 동구첩보부를 3분한 다음 "너희들이 포로가 되는 날일지라도 절대로 지금까지의 활동내용을 누설하지 말라."고 엄명하고 후에 하산하여 미군부대로 출두했다.

그리고 일동은 은닉해 두었던 정보문헌을 들고 워싱턴으로 건너가 국방성의 신문을 받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이대부터 켈렌 기관을 설치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는 텔레스 장관의 지원이 많았다.

오늘날 켈렌 기관에는 약 5백 명의 첩보전문가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거의 전 유럽으로부터 중동에 이르기까지 파견되어 있는 정보원들로부터 매일같이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를 앞에 두고 과학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연간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이 기관은 대개 구 독일군에 있던 첩보원 외에도 경제학, 기술학, 자연과학, 정치학 등의 권위자들이 모여 있으며 또 무전기사, 잉크연구가, 위조 여권이나 가짜 증명서 전문가 등도 섞여 있어 수집 자료의 정확성은 유럽 제일을 자랑한다.

이러한 켈렌 기관에 속하는 수천의 남녀 첩보원은 숫자상 그 이상일지도 모르는 동독의 볼베버 군을 상대로 오늘도, 또 내일도 온갖 기계종횡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⁴ Perlach

플라리스 탄도탄(彈道彈)

홍소우(洪小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의 인류는 또다시 비참한 전화를 재차 반복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세계의 평화를 염려하여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 UN기구를 설치했다. 그 헌장에 따르면, 전쟁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가 저주하는 다음 전쟁을 대비함인지 제2차 대전 후에 싹트기 시작한 원자폭탄, 유도탄, 제트항공기 등을 발전시켜서 수소탄의 완성, 중거리유도탄 및 대륙간탄도탄의 실험성공, 초음속제트기 제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들은 대체로 다음의 전쟁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그 중에서 특히 노틸러스 호가 북극항단 항행에 성공함으로써 노틸러스 호에 장착 가능한 플라리스 중거리탄도탄은 그 의의가 클 뿐 아니라 전략적으로 가치가 매우 크다.

플라리스는 미 육군이 1955년 11월에 같은 중거리탄도탄 주피터를 계획할 무렵 미 해군은 이것을 조금만 변형하면 함상 발사용으로 플라리스를 제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해군이 실제로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육군의 주피터는 성질상 해군의 함상용에 부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래서 육군과 해군의 순조롭지 못한 합동연구는 그다음 해인 1956년 12월 1일 종지부를 찍고 서로 헤어지고 말았다.

이날부터 해군 측은 FBMS라고 세상에 알려진 함대용 탄도탄 체제(Fleet Ballistic Missile System) 설계에 열중했다. 이 FBMS는 당시 세계 각국의 해군이 시도한 무장 체제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독자적인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무기의 위력에 대한 이야기가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이 무기는 틀림없이 장차 세상에서 가장 공격력이 강한 무기의 하나가 되리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플라리스라는 이름을 가진 중거리탄도탄이다. 이 FBMS의 관리책임은 전적으로 해군 병기창 특수 기획국에 있는데, 그 책임자로 있는 해군 소장 윌리엄 레본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국방부의 그 유명한 업무 분담 지시의 의도는 공군에게 지상기지에 있던 모든 중거리탄도탄을 주라는 것인데, 현재 육군이 보유하고 있으며 액체력 추진식인 주피

터 대신에 해군은 이보다 더 작고 새로운 고체연료추진식 탄도탄 연구에 집중하려는 것이다. 해군의 공격력의 입장에서 보아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안전하고 더 우수한 무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으로써 육해군의 합동계획의 비용보다 약 5억 달러나 절약할 것이며 제한된 비용으로 탄도탄 생산, 잠수함의 원자력 탄도탄 그리고 필요한 지원장치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해군은 현재까지 용이한 단계에서 행해져 왔지만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 방대한 FBMS 계획에 신중을 기해 손대야만 했다. FBMS의 연구 및 발전 계약은 회계연도인 19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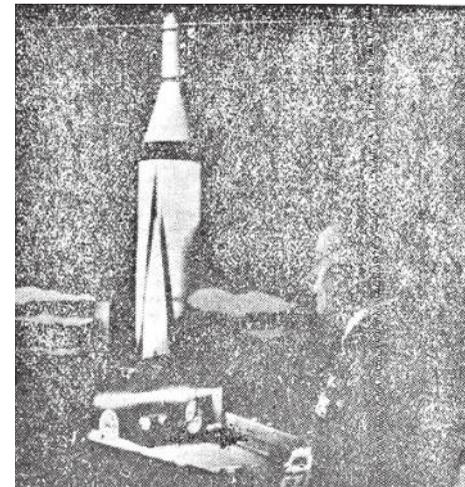
년 7월 말 불과 약 1개월 후에 진행하기 시작했고 그 후부터 조금씩 이 계약은 확대되어 갔다. 무엇보다도 어떤 주요 구성 부문에 대한 충분한 원조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난관이 예측되어 있었다. 그러나 작년 초에 몇 개 분야의 연구가 착수되었다. 특히 탄도탄 함정에 탑재하고 출항하는 문제, 해저에서 준비 발사하는 문제, 정확한 항해와 탄도탄 자체에 대한 문제 등에 착수했다.

해군은 후자인 탄도탄을 조절하기 위해 항공회사 중 하나인 록히드(Lockheed) 회사 내 항공기 유도탄 시스템 부를 찾았다. 이 부서에서는 해군의 원조로 북 캘리포니아 주의 팔로알토¹⁾와 서니베일²⁾에 있는 플라리스 연구시설에 3천만 달러를 투입했다. 플라리스 기체 설계는 처음에 밴누이스³⁾에서 시작했으나, 현재는 서니베일에 집약되고 있으며 첫 공장은 지도와 하청부 설계에 집중되고 있다.

록히드 회사는 서니베일에 34만6천 평방피트의 대지를 가지고 있으며, 56년도의 6천 명 종업원은 올해 말까지는 1만 명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플라리스 기체의 길이가 짧고 부피가 뚱뚱하고 고도의 제작기술 구성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논의할 여지가 없다. 록히드 회사는 그들의 X-17 실험용 기체로 전면이 둥글게 생긴 시험장에서 시험한 결과 귀중한 경험을 얻었으며, 이 경험은 작년 11월에 위탁받은 40피트 추진관에서 행해진 실험을 통해 보강되었다.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플라리스는 고체연료로 된 로켓모터의 작용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이것이 플라리스의 장점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것인데, 탄도탄 자체 내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발사준비가 매우 간단하다. 또한 고체연료의 사용은 탄도탄 설계에 있어 자리를 덜 차지하므로 플라리스는 중거리탄도탄 중에서 제일 작고, 본래 전함이나 잠수함의 데크에서 발사하도록 설계되었다.

미국 내에서 발사된 대형 고체연료 유도탄이 많이 있었으나 플라리스는 모든 것을 능가하고 있다. 주요한 계약자는 에어로켓 제너럴(Air-Rocket General) 회사이며, 그 외에 사이옴⁴⁾ 회사가 플라리스 계획에 참여하여 실험용 기체를 만든 사실은 부인



<레본 소장 모형 플라리스>

1) Paloalto
2) Sunnyvale
3) Van Nuys
4) Thiokol

할 가치가 있다.

유타 주 브리검⁵⁾ 시에 있는 사이오콜 회사 소속의 새 유타 공장은 폴라리스 호에 비하면 훨씬 큰 직경 12피트, 중량 2백만 LBS까지의 추진기를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에어로켓 제너럴 회사는 가장 큰 액체연료 추진모터 제작책임을 주장해 왔는데 그 회사가 발표하기를 작년 5월에 미국에서 지금까지 제작된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추진로켓에서 제일 큰 것을 새크라멘토에서 성공적으로 정역학적 실험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폴라리스의 모터였고 현재 해군 병기국 용으로 제작되고 있다.

폴라리스 추진력 계통은 모든 고체연료로켓과 같이 기본적으로 간단하나 최대의 노력을 발휘하면서도 여러 가지 효능을 낼 수 있다. 플라스틱이저(可塑劑, plasticizer)와 산화제 때문에 무게는 거의 2만LBS가 되며 연료까지 장전하면 총중량은 12.7톤까지 나간다. 외형은 원통형으로 직경은 4.5피트, 전장은 28.5피트가 되는데 선단에는 1메가톤급 원자폭탄을 장착한다. 탄두는 1천 LBS 이상으로 전장이 3피트 직경이 2톤이나 되어 마치 인공위성을 올린 주피터와 동일한 형을 이루고 있다. 폴라리스는 이상과 같이 잠수함 내의 난점을 완화하기 위해 전장을 최소한 줄이려고 갖은 노력을 해왔다. 그리고 연소되는 배기가스를 4개의 분출구를 통해 압축시킨 별실에서 밖으로 발산시킨다. 기체에는 화학 장전이 불가결한 것은 아니다. 즉 새크라멘토의 한 실험대에서 한 개의 동체에서 정역학적으로 여러 번 발화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개폐장치는 대량의 액체연료 모터보다 고체소립자추진기 10배나 정확하다는 점이다.

폴라리스의 유도장치에 대한 상세한 관성운동, 즉 정확한 관성운동임이 분명하며, 이 유도장치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지고 있는 것으로 함정발사 유도장치를 말한다. 관성유도장치는 항공기나 선박 또는 유도탄 등을 무인 자력으로 항행시키는 일련의 유도장치 중에서 가장 새로운 것으로 팽이나 추(錘)의 원리를 이용한 것인데, 주로 중거리탄도탄이나 대륙간탄도탄에 장치한다.

폴라리스의 완성된 관성유도장치는 57년 여름 차이나 호에 있는 스노트 실험장에서 실험되었다.

1958년의 회계연도 예산에서 해군은 폴라리스와 이와 연관되는 설비자금으로 6천8백만 달러를 배정했는데, 이중에서 1천5백만 달러가 새로운 지원용 설비자금으로 요청되었다. 록히드 회사는 산타크루즈 산맥에 있는 240에이커의 땅을 폴라리스 R과 D형용으로 전환시켰으며, 대규모적인 폴라리스 연구 확장사업이 새크라멘토에 있는 에어로켓 제너럴 회사, 패트릭 공군기지, 그리고 메릴랜드의 화이트오크에 있는 부오드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폴라리스는 그동안 수차례 실험하여 왔지만 세상에 그의 두각을 나타낸 것은 작년 9월 17일 미 해군성이 중거리비행기형 유도탄 트라이튼의 연구를 중지하고 폴라리스 연구를 집

⁵⁾ Barigham, Utah

중한다고 발표하고 그 다음날인 19일 밤 미 해군 작전부 차장 해리 펠트(Harry D. Felt) 제독이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해면 아래의 잠수함에서 폴라리스(수중 대 지상)의 발사실험을 행할 것이다."라고 발표하던 때부터였다. 올해 들어와서 4월 2일 최초의 잠수함 'SS 홀랜드' 호를 진수(進水)한 58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1천명 이상의 사람이 워싱턴 스파크 호텔에 모여 들었는데 여기에선 해군 함대용의 탄도탄 폴라리스를 공개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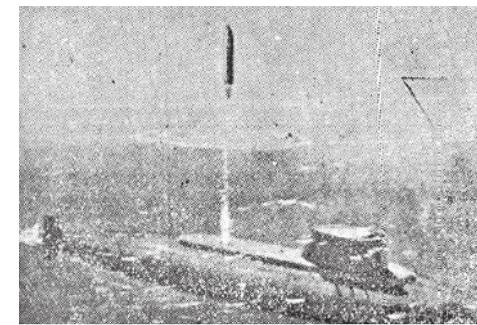
연회 도중에 미 해군 병기창의 W. F. 레본 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1960년에 실질적으로 작전용 유도탄을 보유하게 된 것을 확신하는 바입니다."

폴라리스 발전계획의 획기적인 성공과 더불어 이 탄도탄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는 것보다 이 탄도탄을 생산해 최초로 잠수함에 장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이와 같은 경우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그날에 실물 정도의 크기를 가진 폴라리스 모형이 호텔의 무도장의 무대 위에 진열되었다. 또 해군은 당일 사정거리 1,500마일의 폴라리스 탄도탄을 수중 잠수함으로부터 발사하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기자들이 그 전에 모의 유도탄을 실험한 기록 필름을 레본 소장에게 제시하자 그는 그 발사장치가 제작 완료되었으며, 매일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모의실험을 하는 동안 미 해군은 5월 8일 플로리다주 케이프 캐나베럴⁶⁾ 실험장에서 폴라리스를 실험했는데, 폴라리스는 발사 20초 후 공중에서 폭발되어 실패했다. 그러나 해군 당국은 폭발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으로 실험은 정상적인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표했다.

6월 19일 캘리포니아 주 샌클레멘토 섬에서 폴라리스의 발사과정을 시범했다. 이 탄도탄은 잠행(潛行) 중의 잠수함으로부터 발사하게끔 설계된 것이지만 이날의 시범에서는 수중에 가설된 관통으로부터 발사되었다.

발사된 것은 실물 크기의 모형으로 수중의 발사통으로부터 압축공기로 내뿜어 수면 위 100피트 정도 상승했다가 낙하하는 데 불과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잠수함이 잠수하여 발사되는 대형탄도탄의 완성에 희망을 가진 것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날의 실험에서 모형 폴라리스지만, 압축공기로부터 수면 위 100피트까지 상승할 실물의 폴라리스는 100피트 높이에서 고체연료 로켓에 점화되어 보통의 유도탄과 동일하게 날아간다. 이렇게 되면 폴라리스는 수중에서 폭발해 잠수함을 파손시킬 염려도 없고 고체연료 로켓이기 때문에 취급하기에도 간편하다. 고체연료 로켓이 이와 같은 대형 탄도탄에 사용된 것도 서방측으로서의 처음이고 이런 의미에서도 획



<잠수함에서 발사된 폴라리스 유도탄>

⁶⁾ Cape Canaveral

기적인 것이다. 폴라리스는 모의 수중발사를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잠수함에 장착함으로써 보다 큰 전략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핵력추진 담당 책임자 보좌관인 해군 소장 H. G. 리크버 씨는 작년 말쯤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폴라리스의 이상적인 이동발사대로 예견되는 가장 가까운 것은 원자력 잠수함이다.”

그는 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것을 장치하는 경우 원자력 잠수함(N.P.S)은 바다 밑에서 인공위성이 될 것이다. 이 잠수함은 증거리탄도탄을 적재하고 발사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언제 어느 곳을 막론하고 안전하게 잠수해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매일 불 방어 상의 가치로 따져보면 이 FBMS는 지상기지 증거리탄도탄 계통보다 훨씬 유리하다. 이 원자함의 한 가지 장점은 연료 탱크가 없으므로 다량의 폴라리스를 적재할 공간이 충분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 위한 박차(拍車)로 미국은 지난 8월 8일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노틸러스 호가 역사상 최초로 지구의 맨 꼭대기인 북극의 해저를 통과하는 북극횡단 항행에 완전히 성공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자신이 직접 참석해서 이 잠수함의 젊은 함장 및 승무원들에 대한 표창장을 수여하고 난 뒤에 있었던 백악관의 기자회견 석상에서 극적으로 발표되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 표창장을 통해 북극해의 빙상을 무릅쓰고 동서반구 간의 해저항로를 개척한 공을 찬양하면서 “이는 더욱더 획기적인 해저탐험의 지침이 되는 것이며, 앞으로 세계의 주요 해양 간 통상항로의 새로운 분야로 수송 잠수함이 등장할 해저 통상항로를 발전시키는 데 공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불과 37세의 W. R 앤더슨 해군 중령을 함장으로 하는 앞서 말한 원자력잠수함 노틸러스 호는 극비리에 지난 7월 23일 오전 2시에 하와이를 출발해서 8월 5일 아이슬란드에 도착함으로써 북극횡단항행에 완전히 성공했다. 이 잠수함은 도합 8천 마일에 걸친 북극횡단 항행을 했는데 그 중 98퍼센트가 수중항행이었으며 알래스카의 배로우 지점에서 대서양 그린랜드 해의 스피츠베르겐 해까지 뻗치는 1,830마일의 빙산지대를 수중으로 통과하는 데 96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도쿄에서 런던까지 해상항로를 1만1천8백 마일을 항행해야 하지만 북극을 통과하여 해저 항행을 한다면 항행거리가 6천3백 마일밖에 안 되며, 하와이의 진주만에서 영국 본토까지 해상항로의 거리가 9천5백 마일인 데 반해 북극횡단해저항로의 거리는 6천7백 마일에 불과하다.

비록 원자력잠수함이 완성되어 북극횡단 항행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폴라리스의 발사에 성공했다 하라도 FBMS의 몇 개의 연구부문에서 가장 큰 난점은 폴라리스를 적재한 잠수함의 항해문제이다.

유도탄을 어떤 거리에 있는 목표물에 명중시킬 수 있으려면 우선 어느 지점에서 이 폴라

리스를 발사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문제는 SINS(Ships Inertial Navigation System), 즉 관성에 의한 함정 항행체제로 해결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트레이퍼 박사에 의해 원리상 발전되었다. 이 해답은 해안당국이 만족할 만한 것으로 결정적인 정확성을 입증했다.

SINS는 한 달을 전후하여 지구 표면상의 어떤 지점에서든 발견되지 않고 수중에서 활용될 수 있다. 이 SINS는 EAG-153 나침(羅針)침⁷⁾(배 이름)에 의해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배는 충분한 FBMS를 운반하고 또 안전을 기할 충분한 출항 장비를 갖추고 있어 4분의 1마일 이상의 오차를 내지 않았던 기록을 세웠다.

또 여러 가지의 저장실험을 통해 바다 밑에서 탄도탄을 발사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되었으며, 해군 당국은 폴라리스를 바다속의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명했다. 폴라리스에 대한 시험적인 원양항해 운영 및 발사체제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이미 1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의도는 정확한 원자력 잠수함체제를 확립하는 데 있었다.

해군의 탄도탄이 지구표면에 있는 목표에 도착하기 전에, 대양의 해류가 이 탄도탄에 미치는 정확한 영향을 탐지하기 위해 또 하나의 실험이 작년 10월에 있었다. 기계적인 적재와 발사문제는 ‘레이먼드روی’ 수력회사가 사막 속에서, 항행하는 함정과 비슷한 모형을 만들어서 이 문제해결을 실험해 보았다.

해군당국은 분명히 잠수함의 장애에 대해 위협을 심하게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해군은 1955년 이래 잠수함에서 유도탄을 발사하는 데 실험을 해오고 있었다. 더욱이 해군은 폴라리스의 계획을 맹렬히 추진하고 있다. 이 폴라리스는 원자력잠수함 내의 상자같은 곳에 2열로 16기를 적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핵탄두 1메가톤급의 원자폭탄을 장착하고 이 원추형의 머리 부분은 뒤에서 점화되는 동안에 SOAFRT탄의 정확한 조준사격으로 폭발될 것이며, 이로써 1500마일 원거리에 있는 적의 모든 도시를 2차 대전 중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원폭이 반경 1,6킬로미터로 파괴시킨 것보다 큰 위력으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3차 대전을 대비하여 적의 목표를 중심으로 태평양을 비롯하여 각 대양 바다 속에 잠수하면서 발사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까지 조용히 움직일 것이다.

노틸러스 호의 앤더슨 함장이 기자들의 질문으로 소련이 노틸러스 호의 북극횡단 항행을 탐지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을 때, 미소를 띠면서 “글쎄, 그들이 그렇게 우수할 수 있을까요?” 하며 답변한 바와 같이 수중에 있는 잠수함을 거의 탐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잠수함에서 발사되어오는 탄도탄을 반격할 만한 무기는 아직 없다.

해군은 1959년에 대표적인 형태를 가진 폴라리스를 발사할 예정이라고 성명을 냈다. 하지만 작년 초에 발표한 것은 올해 이후 5년 이내에 FBMS를 작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7) ‘컴패스 아일랜드’(Compass Island)

했다. 상원의원 잭슨 씨는 이 무기체제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그가 작년 여름에 말한 바에 따르면, 폴라리스 제좌를 장기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유도탄 방어력 연구에 있어서 양자(量子) 비약(飛躍)을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유도탄체제에도 무관심하고 있었다고 나는 믿는 바이다.”라고 했다. 레본 소장은 거의 다음 날 일선 유도탄병기창에 가급적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에 밝혀진 바로는 록히드 회사제의 유도탄은 1960년까지 준비될 것이며 60년도까지 충분히 작전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군은 더욱 높은 비율로 원자력잠수함을 진수시켜서 취항시킬 것이다. 노틸러스 호, 시울프 호, 그리고 스케이드 호는 이미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 밖에 ‘사고’ 호, ‘스키브잭’ 호, ‘스워드 피시’ 호 그리고 ‘시 드래곤’ 호는 마지막으로 출항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진수되었다. 지난 주 (9월 1일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잠수함이며 동시에 원자 레이더 탐지기를 장치한 잠수함 ‘트리톤’ 호가 코네티컷 주 그로튼⁸⁾ 항에서 진수될 것이다. 20여 개가 진수 중에 있거나 그 재가를 받고 있으며 그중 9척은 폴라리스를 발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공산 측은 이에 대비해 어떻게 진보하고 있는가? 현재 알고 있는 한 소련은 아직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또 소련은 잠수함이 폴라리스와 같은 탄도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확증은 없으며, 다만 함대용으로 속도가 음속 8배 정도이긴 하지만 사정거리가 불과 625마일밖에 안 되는 ‘코메트 2’(COMET II)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바벨 호에 장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재래식 잠수함에 유도탄을 장비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 잠수함에서는 미국 측의 우수성이 대단한 것은 확실하다. 사실 이와 같은 우수성은 적을 방어하고 미국을 리드할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 그러나 미 해군은 기술적인 성공에서 갈림길에 서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즉 상대방도 역시 이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상기 지 유도탄 부문도 소련이 발전하고 있으므로 원자력잠수함에 폴라리스와 같은 함정용 탄도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암시해준다. 더욱이 이 밖에 소련은 미국 방어에 직접 관계되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재래식 잠수함으로 구성된 가장 큰 함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해서 원자력잠수함 노틸러스 호의 북극횡단항행의 성공은 지구를 단축시킨 것과 같은 평화적인 공헌과 더불어 중거리탄도탄 폴라리스를 장비하고 북극 빙산 아래서 발사가능하다는 데 그 의의가 실로 큰 것이다. (끝)

⁸⁾ Groton

미국(美國) 군사력(軍事力)의 위치(位置)

—미소(美蘇)의 군비(軍備)를 비교(比較)하면서—

헨슨 볼드윈¹⁾

이인섭 역(李仁燮 譯)

소련이 돌연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함으로써 세계의 일부 인민들에게 소련이 기술적·군사적으로 자유진영을 능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릇된 믿음을 전파한 이래 미국의 과학자들은 비로소 자극을 받은 것 같다. 그 당시 소수의 경솔한 미국인들은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함으로써 동서 양 진영의 군사상 균형이 기울어졌다고 극단적으로 말했다. 또 어떤 미국인들은 이제야말로 뉴욕, 워싱턴이나 그 밖에 미국의 주요 도시가 이미 발사준비가 되어 있는 소련제 로켓탄의 공격목표에 들어갔다고 장담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련이 밤새 이룩한 특수한 선전효과는 우리들의 정통한 지도자들의 이른바 군사력으로서, 산업, 기본 공업 면에서 또는 과학적, 기술적, 능력상으로서나 소련을 철저히 능가하고 있다는 사려 있는 판단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 같이 느껴졌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나단 F. 트와이닝²⁾ 대장은 올해 봄 상원 준비분과위원회에서 “소련이 현재나 오늘 이 시각 사실상 미국의 현재 보유한 군사력보다도 앞서고 있다.”는 사고방식은 실로 “위험천만의 망국에 이르는 우환(憂患)”이라고 경고한 바 있었다. 트와이닝 대장은 그날 다음과 같은 요지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오해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안전을 침탈(侵奪)하게 될 굴욕적인 타협이나 그 밖에 퇴보적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3개의 점에서 소련을 부단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 첫째, 자본상품 생산 공업의 확장, 일반적 기술상의 지식수준의 향상과 군사력의 강화 및 현대화에서 소련의 2차 대전 이후의 발전상은 미국보다도 더욱 전진하고 있다. 둘째, 우리들의 군사력의 우수성은 다만 핵무기를 수송할 능력이 있는 유인항공기와 같은 협소한 기초 위에 근거하고 있다. 셋째, 근대무기의 경이적인 속도와 화력은 미국의 지리적인 안전성을 파괴했다.”

여기에 미·소 양국의 군사력을 간략하게 비교해보기로 한다.

전략상(戰略上)의 차이(差異)

미국 전략은 미국은 전쟁의 방위수단으로서 소련이 어떻게 하는가에 불구하고 소련의 심장부에 대해 핵무기로 대거 보복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한다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원칙적으로 육지, 해상 내지 공중에서 이착륙 혹은 발사된 항공기나 유도탄의 형식

¹⁾ Hanson Baldwin

²⁾ Nathan Twining

으로 표시되는 공중력 및 핵무기 능력과 연결되어 있다. 우리는 오늘날 핵무기 능력을 증가시키는 한편 재래식 무기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

한편 소련의 전략 개념은 군사, 정치, 경제 및 심리전, 역량 등 모든 형태의 국가력이 상호의존, 연속되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 10년 전에 핵무기가 아닌 재래식 전쟁무기로서 다만 하나의 전쟁을 수행하기에도 어려울 정도의 군사력을 보유했던 소련은 오늘날에 와서 재래식 군사체제에 변동을 가하지 않고 그 위에 강력한 핵무기 능력을 플러스했다. 소련은 현재나 장래에 어떠한 형태의 제한 없는 혹은 제한된 핵무기 전쟁 또는 재래식 전쟁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로켓 및 유도탄(誘導彈) 비교(比較)

소련이 인공위성을 먼저 발사하고 또 무거운 위성을 발사했다는 사실은 표면상으로는 적어도 우주경쟁에는 앞섰을 뿐만 아니라 1,500마일 거리의 중거리유도탄과 1,500마일에서 5,500마일 거리의 대륙간탄도유도탄, 그밖에 거대한 로켓 발전에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는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

미국의 유도탄 경쟁에 뒤떨어졌다는 그릇된 인식은 이제야 건전한 판단에 의해 번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각각양색이지만, 소련은 겨우 ICBM에서 약간 앞서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1,000마일 이상 거리의 핵무기 수송능력이 있는 로켓의 생산 부문에서는 약 1년 앞서고 있다.

소련은 미국보다는 더 많은 수량의 장거리탄도유도탄(LRBM)을 발사했지만, 대부분 300마일에서 1,000마일 거리의 로켓에 지나지 않는다. 관료들 사이에서는 또한 소련이 700마일 거리의 로켓탄을 대량생산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유도탄의 발사기지가 동유럽 제국 내이나 서부 소련지역에 건설된 징조는 없으며, 또한 구태여 거대한 발사장을 건설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독일의 V-2 호와 같이 그들은 도로 위의 한 군데나 평지에서 능히 발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륙 간 횡단 탄도유도탄의 범주 내에서는 소련이 1957년 여름 사정거리 3,500마일의 거대한 로켓 2기를 발사한 이래 상당 기간의 휴지기가 있었던 것 같다. 제3차의 1톤급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노력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진척되었으며, 마침내 올해 5월 15일 발사되었던 것이다. 소련이라고 우리와 다른 실험상의 차이를 가졌다고는 볼 수 없다. 그들 역시 수많은 실험상의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와 같이 1톤급의 위성을 발사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도탄 경쟁에서 그들이 우위를 점해서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 과학자를 배신하고 경제력을 탕진해 가면서 인공위성 연구에 얼마나 주력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장거리유도탄에서의 소련은 결코 믿을 것이 못 된다. 미국은 조만간 해외 각 기지에 중거리유도탄 기지를 건설할 것이다. 미국과 소련은 똑같이 1959년과 1961년 사이에 작전용 5,500 마일 거리의 대륙간탄도유도탄(ICBM)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올해 말에 이르러 양국이 모두 여러 개의 ICBM을 보유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사용되는 모델은 정확도나 신뢰도에서 만족할 만한 것이 못 되며, 또 완성된다고 해도 모든 군사력이 핵체제화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현재 단거리 공중 대 공중 유도탄이나 대(對) 항공기 유도탄, 지대지(地對地) 유도탄 혹은 공중 대 지상 유도탄 부문에서 소련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공중력(空中力)의 차이(差異)

소련 공군의 폭격력을 재평가해볼 때 '바이슨'³⁾과 '비아' 등 장거리 폭격기의 생산 현황은 2년 전에 예측했던 바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소련의 바이슨 폭격기(M-4) 보유량보다도 더욱 많은 B-52 제트폭격기를 보유하고 있다. 터보프롭⁴⁾의 소련제 비아 폭격기는 극소량이 생산되고 있다.

오늘날 소련의 유인 조종 폭격기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중거리 제트폭격기인 바자 형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음은 단거리 경(輕)폭격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유인 조종의 중거리 및 장거리 폭격기 등에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어쨌든 미국은 오는 회계연도 내에 중(重)폭격기, 중(中) 및 경폭격기, 수송기, 공격기나 전투폭격기 등 약 4,000 내지 5,000대를 보유하게 될 것이며, 모두가 메가톤급(TNT 100톤의 폭발력과 맞먹음)의 폭발력을 가진 핵무기를 적재할 것이다.

미 전략공군사령부는 각각 45기의 항공기로 구성된 39개의 폭격사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찰기를 포함하여 2,000대가 넘는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장거리 폭격 공군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강대한 능력과 훈련, 실험시설과 경험을 갖고 있다.

해상의 이동기지에서 소련기지 깊숙이 침투할 능력을 가진 미 해군 항공대들은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강하다. 그런데 소련은 전투용 경폭격기, 전투폭격기와 지상부대 지원 항공기류에서는 수적으로 미국보다도 우세하다.

그러나 미국은 의문의 여지없이 소련보다도 훨씬 많은 양의 핵무기를 저장하고 있다.

공중방위력(空中防衛力)의 비교(比較)

유인 항공기 특히 고고도 항공기의 침공에 대한 미국의 공중방위는 최근에 와서 수소 탄두를 장착한 신식항공기, 대공포(對空砲) 및 공중 대 공중 유도탄의 발전으로 엄청나게 강화되었다. 그러나 핵무기공격을 비롯해 함상기지(艦上基地)나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유도탄 등을 방위할 만한 능력이나 장거리탄도유도탄에 대한 방위력은 적당하다고 볼 수 없다.

소련 역시 우리와 같이 탄도유도탄에 대한 방위능력이라고 없다. 그러나 유인 항공기에 대한 공중방위체제는 매우 우수하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어떠한 정보소식은 소련이 미국보다도 10배나 많은 레이더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전략 공군은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소련을 격멸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최근에 입수된 작전정보평가에 따르면, 미국 전략 공군이 소련을 폭격하려면 수소탄을 적재한 100대 이상의 폭격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소련의 대공포망이 강화된 것이다.

3) Bison: 들소

4) Turboprop

우리는 이들 폭격기를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 공중 대(對) 기지 유도탄, 적기 유도 전자장 치 등 온갖 수단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300마일 거리의 수소 탄두 초음속유도탄을 장비한 B-52 폭격기는 이렇게 해서 적 대공포의 탄착거리 밖에서 작전할 수 있다. 이것에 사용될 모스 아메리칸 GAM-77 유도탄은 이미 발주되고 최우선적으로 제조되고 있다.

해군력(海軍力)의 비교(比較)

미국은 소련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수하며 대량의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다. 세계의 어느 해군보다도 노련한 해상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로 소련의 해상력 역시 무시 못 할 정도로 발전 강화되었다.

최근의 소련 해군력 건설계획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의 현저한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첫째, 약 2년 전 순양함(巡洋艦)의 건설계획이 중단되었으며, 건조 중에 있는 함선은 유도탄 발사용으로 개조되었다. 대공 유도탄과 수소 탄두를 장치한 지상 대 지상 장거리유도탄 등을 장비한 27척의 소련 순양함은 유사시 즉각 미국의 해안지대를 기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과거에 소련의 잠수함 건설계획은 현저히 지연되었다. 이러한 현상에서 그들은 잠수함을 원자력로나 유도탄 장비 잠수함으로 개조하고 있는 듯했다. 사실상 소련은 475대의 대 잠수함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 중 3분의 1 이상은 장거리 잠수함이다.

현재 진수되고 있는 잠수함에는 원자력 잠수함이 없는 듯하며, 10,000 몇 척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전용 유도탄을 장비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한편 미국은 현재 3척의 원자 잠수함이 있으며 16척은 건조 혹은 건조허가를 받아 조선에 착수하고 있다. 또한 미 해군은 레굴러스 유도탄⁵⁾을 발사할 수 있는 2척의 잠수함이 있으며 수 척이 건조되고 있다.

지상군(地上軍)의 비교(比較)

제2차 대전 당시 마차와 우차를 끌고 베를린 공격에 참가한 소련 육군은 전후 필사적인 증강을 계속하여 명실공히 침략군으로서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소련 육군은 2만 야드에서 700마일 거리의 장거리포(대다수가 수소 탄두를 장치)와 각종의 트럭, 거대한 박격포와 제트식 수륙양용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래 처음으로 소련의 육군력이 미국을 따라오고 있다.

소련 육군은 기갑(機甲), 기계화 및 소총 등 3개 부대로 구분되어 있으며 최근에 와서 재편되어 미 육군의 펜토믹⁶⁾ 사단병력과 비슷한 13,000 내지 1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련 육군은 최근 수적으로 약 1,000 증강되었다. 그러나 미 육군은 약 1,000명 감군된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사실로서 제1차 대전부터 제2차 세계대전 그리고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미 육군 1개 사단의 화력은 소련 육군의 1개 반 내지 3개 사단과 비등하다는 낡은 척도는 옳지 않다고 볼 수 있다.

5) SSM-N-8 Regulus

6) Pentomic

소련 육군은 충분히 무장한 17개 사단을 평시 보유하고 있으며 유사시 30일 내에 300개 사단을 동원할 수 있다고 한다.

소련은 육군력의 감축을 누차 성명했다. 물론 그들이 감군할지는 모르나 감축된 군인이 군복을 벗는 정도일 것이고, 최소한 3백8십만 명에서 최대한 4백2십만 명까지는 언제나 유지할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2백6십만8천 명으로 (1957년 11월 30일 현재) 감축한 데 대해 소련은 결코 그들의 군사력을 격감(激減)하지는 않을 것 같다.

대체적으로 미·소 양 병력을 비교하는 데는 입장일단이 있다. 미국군이 훨씬 우세한 점도 많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많다.

미군은 앞으로 세계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보다 더 적극적인 증강계획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군사력의 여러 요소가 좀 더 균형 있게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침략자에 대한 거대한 집단보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소규모의 재래식 비(非)원자 전쟁에 즉각적으로 응할 수 있는 기동력이 필요하다.

소련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 이전의 미국정부 관리들은 과거와도 같이 제한 없는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한전쟁을 더욱 중시했다. 이러한 중에 소련이 미국에 앞서 우주를 향해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었으며, 미국 관리들은 다시 한번 소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준 것이다.

미국은 지금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균형문제와 속도문제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력, 정력과 자금뿐만 아니라 건설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다.

미국(美國)의 방위력(防衛力)

유럽 주재 연합군 최고사령관 로리스 노스타트 대장은 소련이 어떠한 형태의 공격을 취하더라도 즉각 무찌를 수 있는 절대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천명한 바 있다. 노스타트 대장은 이와 같은 의견의 기초는 매우 중요한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다.

그 첫째 근거는 하늘에는 수소무기를 적재한 미국 폭격기가 항상 순항하며 해상이나 분산 산재하는 다수의 군함에는 언제나 미국 해군의 항공모함, 그 밖에 함선과 잠수함 등이 유도탄을 장비하고 대기하고 있다. 소련이 적어도 자유진영에 대한 공격을 개시하려면 이와 같은 사실을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세계 각처에 산재하여 연쇄를 이루는 미국의 해외기지는 소련의 중심부와 대단히 밀접해 있으나 소련기지는 미국의 중심부와 상당한 거리가 있다. 정상적인 경우 무기의 도달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정확도는 더욱 커진다. 이와 같이 본다면 해외 모든 기지에 배치된 중거리 탄도유도탄을 소련 중심부에 발사할 때의 정확도는 소련이 미국을 향해 대륙간탄도유도탄을 발사할 때의 그것보다도 더욱 정확하며 유리한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해외기지는 폭격기의 주둔에 커다란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군은 전 세계의 360도 주위(周圍)에서 소련을 향해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국지전쟁(局地戰爭)의 위험(危險)

대규모의 전쟁이 발발하는 경우는 이와 같이 미국의 집단적 대규모 보복력이 동원되었지만 아시아,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 소규모의 국지적 침략전에 맞닥뜨린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국지전에 상응할 능력도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다. 미국이 활용하는 14개의 육군사단 중 8개 사단과 3개의 해병사단 중 1개 사단이 특정한 해외기지에 주둔하고 있다. 물론 이 8개 사단 중 3개 사단이 훈련사단이지만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비상사태가 벌어져도 우수한 전투경험과 경이적인 화력을 동원해 즉각 행동에 나설 수 있다.

이와 같은 병력은 비교적 적은 편이다. 만일 중무장한 1, 2개 육군 사단이 더 늘어난다면 기동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경전차, 박격포, 야전포 등을 비롯해 전술용 유도탄 분야에서는 소련의 실력도 무시할 것이 못 된다. 미국은 앞으로 전략적 육군과 해병대의 기동력을 속도와 양적으로 증강시켜야 할 것이다. 해군에서도 고속 수륙양용 함정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수소무기를 장착해야 할 것이다. ('리더스다이제스트' 지(誌)에서)

미국(美國)에서 새로운 생활 계속(新生活繼續)

망명(亡命) 중국인(中國人) 43명(名) 항발(向發)

중국 본토를 탈출한 중국인 망명자 43명이 미국에서 새로운 생활을 누리기 위해 오는 14일 아침 이곳을 출발했다.

중국의 폭정과 압박에서 자유를 갈망한 나머지 홍콩에서 정주(淨住)하기를 희망하던 이들 중국인 망명자 중에는 과학교육 부문에 종사하는 지식인들도 포함되어 있다.

중국 지식인 망명자 구호기구인 미국 민간 자선기구의 후원 아래 25세대로 구성된 일단이 어제 13일 오후 미국령을 출발하여 일본을 경유 미국으로 출발했다.

일광(日光)으로 전력(電力)을 생산(生産)

미(美), 월세계발전소설계공개(月世界發電所設計公開)

햇빛으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달나라 발전소의 설계가 9월 10일 웨스팅하우스 전기회사에 의해 공개되었다.

이 전기회사 내에 신설된 천체항공학연구소의 소장인 피터 카스트리크 박사는 앞서 말한 계획이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방군 당국 및 외기권(外氣圈) 관계자들에게 제시되었다고 말했다.

태양력발전소는 기본 구성요소로 철 망사와 화학약품을 가공한 플라스틱만을 사용한다고 하며, 햇빛이 플라스틱 판에 가열하게 됨으로써 거기 가공된 화학약품을 통해 전기가 생기며, 이렇게 해서 생기는 전자는 철 망사에 의해 수집된다는 것이다.

카스트리크 박사에 의하면, 이와 같은 발전장치를 통해 약 1만1,200킬로와트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 전력은 텔레비전 1만 대의 수요량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한다.

기백론(氣魄論)

노산(鷲山) 이은상(李殷相)

1

사람의 생활이란 본질적으로 투쟁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나면서부터 모든 외부적 조건과 더불어 투쟁하는 것이 사람의 운명인지도 모른다.

추위와도 싸워야 하고, 더위와도 싸워야 하고, 먹어야 한다는 현실적 조건에서부터 사상해야 한다는 정신적 문제에 이르기까지 투쟁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아니 산다는 사실과 투쟁은 둘이 아니요, 하나이기도 하다.

이같이 산다는 사실이 이미 투쟁이요, 또 투쟁이란 근본적으로 이겨야 한다는 것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것이라면 곧 그대로 이기는 것이 삶이요, 지는 것은 죽음일 따름이다.

다시 말하면 산다는 일은 곧 승리한다는 말과 다름없고, 그리고 또 패배와 죽음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승리해야 한다는 조건뿐이다.

그러므로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대한, 아니 중대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결정적인 조건은 실로 다른 것 아닌 승리한다는 그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요소 그것이 곧 인간생활, 다시 말하면 살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큰 요소인 것이다.

그러면 승리의 가장 중대한 요소는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못 가짐이 곧 우리들 인간생활에서 죽고 삶의 분기점이 된다. 그 요소를 가지면 승리와 삶이 있고, 그것을 못 가지면 패배와 죽음이 있을 뿐이라면 과연 그 요소처럼 중대한 것이 어디 있을 것이라.

그것이야말로 다른 것 아닌 '기백'이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말하는 '기백'은 결코 성적으로 하는 말만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기백'이라고 해서 과학적 사실이 나 현실적인 모든 조건들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오직 유심론적으로 정신작용의 어느 일면만을 가지고 이른바 승리한다는 요소의 전체로 내세우려는 것은 아님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개인과 개인과의 투쟁에서나, 더 크게 국가 민족끼리의 투쟁에서나. 또 혹은 현실적 투쟁이든지 사상적 투쟁이든지를 막론하고, '기백'은 모든 조건 이전에 갖추어야 하는 투쟁인으로서의 기본자세인 동시에 다시 그대로 과학적, 현실적, 내

지 물질적인 모든 요소를 구사하는 주인공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첫머리에 꼽을 수밖에 없고, 또 모든 요소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심지어는 승리라는 요소의 거의 전부인 것처럼 내세우게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가장 적절한 예를 저 임진왜란 때 '충무공과 거북선', '원균과 거북선'과의 관계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그 당시 육전(陸戰)에서 우리가 여지없이 패배한 것이 오직 저 일본군의 조총(鳥銃) 때문인 것과 마찬가지로, 해전에서 충무공이 백전백승한 까닭은 오직 저 거북선 때문이었다고 해서, 승리의 중대한 요소를 오히려 거북선 같은 과학적 무기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없지 않다. 물론 거기에 일면의 이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물론, 일체 생활의 전면에서도 결코 정신과 기계만으로 운영 또는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논한다면 과학적, 현실적 조건이 훨씬 더 뚜렷하게 승리의 요소임을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똑같은 거북선을 가지고서도 충무공이 그것을 거느렸을 때는 승리를 가져오는 귀중한 요소가 되었는데, 다시 그것을 원균이 가지고 썼을 때는 왜 적에게 산산이 부서지고, 빼앗기고, 또 전쟁 전면에 있어서 털끝만 한 효과도 내지 못한 것일까. 이처럼 똑같은 과학적, 현실적 조건을 가지고도 하나는 승리했는데 다른 하나는 패배했다는 것이 그 속에 중대한 다른 무슨 결정적인 조건 하나가 더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즉각 알려주고 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아무런 과학적 무기든지 또 현실적 조건이든지 그것이 온전히 제 가치를 발휘하고 제 효과를 내려면 오직 한 가지, 위대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그것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을 여실히 증거하고 있다.

또 한 번 이것을 분석해 말하면, 아무리 위대한 정신력이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과학과 현실을 제압하지 못한다. 반면에 과학과 현실의 주인공이 정신을 소유한 인간이기 때문에 필경 정신력이 그것을 이끌지 않으면 그저 사공 없는 빈 배와 마찬가지로 무용(無用)의 존재밖에 안 된다.

그러므로 결국은 모든 조건 이전에 위대한 정신력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무기가 승패를 좌우하지 못하며, 그 무기를 효과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정신력의 소유자인 인간이 승패를 규정짓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정신력이 결여된 단순한 과학적, 현실적 조건이란 것은 마치 주인 없는 사나운 말과도 같다. 사나운 말만이 전쟁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정신력이라는 것을 재인식할 필요를 느끼는데,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기백'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2

나는 일찍 우리 역사를 읽다가, 비록 한 조각 조그마한 일화에 지나지 않지만 유정(惟政)대사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와의 문답 한 구절에 이르러 머리끝이 쭈뼛하면서 나도 몰래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감탄·격찬을 금치 못했던 적이 있다.

임란왜란 중간에 일본과 서로 강화담판이 행해지던 어느 날, 울산(蔚山)에 있던 왜장 가토 기요마사의 진중으로 찾아 들어간 유정대사와 가토와의 대담은 실로 역사적인 장면이었다.

서로의 대화 중에 가토가 문득 묻는 말

“귀국에 어떤 보배가 있는가?”

유정대사가 주저 없이 받아 하는 말

“그대 머리가 보배다.”

이 말에 가토는 마주앉은 유정대사의 기가에 억눌려서, 감히 얼굴을 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것이 곧 '기백'의 한 좋은 예이다. 기백이란 다름이 아니라 꺾을 수 없는 기운이다. 누를 수 없는 기운이다. 정신력이 가장 강력하게 압축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압축된 힘이 터뜨려지는 때는 결코 탄환이나 칼 따위로는 비할 수 없는 무서운 작용을 하는 것이다. 유정과 가토의 회담은 비록 한 가지 외교적 성격을 띤 것 뿐이요, 탄환과 화살로 서로 죽고 삶을 겨누는 피 묻은 열전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어느 의미에서는 오히려 전쟁 이상으로 승패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열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 점에서 실로 중대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 거기서 우리는 보기 좋게 대승을 거둔 것이다.

그래서 유정대사의 별칭을 '설보화상'(說寶和尚)이라고 한다. 그 당시 우리를 여지없이 짓밟던 왜적의 진중으로 혼자 들어가 그들의 최고지휘관인 가토와의 대담에서 아무런 주저도 없이 “그대 자신의 머리가 우리 보배다.”라고 말한 유정의 기백은 그것이 곧 우리들의 민족혼을 대변한 점에서, 그리고 당당한 적을 억

놀이 전을케 한 점에서 절대적인 효과를 거둔 승리의 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기백은 결코 허장성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어떤 기만적 방법에 의한 과장적 허세를 기백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속없는 허풍이라거나 또는 외교적 방법론적으로 하는 일종의 선전공세 따위를 기백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열과 신념에서 솟아나 막을 수 없는 ‘속-힘’의 발로이다. 짐짓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나타나는 가장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정신력의 발양(發揚)을 말하는 것이다.

아무런 힘도 나를 누르거나 꺾을 수는 없다는 선언인 동시에, 만일 나를 해하고 정의를 거스르는 어떤 외부의 힘이 작용될 때는 단연코 나아가 그것을 제압하고 말살해 버리고야 말겠다는 포고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살아야 한다는 정열과 의욕과 또 투쟁에는 이겨야 한다는, 아니 이기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이기고야 말겠다는, 그리고 또 이길 수 있다는 무서운 신념에서 솟아 나오는 기운의 발양이 ‘기백’이다. 따라서 그것은 그대로 자기안진, 자기보장, 자기방위, 자기확립을 의미하며, 동시에 투쟁단계로 돌입하면 오직 승리만이 유일한 명제인 이상 상대방의 불의를 꺾고 무찌르고 말살함으로써 승리해야 한다는 지상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선언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기백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대전(對戰)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절대적인 요청에 아무런 감격이나 정열이나 의욕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기 생명의 안위를 운명에 내던진 채 포기해 버리고 마는 것이다. 모든 패배와 굴욕과 죽음에 무감각한 태도가 아니라면, 이것의 절대적인 조건인 ‘기백’이란 것에 무관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승리에는 무엇보다도 절대방위와 절대공벌(攻伐)의 양면을 겸비한 꺾을 수 없는 기운, 대적할 수 없는 기운인 ‘기백’, 그것이 유일한 선행조건이 되어야만 한다.

3

충무공이 조정에 올린 장계(政伐) 중에 당시 일반 국민들의 성격을 여실히 폭로한 구절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겁쟁이가 열에 여덟아홉이요, 용감한 자라고는 열에 한둘

밖에 아니온 바, 무슨 소문만 들리면 그저 도망갈 생각만 내서 놀라며, 허둥대며 엎어질락 자빠질락 다투어 달아나니, 설사 그 속에 용감한 자가 있다 한들 혼자 어찌 칼날을 무릎 쓰며 죽자고 돌진할 수 있사오리까.”

(아국지인(我國之人), 겁자십거팔구(懼子十居八九), 용자십중일이(勇者十中一二), 이평시불위분변(而平時不爲分辨), 혼잡상취(混雜相聚), 고평성지래(故風聲之來), 첩생도래지심(輒生逃潰之心), 경동무상(驚動無常), 전도쟁분(顛倒爭奔), 수유용자(雖有勇者), 기독능모백인(基獨能冒白刃), 수사돌전호(殊死突戰乎))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진실로 깊은 반성과 각오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겁쟁이가 열에 여덟아홉이요, 용감한 자라고는 열에 한둘밖에 아니라는 지적이 이미 360여 년 전 임진왜란 그 당시 충무공의 말이었던 만큼, 틀림없는 사실이 있을 것이므로, 오늘 우리 국민성의 겁약(怯弱)한 일면이 그만큼 오래 내려온 반감지 않은 일종의 전통이었던 것을 생각해볼 때, 어찌 뼈 아픈 자국이 없이 이 말을 쉽게 읽어버리고 말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여기서 이른바, 겁쟁이와 용감한 자의 구별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분간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곧 다른 것 아닌 ‘기백’의 유무인 것이다.

왕성한 투지와 죽음을 무릅쓴 돌진과 아울러 최후 승리의 획득이 오직 이 ‘기백’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가진 그 당시의 국민성을 지적한 것은 곧 그대로 전쟁 첫머리에 우리가 여지없이 패배했던 가장 중대한 원인과 요소를 폭로했던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부하들에게 신칙(申飭)하여 무엇보다도 ‘기백’을 잃지 말기를 강조했었고, 또 그 기백을 발휘하는 한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을 하나의 깨끗한 신념으로 가졌던 것이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예증은 충무공의 사적 중에서

“신에게 전선이 아직도 열두 척이 있사옵니다. 신이 죽지 않는 한 적이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하리이다.”

(신전선상유십이(臣戰船尚有十二), 미신불사(微臣不死), 즉적불감모아의(則敵不敢侮我矣))

라고 한 말이다. 이것은 그가 감옥에 있는 동안, 원균(元均)이 해군 전부를 망쳐버리고, 배란 배는 모조리 다 없애버린 뒤, 충무공이 다시 나서 휩쓸린 전국을 바로잡을 적에, 전라도 연해안을 돌며 도망해 남은 배, 겨우 12척을 거두어 거느리고 수백 척의 적 함대를 상대하게 되자, 조정에서는 너무도 빈약한 형세인 것을 걱정하여 새삼스럽게 충무공을 동정하는 생각에서 배를 버리고 육지로 올라와 싸우라고 명령했을 때 충무공이 그 같은 대답을 했던 것이다.

“내가 아직도 열두 척이 있다.”

이 말을 몇 번이나 되 읽어보며 분석 음미해보라. 얼마나 천지 귀신을 울리는 한마디인가. 그 말 전부가 기백으로 가득하다.

그 한마디는 열두 척을 마치 일만이천 척이나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무서운 정열과 신념에서 터져나온, 그래서 아무런 힘도 감히 그를 억누를 수 없고 꺾을 수 없는, 그야말로 불사혼의 절규였던 것이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 적이 나를 업신 여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죽지 않았다는 말은 그대로 내가 살았다는 말이고, 내가 살았다는 말은 다시 내가 이겼다, 이긴다. 또 이길 것이란 것을 약속·선언하는 말이다.

“아무도 나를 업신여기지 못한다.”는 것과 또 “아무런 힘도 나를 꺾지 못한다.”는 그것이 곧 그의 기백이었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충무공은 그 기백의 힘을 가지고 그 기백 위에 든든한 신념을 세우고, 그 굳은 신념을 애국의 불같은 정열로 발양(發揚)하여 마침내 무적의 간성(干城) 노릇을 했던 것이요, 또 나아가 역사의 전환자가 되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어느 면에서든지 치열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므로 승패를 결정하는 태세로 살아가야 한다. 그만큼 긴장으로 생활에 임해야만 한다. 그러나 내가 여기 말하는 것은 결코 개인적인 점에서나 또는 먹고 산다는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말은 아니다.

이제 바야흐로 우리 민족의 중대한 역사적 단계가 조국의 진정한 통일과 자주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또 민주이념과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의 위태로운 교차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논리가 오직 민족적인 각도에서 전제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어디까지나 살아야 한다. 바로 살아야 한다. 힘차게 살아야 한다. 사는 것이 투쟁이다. 또 그것이 이미 투쟁인데 이겨야 한다. 깨끗이 이겨야 한다. 여지없이 이겨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이 민족에게 부여된 가장 뚜렷한 제목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우리 민족의 역사정신을 ‘피의 항쟁’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며, 또 거기에서 앞날의 전개도 있을 것이라 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요소야말로 ‘기백’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긴다는 신념과 정열, 그것의 압축된 기운인 ‘기백’, 그것이 결국은 승패와 생사를 결정짓는 유일한 열쇠인 것이다. (1958년 국치일)

현대정치(現代政治)의 해명(解明)

김경수(金敬洙)

I

민주정치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르지만,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인민” 정치라고 한 링컨의 정의는 자고로 민주정치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민주정치의 이념이기도 하다.

주지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운동은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링컨이 정의한 바와 같이 민주정치의 성립은 프랑스 혁명에서가 아니라 20세기에 들어 와서 비로소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그 시작과 성립과의 사이는 장구한 세월의 차이가 있으므로 그간의 경제적, 사회적 정세의 변천이 불가피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민주정치의 초기 이념이 20세기에 이르기까지에는 변질을 겪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한 인식 없이 20세기에 성립한 민주정치 - 대중민주주의 - 를 18세기적 이념에서 다루었을 때는 현실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다. 이러한 과오를 범했던 서구 후진국에서는 그 결과 공산주의 또는 파시즘이란 반동적인 정치질서의 대두를 초래하고 말았다. 그러면 프랑스 혁명에서 시작된 초기 민주정치는 어떠한 것이었으며, 그 변질은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II

민주주의적 정치질서의 성립 이전의 유럽 공통된 구질서는 특권계급과 결합한 강력한 군주정치로서 중앙집중적 절대군주정치 또는 절대주의라고 불린다. 이 시기에 신분과 결합한 정치 권력, 즉 특권계급은 면세 특권을 가지면서 스스로는 과세권을 향유하고 국민 대중은 이러한 각종 공납과 봉건적 의무에 허덕이며 빈곤에 시달렸다. 이러한 구질서를 타도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운동이 바로 프랑스 혁명이었다. 구질서 아래에서의 당시 프랑스 상태를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하자.

프랑스의 전제정치는 “내가 바로 국가”라고 호언한 국왕 루이 14세 때부터 강력하게 성립되어 루이 16세에 이르렀다. 루이 16세는 “왕권은 내 수중에 있고 모

든 명령은 나로부터 나오며 왕은 최고집행자이다. 국민과 나는 동일하고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이해는 나의 권리와 이해와 같으며 모두 나의 손 안에 있다.”고 했으니 이것만으로도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왕이 자의(恣意)로 지불명령서를 발행하면, 국민은 오직 이에 순응 납부할 따름이며 이에 대한 질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왕실 비용과 국고가 구별되어 있지 않아 징수된 돈의 액수와 용도를 국민은 알 길이 없다. 국왕의 사치와 낭비는 국민의 부담을 말할 수 없이 과중하게 했다. 국민의 재산에 대한 왕의 권한이 이르렀지만, 국민 자체에 대한 왕권도 이에 못지않았다. 체포는 왕의 자의에서 행해졌다. 재판형식이 없으니 투옥된 자를 왕이 상기(想起)하거나 누가 구명운동을 하기 전에는 출옥이 불가능하다. 또 이러한 체포영장을 입수하는 것은 국왕 측근자에게는 용이한 일이라, 이것은 적을 해치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유명한 정치가 미라보는 청년 시절의 그의 방탕을 저지하려는 부친 때문에 이러한 체포영장으로 수차례 투옥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당시의 국민적 존재는 신분적 존재로서 이 신분은 출생과 동시에 고정되었다. 우선 제1계급으로 승려계급이 있었다. 교회봉직자인 이들은 프랑스의 전 토지의 5분의 1을 소유하면서 그들의 토지는 신에 헌납되었다는 이유에서 기도로 납세할 뿐이며 면세의 특권을 가졌다. 한편 교회는 국민으로부터 10분의 1세(십일조)를 징수하여 막대한 부를 쌓았다. 그들 중의 고급승려는 궁정출입자이며 왕의 측근이었다.

제2계급인 귀족계급도 광대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한편 국민들의 수입의 일부를 징수하고 있었다. 저택 앞을 지나가는 가축에 대한 과세, 제분설비(製粉設備)를 설치하고 농민의 이용에 대한 과세, 또는 백성과 인접하고 있다고 해서 그 판매가격의 5분의 1을 강취(強取)하는 등의 과중한 공납을 국민에게 부담하게 했다. 또 그들이 가지는 수렵의 독점권으로 국민은 농작물에 해로운 짐승을 건드릴 수도 없고 또 그들의 영지에는 탐 모양으로 된 비둘기 집에는 수천 마리의 비둘기가 있어 파종한 씨를 먹어버리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제3계급인 국민 대중은 무권(無權)적 존재이며 그들의 대부분은 농경에 종사하

1) Mirabeau

는 농민이었다. 이를 농민 이외의 도시에서 상공업에 종사하는 소위 시민계급이 있었다. 그들은 상공업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당시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는 돈이 아니라 신분을 기초로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비록 경제적으로는 강력해지고 있었지만 역시 사회적, 정치적으로는 무권상태에 있었다.

III

경제적으로 실력을 증대한 시민계급이 구질서를 타도하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려는 운동이 프랑스 혁명이었다. 다만 이곳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혁명의 담당자는 비록 시민계급이었지만 그것이 시민계급의 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운동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특권적, 이방인적이고 이질적인 제1, 제2계급을 제거한다면 나머지는 동질적인 제3계급만이 남게 되며 이 제3계급이 “국민의 전부”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었다.

프랑스 혁명을 국민운동으로 전개시킨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소위 계몽사상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계몽사상은 한결같이 구질서의 모순과 결함을 폭로하고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는 한편 만민에게 공통된 자유와 평등을 주창했다. 이제 새로운 질서를 설계하려는 프랑스 혁명은 시민계급의 경제활동의 자유보장 또는 국고에 대한 채권자로서 시민계급의 국정참여 주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몽사상을 기초로 하는 만민의 자유와 평등을 마련하는 운동으로 믿었고, 또 그러한 이념과 선전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국민운동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혁명 후 선포된 ‘인권선언’과 프랑스 최초의 ‘1791년 헌법’은 이러한 사정에서 나온 것이었다. 즉 전자는 앞서 말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구현한 것이며 ‘헌법’은 혁명의 구체적 목표였으니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대한 지배자의 자의적 지배와 침범을 막는 수단으로 헌법과 의회를 가지자는 것이었다.

IV

프랑스 혁명의 성공으로 이제 입헌정치, 법에 의한 지배의 원칙이 확립되었고 또 구 특권계급이 타도되었다. 따라서 국민사회의 구조는 동질적인 것이며 이러한 국민사회에 있어서의 이해관계는 대립적이 아니라 조화된 것이라고 기대되었고, 국민은 다 같이 자유와 평등을 향유하며 다 같이 잘 살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이러한 이상과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은 혁명의 과실로 얻어진 의회의 선거가 재산조건이 붙어 있는 ‘제한선거제’라는 점에서 단적으로 표시되었다. 이리하여 이제 정치적 참여는 ‘신분’ 대신 ‘재산’을 기초로 삼게 되었다. 이것은 혁명의 주도적 담당자가 시민계급이었다는 것을 반영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혁명 후의 국민대중의 생활도 별로 개선된 바가 없었다. 이로부터 민중은 1791년 헌법에 만족할 수 없었으며 그들의 생활을 위해 새로운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으며, 그것은 다음 아니라 혁명의 이념인 만민의 자유와 평등의 획득이었다. 이러한 운동은 ‘보통선거제’를 얻자는 것이다. 보통선거제의 확립으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완성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신분’ 대신 등장한 ‘재산’을 타파하려는 운동은 손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고, 이러한 운동은 과격한 운동으로 위협시되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장구한 세월이 걸친 투쟁이 전개되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보통선거제의 역사와 일치한다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운동은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각국에서 꾸준히 이루어졌다. 민주주의적 선거국가인 영국에서도 이러한 보통선거제 운동이 성공한 것은 1920년경이었으니, 이것으로 다시 그사이의 정세가 짐작될 수 있을 것이다.

20세기 후반기에 이르기까지에는 서구 제국에서는 대체로 보통선거제의 성립을 보았다. 이로써 프랑스 혁명 당시부터 전개된 민주화 운동은 성공을 거두어 민주주의는 제도적으로 완성을 보았다. 그러면 이제 제3계급이었던 국민은 동질적 구조와 조화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국민사회에서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되었던가? 제1차 대전 후의 국민생활은 그와는 반대의 것이었다. 보통선거제를 가지자는 목적은 단순한 민주정치의 제도적 완성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인간다운 생활의 확보였다. 보통선거제는 확립되었지만 생활의 개선이란 사태의 진전이 없으니, 이것은 어찌된 것이며 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V

이러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보통선거제가 확립된 1920년대를 프랑스 혁명 당시로 소급(溯及)해서 생각한 착각에서 야기된 것이다. 즉 프랑스 혁명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정세가 그대로

1920년대까지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제1, 제2계급만 타도하면 제3계급은 동질적이라고 생각했던 당시와는 판이한 국민사회가 성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산에 넣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산업 혁명의 진행은 기계도입에 의한 공장생산으로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소위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계급을 대두하게 했다. 이 두 계급의 이해관계는 상반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고, 따라서 이것을 사회적으로 본다면 제3계급으로부터 제4계급의 발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와 자본가의 대립이 격화되면 될수록 국민사회의 동질적 구조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러한 이질적 사회구조를 토대로 해서 보통 선거제에 의한 의회가 구성되더라도 그 의회는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말미암아 문제의 해결을 기대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3, 제4계급의 대립이란 사태에 대한 인식없이 보통선거제의 확립에 문제해결의 길을 구한다면 결국 의회는 무력해지고 따라서 의회를 버리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실례가 바로 공산주의와 파시즘이었다. 즉 전자는 노동계급이 의회를 떠나서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며, 후자 역시 이에 대비하여 자본가의 후원 아래 실력으로 하자는 것으로, 모두 파괴와 폭력을 위주로 하는 반동적 경향을 띤 것이다. 이러한 해결방법이 올바른 것이 못 될뿐더러 오히려 인간의 큰 불행을 초래했음을 우리는 역사에서 체험해왔다. 그렇다면 진정한 해결방법은 어디서 구해질 것인가?

VI

보통선거제의 확립은 위의 설명에서 18세기적 민주주의의 완성이 될 수 없음을 알았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인가?

보통선거제의 성립은 실로 새로운 정치질서의 성립이었다. 그러므로 새로 성립된 이 정치질서에 적합한 새로운 정치제도가 마련되어야만 했다. 새로 성립된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비운을 겪은 독일과 이탈리아와는 달리 영국과 미국에서는 대중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정확했고 그 대책도 성공적인 것이었다. 이 점에 관해 영국의 경우를 개관(概觀)해 보자.

보통선거제가 성립하자 영국 보수당은 종래의 부르조아적 입장을 떠나 건설적 정책을 수립했다. '노동대중의 보다 좋은 환경'을 위한 노력과 소위 Mass Bribery라고 불리는 정책 - 실업, 주택, 양로연금(養老年金) 등 - 을 세워 보수당이 특수이익의 대변이 아니라 영국인을 위한 것으로 개조되어갔다. 즉 대립되는 세력과의 결사적 투쟁이 아니라 대중을 위한 수정주의적 복지정책을 채용했던

것이다. 정치 제도적으로는 집행권을 강화해 국가의 자유방임을 지양하고 복지정책을 강력히 수행해나갔다. 한편 사회주의적 입장에 있는 영국노동당은 개인의 당원자격을 인정함으로써 종래의 당원자격이 노동단체에 국한됨으로 가졌던 계급정당적 색채를 버리고 국민정당과 대중정당으로 방향을 전환했으며, 유산(遺産)을 계승하고 또 복지정책 - 주택, 실업, 노년, 연금 - 을 채용했다. 이와 같이 보수 노동의 양당은 대립하면서도 서로 접근해갔으며 다 같이 '대중으로 가는 길'을 택했던 것이다.

VII

링컨이 말한 민주정치의 정의는 대중민주주의의 성립으로 실현되었다. 대중은 정치의 주체이며 또 그 목적이기도 하다. 대중민주주의의 성립은 새로운 정치질서이며, 따라서 18세기적 민주정치의 개념과 제도는 수정을 받지 않고서는 올바른 인식과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함을 알아야 한다.

18세기적 민주정치에서 정치적 원칙의 대표적인 것은 3권분립이었다. 시민계급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재산의 자유를 위해서는 집행권의 강대화가 저지되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또 의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며, 교양과 재산 있는 사람들의 유쾌한 사교장이고, 그들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 그들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기관에 그치는 것이었다. 선거는 재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대표를 뽑는 행위이며, 따라서 이는 종래 국가기관을 선출해 내는 행위라고 하는 정의에 그치는 것이었다. 정당도 시민계급 내에서의 정파적인 존재에 불과했으며, 국민적 이해에 관한 정책을 내세운 것은 선거권 확대를 주장한 1830년대의 영국 자유당이 처음인 것 같다.

그러나 대중민주정치 아래에서는 이러한 정치적 원칙과 제도는 그 내용이 변질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오늘의 정치적 원칙은 3권 분립이 아니라 2대(大) 정당주의일 것이다. 3권 분립은 자유의 보장이란 사명을 다하더라도 그것은 소극적인 것에 불과하다. 대중민주주의 아래에서는 자유의 보장을 넘어서 대중의 복지가 목적으로 되었으니 대중의 보다 나은 복지적 정강(政綱)과 강력한 그 실현을 서로 다투는 2대 정당의 대립주의가 적극적인 원칙으로 등장했다. 따라서 의회는 이러한 복지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구라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으니,

그것은 국가기관의 선출을 넘어서 실로 권력의 인증(sanction)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선거는 누구를 권력 담당자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또 그 교체와 변경을 평화적으로 이룩하는 수단으로 되었다. 고대에는 신이, 중세에는 신분이, 근래에는 재산이 정치적 권력의 기초였으나 이제는 “모든 권력은 시민으로부터”로 되었다. 그러므로 국민과 밀접한 연관을 맺은 정당은 국민적 정당이 되고 복지정책의 입안과 실현에 노력하는 단체가 되었다.

이와 같은 정치적 원칙과 정치제도 및 그 운용을 통해 대중의 복지가 종합적으로 향상될 것이며, 대중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는 국제적 공산진영과의 대립에서 전(前)세기적인 참여한 대립이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대립의 해결도 결국 어느 진영의 제도가 대중의 행복한 생활을 보다 더 확보해 주는가에서 구해질 것이다. 즉 권력과 정치는 인민을 떠나서는 무의미한 것이므로 인민이 선택하는 제도와 질서가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민은 과연 양진영의 어느 쪽 제도를 택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얼마나 많은 인민들이 매일같이 철의 장막을 넘어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명할 것이다.

(필자(筆者) 고려대학(高麗大學) 교수(教授))

쥐 먹은 대신(代身)에 실험대(實驗臺)에 오른 고양이

미국 테네시주 오크리지¹⁾에 있는 어떤 원자력연구소의 홀렌더 박사는 방사능실험에 쥐를 사용하고 있다.

어느 날 밤 계원이 여섯 마리의 쥐를 넣은 용기를 복도에 둔 채 잊어버렸더니 다음날 아침 빈 용기 옆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배가 불러 졸고 있었다.

그런데 이 고양이 군이 쥐를 먹은 대가로 방사능 실험대에 오르게 되었다고 제네바 국제원자력회의에서 홀렌더 박사는 보고했다.

1) Oak Ridge

최근(最近)의 세계지도(世界地圖)

최복현

1. 서론

2차 대전이 끝난 지 벌써 13년이 지났지만 복잡한 국제정세(國際情勢)에 따르는 지도(地圖)의 변천(變遷)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즉 한쪽에는 통일아랍 공화국이 생기거나 하면, 또 한편에서는 아랍연방이 형성되어 대립을 이루고 있으며 이것도 반년이 못 된 오늘에는 벌써 아랍연방이 해체되어 이미 끊어졌던 국토의 경계선(境界線)은 또다시 옛 그대로 환원시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역사(歷史)의 흐름은 수시로 국가들의 경계선을 변경시키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그들의 정치판도(政治版圖)를 표시하는 지도의 색채(色彩)와 국경선의 위치(位置)를 달리 나타내게 하고 있다. 이제 필자(筆者)는 제2차 대전을 전후(前後)해서 변천된 이들 국가경계선들을 간단히 소개하려고 한다.

2. 2차 대전 전후(前後)의 지도변천의 경과

2차 대전을 전후해 세계 각 국가들의 정치구역이 달라지게 된 동기(動機)는 첫째 대전 직전의 나치 독일과 파쇼 이탈리아, 그리고 군국주의(軍國主義) 일본 등의 침략에 의한 국토 변경, 둘째는 2차 대전 중에서 전쟁 직후에 걸쳐 국토 팽창에 여념이 없었던 공산주의 소련의 영토 확장, 그밖에 셋째로는 새로이 일어난 민족국가(民族國家)들의 등장이 지도변천의 주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



1. 군국주의¹⁾ 논가들의 침략

대체로 1차 대전이 끝난 후 한동안은 국제적 안정이 되려는 듯 그 기세가 보이는 듯했으나 1930년이 지나면서 점차로 새로운 국제적 불안(不安)이 일어나

1) 원문의 '군논주의'는 '군국주의'로 조판의 오류로 보임.

기 시작했다. 그것은 1차 대전에 패망했던 독일의 급속적인 성장과 이에 뒤이은 이탈리아 그리고 동양에서의 일본의 해외진출들이다. 즉 유럽에서는 독일이 1935년에 인민투표(人民投票)라는 구실로 국제관리지구(國際管理地區)였던 자르(Saar) 지방을 점령하고 1936년에는 군비금지구역(軍備禁止區域)인 라인란트(Rheinland)에 진주해 재무장(再武裝)하는 한편, 계속 1938년부터는 오스트리아(Austria), 메멜(Memel), 즈테텐(Sudeten), 체코슬로바키아(Czecho-Slovakia)의 전 국토를, 그리고 단치히(Danzig) 자유시를 강점하고 드디어 1939년 9월 말에는 폴란드(Poland)를 침공해 소련과 국토를 양분(兩分)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1935년 이후 해외로 진출해 에티오피아(Ethiopia), 알바니아(Albania), 소말리아(소말리랜드(Somaliland))의 일부 등을 점령했다.



그리고 극동(極東)의 일본은 이들보다 조금 일찍 1930년경부터 대륙을 침범하기 시작했는데 1932년에는 그들의 괴뢰정권인 만주제국(滿洲帝國)을 세웠고 계속 상해사변(上海事變)을, 1937년에는 중일전쟁(中日戰爭)을, 뒤이어 내몽고(內蒙古)의 자치연합정부를 세우는 등 그 침략적 행동은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동서양에서의 침략적 행위는 그대로 정치구역을 일변시키게 되었으며, 2차 대전이 일어난 1937년 가을까지 계속했다.

2. 소련의 국토팽창(國土膨脹)

이상에서 말한 바와 같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영토침략은 직접 2차 대전을 일으켰는데, 이와 때를 같이해 여태까지 해양진출(海洋進出)을 꿈꾸던 소련은 숙망을 달성하고자 침략을 개시했다. 즉 1939년의 폴란드 국토의 동반을 차지하게 된 소련은 계속해서 1940년에는 발틱(Baltic)해 연안에 있는 에스토니아(Estonia),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등 세 나라를 침략했다. 그 밖에도 서북쪽에 있는 핀란드(Finland)의 영토인 페칭가(Pechenga), 쿨라야르비(Kuolayarvi) 지방, 라도가(Ladoga) 호, 서북연안을 차지해 국경선을 서쪽으로

로 이동시켰고 2차 대전이 끝난 오늘까지도 계속 국토의 확장에 고심하고 있다. 즉 대전 직전 헝가리(Hungary)의 보호령이던 루테니아(Ruthenia)와 루마니아(Rumania) 동북쪽에 있는 베사라비아(Bessarabia) 지방을 강점했고, 멀리 극동에서는 일본으로부터 사할린(Sakhalin), 쿠릴 열도(Kuril Islands) 등을 빼앗았다.

3. 새로운 민족국가들의 등장

이상과 같이 열강국가 등의 국토팽창정책에 의해 지도가 변천되는 동기도 되고 있지만, 이 밖에도 2차 대전의 결과 새로운 민족국가들이 등장해 많은 지도를 변천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짧은 기간이지만 침략당했던 약소국가들이 다시 독립된 나라와 여태까지의 열강국들의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오랜 동안 민족운동의 결과로 독립된 나라들이 있다. 대체로 다시 소생된 국가로서는 한국, 체코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에티오피아 등이 있고 새로이 독립된 나라는 베트남(Viet Nam), 라오스(Laos), 캄보디아(Cambodia), 버마(Burma), 인도연방(India Union), 파키스탄(Pakistan), 세일론(Ceylon), 말라야(Malaya), 싱가포르(Singapore), 필리핀(Philippine), 인도네시아(Indonesia), 요르단(Jordan), 리비아(Libya), 가나(Khana)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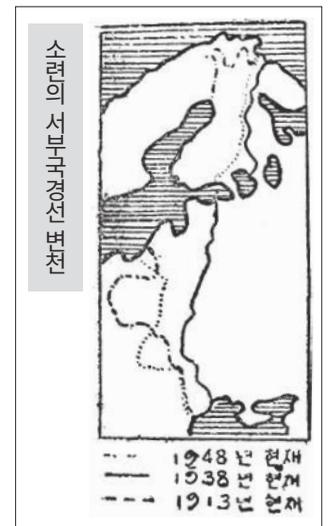
3. 지역별(地域別)로 본 지도변천

이제 2차 대전을 전후해 변천된 최근의 지역별 변천은 다음과 같다.

1. 유럽(Europe) 지역

가. 대전 후 없어진 나라 또는 지방.

대전 전에는 지도에 나타나 있었던 것이 대전 이후 없어진 나라 또는 지방을 든다면 발틱해 연안에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들과 동부 러시아 지방이다. 그 중 발틱 세 나라들은 모두 소련의 가맹공화국(加盟共和國)으로 강제병합 당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일찍부터 발달했으나 18세기에 이르러 러시아 영토가 되었다. 그 후 1918년에 다시



독립했으나 1939년에 폴란드 동반을 점령한 소련은 1940년에 이 지역을 보호한다는 기만 아래 합병했다. 한편 동프러시아 지역도 남반부는 폴란드에 양도하고 북반부는 소련이 차지했다. 대체로 이들의 발탁해 연안지역은 면적이 좁고 인구가 적을뿐더러 빙식지형(氷蝕地形)이라서 토질이 나쁘며 기후도 한랭하며 지하자원도 아주 빈약한 지역이다. 그러나 이곳은 바다에 연한 위치이므로 해양에의 진출을 갈망하고 있는 소련에게 마침내 점령당하고 만 것이다.

나. 대전 후 회복된 나라.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2차 대전 직전에 없어졌던 나라들이 대전 후 다시 생성된 곳이 있다. 이는 즉 오스트리아,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인데 그 중 오스트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의 두 나라는 대전 직전인 1938년 3월에서 1939년 3월 까지의 1년간 나치 독일에 강제 통합 당했다. 즉 영토침략에 불타는 독일은 게르만 민족의 통일을 구실로 1938년 3월에 오스트리아를 침략했고, 같은 해 9월에는 '뮌헨(Munche) 회담'의 결과로 마침내 1차 대전 후 공화국으로 출발한 이 나라는 독일 침략자들에게 유린당하고 말았다. 대전 후 체코슬로바키아는 공산주의 위성국가(衛星國家)의 하나로 등장했는데, 1939년 이전의 국토를 찾았으나 헝가리에게 빼앗겼던 루테니아(Ruthenia) 땅은 오늘날까지 소련에 빼앗긴 채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한편 오스트리아는 다뉴브(Danube) 강 유역지대와 알프스(Alps) 산지로 구성된 나라이다. 대전 후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등의 네 나라들에게 점령당하고 있었으나, 1955년 11월에 이르러 옛 국토를 그대로 회복해 중립국가(中立國家)로 독립했다. 또한 폴란드는 1939년 9월에 독·소 양국에게 분할되었던 나라이다. 대전 후 다시 회복했으나 그 국경선은 많은 변동을 했다. 즉 동쪽의 소련과는 옛 국경선까지 찾지 못하고 1939년 당시의 소련이 강점했



2차대전후 독립한 나라(1)

던 국경선을 그대로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겨우 동북지방에 있는 발리스크(Bialystek)지방이 이 나라에 돌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서쪽의 독일과의 국경선은 오데르 나이세 라인(Oder-Neisse Line)이다. 역시 소련의 위성국가인 이 나라는 위치, 기후, 인종, 정치적인 여러 면에서 볼 때 북부와 중부, 서부와 남부 유럽들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점이지대(漸移地帶)를 이루고 있다.

다. 대전 후 국경이 변경된 나라.

대전 후 국토의 경계선이 변경된 나라는 루마니아, 헝가리들이 있다. 이들은 모두 소련의 위성국가들이고 국토는 소련의 침략에 의해 축소되었다. 즉 루마니아의 동북쪽에 있는 베사라비아 지방은 동쪽의 우크라이나(Ukraine) 흑토대에 계속되는 기름진 지역이며 대부분의 지형이 300미터 이하의 낮은 평원이므로 전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 경작지화(耕作地化)되고 있다. 따라서 이곳은 그 독립적 의의가 크므로, 소련은 주민의 반수 이상이 루마니아족 계통임을 무시하고 농민의 대부분이 러시아 말을 사용한다는 핑계로 이 땅을 강제 약탈했다. 또한 헝가리도 역시 대전 전에 차지했던 다뉴브 강 이북연안의 체코슬로바키아 땅을 그대로 반환했고, 보호령으로 점령했던 루테니아는 소련에 횡탈(橫奪)당했으므로 대전 전의 국경선과는 크게 달라졌다. 원래 루테니아 땅은 삼림이 무성한 산지지역으로 사암지대(砂岩地帶)를 이루어 농사에는 부적합하나 예부터 목재자원이 중요했다. 사실상 경제적으로 볼 때 그 자연환경이 헝가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나 대전 후 이 땅은 아직까지 소련이 강탈한 채 돌려주지 않고 있다.



2차대전후 독립한 나라(2)

2. 아시아(Asia) 지역

가. 대전 후 없어진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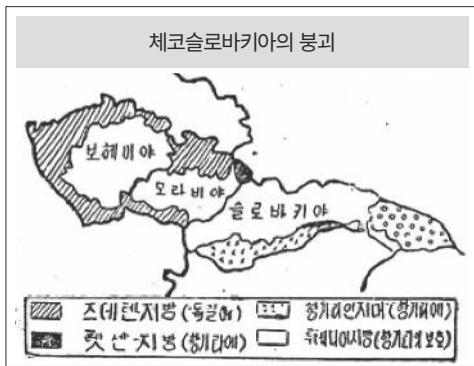
대전 후 아시아에서 없어진 나라는 지금의 만주지방(滿洲地方)에 군국주의 일본이 세웠던 만주제국이다. 물론 이 나라는 열강국들이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사용해온 지도에서 많이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들어보겠다. 원래 이 지방은 예부터 중국 본토의 한족(漢族)과 다른 만주족(滿洲族)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일제(日帝)가 청(淸)나라의 후예(後裔)를 내세워 괴뢰정권을 일으키고 일본의 대륙 침략 기지로 삼았으나 2차 대전 후에 없어졌다. 이곳은 석탄 철들의 지하자원이 풍부하고 농산자원도 많아서 그 경제적인 의의가 큰 지역이 되고 있다.

나. 대전 후 독립한 여러 나라.

아시아 대륙은 유럽보다는 물질문명(物質文明)의 발달이 늦었으므로 일찍부터 유럽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로 되어왔다.

따라서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에 시달린 아시아의 각 지역에서는 치열한 민국(民國) 자주독립운동이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다. 이와 같은 꾸준한 투쟁은 마침내 2차 대전 이후에 우방제 국가들의 도움으로 뜻을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 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있다. 즉 인도차이나반도(印度支那半島)가 1948년에 이와 전후해 프랑스로령 인도차이나에서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각각 일어났고, 영국령 말레이시아는 1957년에 말라야, 싱가포르 등의 자치국가로 등

장했다. 그리고 오랫동안 식민지 생활을 계속해온 필리핀은 1946년에, 네덜란드령 동인도(蘭領東印度)는 1949년에 인도네시아라는 이름으로 생겨났으며, 종교분쟁(宗教紛爭)을 일삼던 인도네시아 반도는 드디어 1947년에 이슬람교(回教)의 파키스탄과 힌두교도(印度教徒)의 인도 연방으로 나뉘어 독립했다.



특히 파키스탄은 그 교도(教徒)의 분포 관계로 부득이 서부와 동부의 2개 지역으로 분할 독립했다. 이듬해 1948년에는 세일론도 자치령으로 독립해 지금까지의 식민지 지역은 점차 그 면모를 달리하게 되었다.

또한 아라비아(Arabia)반도에서는 프랑스 영토였던 시리아 땅에 1941년 시리아와 레바논이 독립했고 영국의 위임통치지역(委任統治地域)이었던 요르단이 1946년에, 같은 팔레스타인(Palestine) 지역에서는 1949년에 유대교도들의 이스라엘이 등장했다.

이상과 같은 여러 나라들의 새로운 등장은 여태까지의 지도에 많은 변동을 가져왔다. 더욱이 1958년에는 이집트(Egypt)와 시리아(Syria)가 합방해 통일 아랍 공화국을 이루자 이에 대립하기 위한 국가로 이라크(Iraq)와 요르단(Jordan)이 합해 아랍 연방을 형성했었다. 그러나 그 후 반년도 못 된 오늘에 와서 이라크 국토 내의 혁명으로 전제국가제도(專制國家制度)가 붕괴되자, 드디어 아랍연방은 해체(解體)하는 운명을 겪었다.

다. 대전 후 소속(所屬)이 변동된 지역.

대체론 대전 이후에 그 관할권(管轄權)이 이양됨에 따라 변경된 지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1905년의 러일전쟁(露日戰爭)의 결과 일본이 차지했던 사할린과 쿠릴열도들 그리고 일제가 괴뢰정권인 만주제국을 세워 대륙침략의 기지가 되었던 관동주(關東州), 이 밖에 1차 대전 이후 일본이 관할하고 있던 남양제도(南洋羣島), 대전 후 미국이 맡고 있는 류큐(琉球)제도들이다. 즉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자 여태까지 점령했던 사할린과 쿠릴열도는 소련에 반환되었고 중국, 만주지방 서남쪽에 돌출한 관동주는 오랫동안 조차지(租借地)로 사용해온 땅이었으나, 이것도 역시 중국에 반환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위임통치지(委任統治地)였던 남양제도인 카롤린(Caroline), 마리아나(Mariana)제도들은 모두 미국의 신탁통치(信託統治) 하에 들어갔다.

이 밖에 아직도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류큐제도가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그 귀속(歸屬)이 결정될 것이다.

3. 아프리카(Africa) 지역

가. 대전 후 독립한 나라.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아직까지 민족적 자주독립운동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실제로 독립을 이룬 나라는 매우 적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로는 오랫동안 터키 또는 이탈리아의 식민지로 있다가 1952년에야 겨우 독립한 북 아프리카의 리비아(Libya)와, 15세기 말에 발견된 이후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지를 겪은 황금해안(黃金海岸)이 1957년에 독립한 가나(Ghana)들이 있다. 그 밖에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대전 전 1935년에 이탈리아 군대가 침입했다가 그 후 1941년에 다시 회복된 에티오피아(Ethiopia)가 있는데 이 나라가 소생한 것은 2차 대전이 계속되고 있을 무렵이었다. 이 에티오피아는 해안선을 갖지 않는 북동 아프리카의 내륙국(內陸國)으로 19세기 말경부터 이탈리아의 보호령이 되었다가 다시 독립했다. 하지만 1935년 재차 침략을 받고 이웃인 이탈리아령 소말리아와 합해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를 형성했었다. 그러나 그 후 영국의 무력에 의해 다시 독립을 찾을 수 있었다.

나. 새로운 신탁통치 영토들.

한편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식민지 중에 최근 2차 대전 이후에 신탁통치 지역으로 정치체제(政治體制)가 변동된 지역을 들면 다음과 같다. 즉 기니 만(Gulf of Guinea) 연안에 있는 토고랜드(Togo land)와 카메룬(Camerouns) 그리고 한때 에티오피아와 같이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Italian East Africa)를 이루었던 소말리랜드, 동아프리카 연안지역에 있는 탄자니아(Tanganyika) 등이다. 먼저 토고랜드는 19세기 말 독일에 점령되었다가 1922년 영국의 위임통치지역이 되었으며, 최근 2차 대전이 끝난 1946년에 영국의 신탁통치지로 변경되었다. 또한 카메룬 지방도 역시 원래가 독일 보호령이었던 것이 그 후 영국과 프랑스의 위임통치지로 나뉘었다. 그러나 이곳도 1946년부터 유엔의 신탁통치를 받고 있다. 그리고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탄자니아도 역시 19세기 중엽에 독일이 점령했던 것을 그 후 1차 대전 후 영국 영토가 되고, 2차 대전 후에는 1945년부터 국제연합 관리하에 있다.

4. 결론

요컨대 오늘날의 세계 지도는, 2차 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비해, 많은 변동을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많은 민족국가들이 나타났으므로 세계의 국제정세는 점차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다. 여태까지 자주독립을 얻지 못한 지역에서는 민족적 자주독립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기 때문에, 머지않은 장래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민족국가들이 지도상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미 독립된 민족국가라 할 지라도 그들의 국가 세력의 주변에서 위협을 주는 열강국가들의 세력에 맞서 나아가기 위해 합병(合併) 또는 유기적(有機的)인 결합(結合)의 형태로 지도의 변천을 가져올 것이다.

물론 앞에서 말한 이외에도 국제적인 협약 밑에서 잠정적인 지역의 구분을 이루고 있는 것도 있다. 즉 우리나라의 국토는 북한(北韓)의 전체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북한의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소유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일시적이나마 휴전선)의 이북 땅을 공산괴뢰 정권이 점거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우로 북위 17도 30분 위선(緯線)을 경계로 베트남의 국토가 양분된 것이라든가, 유럽의 독일이 두 지역으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는 현상, 그 밖에도 아직도 갈라져 싸우고 있는 오늘의 중국 현실 등을 보게 된다.

필자가 이러한 사실들을 지도의 변천으로 취급하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국토, 국민의 주권이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독일, 자유 중국에 각각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는 국제 국내 정세를 올바르게 이해(理解)하기 위해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세계지도의 세밀한 관찰(觀察)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겠다.

그리고 그들 변천되고 있는 지도를 통해 그 나라 그 지역에서 지도를 변천시킨 직접적 또는 간접적 동기 등을 서로 관련시켜 인과적(因果的)으로 분석해야 하겠다. 어디까지나 가장 새롭고 가장 정밀한 세계 지도를 올바르게 이용해서 국가들 간의 정치적 관계를 규명하는 데 유의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이들의 전략적(戰略的)의의를 파악하는 데 노력해야 하겠다. (필자(筆者) 서울대학교(大學校) 교수(教授))

군인(軍人)과 독서(讀書)

—글 읽는 즐거움—

양주동(梁柱東)

중국의 명장 관우(關羽)가 진중(陣中)에서 항상 밤에 등불을 켜두고 『춘추(春秋)』를 탐독했다는 이야기,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 때 군 업무가 바쁜 와중에도 장막 안에서 틈을 타 조용히 괴테의 『베르테르의 슬픔』을 애독했다는 에피소드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다. 우리나라에도 저 광세(曠世)의 성장(聖將) 이순신(李舜臣) 장군은 민족과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역사적인 대회전(大會戰)을 앞두고 우리 시가문학 최고의 작품인 “한산(閑山) 섬 달 밝은 밤”이라는 명시조를 읊었을 뿐 아니라, 산문(散文)으로도 걸작인 『난중일기(亂中日記)』를 유유히 써내려갔으니, 그도 응당 군무(軍務)가 바쁜 여가에 ‘생활의 기’와 ‘부동의 자세’를 기르고자 옛글을 종종 염독(念讀)했으리라 상상된다. 또한 신라 화랑도(花郎徒)들의 강렬한 멸신 순국(滅身殉國)의 의기는 독서를 통한 평소의 인격의 연마가 뒷받침이 된 것이 사실이다. 올해 경주(慶州)에서 발견된 젊은 화랑들의 맹세를 돌이켜 새긴 임시기석(壬誓記石)에는 다음과 같은 한 절이 있어, 그들이 얼마나 독서의 수양(당시의 습속대로 유가(儒家) 경전(經傳))을 필수의 과업으로 삼았던가를 알 수 있다.

“별선(別先) 신미년(辛未年) 7월 22일(七月廿二日) 대서(大誓), 시(詩)·상서(尙書)·예(禮)·전(傳)·윤(倫) 득서(得誓).”

◇◇

‘군인과 독서’ - 예로부터 문무겸전(文武兼全)이란 말이 있다. 군인에게 독서가 필요하다기보다도, 군인이야 참으로 글을 읽을 줄 알 것이요, 읽은 글을 참으로 실제 ‘살린’다 할 것이다. 참다운 글이란 단순한 문자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가 생을 어떻게 충실히 할까?”, “남아가 어떻게 목숨을 뜻깊게 사용할까?”를 가르치는 ‘생명의 교서(敎書)’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선적인 목표를 머리에 두고 글을 읽는다면, 군인의 독서의 ‘이상’은 이미 달성되었다 할 것이다. 그 밖의 문제 - 이를테면 독서의 ‘요령’에서는 군인의 독서가 보통 사람의 그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하 내가 평소에 생각하는 ‘독서의 요령’ 몇 가지를 적어보려 한다.

◇◇

독서의 즐거움! 이에 대해서는 이미 동서 선배들의 무수한 언급이 있으니, 다시 무엇을 덧붙이겠는가? 좀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맹자(孟子)의 인생 ‘삼락(三樂)’에 못르지 ‘독서·면학(勉學)’의 제4 일락(一樂)을 추가할 것이다. 진부한 인용문이나 누구나 다 아는 일화 따위는 그만두고, 단적으로 내가 실감한 것을 피력기로 하자.

열 살 전후 즈음 『논어(論語)』를 처음 보고 그 첫머리에 나오는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 불역열호(不亦悅乎)”

글자 하나하나 대성현의 글의 서두가 너무나 평범한 데 놀랐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런 말쯤이면 공자(孔子) 아닌 초등학생, 중학생이라도 넉넉히 말할지었다. 첫 줄에서부터 나는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으나 그 밑의 정자(程子)의 약간 가학적 주석에 의해 다소 그 도를 완화되었다. 하지만 『논어』의 서두가 너무나 평범하다는 인상은 오랫동안 가지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후 배우고 익히고 또 무엇을 남에게 가르친다는 생활이 어느덧 2, 30년, 그 동안에 비록 아무런 성취는 없었으나 몸에 저리게 느껴지는 것은 다시금 평범한 그 말의 진리이다.

“배우고 때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정자의 주는 워낙 군소리요, 공자의 당초 소박한 표현이 그대로 고마운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현세와 같은 명리(名利)와 허화(虛華)의 와중(渦中)을 뒤흔 수 있는 한 초탈(超脫)하여 하루의 단 몇 시 몇 분이라도 오로지 진리와 구도(求道)에 고요히 침잠(沈潛)하는 여유를 가질 수 있음이 부생(浮生) 백년, 더구나 현대인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하물며 전쟁 후 수복의 구차한 생활 속에서 그 래도 나에게 구석진 자리라도 책상 하나 마련되어 있고, 청등이 희미한 빛을 내고 있으니 저서(著書)에 제자(題字)를 청하기로, 나는 공자의 이 고마운 말을 실감하고 글로 써넣었다.

◇◇

독서란 즐거운 마음을 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지론이다. 세상에는 실제 목적을 가진 실리, 실득을 위한 독서를 주장할 이가 많겠지만, 아무리 그것을 위한 독서라도, 기쁨 없이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독서의 효과를 갖는 방법은 요컨대 그 즐거움을 양성함이다. 선천적으로 그 즐거움에 민감한 사람이야 그야말로 다성(多性)의 숙인(宿因)으로 다복한 사람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독서에 재미를 붙여 그 습관을 잘 길러놓은 이도 그 못지않은 행복한 사람이다.

독서의 즐거움은 현실파에게나 이상가에게나 다 '발견의 기쁨'을 누리게 한다. 콜럼버스¹적인 새로운 사람과 지식의 영역의 발견도 좋고,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편다." 식의 위즈워드²적인 영감, 경건의 발견도 좋고, 더구나 나와 같이 에머슨³의 말에 따라 "천재의 작품에서 내버렸던 자아를 발견함"은 더 좋은 일이다. 요컨대 부단한 즐거움은 맨 처음 경이감에서 발원되어 진리의 바다에 흘러갈 것이다. 이미 아는 대로 『채프먼의 호머를 처음 보았을 때』에 키츠⁴는 이미 우리가 느끼는 바를 대변했다.

"그때 나는 마치 어떤 천체의 감시자가 시계(視界) 안에 한 개의 유성이 헤엄치는 것을 본 듯, 또는 장대한 코르테스⁵가 독수리 같은 눈으로 태양을 응시하고, 모든 그 부하들은 미친 듯 놀라 서로를 바라보는 듯, 말없이 '다리엔'⁶의 한 봉우리를."



혹은 이미 정평 있는 고전을 읽어보라. 혹은 가장 새로운 세태를 호흡한 신서를 읽어보라. 각인은 각양의 견해와 각자가 권고하는 바가 있다. 전자는 가로되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 후자는 말한다. "생활하는 세대를 호흡하라." 그러나 아무래도 어느 한쪽만 읽는 것은 할 수도 없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 지식인으로서 동서의 대표적인 고전은 반드시 섭렵해야 하고, 문화인으로서 초현대적인 교양에 한 걸음이라도 낙오될 수는 없다. 문제는 각자의 취미와 성격과 목적과 교양에 의한 비율뿐인데, 그것 역시 강요하거나 일률적으로 규정할 것은 못 된다. 누구나 고칠현삼제(古七現三制)를 취하는 버릇이 있으나, 그도 오히려 치우친 생각이다. 중용이 좋다고나 할까.

다독이나, 정독이나가 또한 물음의 대상이 된다.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는 전자의 주장이나 "박이부정(博而不精)"이 그 통폐(通弊)요, "안광(眼光)이 지배(紙背)를 철(徹)함"이 후자의 지론이되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함"이 또한 그 약점이다. 아무튼 독서의 목적이 "모래를 헤쳐 금을 드러냄"에 있다면 필경 '다(多)'와 '정(精)'을 겸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도 역시 평범하나마 '박이정(博而精)' 세 자를 표어로 삼아야 하겠다. '박'과 '정'은 차라리 변증법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1) Christopher Columbus
2) William Wordsworth
3) Ralph Waldo Emerson
4) John Keats
5) Hernan Cortes
6) Darien

것, 아니, 우리는 양자의 개념을 궁극적으로 초극(超克)해야 할 것이다. 송인(宋人)의 다음 구는 면학에 대해 그대로 알맞은 경계이다.

평무친치서청산(平蕪盡處是青山; 별판 다한 곳이 청산인데), 행인갱재청산외(行人更在青山外, 행인은 문득 청산 밖에 있네) - 구양수(歐陽脩)의 '답사행(踏莎行) 마지막 구절.



나는 이 글에서 독서의 즐거움을 시종 역설했다. 그 즐거움의 흐름은 왕양(汪洋)한 심층(深衷)의 바다에 도달하기 전에 우선 기구(崎嶇), 간난(艱難), 칠전팔도(七顛八倒)의 괴로움의 협곡을 수없이 경과함을 요함이 물론이다. 깊디깊은 진리의 탐구나 구도적인 독서는 말할 것도 없으나, 심상한 학습에서도 서늘한 즐거움은 항상 '애씀의 땀'을 씻은 뒤에 배가된다. 비근한 일례로 요새는 그래도 스승도 많고 서적도 흔해 면학의 초보적인 애는 적으니, 지금의 학생들은 나의 소년 시절보다는 덜 애쓴다고 본다. 나는 어렸을 때 그야말로 한적(漢籍) 수백 권을 모조리 남에게서 빌려다가 철야로 종일 베껴서 읽었고, 한문은 워낙 스승도 없고 독학조차도 혼자 애써서 깨쳤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했을까마는 독서, 연진(研眞)의 취미와 즐거움은 그 속에서 터득 양성되었음을 솔직히 고백한다.

끝으로 우스갯소리 한 토막. 내가 12, 3세 때이니 지금 40여 년 전 일이다. 영어를 독학하는데, 그 즐거움이야 말로 한문만 일과로 삼던 나에게 칼라일⁷의 이른바 『New Heaven and Earth』(신천지)였다. 그런데 그 독학서의 문법 설명에 '3인칭 단수'라는 말의 뜻을 나는 몰라 '독서백편의자현(讀書百遍義自見)'이란 고어만 믿고 밤낮 며칠을 그 항목만 자꾸 염독(念讀)했으나 도대체 '의자현(義自見)'이 안 되어, 마침내 어느 겨울날 아침 눈길 30리를 걸어 읍내에 들어가 소학교 교장을 찾아 물어보았으나, 그분 역시 모르겠노라 한다. 다행히 젊은 신임 교원에게 그 말뜻을 설명받아 알았을 때의 기쁨이란! 나는 그날 왕복 60리의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와 하도 기뻐서 저녁도 안 먹고 밤새도록 책상에 마주앉아 적어가지고 온 그 말뜻의 '메모'를 '독서'했다. 가로되

"내가 1인칭, 너는 2인칭, 나와 너 외엔 우수마발(牛溲馬勃)(소오줌, 말오줌)이다 3인칭이라."

<저자(著者) 문학박사(文學博士)·연세대(延世大) 교수(教授)>

7) Thomas Carlyle

인공강우(人工降雨)의 이론(理論)

정창희(鄭昌熙)

1. 서론

순수한 의미에서 인공강우라고 하면 인공적으로 바람과 구름을 일으켜 비를 오게 해야 한다. 그러나 태양을 동력원으로 하는 대기현상으로서의 구름과 비의 에너지는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동력원과 비교할 때 너무나 막대하다. 따라서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동력을 이용해서 물을 증발시켜 구름을 만들고 비를 오게 해 이를 이용한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다. 현재 인공강우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 말한 것과 같이 전혀 다른 것이며, 대기 중의 수증기가 운적(雲滴)으로 나타나 있거나 또는 어떤 특수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구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비가 오는 것은 아니며, 이를 인공적으로 오게 하는 것이 현재 말하는 인공강우이다. 인공강우의 시초는 일반적인 자연우(自然雨)의 원리부터 설명해야 한다. 자연우의 설명은 기상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이며, 지금도 완전히 설명되어 있다고 말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자연우를 고찰하고 다음에 인공강우의 가능성을 생각하기로 한다.

2. 운적(雲滴)의 생성(生成)

어떻게 해서 구름이 생성되는냐는 문제는 오래전부터 잘 설명되어 왔으며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대기가 노점습도(露点濕度) 이하로 냉각되면 극히 작은 운적이 공중에 떠다니고 있는 흡습성의 티끌, 연기, 소금기(鹽粒) 등의 소립자를 핵으로 해서 응결한다. 이러한 소립자를 응결핵이라 하고 대기 중에는 응결하는 데 지장 없을 정도로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다. 응결핵의 평균직경은 1~2마이크론(micron)이며 운적의 평균직경은 30마이크론이다. 그러면 응결핵이 없으면 응결할 수 없는가? 또는 응결핵이 있어야만 반드시 응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자. 영국의 물리학자 켈빈 경(Kelvin)¹⁾의 이론에 의하면, 수적(水滴)은 표면장력 때문에 작을수록 표면의 포화수증기압은 증가한다고 한다. 즉 평평한 수면에 대해서 포화상태(기체가 액체나 고체와 접촉하고 있어 서로 분자의 출입이 없는 상태)에 있는 습윤공기(수증기를 포함하고 있는 공기)도 작은 수적에 대해서는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작은 수적일수록 증발이 쉽고 응결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¹⁾ Lord Kelvin, 본명 William Thomson

수적의 반경(cm)	∞	10 ¹	10 ³	10 ⁵	10 ⁶	3×10 ⁷
포화상대습도(%)	100	100.001	100.001	101.2	115.7	301

표: 수적의 반경과 포화상대습도와의 관계 농도

수증기 분자의 크기는 센티미터 정도니까 대기 중에서 수증기의 분자가 집중해서 운적을 형성하려면 대기는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300퍼센트 이상으로 과포화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대기(實際大氣)에서 이러한 과포화상태는 생각지 않고 100퍼센트를 약간 넘게 운적을 형성한다. 따라서 대기 중의 수증기는 응결핵 없이도 응결할 수 있으나, 그러려면 적어도 300~500퍼센트의 과포화상태라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실제대기 중에 이러한 과포화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응결핵이 풍부하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 이상 말한 과포화상태는 현재 원자핵물리실험에서 유명한 윌슨(Wilson)²⁾의 안개상자(cloud Chamber)에 의해서 세밀하게 실험되고 있다.

3. 우적생성(雨滴生成)의 필요성(必要性)

운적(雲滴)의 생성은 이상과 같이 이론상으로나 실험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운적 그 자체는 우적이 될 수 없다. 운적이거나 우적은 다 같은 수적이지만 그 크기가 상위(相違)하고 따라서 낙하속도도 상위하다. 우적의 평균직경은 수밀리미터인 데 운적의 평균직경은 0.03밀리미터 정도니까 우적이 되기 위해서는 운적은 직경이 100배로 증가해야 하며 체적(體積)은 배 정도로 되어야 한다. 슈미트(Schmidt)³⁾의 실험식에 의하면, 수적의 직경과 낙하속도와의 관계는 다음 표와 같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운적은 거의 부유 상태에 있고 우적과 같이 낙하하지 않으며, 가장 큰 운적이라 할지라도 지면에 도달하기까지는 거의 다 증발하여 없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직경(cm)	낙하속도(cm/sec)	
0.0001	0.0029	응결핵(凝結核)
0.002	1.3	무적(霧滴) 또는 운적(雲滴)
0.02	78	가랑비
0.2	596	비

표: 수적의 직경과 낙하속도와의 관계

²⁾ Kenneth Geddes Wilson

³⁾ Adolf Friedrich Karl Schmidt

따라서 강우가 있으려면 여러 개의 운적이 뭉쳐 한 개 한 개의 우적을 생성해야만 한다. 물론 한 개의 응결핵을 중심으로 우적 크기의 수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휴튼(Houghton)이 확산방정식을 써서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작은 수적은 큰 수적보다 더 급속하게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운적은 같은 크기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하나의 응결핵 주위에 운적을 생성하려면 100초를 요하는데 우적을 생성하려면 적어도 24시간을 요한다고 한다. 우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수적이 이러한 장기간 공간에 부유할 수도 없고, 또 이와 같이 생각해서는 적란운(積亂雲)에서 오는 취우(驟雨)를 설명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 따라서 하나하나의 우적은 다수의 운적이 급속적으로 뭉친 것이라고 설명해야만 한다.

4. 운적(雲滴)에서 우적(雨滴)으로의 생성과정(生成過程)

독일의 기상학자 슈마우스(Schmauss)와 비간트(Wigand)는 대기 중에서 운적이 콜로이드(colloid)적인 분산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운적이 콜로이드적으로 불안정하게 될 때 급속히 우적이 생성된다고 말했다. 콜로이드적인 불안정이라는 말은 운적이 미립자로서 대기 중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운적이 콜로이드적으로 안정하면 우적은 생성되지 않고 구름이 있어도 비는 오지 않는다. 운적이 콜로이드적으로 안정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운적의 전하가 같은 부호와 같은 양일 것.
2. 운적의 크기가 같은 것.
3. 운적의 온도가 같은 것.
4. 운적의 운동이 같은 것.

제1 조건의 검토 - 운적이 다른 부호의 전기량(電氣量)을 가지고 있으면 상호 인력(相互引力)이 생겨 콜로이드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경향이 있다. 사실 운적은 전기량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의 부호(符號)도 상위(相違)할 수 있으나 이의 전기량은 너무나 적어서 운적을 결합시킬 만한 힘이 생기지 않는다.

제2 조건의 검토 - 작은 수적과 큰 수적이 공존하고 있으며 큰 수적은 작은 수적보다 포화수증기장력이 작으므로 큰 운적에서 응결이 일어나고 작은 수적에서 응결이 일어나 우적생성이 가능한 경향이 있다. 하지만 계산에 의하면 이 영향은 무시할 정도이며 콜로이드적인 불안정을 초래하지 못한다고 한다. 큰 수적의 낙하속도가 크니까 작은 수적과 충돌하여 점차 커져서 우적생성이 가능할 것 같으나, 충돌해도 작은 수적의 전부가 큰 수적에 부착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우적생성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제3 조건의 검토 - 고온의 수적은 저온의 수적보다 포화수증기장력이 크다.

따라서 고온의 수적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저온의 수적에서 응결이 일어난다. 이 효과는 실험 결과에 의하면 10도씨 이상의 대기에서는 현저하게 나타나며 우적 생성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빙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무시할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열대지역의 운적에서는 비를 오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상공과 같이 한랭한 곳에 있는 운적의 콜로이드적인 불안정을 설명할 수는 없다.

제4 조건의 검토 - 난류의 작용으로 운적의 운동이 불규칙하게 되므로 충돌에 의해서 우적이 생성될 것 같으나 관측에 의하면 심한 난류에서도 강우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콜로이드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조건은 안 된다.

이상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4개 조건 모두 한랭한 우리나라 상공의 우적 생성의 과정, 즉 강우과정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베르게론(Bergeron)의 학설(學說)

위에서 말한 4개 조건에 의해서는 증위도지역의 우적생성을 설명할 수가 없으므로 1931년 노르웨이의 기상학자 베르게론은 콜로이드적인 불안정은 빙정(氷晶)과 과냉각수적이 혼합되어 있는 구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과냉각수적이라는 것은 빙점 이하의 온도에서도 빙결하지 않는 수적을 말하며, 비행기의 빙착(氷着)은 과냉각수적이 기체에 빙결한 것이다. 따라서 구름 중에 과냉각수적과 빙정의 공존을 가정한다는 것은 정당하다. 포화수증기압이 상이한 과냉각수적과 빙정이 공존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다. 직경이 상이한 수적의 포화수증기압이 상이하므로 수적이 성장한다고 생각한 것처럼, 포화수증기압이 큰 과냉각수적에서 증발이 일어나고 포화수증기압이 작은 빙정에서 승화(昇華, 기체가 직접 고체로 되는 현상 또는 고체가 직접 기체로 되는 현상)가 일어나므로 빙정이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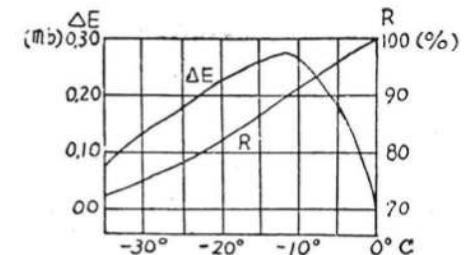


표: ΔE: 물과 얼음의 포화수증기압력의 차이 R: 얼음에서 포화되고 있는 공기의 상대온도

이와 같이 승화의 핵심이 되는 물질을 승화핵 또는 빙결핵이라 한다. 독일의 핀다이젠(Findeisen)의 연구에 의하면, 승화핵도 응결핵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승화핵이 없으면 대기 중의 수증기는 영하 40도씨까지는 빙결하지 않는다. 승화핵이 있으면 이것보다 높은 온도에서 빙결한다고 한다. 베르케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응결핵은 풍부하게 존재하나 승화핵의 수는 대단히 적다. 따라서 구름 중에 과냉각수적은 많고 빙정의 수는 적으므로 다수의 과냉각수적이 희생되어 소수의 빙정이 성장한다. 8개의 과냉각수적에 대해서 1개 정도의 빙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빙정이 낙하할 수 있는 속도의 크기로 성장하려면 10~20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베르케론의 이론에서 탑상적운(塔狀積雲)(수적으로 되어 있는 구름)에서는 비가 잘 오지 않으나, 적란운(積亂雲)(상부는 빙정으로 되어 있음)에서는 소나기(驟雨)가 내리는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다. 한편 고위도지방에서는 겨울철 얇은 구름에서 눈이 오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열대지방에서는 0도씨 이상의 구름에서도 비가 오는데, 이는 베르케론의 이론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다. 그 이유는 0도씨 이상에서는 빙정과 과냉각수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랭뮤어(Langmuir)의 이론(理論)

0도씨 이상의 구름에서 오는 경우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수적의 온도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포화수증기장력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랭뮤어(Lanmuir)는 연쇄반응론(핵물리의 연쇄반응과 흡사한 현상)을 수립했다. 이 학설은 다음과 같다. 적형운(積型雲) 중의 상승기류에 의해서 공중에 떠 있는 비교적 큰 수적이 운적과 충돌하기 때문에 점차 성장한다. 이 수적이 상당한 크기에 도달하면 불안정하게 되어 여러 개의 수적으로 분열된다. 이 여러 개의 수적은 다시 충돌현상에 의해 성장하고 분열한다. 이러한 연쇄반응에 의해서 운적은 우적으로 변하며, 상승기류가 약하게 되면 낙하하여 비가 된다. 따라서 랭뮤어의 설에 의하면, 소수의 수적을 구름 중에 살포시킴으로써 비를 오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여러 지방에서 이를 실험한 결과 성공적이었다고 한다.

7. 인공강우(人工降雨)의 가능성(可能性)

이상 설명에서 두 가지 형태의 비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온난우(溫暖雨)이며 또 하나는 한랭우(寒冷雨)이다. 빙점 이상의 구름에서 오는 비를 온난우라고 하면 빙점 이하의 구름에서 오는 비는 한랭우라고 할 수 있다. 한랭우는 베르케론의 이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고 온난우는 랭뮤어의 이론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인공강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착한다.

1. 부족한 빙결핵의 보충.

2. 비교적 큰 수적의 보충(될 수 있으면 운적과 온도차이가 있을 것).

현재 이상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구름만 있으면 강우를 초래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최초로 인공강우의 가능성을 지적한 사람은 독일인 핀다이젠이다. 1938년 핀다이젠은 “머지않아 과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비를 오게 할 수도 있고 뇌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8. 쉐퍼(Schaefer)에 의한 드라이아이스(Dry Ice)의 사용(使用)

핀다이젠의 예언은 1946년 빈센트 쉐퍼(Vincent J. Schaefer)와 어빙 랭뮤어(Irving Langmuir)의 과냉각수적의 연구실험에 의해서 실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사람은 제2차 대전 중 비행기의 빙착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있었다. 뉴햄프셔(New Hampshire)의 워싱턴(Washington) 산에서 실험 중 두 사람은 과냉각수적 구름 중에서 생성되어 있는 빙정에 큰 의문을 가졌다. 베르케론도 이 빙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과냉각수와 공존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전쟁 후 쉐퍼는 가정용 냉장고에 입김을 불어넣음으로써 대기 중에 있는 과냉각수적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하 18도씨 부근에서 모형 비행기를 날렸더니 앞날개 선에 빙착이 생겼으나 과냉각수적 구름 중에 빙정은 생성하지 않았다. 쉐퍼는 냉장고 안쪽 벽에 검정색 벨벳으로 막을 치고 광선을 비춰보고는 이를 확인했다. 다시 빙결핵이라고 생각해오던 연기, 티끌 등의 미립자를 과냉각수적 중에 주입해 보았으나 역시 빙정은 생성되지 않았다. 1946년 7월 어느 더운 날 냉장고 온도를 강하시키기 위해 드라이아이스를 한 덩어리 집어넣었다. 이 순간 쉐퍼는 모든 과냉각수적이 반짝거리고 무수한 빙정으로 변한 것을 발견했다. 이 빙정을 현미경으로 본 결과 육각형의 눈송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는 빙정의 구름 속에 입김을 다시 불어넣었더니 생성된 과냉각수적 구름은 곧 증발되어 빙정 위에 승화하여 부착됨으로써 베르케론의 이론과 완전히 일치했다. 빙정이 생성되는 이유로 쉐퍼는 드라이아이스(빙점 영하 56.0도씨)가 대단히 저온이라는 것에 주목했다. 어떤 과냉각수적이라 할지라도 영하 40도씨보다 저온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말한 바와 같다. 계산에 의하면 1그램의 드라이아이스는 개의 빙정을 생성

할 수 있다. 이러한 막대한 수자는 소량의 드라이아이스를 광범위한 과냉각수적 구름에 살포하여 강우를 초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한다. 랭뮤어와 쉐퍼는 비행기로 구름에 드라이아이스를 살포할 계획을 수립했다. 1946년 2월 13일 쉐퍼는 비행기에서 드라이아이스를 뿌리고 랭뮤어는 지상(쉐크레티,

Schecktady))에서 관측하는 최초의 실험을 했다. 서부 매사추세츠에 있는 그레이록(Greyrock) 산 위 약 14,000피트 고도에서 수천 피트의 두께와 약 4마일 길이의 과냉각수적 구름을 발견하고 쉐퍼는 1마일당 1파운드의 비율로 드라이아이스를 살포했다. 살포한 후에 전체 구름의 모양이 현저하게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이곳에서 40마일 떨어져 있는 쉘크타디에서 관측하고 있는 랭뮈어는 구름이 승화하여 생긴 강설(降雪)의 흐름을 볼 수 있었다. 이 작은 구름에서 내리는 눈은 지상까지 도달하지는 못하고 다 증발해 버렸지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 실험은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으로 소규모나마 천기(天氣)를 인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주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쉐퍼와 랭뮈어의 실험은 기상학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고 할 수 있다.

9. 버나드 보니것(Bernard Vonnegut)에 의한 요오드화은(옥화은, 沃化銀)(AgI)의 사용(使用)

쉐퍼와 때를 같이 하여 버나드 보니것(Bernard Vonnegut)은 과냉각수적 구름에서 눈을 생성시키는 별도의 방법을 탐구 중에 있었다. 버나드 보니것은 빙정과 흡사한 결정을 다른 물질 중에서 발견만 한다면 이는 빙결핵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1900종의 결정에 대해서 결정구조를 검토한 결과, 빙정 크기의 흡사한 결정 요오드화은을 발견했다. 요오드화은의 결정의 원자배치와 원자 간의 거리는 거의 빙정과 같다. 요오드화은의 미립자를 냉장고에 살포했더니 역시 과냉각수적은 무수한 빙정으로 변했으며, 실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10. 빙결핵(氷結核)

요오드화은은 인공강우의 제2 방법을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적 저온의 운적에만 효과적이다. 그래서 빙결핵으로서는 드라이아이스만큼 우수하다고 할 수 없으나 실제 사용할 때 이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드라이아이스는 빙점 아래 어떠한 온도에서도 빙결핵의 역할을 하나 요오드화은은 영하 3도씨 이하의 온도에서만 빙결핵의 역할을 한다. 요오드화은의 가장 큰 이점은 연기로 살포할 수 있다는 것이며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다. 1그램의 요오드화은은 10환(圓)(500 대 1) 정도이며 영하 18도씨의 구름에 살포하여 의 눈송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과냉각수적 구름에 요오드화은의 연기를 살포시키면 모든 요오드화은은 순간적으로 빙정을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물질의 붕괴처럼 서서히 핵작용이 진행된다. 따라서 어느 원자가 붕괴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어느 요오드화은의 입자가 빙정을 형성시키느냐 하는 것도 알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방사능물질처럼 요오드화은의 절반이 빙정을 형성시키는 데 요하는 시간을 반감

기(半減期)라고 한다. 요오드화은의 반감기는 연기의 입자의 크기와 주로 온도에 관계된다. 즉 영하 18도씨에서의 반감기는 약 1주일이다. 한편 요오드화은은 드라이아이스와 달라서 보통의 대기상태에서도 용해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직접 구름 위에서 살포할 필요가 없다. 지상에서 요오드화은 연기 발생기만 설치하면 대기 중의 빙결핵을 얼마든지 증가시킬 수 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1그램의 요오드화은의 연기는 100에서 1000입방마일의 빙정 생성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편 드라이아이스는 반감기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짧다는 것은 용해 증발하는 것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이 물질을 취급하기가 곤란하다는 것도 잘 알 수 있다. 이 외의 빙결핵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쉐퍼는 천연적인 흙과 먼지도 영하 12도씨 이하에서 빙결핵의 역할을 하며 이 입자들이 자연계에 존재하여 천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 말한 빙결핵은 한랭우를 초래하는 방법이나 온난우에서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적(水滴)만 보충하면 되므로 운적 위에서 살수(撒水)하면 된다. 특히 물의 온도를 운적의 온도와 다르게 하면 더욱 우적 생성이 촉진된다는 것은 콜로이드적인 불안정 조건 3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11. 결론(結論)

운적에서 우적을 생성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살포하는 것을 “Cloud seeding”이라 하고, 인공강우는 바로 이 cloud seeding을 의미한다. 1947년 미 육해군의 프로젝트 시러스(Project Cirrus)(cloud seeding 연구를 위한 계획)에 의한 실험에 의하면 cloud seeding에 의해서 구름을 소멸시킬 수도 있었고, 적운에서 강우를 초래시킬 수도 있었다. 어떠한 상태(대기가 과냉각빙에 대해서 불포화되어 있고 빙정에 대해서 과포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거의 푸른 하늘인데도 불구하고 빙정운을 생성시킬 수 있다고 한다. 1949년의 프로젝트 시러스에 의한 실험은 산골짜기에 따라 지상에서 요오드화은을 seeding했다. 이의 결과 산정의 적형운은 보통 때보다 일찍 강우를 보였으며 랭뮈어의 강우분포의 분석 결과 Seeding의 분포와

일치함을 발견했다. 동시에 1입방마일에 대해서 1밀리그램의 요오드화은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편 Seeding을 매주 화, 수, 목요일 3일만 하고 그 외의 요일은 중단했더니 Seeding을 한 장소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구역까지 강우의 주기성이 나타났다고 한다. 랭뮈어는 기압과 기온도 주기적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이 주기성이 점차 없어져가고 있다고 한다. 이는 여러 곳에서 요오드화은의 반감기가 비교적 길기 때문에 대기 중에 빙결핵으로서 작용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 Seeding과 각 기상요소와의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으므로 계획적인 이용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Seeding의 효과도 충분히 이용 못 하고 있다. Seeding에 의한 각 기상요소의 관련성이 구명(究明)되면, 인간은 직접 대기환류에 관여해서 인위적으로 천기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필자(筆者); 중앙관상대에고과(中央觀象臺豫告課)-

최초(最初)의 소련인(蘇聯人) '뉴욕' 관광여행(觀光旅行) 마천루(摩天樓) 보고 정신(精神) 나간 듯

- 가장 구경(求景)하고 싶은 것은 '월'가(街) -

미국 최대의 도시인 뉴욕이 처음으로 미국을 관광여행 차 방문한 소련인의 눈에 이렇게 비쳤을까? 이번에 미국을 방문한 14명의 소련인의 뉴욕 행각기(行脚記)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타임스 스퀘어¹⁾를 조용히 지날 때 그들 중의 한 젊은 기사가 말했다.

“저것이 미국식 광고입니다.”

그들이 본 것은 호화로운 네온사인²⁾과 상점 간판들 속에 섞여 있는 어떤 담배회사의 광고판이다. 그 간판에는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의 담배에서는 정말로 연기가 나오며 바퀴를 굴리고 있었다.

그들의 버스가 변화한 상가를 지나갈 때 어떤 상점 앞에 한 태업 중인 노동자가 태업을 알리는 간판을 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일행 중 건축가라는 마르크 오펜로프가 “저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그는 그 사람이 고용주와 고용조건에 관해서 의견이 맞지 않아 태업 중에 있는 것을 일반에 알리고 있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그러면 아무도 저 사람을 체포하지 않는가?”라고 질문했다.

버스가 제5번가로 들어가니 102층의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²⁾ 앞을 지날 때 그들 소련인들은 모두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늘 높이 솟아 있는 마천루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2면으로 계속)

1) Times Square

2) Empire State Building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와 불랑기(佛狼機)

— 국사 상(國史上)에 나타난 병기(兵器) 이야기 —

홍효민(洪曉民)

머리말

비상한 때에는 비상한 인물과 또는 비상한 물건이 많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의 가운데 놓여 있으면서도 군비(軍備)를 충실히 하지 않아 임진왜란(壬辰倭亂) 당시 상비군(常備軍)이 불과 5712명이었다. 이런 군사를 가지고 8년간이란 전쟁을 했다면 다들 놀랄 것이다. 그러나 8년간을 잘 싸우고 일본은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다. 말하자면 손병절장(損兵折將)만을 하고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 이런 때에 대개 무슨 무기로 삼십만 대병을 물리쳤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전쟁이란 처음에 군사가 없더라도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전토(全土)의 국민이 모두 군사였던 것이다. 이런 때에는 비상한 인물과 비상한 무기가 나와 드디어 일본을 물리치게 한 것이니 비상한 인물은 말할 것도 없이 충무공(忠武公) 이순신(李舜臣) 장군을 비롯하여 권율(權慄) 대장, 또는 망우당(忘憂堂)곽재우(郭再祐) 의병장(義兵將) 등의 많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무기는 철갑선(鐵甲船)이란 거북선과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와 불랑기(佛狼機) 등의 많은 무기가 쏟아져 나왔다. 오늘은 옛날의 우리나라에 있던 특히 임진왜란 때 썼다는 무기들을 역사상에 나타난 그대로 적어서 또는 그것을 나의 의견을 붙여 설명해 볼까 한다.

나는 원래 이런 무기에 대해서는 문외한(門外漢)이다. 그러나 국사(國史)를 공부했다는 것이 이런 것까지 알 것이라 해서 편집자가 주문한 듯하다. 따라서 이것을 거절한다면 역시 우정의 서운함을 나타내게 될 것이란 생각이 들어 무기지식(武器知識)이 전혀 백지(白紙)이면서도 붓을 들게 되었다. 또한 왜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면 이에 대해 전문지식(專門知識)을 가진 분이 있다면 웃어달라는 말이다.

요컨대 이 글은 야화(野話)를 또는 민담(民譚) 더 나가서는 전설(傳說)에 가까운 그런 글이란 것을 말해두는 바이다. 내 탄은 약은 생각에 이런 말을 해두지 않을 수 없다. 알지도 못하는 것을 썼다는 비난(非難)을 다소 면해 보자는 데서 이 머리말을 쓰게 된 고충(苦衷)을 알아주기 바란다.

궁(弓)과 노(弩)

우리나라의 고대(古代)의 무기는 활(弓)이다. 그래서 중국(中國)에서는 우리나라를 가리켜 동이(東夷)라 하였다. 이(夷)자를 풀이하면 대궁(大弓)이다. 큰 활을 쏘는 것이 또는 큰 활을 쓰는 것을 본 중국 사람이 있어 우리나라를 가리켜 동이라 불렀던 것이다. 오랑캐라는 글자가 여러 개 있는 중에 가장 나쁘지 않은 것이 바로 '오랑캐 이'자다. 오랑캐 강(姜)은 서쪽 오랑캐, 즉 서강(西姜)에 쓰고 있으니 이것은 양(羊)의 머리를 만들어놓아 말하자면 양의 자손이란 욕이고, '오랑캐 적(狄)은 개가 불을 든 것으로 이것은 북쪽의 오랑캐 '북적(北狄)이다. 동쪽만을 큰 활을 쓰는 오랑캐로 사람 대우는 했던 모양이다. 어쨌든 중국 사람이 외국 사람을 어떻게 욕하던가는 말할 것이 아니니 그만 두기로 하자. 그러면 활은 어느 때 어느 시절에 났는가 하면 그것은 먼 고대(古代)의 석기시대(石器時代)에 나왔던 것이다. 돌을 뾰족하게 갈아 그것을 나무 끝에 붓들어 매서 쏜 것이 비로소 창(槍)이 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대개는 물 건너에서 맹수(猛獸)에게 던졌다. 어느 나라의 문화사(文化史)를 뒤져도 마찬가지다. 왜 물 건너에서 그런 창을 쏘는가 하면 맹수는 물을 건너오지 못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는 물을 건너오는 시간을 이용해서 달아나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이 발달하여 활이 생겼으니, 이것은 창을 작게 만들어 멀리 보내려는 것이었다. 창은 사람이 던지면 그것이 불과 백보(百步) 이내에서 멈추고 말기 때문이다. 활은 처음에 대(竹)를 휘어 통겨 본 데서 이것을 휘어가지고 그 탄력(彈力)을 시험해보니 사람이 던지는 것보다 월등히 멀리 나가니까 사용했던 것이다. 처음에 사용한 것은 기록에 자세히 나타나 있지 않다. 활은 대를 휘어서 하던 것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의 경목(梗木)을 휘어 만들었다. 우리나라에서 활이 중국까지 알려진 것은 당태종(唐太宗)이 고구려(高句麗)를 치러 왔을 때 안시성주(安市城主) 양만춘(楊萬春)이 활을 쏘아 당태종의 원편 눈을 맞춘 이후로 우리나라의 활은 유명해졌다.

활이 유명해진 것은 이때부터로 당태종은 큰 나라로서 작은 고구려에게 또는 안시성주 양만춘에게 원편 눈을 맞은 것이 분하기가 짝이 없었지만 이것을 세상에 발표하기는 창피해서 그대로 회군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이 소문이 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이 일은 이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리고 활은 고구려의 유명한 무기요 그 시대의 또한 새로운 무기가 되었다. 중국에도 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장거리로 가는 것은 우리나라의 활뿐이었다. 중국에서는 이때 궁노

(弓弩)라고 해서 대포와 같이 쓰던 시대이지만 성벽을 높이 쌓아올리고 그곳에서 내리쏘는 것은 오직 멀리 나가는 우리나라 활뿐이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활은 말할 것도 없이 그 당시 자랑거리였다. 중국에서는 육예(六藝)에 이 활이 들어있다.

육예는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를 말하는데, 사는 곧 활 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활만 잘 쏘아도 장군 행세를 하던 때인데, 한(漢)나라 적에 이광(李廣)이라는 장군은 활을 잘 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어느 대낮에 풀밭에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그대로 활을 연거푸 세 번 쏘니 호랑이가 넘어지는 듯했다. 이광 장군은 호랑이를 잡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달려가 보니 그것은 호랑이가 아라고 큰 바위였다. 그러나 화살은 모두 바위 위에서 깊이 들어가 박혔고 역시 바위가 제 위치에 있지 않고 약간 움직였다. 이광 장군은 신기하게 여겨 그 화살을 다시 뽑아 가지고 같은 거리에서 또다시 화살을 쏘아 보았다. 그러나 이번은 화살이 들어박히지 않고 튀어 나왔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 까닭을 알 수 없었다. 결국 호랑이에게 물리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어 힘껏 쏘았기 때문이라고 결론지었다. 말하자면 죽지 않으려고 호랑이라고 생각한 것에 혼신을 다해 쏘았던 것이다. 지금도 이 일에 대해서는 모두 이런 해석밖에 내리지 못하고 있다.

궁노는 대개 북병전(伏兵戰)에 썼다. 옛날 열국시대(列國時代)에 손빈(孫臏)이 그의 적수 방언(龐涓)을 때려 부술 때 마능도(馬陵道)에 방언이 도착할 것을 알고 그곳에다 "방언이 사차수하(龐涓死此樹下)하라."를 써놓고, 밤중에 이 나무에 불이 비치거든 일제히 궁노를 쏘아 방언을 죽게 하라 했다. 과연 그날 밤 방언이 이곳에 도착하여 하얀 나무가 서 있어서 불을 켜자 화살이 비 쏟아지듯 내려와 방언은 그곳에서 죽고 "드디어 터벅머리

자식의 명예를 높이었도다!" 하고 손빈을 욕하는 소리를 남겼다는 역사가 있다. 이 무기는 지금 같으면 기관총 같은 것으로 화살이 일제히 몇십 발씩 쏟아져 나오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대의 무기는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었다. 원거리에서는 항상 이것을 사용했는데, 삼국지(三國志) 같은 데서 노장(老將) 황충(黃忠)은 활의 명수(名手)로 나온다. 언제든지 교전하다가 달아나는 척하면 상대편 장수는 그를 잡으려고 뒤따르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 일이다. 이때 황충은 재빨리 활을 꺼내 쫓아오는 장수를 맞혀 죽이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는 오호대장(五虎大將)에 들었으니, 촉한(蜀漢)의 오호대장은 관우(關羽), 장비(張飛), 조운(趙雲), 마초(馬超), 황충이었다. 위(魏)나라의 명장(名將)이라는 하후연(夏後淵)

이 황충의 화살에 맞아 죽은 것은 역시 역사적으로 유명하다. 활이나 궁노에 대해 역사상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이 외에도 상당히 많다. 한양조(漢陽朝)에 와서는 태조대왕(太祖大王)이 활을 잘 쏘았던 것으로 유명하다. 예컨대 활 한 번에 새(鳥)를 두 마리나 세 마리를 맞춰 떨어뜨린 것은 물론이고, 적의 투구의 상모를 맞힌 것이 역사에 나와 있다. 양령대군(讓寧大君)도 활을 잘 쏘아 태종대왕(太宗大王)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 역사에 남아있다. 우리나라의 활은 나중에 편전(片箭)이라는 데까지 이르렀다. 지금도 궁술대회(弓術大會) 같은 데서 쓰고 있는 것 역시 편전이라는 작은 활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스운 이야기가 있다. 명(明)나라 시대에 우리나라 사람을 불러다가 활 쏘는 법을 배운 적이 있었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을 잘 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불려간 사람은 소문이 나기를 활을 한번 쏘면 천보(千步) 이상 간다고 하여 불려갔다. 그런데 이 사람은 대답하기를 팔백보 정도는 나간다고 했지만 정작 활을 교습해보니 사백보밖에 가지 않아 의심을 받고 명나라 황제의 노여움을 샀다. 그러나 대답을 잘해 모면한 적이 있다. 중국에서 나는 재료가 조선에서 나는 재료만 못 하다고 둘러댔던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조선에서 또다시 재료까지 가져다가 봐보았더니 간신히 육백보까지 나갔다. 이때도 답변을 잘했으니, 말하기를 재료를 급히 구해오는 바람에 좋은 것을 고르지 못했다고 했다. 사실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명나라에서는 활에 대해 그다지 신용을 하지 않았고 활을 이용하는 것을 단념한 적도 있다고 역사에 적혀 있다. 궁노는 나중에 불랑기(佛狼機)로 변해갔으니 다음에 적기로 한다.

거북선(龜船)

비상시에는 비상한 병기 또는 무기가 나는 법이어서 임진왜란 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 이 거북선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는 터라 말할 것이 없으나 문적(文籍)에 기록된 한문(漢文) 그대로를 적으면 이러하다.

“창작구선(創作龜船), 상복이판정(上覆以板釘), 이추도(以錐刀), 사상인(使商人), 부득등답(不得登躑), 장병기저(藏兵其底), 팔면방총(八面放銃), 소당적선(燒撞賊船), 상이취승(常以取勝).”

너무나 간단하게 쓰여진 글이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창작구선’이라는 데 눈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활이나 궁노는 모두 그 근원이 중국에서 나왔지만,

거북선만은 우리 것이 분명하다. 또한 이 거북선을 가지고는 한 번도 충무공이 패한 일이 없어 ‘상이취승’이란 문구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병기 또는 무기가 새로 발명된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는 일이라 늘 우리의 충무공은 이것을 만들 때 자신 있게 만들었고, 또 이것을 쓸 때에도 자신 있게 쓴 것이다. 최초에는 이것이 몇 척 안되었던 것이 나중에는 여러 척이 되었고, 이것은 언제나 바다에서 싸움이 벌어질 때에는 기어코 이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박물관에 가서 보면 그다지 신통할 것도 없는 뚜껑이 덮인 배지만 이때쯤은 이것을 만들 수가 없는 일본이었다. 싸움이 더 오래 걸렸다면 일본에서도 이런 것을 만들어 대항했는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도 소규모의 해전에는 이런 것이 필요할지 모른다. 이 배의 특질은 전복(顛覆)이 전혀 없다는 데 있다. 바가지 같이 되어 있어 물에 잠기더라도 그대로 떠있다. 우리나라 나막신처럼 생긴 중국의 ‘정크’도 전복이 없는 배이며, 때로는 전복이 있으나 완전히 전복되지는 않는다. 거북선은 그 이상이다. 뚜껑이 있는 배이니만큼 무거운 것 같으나 그다지 무겁지 않게 만든 것이 충무공의 재조술이다. 그리고 그 위에 다 못(釘)이 보쪽보쪽하게 나와 그 위에 올라설 수 없는 것은 이즈음 ‘탱크’보다도 나은 것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탱크’는 지상전(地上戰)에서는 이만한 것이 없으나, 탱크 위에 올라가면 폭탄으로 부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탱크는 반드시 구르지 않으면 안 된다. 탱크가 구르는 동안에 좌우에 칼날 같은 것이 돌아 적병이 뛰어오르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이것이 일단 쉬는 경우에는 칼날도 쉬고 있으므로 뛰어오를 수 있다. 또한 탱크 속에는 10명 이상이 탈 수 없고 내부가 너무 뜨거워서 견디기가 어렵다. 그러나 거북선은 어느 곳이나 구멍을 많이 뚫어놓아 총알이 나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성능에서 탱크만 못한 것은 탱크는 대포에 가까운 탄환이지만 거북선은 소총탄이라는 데 있다. 이런 좋은 무기를 가지고도 우리나라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충무공이 돌아가신 후에는 다시 이 거북선을 만들지도 않았고 일본에 대해 복수를 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청(淸)나라가 일어나 일본을 돌아다볼 여유가 없었다고 하겠지만,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해운(海運)에 대해 등한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바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다를 이용할 줄 모르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 이 나라가 가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조롱하는 외국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거북선은 충무공이 만들어 충무공 당시에 쓰고 그 이후에는 아주 쓴 적이 없다. 지금은 이것이 한 개

의 골동품(骨董品)으로 취급되어 있고 이것에 대해 연구하는 사람도 없다. 지금은 잠수함(潛水艦)이 있으니 이런 거북선이 전쟁에는 필요 없다고 말할지 모르나 파도가 많고 태풍이 있는 곳에는 이런 선박이 절대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거북선은 충무공 당시에도 자랑거리였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 거북선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의 면목이 없을 뻔했다. 이때 적어도 8년 씩이나 일본과 싸우면서 새로운 병기 또는 무기가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이 무능하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낼 뻔했다. 충무공이 이 거북선을 발명했고 해전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약간 민족의 체면을 세웠다고 모두들 확실할 것이다. 또한 이 거북선이 근거가 되어 고종황제(高宗皇帝) 시절에 대원군(大院君)이 근대식 군함(軍艦)을 만들어본 적이 있다. 천총(千櫓) 양헌수(梁憲洙) 장군을 시켜 군함을 만들어 솟불로 이것을 움직인 적이 있다. 하지만 이때는 벌써 서양에서 군함이 발명되어 쓰던 때였으므로 이것을 건너치우고 그냥 사들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만들어 솟불로 움직여보았다는 것은 역시 하나의 발명이 아니면 무엇이랴. 이것도 말하자면 거북선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라 할 수 있고 동기는 병인양요(丙寅洋擾)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거북선은 우리에게 연구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거북선이 잠수함보다 경비와 노고가 덜 들고 그 효과는 잠수함보다 낫다고 하면 누가 이것을 싫다고 할 것인가? 거북선은 지금도 얼마든지 연구의 대상이다.

날들(飛機)

비행기가 고대에 우리나라에서 났다고 하는 것이 모두 정평이 나 있지만 이것을 발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를 우리나라가 맨먼저 발명했다고 하면 모두 코웃음 친다. 그러나 실상 비행기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것은 다시 말할 것이 없다. 그러면 어느 때 발명이 되었는가 하면 역시 임진왜란 때이다. 나에게는 이런 참고문서가 없어 자세히 적지 못하는 것이 유감이지만, 그 발명자는 정평구(鄭平九)로 알려져 있다. 임진왜란 때 가장 처참한 격전을 이룬 곳은 진주성(晉州城)이다. 이 진주성이 함락되기까지 적군과 상당한 시일을 싸우고 결국 중과부적(寡寡不敵)으로 진주성이 함락이 되고 말았다. 이때 기록을 보면 정사(正史)는 '진천뢰(震天雷)'만을 쓴 것이 나와 있고 정평구의 '날들'에 대한 것은 나와 있지 않다. 말하자면 정평구는 진주성이 함락되게 되니 분전 격투하다가 드디어 빠져나

갈 것을 생각해 '날들'을 만들어 자기 가족과 친구들을 이십 리 밖에 나가게 하여 살렸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이 정사에 있지 않고 야사에 있기 때문에 정당히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때는 폭탄이 발명되지 않은 때이므로 '날들' 위에서 폭탄을 사용한 것이 아니며, 다만 위급한 상황이라 어찌 할 바 없어 정평구는 '날들'을 발견해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먼저 탈출하고 나중에는 우인을 데리고 탈출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문적으로는 다만 '비기(飛機)'로 쓰여 있어 이것을 번역하면 '날들'이 된다. 그러면 이 날들을 어떻게 발명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진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것은 웬만한 머리면 되리라고 생각한다. 비행기가 '연(鳶)'에서 발명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실상은 활에서 착안된 것이다. '연'은 날려서 올라가는 것만이 능사이다. 그러나 이것은 속력이 없다. 속력을 내는 것은 역시 활이다. 정평구는 활의 속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활과 같이 나무를 휘어서 그것이 통겨지는 바람에 공중으로 나르고 그것은 성 밖으로 뛰어나 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글라이더를 타보는 것 같이 활을 휘어 그것이 통기는 바람에 멀리 가는 것이다. 글라이더를 타본 사람은 알 일이지만 글라이더는 밀고 가면 저절로 탄력이 생겨 공중으로 나르고 천보(天步) 또는 그 이상으로 날아가 저절로 떨어지게 마련이다. 정평구의 날들이란 것도 글라이더라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문적으로는 이십 리 밖이라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도 과장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개는 활이나 궁노의 이치에서 그 힌트를 얻어 이십 명에 가까운 사람을 구한 것으로 보고 보인다. 요컨대 글라이더가 정평구의 발명으로 우리나라에서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글라이더는 지금도 각 대학에서 장려하면 저절로 될 일이다. 그러나 경비관계로 안 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라이더는 실제로 경비가 그다지 드는 것도 아니다. 각국에서는 대학에서 운동경기에 이 글라이더를 넣어 나중에 비행기를 타도 두려움이 없도록 해준다. 글라이더를 타본 사람은 누구나 다 같이 비행기에 대해 그다지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 이제 내가 보는 바로는 정평구의 발명은 글라이더가 아니었던가 한다. 그렇다면 그다지 귀중한 발명도 아니다. 지금도 웬만한 사람이면 글라이더쯤은 문제없이 발명하리라 생각된다.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일찍 발명한 것은 '비격진천뢰(飛擊震天雷)'다.

이 기계는 화포공(火砲工) 이장손(李長孫)이 만들어낸 것으로 여기에 대해 이익(李瀾)이란 분이 쓴 『성호사설(星湖僿說)』에 의하면 이렇다. 또는 유성룡(柳成龍)이란 분이 쓴 『징비록(懲毖錄)』에 의하면 이렇다.

“제육일황혼(第六日黃昏), 제진지적(諸陣之賊), 함취일처(咸聚一處), 성중인(城中人), 방진천뢰삼도(放震天雷三度), 낙어적중(落於賊中), 중적관기체양지제(衆賊觀其體樣之際), 탁렬촉사자(圻裂觸死者), 불가승수(不可勝數), 적불감전(賊不敢戰), 환퇴(還退).”

‘비격진천뢰’는 상당한 효과를 냈는데, 지금의 대포(大砲)가 아닌가 싶다. 비격진천뢰의 조직이 어떠한가 하면 비격진천뢰 속에 화약과 철편(鐵片)과 전신관(電信管)을 교묘히 장치하고, 겉으로는 철로 박처럼 둥글게 싼 작열탄(炸裂彈)으로, 이것을 위의 완구(碗口)를 이용하여 목적지에 쏘아 떨어져 작열하게 하는 무기, 지금의 현대적인 신예무기(新銳武器)와 다름없는 듯하다. 이것이 한번 떨어지면 적어도 이 포탄에 의해 삼십 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는 것은 보통이라 했다. 진주성 싸움에 가장 효과를 올린 것은 바로 이 비격진천뢰라고 어느 곳이나 모두 적혀 있다. 이 비격진천뢰가 이때 발견되어 진주성 싸움에 많은 활약을 했다. 하지만 진주성이 기어코 적군에게 넘어가고 만 것은 무기 탓이 아니고 중과부적으로 물밀 듯 들어오는 적군을 막아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징비록』에 의하면 상당히 고전(苦戰)한 것으로 드러나 있지만,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진주성은 적어도 십여 일을 지탱했었다. 지금은 이에 대한 연구가 없고 이런 무기 이상의 것이 선보였지만 그때는 자타가 모두 신병기(新兵器)라고 놀랐던 것이다. 이런 신병기가 그때 많이 있었다면 진주성도 문제없이 지켜졌을 것이나, 문적에 보면 불과 두 대 또는 셋에 지나지 않았다. 아무리 좋은 병기라 하더라도 두 대나 세 대가 지고 물밀 듯 쳐들어오는 적군을 당해낼 수는 없다.

화차(火車)

병기에서 화차(火車)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병기는 지금까지도 모두 화기(火器)다. 이제 앞서 말한 『성호사설』에 의하면 불로 쓰는 화기가 13개라고 적혀 있다.

“개병기지리(蓋兵器之利), 막여화구(莫如火具), 도용운(屠隆云), 기속유십삼(基屬有十三), 화통(火筒), 화총(火銃), 화포(火砲), 화궤(火櫃), 화갑(火匣), 화패(火牌), 화차(火車), 화궁(火弓), 화노(火弩), 화탄(火彈), 화전(火箭), 화전(火磚), 화창야(火槍也).”

‘화차’는 이곳에 적힌 것으로 보면 일곱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병기로는 가장 오래된 것으로 어느 문적이나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발명된 것은 신라(新羅) 때 정지(鄭地)란 분이 ‘화포(火砲)’와 같은 것을 만든 것이 최초인 듯하다. 이것이 고려(高麗)를 거쳐 조선에까지 이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역시 앞서 말한 『성호사설』에 또 나와 있으니, 그것을 적어보면 이렇다.

“아국화포(我國火砲), 자러말시(自麗末始), 시시왜상불지차술야(是時倭尙不知此術也), 나세(羅世), 정지(鄭地), 이화포(以火砲), 분선왜대승(焚船倭大勝), 연위지분선(然謂之焚船), 즉흥금조차각총별야(則興今鳥此角銃別也).”

이것으로 보면 일본에서는 우리보다 뒤늦게 화포와 화차를 써 왔던 것이다. 요컨대 화차는 지금의 탱크를 나오게 한 것 중 하나라 볼 수 있다. 그러나 탱크보다도 그 화력은 썩었던 듯하다. 기록에 의하면, 화차 속에 화포가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40여 군데의 구멍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다. 그것도 불에다 심지를 대기만 하면 연이어 불이 쏟아져 적군에게로 날아갔다는 것이다. 그런데 화차와 비격진천뢰는 이때 같이 사용된 것으로 쓰여 있으나, 화차를 가장 많이 사용한 도원수(都元帥) 권율(權慄)이라는 분이 행주(幸州) 싸움에 많이 사용해 적군을 놀라게 하였고, 비격진천뢰는 경상좌병사(慶尙左兵使) 박진(朴愷)이 나중에 경주탈환전(慶州奪還戰)에 많이

썼던 것이다. 요컨대 비격진천뢰는 진주성 싸움에서 발명되어 이것이 가장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 후 이것을 급속도로 만들어 경주탈환전에 투입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이차람 화차는 고대에 우리나라의 무기 또는 병기로 써 왔으나 이때 이르러 또다시 고안(考案)하여 새로이 쓴 듯하다. 전쟁에는 언제나 화공(火攻)이 가장 앞서고 있는데, 근대전(近代戰) 또는 현대전(現代戰)에서도 변함 없다. 화공에서는 화차와 대포가 가장 앞서고 있는 고대에도 그러했던 듯하다. 역시 앞서 말한 『성호사설』에 의하면 무서운 무기로 ‘동포(銅砲)’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다.

“계정야승(啓禎野乘), 유박각자(有薄珥者), 창의조동포(勗意造銅炮), 약발삼십리(藥發三十里), 철환소과(鐵丸所過), 삼군미란(三軍糜爛), 약차기상재(若此器尙在), 사졸지정(士卒之精), 성지지고(城池之固), 부족시아(不足恃也),”

구리로 만든 대포였으니 지금도 대포가 곧 이 ‘동포’인 듯하다. 아직도 전쟁에서는 가장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 또 효과적인 것이 대포라고 알려져 있다. 이때는 ‘화리국(火里國)’이란 나라에서 ‘화경(火鏡)’을 전쟁에 써서 선박(船舶)을 태웠다는 기록이 있다.

“서방지(西方志), 화리국(火里國), 주거경(鑄巨鏡), 영일주사적소(映日注射賊艘), 광소화발(光焰火發), 수백선일시소진(數百船一時燒盡), 이화경추지(以火鏡推之), 의역교의(意亦巧矣).”

이걸 보면 지금의 ‘살인광선(殺人光線)’의 무기가 있다는 것도 또한 이상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세상에 전쟁이란 것을 기피하는 까닭은 이런 무기나 병기가 모두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전쟁은 나가면 죽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관념이 아닐 수 없게 되고, 또한 근대에 이르러서는 전쟁에서 전투력(戰鬪力)을 빼앗는 것으로 바뀐 것도 이런 데서 오지 않았는가 싶다.

불랑기(佛狼機)

임진왜란 때에는 ‘불랑기(佛狼機)’라는 병기가 있었다. 이것은 중국에서 온 것으로 척계광(戚繼光)이 발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실은 척계광 이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것은 일본군도 썼던 것이다. 지금의 대포와 같은 것으로 가장 빨리 나가는 것이 특징인 듯하다.

“척계광운(戚繼光云), 상발지□소장불랑기(賞發地□所藏佛狼機), 영낙소축위고조자총(永樂所蓄衛庫烏觜銃), 내왜변말작시소유(乃倭變末作時所有), 즉왜인종중국득지자야(卽倭人從中國得之者也), 아국사중피약(我國士衆疲弱), 무이어적(無以禦敵), 유화구위가시(惟火具爲可時), 이매어제조(而昧於製造), 초불지유허다재야(初不知有許多在也), 역가탄(亦可歎).”

이런 글로 보면 이때도 기관총(機關銃) 같은 것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것을 모두 대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모양이나 내 생각은 기관총인 듯하다. 아니면 탱크에 붙어있는 대포와 같은 작은 포인 듯하다. 우리는 또한 이때 병기에 관한 한 척계광이 판을 쳤고 그의 저서『기효신서』(紀效新書)는 귀중한 문적으로 알려져 있음을 지금도 알 수 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임진왜란 때 무기와 병기가 상당히 좋은 것이 많이 나왔다. 이 불랑기만 하더라도 임진왜란 때 상당히 많은 효과를 냈다. 이외에 ‘홍이포(紅夷砲)’라는 병기가 기록에 보인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기효신서』가 없는 한 이것의 성능을 적을 길이 없다. 전쟁에는 신병기가 언제나 발명되는 까닭에 이런 것은 대개 큰 효과를 올리고, 또한 적군이 놀라는 일이 많아 전쟁이 나면 가장 효과적인 무기와 병기를 찾는 것도 사람의 당연한 마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옛날에도 13가지나 되는 화공에 쓰는 병기가 있었으니, 오늘날 전쟁에 쓰는 화기로 된 무기 또는 병기가 얼마든지 있을 것은 필연적인 결과다. 그러나 전쟁에는 무엇보다도 근대에 이르러서 전술(戰術)과 전략(戰略)을 중시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근대전은 전투력(戰鬪力)을 빼앗는 것이 전략상 가장 중시되고 있다. 그전에는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으로 자랑으로 했지만, 지금은 전략을 써서 전군(全軍)을 포위하는 것이 근대전의 특징이다. 오늘날 무기 또는 병기에 대해 이야기 하는 마당이니 그것은 그만두기로 하자. 오늘날 탄도탄(彈道彈)이니, 유도탄(誘導彈)이니, 또는 원자탄(原子彈)이니 하는 때에 호랑이 담배 먹던 이야기처럼 되었기 때문이다. 전쟁은 문명과 문화와 함께 진전하기 때문에 살인이기(殺人利器)로 사용이 되는 것보다는 국방무기(國防武器) 또는 국방병기(國防兵器)로 이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오늘날에는 적국을 쳐들어가는 것을 절대로 자랑으로 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가만히 앉아서 7만 대병을 막아내는 것이 자랑이다. 전쟁에서 이일대로(以逸對勞)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래서 전파탐지기(電波探知機) 같은 것은 가장 우선적인 국방무기로 모두 잘 알고 있다. 어쨌든 복잡한 근대에 이르러 전쟁에서 무기 또는 병기보다도 적군의 전투력을 빼앗는다는 것은 새로운 전쟁학설(戰爭學說)이다. 1958. 8. 28일 원고(稿) (끝)

미명(未明)의 셋별이 찬란(燦爛)할 때까지

—고인(故人)을 회상(回想)하는 어느 책자(冊子)에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국난이라고 불릴 정도의 외세의 침입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오늘날 우리 한국 민족은 과거의 어떠한 국란보다도 더 가혹한 국난을 당했고, 지난날 우리 민족이 달성한 민족과업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무거운 민족과업을 달성하려고 분연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이 민족과업은 전 국민의 온갖 정신과 물질을 투입해서 그 승취(勝取)를 겨누는 총력전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오늘날 문명의 최고수준을 구현하고 새로운 전쟁양상의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 원자탄, 수소탄의 핵무기와 항공기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항공기의 진보와 항공기가 담당하는 국방의 의의에 대한 국민의 이해정도야말로 총력전을 이룩하는 기초가 된다.

우리는 우리 역사를 들춰 때마다 심금을 울리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김유신(金庾信), 을지문덕(乙支文德), 이순신(李舜臣) 장군 등의 나라에 이바지한 공훈이다. 그런데 더욱 애처롭게 가슴을 울리는 것은 곧, 신라시대의 화랑 관창(管昌)의 순국 사실이다. 사람의 사는 길을 명시한 관창의 위대함이다.

천하의 대세가 불길하여 군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느꼈을 때 죽음을 알면서도 그 길을 택함으로써 승리의 길로 인도한 소년 관창, 그는 살신(殺身)하여 사람이 살아야 할 불멸의 대도(大道)를 시절(示節)한 위국(爲國)의 전사였다.

지금 필자는 어느 책자에서 비록 시대는 변했으나 관창에 못지않은 한 떨기 화랑의 후예가 공산 적을 격멸하는 격전장에서 가졌던 신념의 일단(一端)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감동을 느낀다.

그것은 지난 1952년 8월 2일 동해안의 전진기지에서 동해안 일대를 휩쓴 우천 악기류를 무릅쓰고 용약출격(勇躍出擊)을 감행하여 애기(愛機)와 더불어 27세의 약관을 일기로 산화한 박두원(朴斗元) 중위가 생전의 전우인 제1기 사관(第一期士官) 이희근(李喜根) 소위(현 중령)에게 보낸 고인의 서한(書翰)이다.

그 서한에는 이러한 말이 쓰여 있다.

“젊음과 생명을 조국에 바치면서도 두려워할 줄도 자랑할 줄도 모르는 채 사라진 착한 영혼(靈魂)이 있으니 그가 전우 고(故) 박두원(朴斗元) 중위다.”

그는 그의 소망대로 무언실행(無言實行)의 한길인 공산군의 격멸에서 유명을 달리했다. 따지고 보면 고 박두원 중위가 산화한 지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아는 사람은 알 것이요 모르는 사람은 알리고 노력하지 않는 한 모를 일이나 망각의 습성에 의지하여 이 찬란한 무병의 별, 군인의 귀감인 신념의 소유자를 잇을 것이 두렵고 본받아야 함이 절실하기에 그의 서한을 그대로 옮겨 군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과업을 달성하는 데 마음과 행동의 지침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고(故) 박두원(朴斗元) 중위(中尉)의 서한(書翰)

공경하여 답장함(복계(復啓))

친애하는 나의 희근(喜根)이!

군이 보내준 글월은 나에게 기쁨과 끝없는 반가움을 가져다주었네. 너무 오래 적조(積阻)하여 그리우면서도 편지 한 장 쓰지 못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게.

그간 별고(別故)없이 의연(依然) 분투하고 있다 하니 무엇보다 다행일세.

나도 아주 연고(緣故)없으며, 원기왕성하게 전심(專心) 치지(致志) 적 공산군 격멸에 매진하고 있으니 안심하여 주게.

다년간의 숙망(宿望)이, 아니 일생을 통해 자기가 밝아가야 할 길을 걷게 된 자기 자신을 돌볼 때 이 감격(感激)을 누구에 터놓으며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러나 친애하는 희근이! 나의 이 기쁨과 감격을 나누고 싶은 사람은 오직 자네뿐일세.

희근이! 나의 이 감격을 자네는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며 또 더불어 기뻐해 줄 줄 아네.

멀리 산 넘어 구름을 헤치고 미명(未明)의 셋별이 찬란할 때까지 이 몸이 그리 쉽게야 사라질 것인가?

다년의 숙망이 이제야 이루어진 나의 생애(生涯)는 셋별의 축복과 더불어 찬란한 햇불은 나의 미래를 밝혀 주리!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누구뇨. 나의 운명을 하늘에 걸고 나의 마음은 하느님께 맡기고 무언실행(無言實行)의 한길 적 공산군 격멸밖에는 없는 것일세.

희근이! 자네와 함께 지내던 교육 때의 나의 심경을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었어.

오직 자네만이 내 마음의 벗이었고 자네 마음은 내 마음의 거울!인 양 반영되었었지.

그래 내 마음의 거울 그것이 자네고 그것만이 자네와 나와 맺어진 정이 아니었던가!

정든 고향을 뒤로 하며 타향으로 떠나는 나그네와도 같이 그때 그 마음이 지금이 이 ○○기지에서 새롭고 또한 가일층(加一層) 용기를 백배(百倍)해 주네.

오늘까지 11회째의 출격일세(고 박두원 중위의 출격기록은 87회) 적군도 대기하고 있으니 하루에 몇 번이고 빨리 출격해서 여유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하겠는데 워낙 사람도 부족한데다 비행기조차 적으니 초조하기만 하네.

적도 심사적(心死的)으로 대항하고 있네. 애기(愛機)가 퍼붓는 폭탄과 로켓에 분쇄(粉粹)되면서도 포(砲)에 매달려서 쏘는 적 대공포화(對空砲火)에 저서야 되겠나. 적의 용기에 뒤떨어지는 우리 공군은 아니겠지만 적의 몇 곱의 힘과 용기를 배양해야 할 것일세.

우리들이 일상의 모든 방면을 되돌아보세!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하네. 전투란 승리의 또 다른 별명이 아니겠나! 싸움은 승리를 전제로 한 평화와 건설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할까.

승리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인류 공통의 복리를 지향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상임무라던 확실하 우리들도 적으나마 평화의 사도임에 틀림없을 거야. …… 이것은 과대평가(誇大評價)한 나의 자부(自負)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금지는 가져야 하네.

푸른 제복의 궁지! 우리는 이러한 영고(榮高)한 궁지에 살고 궁지에 죽세.
그러나 이기기까지에는 실력이 필요하야. 그러면 그 실력을 어떻게 양성해야 할 것인가. 자네는 이것을 잘 알줄 믿네. 1기 사관(士官)은 모든 것을 이해할 줄 믿으며 특히 참다운 군인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하네.

과거 6.25 동란 발발 당시를 회고하여 보게. 그때 나는 한국에는 없었지만 들은 말에 의하면 그때 과연 우리에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을까……. 지금 상상만 해도 몸서리치는 위기, 그리고 북한에서 이런 위기를 매일같이 겪고 있는 선량한 동포가 얼마나 많으며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나.

친애하는 희근이! 두 번 다시 이 비참(悲慘)을 되풀이해서 되겠나. 그러나 우리는 적이 하나의 시련을 겪으면, 우리는 둘의 시련을 각오해야만 되네. 시련 없는 의지란 골격 없는 인형에 불과한 것이니 시련과 정면으로 격투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는 갖추어야만 해!

적의 탄우(彈雨)를 두려워하는 자가 우리 공군에는 있을 수 없듯이, 그것은 우리 푸른 제복의 궁지가 용서할 수 없는 이단자라 하겠네.

자네들의 무언의 애국을 바라네. 말없고 소리 없는 묵묵한 실천만이 참다운 애국이며 모름지기 우리 공군에는 이러한 군인만이 있을 줄 믿네.

자네는 출격의 뉴스를 고대한다고 하나 그것은 자네의 상상에 맡기겠네. 어쨌든 출격이란 적 격멸일세. 내가 가장 절실하게 느낀 것은 날이 가서 출격의 횟수가 늘어갈 때마다 적개심(敵愾心)이 가슴속에 타오른다는 것일세.

1 출격하면 2 출격하고 싶고, 3 출격에서 돌아오면 4회의 출격이 안타깝도록 나가고 싶으며 폭탄이 없고 로켓이 없으면 눈 아래 보이는 적 고사포(敵高射砲)를 짓밟아버리고 싶은 초조한 마음을 어찌할 수 없네.

자네도 적진 출격을 해보면 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자네도 그런 충동을 억제하기에 바쁠 정도가 될 것일세.

마지막으로 '말 없는 애국자', '무명의 애국자' 그리고 출세라는 것을 바라지 않는 애국자가 되기를 희망하네.

또 지금까지 충분히 자네들도 그러했다고 나는 믿네.

그리고 절대로 경솔하지 않도록 자중자애(自重自愛)하게.

나를 지극히 신뢰하고 사랑해주는 자네를 나는 진정으로 존경하네.

나의 존경과 나의 뜨거운 우정을 받아주게.

그런데 나는 바보야. 왜냐고? 그것은 묻지 말고 그리만 알아두게.

전우들 일동에게 안부를 전해 주게. 이만 ○○에서

박두원(朴斗元) 배(拜) (문고(文庫) 『날개의 성지(聖地)』에서)

편자 주(編者註)

고 대위 박두원 약력(故 大尉 朴斗元 略歷)

- 1. 본적(本籍) 경북 영일군 포항시 도동(慶北迎日郡浦項市島洞)
- 1. 생년월일(生年月日) 1926년 7월 5일생
- 1. 학력(學歷) 일본 사가중학 3년 수료(日本佐賀中學修了)
일본 태도선 육군비행학교(日本太刀燒陸軍飛行學校)
- 1. 군사(軍事) 공군(空軍) 2기(二期) 조종 하사관(操縱下士官)으로 입대(入隊)하여
1952년 3월 1일 임관(任官) 후 전투출격(戰鬥出擊)

베스트 골프 (IV) (Your Best Golf)

토미 아머 저(著)

제7장(第七章) 스윙(Swing)의 자세(姿勢)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지금까지 보고 가르친 일반 아마추어 골퍼(Amateur Golfer)는 열 사람 중 아홉 사람은 스윙을 하기 전에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결점을 안고 있었다. 적어도 이 10명 중 9명까지의 - 더 많을지도 모른다. - 의 사람들은 자기의 최선을 다할 기회가 없는 스탠스(stance)를 취하고 있었다. 그들은 출발하기 전에 자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공을 향해서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거의 모르고 있다. 스탠스도 그립(grip)과 똑같이 중요하다. 한쪽이 정확해도 한쪽이 틀려 있으면 모두가 틀리게 된다. 나는 재차 정확하게 적합한 클럽(club)의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것은 정확한 스탠스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클럽을 공의 뒤 지면에 놓고(물론 규칙으로 금지되어 있는 벙커(bunker)에서는 예외로 하고) 양팔을 편하게 내려뜨린다. 특히 양팔을 팔꿈치에서 구부리지 말고 딱딱하지 않을 정도로 펴는 것이 좋다. 양팔을 뻗는 이유는 스윙의 반경을 결정하기 위해서다. 스윙 도중, 왼쪽 팔뚝을 뻗뻗하지 않게 펴 수 있는 한 펴고 있으면 이 반경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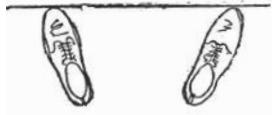
샤프트(shaft)의 길이는 사람이 얼마만큼 공에서 떨어져 서면 좋은가를 결정한다.

공을 향해서 될 수 있으면 업라이트(up right)로 직립함이 좋다. 이 경우 신체를 뻗뻗이 하지 말고 양 무릎을 약간 이완시켜 편한 자세를 취한다. 스윙 도중 동작이 걸리지 않도록 움직일 수 있으며 신체의 긴장을 풀어 자연 그대로의 자세를 취함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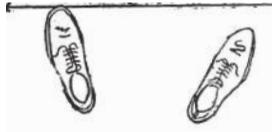
보통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결점은, 어드레스(address)의 경우, 몸이 너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다. 다음에 그는 스윙을 함으로써 몸을 일으킨다. 그래서 공을 톱(top)하면 자기의 머리를 올린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된 것은 몸을 그때가 되어서 일으킨 것으로 최초의 어드레스부터 이 자세를 취했다면 좋

1) Tommy Arm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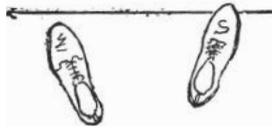
(1) 스퀘어 스탠스



(2) 클로즈드 스탠스



(3) 오픈 스탠스



았을 것이다.

양 발의 간격은 우드 샷(wood shot)의 경우, 대체로 자기 어깨넓이 만큼 떨어뜨려서 선다. 아이언 샷(iron shot)에서는 그 간격은 조금 좁으며 - 클럽의 로프트(loft)가 증가하여 샷에 힘보 다도 정확성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점점 좁아진다.

큰 샷에는 몸은 공의 비행선에 병행으로 서는 것보다는 약간 공의 오른쪽을 향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작은 샷에서는 몸은 다소 왼쪽, 홀 쪽을 향한다. 이 향방의 정도는 공을 쳐내려는 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거리가 짧으면 그만큼 어드레스의 자세는 홀 쪽을 향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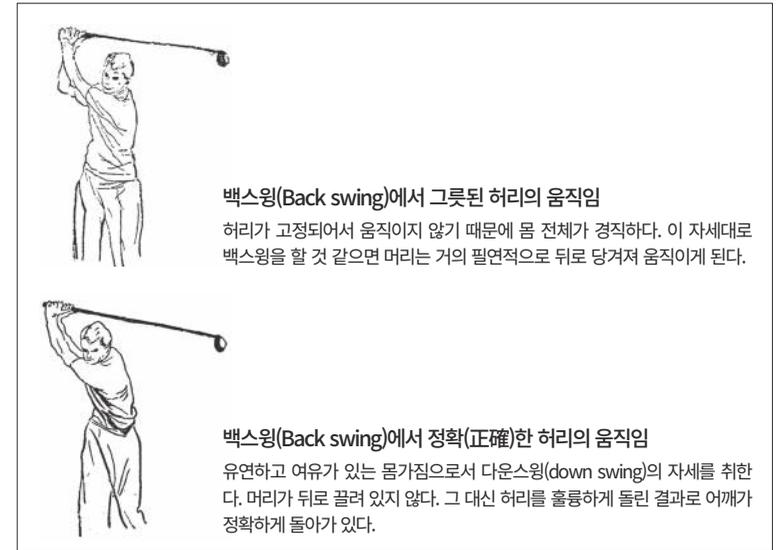
우드(wood)의 어드레스에서는 두 손의 위치는 공과 같은 선상에 있으며 드라이버의 경우는 그것보다 약간 뒤에 있을 정도이다. 아이언의 어드레스에서는 두 손을 약간 공의 앞으로 나가고, 샤프트는 클럽 위치보다 약간 앞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나는 드라이버나 기타의 우드에 대해서 클로즈드 스탠스(closed stance)를, 롱 아이언에 대해서는 스퀘어 스탠스(square stance)를, 쇼트 아이언에는 오픈 스탠스(open stance)를 가르친다.

스퀘어, 오픈, 클로즈드의 각 스탠스에 관해서 독자가 아직 모를 경우를 생각해서 설명하면(그림참조)

- (1) 스퀘어 스탠스에서는 두 발 끝이 비행선에 병행한 선상에 있다.
- (2) 클로즈드 스탠스에서는 오른발이 이 선으로부터 몇 센티미터만 뒤로 끌고 발끝을 약간 오른쪽으로 벌린다.
- (3) 오픈 스탠스는 오른발을 이 선으로부터 약간 앞으로 내놓고 왼발을 약간 뒤로 끌어 동시에 왼발 발끝을 왼쪽으로 약간 벌린다.

오픈 스탠스에서는 클럽 페이스가 비행선의 바깥쪽으로부터 공을 쳐서 안쪽으로 빠질 수 있는 클럽 헤드의 통로를 조장하기 위해 슬라이스(slice)를 유발하



백스윙(Back swing)에서 그릇된 허리의 움직임

허리가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몸 전체가 경직하다. 이 자세대로 백스윙을 할 것 같으면 머리는 거의 필연적으로 뒤로 당겨져 움직이게 된다.

백스윙(Back swing)에서 정확(正確)한 허리의 움직임

유연하고 여유가 있는 몸가짐으로서 다운스윙(down swing)의 자세를 취한다. 머리가 뒤로 끌려 있지 않다. 그 대신 허리를 훌륭하게 돌린 결과로 어깨가 정확하게 돌아가 있다.

기 쉽다.

클로즈드 스탠스는 이와 반대로 효과를 내기 쉬워서 후크(hook)를 유발하기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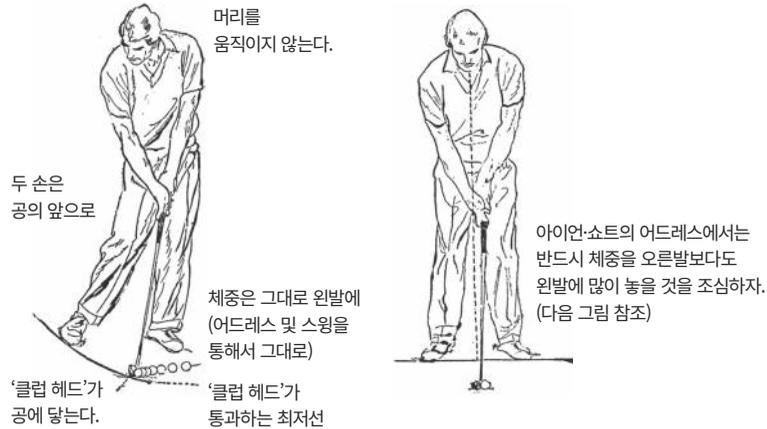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퀘어 스탠스에서부터 슬라이스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슬라이스를 방지하고 거리를 내기 위해서 우드는 클로즈드 스탠스로, 즉 비행선에 대해서 오른발을 왼발보다도 2, 3인치 뒤로 끈 위치에서 칠 것을 가르친다. 능숙한 사람은 우드를 약간 클로즈드 스탠스해서 친다. 클로즈드 스탠스로서 칠 것 같으면 허리나 몸을 편하게 돌릴 수 있다.

스탠스와 몸의 움직임에 관해서 우선 생각해야 할 것은 공을 두 팔과 손의 동작으로서 가장 효과적으로 칠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다.

<허리(腰)를 편하게 돌릴 수 있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허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긴장으로 많은 샷을 실패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경우 몸은 무리 없이 형(型)대로 원활하게 편히 움직일 수 없게 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어깨(肩)를 돌려놓고는 자기 허리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행해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허리를 움직이지 않고 어깨만을 돌릴 수는 있으나, 허리를 돌

롱 아이언·쇼트의 임팩트(impact)



리면 어깨는 그것에 따라온다는 것은 모른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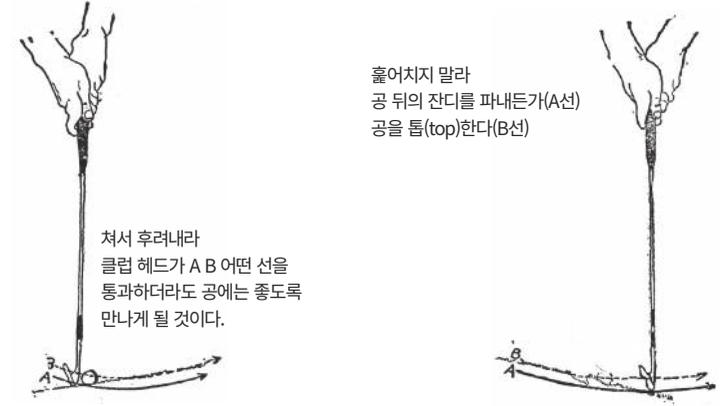
스탠스에서 오른발을 정확하게 놓을 경우에 반드시 발로부터 허리까지 무리함이 없이 편하게(건들건들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를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깨우치면 오른쪽 허리가 고정되고, 슬라이스를 조장한다. 이 허리가 움직이지 않아 클럽을 아웃사이드 인(outside in)으로 후려, 공을 때리게 되기 때문이다.

스탠스에 관해서는 두 발에 대한 공의 위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체중의 배분이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거의 90퍼센트까지는 자기의 체중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생각지 않기 때문에 샷에 망설이게 된다.

드라이버의 어드레스에서는 체중의 60퍼센트까지를 오른발로 지탱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기타의 샷에서는 공은 스윙의 활(弧)의 최저부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전에 쳐져야 하므로 어드레스에서 체중의 60퍼센트가 왼발에 걸려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

이 60퍼센트라는 수자는 대략의 계산이다. 나는 이 비중이 어떠한지 한다는 것을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러나 어드레스의 경우 드라이버일 것 같으면 오른발에 체중이 많이 걸리고 다른 클럽이면 왼발에 많은 체중이 걸려야 한다는 것은

2) ※ 돌출문장 형식으로 들어가 있음.



확실하다.

스윙 도중 체중의 분배에 관해서는 정확한 스탠스를 취하고 유연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두 발을 꼭 땅에 붙이고 더욱 편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 그 이상 염려할 것 없다.

아이언의 어드레스와 히팅(hitting)에서 왼발에 체중을 많이 올려놓아야 한다는 필요에 관해서는 그것을 잘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더 설명을 하려고 한다.

<아이언을 훌륭하게 치는 데는 클럽의 밀이 스윙의 호(弧)의 최저부에 닿기 전에 클럽 페이스를 공에 대지 않으면 안 된다. 백스핀(Back Spin)이 걸리고 공의 후방을 때리지 않아도 되며, 또 샷의 순간에 두손은 공보다 앞에 있게 된다. 공을 치려고 할 때, 체중은 오른발보다 왼발에 많이 실리게 하는 것은 아이언의 클럽 헤드를 정확한 하향선에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이언으로서 이들 일련의 순서를 정확하게 행하면 공을 친 후에 덤(dubb)을 갖는다. 클럽 헤드는 공의 배후보다는 그 밑에서 스윙의 궤도의 최저부를 통과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클럽을 쳐내리고 클럽 페이스로 공을 쳐낼까 두려워서 아이언을 실패한다. 이 사람들은 체중을 오른발에 남기고 공을 훑어올리려고 한다. 이것이 아이언을 톱하는 최대의 이유로 공을 때리기 전에 잔디를 파내는 원인이다.

독자는 80을 때리는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이언을 때릴 때 밸런스를 잃고 몸을 뒤로 넘어뜨리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지금 말한 과실을 증명하는 좋은

예다. 그 사람들은 우드로서는 몸을 앞으로 넘어뜨린다. 어떤 샷이라 할지라도 같은 밸런스를 잃는 것이라도 이 반대의 과실은 그다지 중대하지 않다.

나는 상대에게 아이언을 가르치는 데 우드보다도 짐짓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아이언을 상당히 잘 사용할 줄 알면 우드의 사용법을 아는 것은 대단히 쉽다.

드라이브는 내가 가르치는 최후의 것이다. 이것은 게임 중에서도 가장 쉬운 부분이다. 드라이버로 치는 주된 목적은 거리를 내는 것으로 정확성이란 아이언의 경우보다는 중요치 않다. 드라이브를 미스해도 그것을 회복할 찬스는 있으나 그린을 겨누는 샷 아이언의 실책은 반드시 원 스트로크(one stroke)를 잃는다는 것을 나는 주의해주고 싶다.

두 발에 대한 공의 위치에 관해서인데, 드라이버에서는 공은 왼발의 뒤꿈치와 정면에 두어야 할 것이다.

브래시(brassie), 스푼(spoon), 배퍼(baffy)에서는 공은 이보다 1인치가량 뒤에 둔다.

아이언에서는 칩 샷(chief shot)에 이르기까지 공은 두 발로부터 같은 거리에 놓는다. 아이언에서는 양 발의 간격은 점점 좁아지므로 공은 실제로는 우드의 경우에 비교해서 그다지 뒤로 옮기는 것이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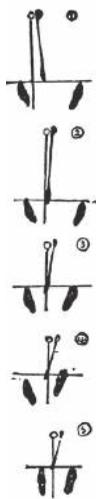
피치 샷(pitch shot)은 공을 오른쪽 선으로부터 약간 앞에 놓고 친다.

칩 샷에서는 두 발의 가운데 정면 근처에 공을 놓는다. 스윙은 모든 샷에서 본질적으로는 같으며, 그 요령은 주로 몸의 회전량에 의하는 것이나 아이언이나 우드의 샷의 여러 가지 형을 결정하는 것은 체중의 배분과 두 발과 공의 상대적 위치이다.

이것을 유의한다면 에버리지 골퍼는 공에 무작정 접근해서 부주의한 타구를 함이 없이 자기가 치려고 하는 샷의 형을 신중하게 검토하게 된다.

롱 아이언에서는 우드의 경우보다 두 발의 간격을 좁게 한 스퀘어 스탠스를 취할 것을 권한다. 이 샷은 약간 후크(hook)거나 직선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클로즈드 스탠스의 우드로 치는 공에는 거리가 신장하는 큰 후크가 걸리지만 롱 아이언에서는 그린을 겨누는 것이며, 큰 후크를 허할 정도로 표적은 넓지 않다.

쇼트 아이언은 몸의 움직임이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스탠스는 오픈으로 할 수 있고 두 발의 간격도 가까이 할 수 있다.



어드레스에 있어 공, 발, 손의 위치

(1) 드라이브(drive)
공은 왼발 발꿈치의 선상에 약간 클로즈드 스탠스 체중은 약간 오른발에 많게 양손은 약간 공보다 뒤에

(2) 페어웨이 우드 샷(fairway wood shot)
공은 왼발 발꿈치의 선에서 약 1인치 뒤로, 스퀘어 스탠스, 체중은 약간 왼발에 많게 양손은 공의 진상 또는 약간 앞으로,

(3) 롱 아이언 샷(long iron shot)
공은 양 발로부터 같은 거리에, 스퀘어 스탠스, 체중은 약간 왼발에 많게, 양손은 공 앞으로,

(4) 피치 샷(pitch shot)
공은 오른발 발꿈치의 선상에, 오픈 스탠스, 체중은 약간 왼발에 많게 양손은 공 앞에,

(5) 칩 샷(chip shot)
공은 양발로부터 같은 거리에, 스퀘어 스탠스, 체중을 약간 왼발에 많게 양손은 공 앞에
※ 샷의 거리가 짧을수록 양발의 간격은 좁아지며, 공도 발 근처 가까이 뒀을 주의할 것.

드라이브의 어드레스



몸은 약간 공의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 어깨를 내린다.

양손은 약간 공의 뒤로

체중의 약 60퍼센트는 오른발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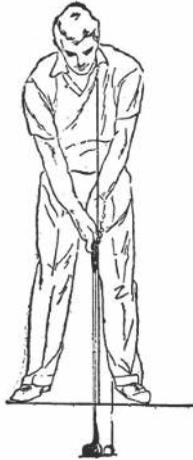
약간의 '클로즈드 스탠스' 발끝을 약간 벌린다.
공은 왼쪽 발꿈치의 정면에 충분히 티 업한다.

이 짧은 샷은 주로 손과 팔의 일이다. 오픈 스탠스는 클럽 헤드가 아웃사이드인(outside-in)으로 통하는 경향이 있다. 공에 적당한 좌우의 회전과 백 스핀을 주어 그린에 떨어졌을 때 잘 정지한다.



롱 아이언의 어드레스

몸을 편하게 일으킨다.
양손은 공의 위나 또는 약간 앞에
두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체중은 약간 왼발에 많이 둔다.
공은 왼발 발꿈치의 선의 뒤에 거의 두 발로부터 같은 거리
스퀘어 스탠스 발끝을 약간 벌린다.



페어웨이의 우드 샷의 어드레스

양손은 공의 위나 또는 약간 앞에
체중의 약 60퍼센트는 왼발에
공은 외발 발꿈치의 선으로부터 1~2인치 뒤로
스퀘어 스탠스

<모든 샷에 관한 기본원칙은 만약에 머리를 움직이면 신체의 동작은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다.>³⁾

머리는 스탠스를 저변(底邊)으로 하는 삼각형의 정점이다. 발의 움직임에 따라 다소 동요가 있으며, 머리도 다소 오른쪽으로 움직이지 모르나, 어드레스에 있어서 두 발 위에 선 삼각형의 관계는 결코 흐트러서는 안 된다. 중급 정도의 사람이 있어서 이 삼각형의 머리를 움직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머리를 고정한다는 것은 몸을 정확하게 움직이는 데 필요한 밸런스를 확보한다. 몸이 정확히 움직이면 그 후에 필요한 동작, 즉 두 팔과 두 손으로 클럽을 힘있게 후려칠 수도 있다.

애버리지 골퍼가 해야 할 것은 80퍼센트 정도는 몸을 올리는 것이다. 그들은

3) ※ 돌출문장으로 보임.



피치 샷의 어드레스

양손은 공보다 앞에
두 무릎을 약간 구부린다.
오픈 스탠스
체중은 약간 왼발에 많이 둔다.
공은 약간 오른쪽 발꿈치의 앞에



칩 샷의 어드레스

양손은 공보다 앞에
체중은 약간 왼발에 많게
두 발의 간격은 좁게
스퀘어 스탠스
공은 두 발로부터 같은 거리

공을 경직된 팔로 때리고 클럽 헤드에 충분한 스피드를 가할 수가 없다. 이것은 주로 머리를 고정시키지 않은 결과이다.

타인의 말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 일지반해(一知半解)하는 사람이 주는 골프의 충고는 많으나 그중에서 “눈을 공에서부터 떼지 말라.”고 한 말처럼 그릇된 것은 없다. 공을 훌륭하게 칠 수 있는 예측이 없는 사람이 머리를 움직였다고 해도 공을 보는 일만은 할 수 있다.

<두 발과 머리를 정확한 위치에 어드레스하고 그 상대적인 위치를 전 스윙이 끝날 때까지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독자는 훌륭한 골프에의 핵심에 접촉하게 된다.>⁴⁾

(다음 호에서 계속(次號繼續))

4) ※ 돌출문장으로 보임.

언덕위에서

김팔봉(金八峰)

1

햇볕이 쏘이는 날이면 그다지 추운 줄 모르겠지만 하늘이 흐리고 음산한 바람이나 부는 날이면 저절로 목이 움츠러질 만큼 일기가 쌀쌀해졌다. 겨울철에 접어든 것이다.

옥희 엄마는 들창문을 열고서 아침하늘 빛을 보았다. 겨울을 재촉하는 듯 회색구름이 온 하늘을 덮어버리고 있다. 들창 앞으로 개천이 있고, 개천 건너가 얇은 산이다. 산위에는 소나무가 없고, 키도 크지 않은 아카시아 나무가 겨우 두어 그루 서 있을 뿐이다. 옥희 엄마는 이때 구공탄을 준비해 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날이 추워지면

연탄값이 또 오를 것이 걱정되었던 까닭인데, 그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언덕 위를 바라보노라니까 어떤 여자가 어린애를 업고서 아카시아 나무 아래로 서성거리는 모양이 눈에 띄었다.

“저 여자는 어제도 나와 있더니……. 그래도 저 근처 살고 있기에, 저기 나와 있겠지?”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옥희 엄마가 이 동네로 이사를 온 지도 벌써 석달이나 되는데 그동안 저 언덕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가 이상히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무얼 내다보고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때 들창 밑으로 영희 엄마가 지나가다가 그의 얼굴을 치켜다보면서 이렇게 인사를 한다.

“네. 안녕하셔요. …… 저기 저 언덕 위에 누가 하꼬방이라도 지었나? 전혀 안 보이던 젊은 여자가 어린애를 업고서 어저께부터 저기 나와 있으니 말예요.”

옥희 엄마는 건너편을 손으로 가리키면서 물었다.

“저기 저 여자 말이죠? 그게 미친 여자래요.”

영희 엄마의 대답이었다. 옥희 엄마의 얼굴에는 놀라운 표정이 흘렀다.

“미친 여자라니요? 어쩌다가 미쳤나? 젊은 여자 같은데……. 여기서 보기엔.”

“젊구 말구! 스물댓 살밖에 더 안 되는 여자래. 미군하고 같이 살다가 애를 낳

았는데 그 미군이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부지……. 그리고 아주 소식이 없어졌다 나 봐……. 그래서 미쳤는지 머야.”

영희 엄마는 이렇게 설명하고서 입을 실쭙 해 보이는 것이었다. 옥희 엄마는 또 한 번 놀라는 표정이 되었다.

영희 엄마는 이 동네에 수십 년이나 살아오고 있는 가장 오랜 주민이었다. 그런 까닭으로 동리 부인들 가운데서는 영희 엄마가 이를테면 장로나 다름없었다. 동네에서 모르는 일이 있을 때면 모두들 그 일을 영희 엄마에게 묻는다. 그럴 때면 영희 엄마는 곧잘 그런 질문에 대답을 내리곤 하는 것이었다.

옥희 엄마는 영희 엄마가 영희를 업고서 저편 큰길 쪽으로 사라진 뒤에 불안한 미친 여자가 보고 싶었다. 맞은편 언덕 위에 있는 여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시켜 보았으면……. 그 여자가 정말 미친 여자인지 아닌지 알아보았으면……. 이 같은 궁금증이 생겼다.

“애, 옥희야. 아침밥을 빨리 해라. 내 저기 좀 갔다오마.”

그는 즉시 마당으로 내려와서 부엌을 들여다보고 이 같이 옥희에게 부탁한 뒤에 골목 밖으로 나왔다. 그는 개천을 건너서 맞은편 언덕으로 향했다.

2

“오오, 해피……. 오오, 해피…….”

젊은 여자는 등에 업고 있던 어린것을 옆구리 쪽으로 끌어 당기어 가지고 포대기 속에서 어린것의 얼굴이 삐져나오도록 들추어 가지고, 그 어린것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면서 이 같이 어르는 것이었다.

“에에, 참말로 잘생겼지, 우리 해피……. 예쁘기도 하다. 파파, 파파. 불러봤니! 마마, 마마. 불러봐라. …… 배가 고파? 오오, 가엾어라, 그래, 그래, 마마가 젖을 줄게.”

젊은 여자는 포대기째 어린것을 가슴 앞으로 끌어당기더니 가슴을 헤치고서 젖꼭지를 어린것의 입에다 물려주는 것이었다. 어린것은 젖꼭지를 쪽쪽 빨기 시작한다.

아까부터 옥희 엄마는 언덕 위에 올라와서 아카시아 나무 밑에 서 있는 이 여자의 모양을 삼십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살펴보고 있었다. 옥희 엄마가 보건대 이 여자는 나이 스물다섯 살밖에는 더 안 되어 보였다. 광대뼈는 조금 나왔지만 얼굴 전형이 조금 가름한 얼굴인데, 눈이 크고 어글어글해서 시원스럽게 보인다. 곱고 아름다운 얼굴은 아니라 할지라도 추한 얼굴은 아니었다.

옥희 엄마는 그 여자 곁으로 다가섰다.

“젓이 잘 나우? 애기가 퍽 예쁜데……. 돌 지났나?”

그가 이렇게 수작을 붙이니까 그 여자는 옥희 엄마의 얼굴을 흘끔 쳐다본다. 그런데 그 눈 속에서는 무엇인가를 경계하는 듯한 무서운 빛깔이 선뜻 비쳤다. 그러고는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여전히 어린 것의 얼굴만 내려다보고 있다.

젓꼭지를 빠는 어린 것은 두 볼따구니에 우물 자국이 나도록 젓을 빠는 모양이나,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은 없는 것 같았다. 잠시 그 모양을 바라보고 있다가 옥희 엄마는 측은한 생각이 들었다.

“아마 젓이 부족한 모양이야……. 집이 어때요?”

옥희 엄마가 또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대답을 안 한다.

한참 동안 옥희 엄마는 그 모양만 바라보고 있었다.

“집이 어때요?”

옥희 엄마가 또 물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얼굴을 들지도 않고서 고개만 좌우로 흔들며 보였다. 집 같은 것…… 그런 얘기…… 묻지 말라는 표정인 것 같다.

‘아마 집이 없는 여인이자…….’

옥희 엄마의 머릿속에 이 같은 느낌이 일어나자, 그는 더 한층 가엾게 생각되었다.

“우리 집으로 가서 아침밥을 자시우. 아마, 어제 저녁도 오늘 아침도 안 자신 모양인데…… 그래서야 어데 젓이 나오겠어요. 우리 집은 바로 언덕 아래 저기 저렇게 보이는 저 집이오. 나하고 같이 잡시다.”

옥희 엄마는 이렇게 말하고서 그 여자의 팔목을 잡았다.

그때 그 여자는 얼굴을 쳐들고서 옥희 엄마의 눈을 들여다 보는 것 같더니

“이리로 보내주세요. 여기서 먹겠어요.”

이같이 대답하는 것이었다. 옥희 엄마는 그 소리를 듣고서 반가운 마음으로 달음박질이나 하는 것처럼 미끄러져 가면서 언덕 아래로 내려왔다.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과 김치 한 보시기를 쟁반에 받쳐서 그것을 자기 딸 옥희보고 그 여자에게 가져다주도록 했다.

쟁반을 들고서 언덕 위로 올라갔던 옥희는 이십 분이나 지난 뒤에 빈 그릇을 들고서 돌아왔다.

“애, 잘 먹데?”

옥희 엄마는 물었다.

“잘 먹다 뿐이에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죄다 먹었어요.”

옥희는 쟁반에 있는 빈 그릇을 세 개나 밑바닥이 들여다 보이도록 뒤집어 보이

는 것이었다. 밥도 국도 김치도 죄다 한 방울도 남은 것이 없었다.

옥희 엄마는 마음이 만족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렇게 씻은 듯 부신 듯 먹었겠나…….”

“아마 한 사흘 굶었나 봐요, 어머니. 제가요, 옆에서 보고 싶는데도 그저 미친 것처럼 한입에 죄다 먹어버릴 것 같던데요 뭘.”

옥희는 부엌문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여자가 허겁지겁 밥을 쑤서 넣던 흥내를 내는 것이었다.

그때 옥희 아버지 광수가 건넌방으로부터 마루로 나오면서

“배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주고서, 그것을 흥보면 못 쓰는 거야! 당신두 저런 때 옥희를 가르쳐야 해.”

이렇게 말한다. 옥희는 꾸중이나 들은 것처럼 무안해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3

그 이튿날도 언덕 위에는 어린것을 업은 미친 여자의 모양이 나타났다. 대체 낮에는 어디 가서 하루해를 지내다가 밤에는 어디 가서 잠을 자고서, 아침이던 저 언덕 위에 나타나는가? 아직은 그다지 추운 겨울이 아니니까 도굴 속에서 잠을 자더라도 관계없겠지만, 엄동설한을 당한다면 그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옥희 엄마의 가슴 속에는 이 여자의 전도에 대한 근심이 구름처럼 몽게몽게 솟아오르는 것이었다. 어떻게 된 여자일까? 어쩌다가 미군하고 같이 살기까지 했을까? 저 어린것이 추운 겨울엔 병이 들기 쉬운데……. 저 여자의 부모는 없는가?

옥희 엄마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도 저 여자에게 아침밥을 대접하고 싶었다. 그는 대문 밖으로 나가다가 먼저 영희 엄마를 찾아보고서 미쳤다는 여자에 대한 소문을 더 자세히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옥희 엄마는 자기 집 뒷골목 안에 있는 영희네 집으로 먼저 들어갔다.

영희 엄마가 지껄이는 대로 미친 여자에 대한 소문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명순이. 이것이 언덕 위에 있는 미친 여자의 이름이다. 그의 고향에 그의 부모가 살아있는지 그것은 모른다. 명순이는 해방되던 해 고향에서 자기 오빠와 함께 단 둘이서 이남으로 넘어와 오빠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했었고, 명순이는 소학교에 다녔다. 몇 해 후에 명순이는 소학교를 졸업했고, 그 해에 그는 흥덕여자중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그러고서 그가 이학년에 진급했을 때 ‘6·25 사변’이 일어났다. 명순의 오빠는 그때 서울에서 어느 날 괴뢰군한테 학살당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군은 서울을 탈환했지만, 그 이듬해 서울 시민들은 모두들 피난

해서 부산으로 대구로 내려갔었는데, 명순이는 부산에 가서 있었다. 흥덕여자중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얼른 개학을 하지 못했다. 명순이는 중학 동창생 되는 동
무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가 모두들 보따리 장사를 하는 판국이며 명순이도
장삿길로 나섰다. 피난하던 해 여름부터 중공군을 몰아낸 서울에는 특별한 사람
외에도 장사꾼들이 남쪽에서 오르내리기를 잘했다. 명순이도 학교가 개학되기
전부터 부산과 대구를 오르내리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서울을 출
입하는 장삿길을 얻어가지고 한강을 자유로이 건너다녔다. 명순이는 아무렇게
나 지껄이는 영어를 몇 마디는 지껄일 줄 알았던 것이다.

이것이 - 영어가 - 밑천이 되었는지, 명순이가 수삼 차 서울에 와서 미군 물건
을 사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하는 동안에, 명순이는 미군 트럭 운전자 한 사
람과 가까운 사이가 되고 말았다. 이제 명순이는 중학생이 아니었다. 그러다가
명순이는 서울에서 방 한 칸을 얻어가지고 살았다. 미국 군인은 이따금씩 명순
이를 찾아와서 자고 갔다. 얼마 후에 명순이는 간난 애기의 어머니 되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애 아버지 되는 그 트럭 운전수는 행방불명이 되었다. 그
미국 군인이 만기 제대가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갔는지 혹은 일본으로 전속되었
는지, 그것은 알 수 없다 한다. 하여간 그 미군이 행방불명된 후부터 명순이는 정
신이상에 걸렸다. 그리고 셋돈을 내지 못하니까 집주인한테서 쫓겨났다. 명순이
는 어린것을 포대기로 싸가지고 들쳐 업고서 거리로 나왔다. 넓은 천지에 명순이
가 어린것과 함께 의탁할 곳은 없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아주 미쳐버렸다지 머유. 나두 이 동리서는 제일 먼저 수복
해서 올라온 축이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서 이야기를 들어서 알았지……. 어데
저 여자를 아는 사람이 있나요? 작년까지는 명륜동 근처에 있었다죠. 그리고 그
전에는 남대문 근처에 있었다 하고……. 어린애는 펍 잘생겼대요. 그래도 누가 어
린애를 불러고만 하면, 명순이는 딱 질겁을 해 가지고 한사코 어린애를 감춘대
요! 못 보게! 참 이상하지?”

영희 엄마는 미친 여자의 내력을 이렇게 설명하고서 말을 맺는 것이었다.

옥희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영희네 집으로부터 나왔다.

4

언덕 위에는 미친 여자가 여전히 어린것을 옆구리로 끌어당겨 가지고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어르고 있었다.

옥희 엄마도 그 곁으로 갔다.

“여보 색시. 오늘도 아침을 안 자신 것 같구료. 애기가 배고파서 어떡허우?
…… 우리 집으로 갑시다. 나는 색시한테 조금도 해롭게 할 사람은 아니니까 안
심해요 응. ……그래, 아침밥을 따뜻하게 먹어봐요. …… 이리로 보내달라면 또
보내겠지만……. 그보다는 집에 들어가서 자시는 것이 편할 것야. 자, 우리 같이
갑시다.”

옥희 엄마는 이렇게 말을 건네 보았다. 그랬더니 미친 여자는 잠깐 동안 옥희
엄마를 바라보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얼굴에서 사나운 기색이 거칠어져 버리고
유순한 표정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그리고서 그는 옥희 엄마 앞으로 가까이 다가
왔다. 옥희 엄마는 그가 언덕을 내려가겠다는 뜻으로 그의 동작을 해석했다. 그
리고서 옥희 엄마가 앞을 서서 언덕 위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자, 애기를 업은 미
친 여자는 그 뒤를 따라서 내려오고 있었다.

옥희 엄마는 자기 집으로 그 여자를 데리고 들어와서 햇빛이 잘 쏘이는 건넌방
앞쪽 마루 위로 그를 안내했다.

“여기가 햇빛이 잘 들고, 따뜻할 것이니 여기서 애기를 내려놓고, 편히 앉아서
식사를 해요. 응.”

그리고서 옥희 엄마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손수 이반에 밥상을 차려가지고 그
여자 앞에 갖다놓았다. 농군이 먹어도 좋을 만치 수북하게 담긴 밥그릇이었다.
그리고 국과 김치 외에 오늘은 찌개도 한 그릇 더 놓였다.

미친 여자는 그것을 마루 위에 놓고서 잠시 내려다보고 있더니 젓가락을 집어
들었다. 그리고서는 어린애를 업고 선 채 밥을 퍼서 입으로 가져갔다. 옥희 엄마
가 어린애를 내려놓고 편안히 앉아서 밥을 먹으라고 두 번이나 권했지만, 그 여
자는 그 말은 못 들은 척하고 먹기만 했다.

‘왜 저럴까? 누가 애기를 볼까봐 애기를 못 내려놓는 건가?’

옥희 엄마는 이렇게 생각되었다. 애기를 누가 집어갈까, 훔쳐갈까 의심해서 내
려놓지 않는 것이라면, 구태여 부득부득 애기를 내려놓으라고 권고할 것도 없다
고 생각됨으로 그 이상 더 말도 안 하고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다. 오늘 아침이
야말로 마침 옥희 아버지가 정거장에 일찍이 나가볼 일이 생겨서 외출하고 없었
는지라, 집 안은 조용했다.

이렇게 옥희 엄마가 곁에 서서 보고 있는 동안, 미친 여자는 십 분도 못 되는
사이에 밥 한 그릇을 후딱 먹어치웠다. 그리고 국도 찌개도 남기지 않았다.

“여보시오. 밥과 찌개를 더 갖다 드릴까?”

옥희 엄마는 그 모양을 보고서 이 같이 물었다.

미친 여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나 물 좀 주시오.”

한다. 밥은 더 안 먹겠다는 눈치였다. 옥희 엄마는 옥희더러 물을 한 그릇 떠오
라고 했다. 미친 여자는 승능 한 그릇도 죄다 미쳤다.

“애기를 좀 끌러놓고…… 지금 집 안에 사내 어른도 안 계시니, 마음놓고 좀 쉬
었다가 가시오.”

옥희 엄마는 또 이렇게 권한다. 그러나 그 여자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보이
고는 입을 꼭 다물고 있더니, 한참 있다,

“나 바지 한 개만 주실 수 없어요? 버선이 있으면 버선도 두 개만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 옥희 엄마는 이 말을 뜻밖엿 말로 들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
다. 버선은 신던 버선이 있으니까 한 켤레쯤 줄 수 있지만, 바지는 자기가 갈아입
고 있는 것 외에는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아이고, 바지가 어데 여벌이 있어야지. 버선은 한 켤레 드릴 것이 있지만.”

그러고서 옥희 엄마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가서 다락문을 열고 흰 버선을 한
켤레 찾아가지고 나왔다.

“우리도 피난살이를 4년 동안이나 하다가 올라와서 아직 아무것도 장만하지
못했다우. 겨우 입고 있는 것 외엔 아무 것도 넉넉한 게 없다우.”

옥희 엄마는 변명하듯이 이런 말을 하면 흰 버선을 신문에 싸가지고 그것을
그 여자에게 주었다.

“고마워요. 그런데 바지도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여자는 신문지 보통이를 받으면서 천연스럽게 이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이
런 때는 조금도 그의 표정이나 말투에 미친 여자라는 티가 없어보인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나도 색시한테 만족을 주고 싶지만……. 어
데 내가 입는 것도 모다 두 개밖에 안 되니, 하나를 내놓고서야 갈아입을 것이 있
어야지? 우리 집 바깥양반이 돈이나 많이 번다면 나는 새것을 장만하기도 하겠
지만……. 언제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아야지!”

옥희 엄마는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다. 그 여자는 그 말을 듣고서 금
세 무표정한 얼굴이 되더니, 등에 얹힌 어린것을 옆구리로 끌어당기고서 젖꼭지
를 물리고 있었다. 그때 옥희 엄마는 처음으로 푹푹하게 그 어린애를 볼 수 있었
다. 간난애는 아니고, 아마 한 돌은 못 된 듯싶은데 머리털은 새까맣고, 눈동자는
파랗고, 살빛은 새하얀 어린애였다. 옥희 엄마는 그 어린것이 젖을 탐스럽게 먹
고 있는 모양을 귀엽게 들여다보다가.

“애기가……. 사내? 계집애?”

이 같이 물었다.

“사내.”

그 여자는 간단히 무표정한 채 대답한다.

“몇 살?”

“한 살.”

“아빠는 어데 갔어?”

“…….”

그 여자의 얼굴은 조금씩 조금씩 표정이 바뀌는 것 같더니 금세 깨끗하게 변해
버렸다.

“그만뒤요! 나쁜 사람이에요! 난 가요!”

그 여자는 빨리빨리 이렇게 세 마디를 지껄이고서, 다시 어린 것을 등 쪽으로
고쳐 업더니 그만 돌아서서 평하니 대문 밖으로 달아나가는 것이었다.

옥희 엄마는 마루 앞 뜰에서 있다가 멍하니 그 여자의 뒷모양을 바라만 보았
다.

‘아בל싸, 내가 잘못했나 보다……. 공연히 애기 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보았
지……?’

옥희 엄마는 이렇게 뉘우쳤다.

5

그 이튿날도 옥희 엄마는 들창문을 열고서 건너편 언덕 위를 바라보았으나,
그 미친 여자의 그림자는 발견할 수 없었다.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도록, 미친 여자의 그림자는 언덕 위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영희 엄마가 미친 여자의 소식을 전해왔다.

“요전에 옥희 엄마가 나한테 묻던 그 미친 여자 말야. …… 그 여자가 지금은
미아리에 있구나봐. ……어린애를 업고서 공동묘지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머라드라……. 오오, ‘할로 할로 유 나이스 해피 해피’……이런 소리를 하다가는
또 창가도 하고…… 그러고는 거울을 꺼내 들고서 제 얼굴을 비춰보면서 ‘미쓰
장 아이 엠’…… 이러다가……. ‘아이 꼬 투 스쿨’…… 이러기도 하고……. 뭐, 대중
없는 소리를 지껄이고 돌아다니는데요. 나 오늘 돈암동 조카네 집에 찾아갔다가
그 동네서 듣고 왔지.”

영희 엄마한테서 들은 이야기는 이러했다. 옥희 엄마는 그 말을 듣고서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미쳤구나! 그 여자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옥희 엄마는 자기에게 이렇게 물어 보았다. 그랬으나 거기 대한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 후 3년이 지나갔다.

옥희 엄마는 오늘 아침에도 들창문을 열고서 건너편 언덕 위를 바라보았다. 3년 전에는 여러 날 동안 으레 아카시아 나무 밑에 애기를 업은 젊은 여인을 보았건만, 그때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아침밥을 대접한 뒤로는 오늘날까지 그 여자를 못 보는 것이다.

‘오오, 해피. 오오, 해피.’

‘미쓰 장 아이 엠…….’

‘아이 꼬 투 스쿨…….’

옥희 엄마의 머릿속에서는 이 같은 영어 마디가 되생각되었다. 그와 동시에 그는 건너편 언덕 위로 올라가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조금 있다가 옥희 엄마는 언덕 위 아카시아나무 아래로 올라왔다.

바람이 썩 불어왔다.

익사귀 한 장도 남아있지 않은 아카시아나무 가지가 흔들거린다.

겨울의 아침 해가 조금씩 조금씩 따뜻한 햇빛을 쏟아주기 시작했다.

여기서 3년 전에는 그 눈동자 새파란 애기를 업고 있는 젊은 여자를 보았었는데……. 지금은 그 여자가 없어졌다. 미아리 공동묘지 가운데서 그 여자가 돌아다니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도 벌써 3년 전이니, 지금엔 그 여자가 살아 있는지 혹은 죽어서 없어졌는지, 그것도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 별안간 옥희 엄마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른다.

“순희야!”

옥희 엄마는 이때서야 비로소 ‘순희’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어서 불렀다. 그 동안 ‘6·25 사변’이래 8년 동안 그는 한 번도 자기의 큰딸 순희의 이름을 입 밖에 내어서 부른 일이 없다. 그것은 자기의 슬픔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결심을 굳게 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은 8년 전에 서울서 괴뢰군한테 합창대원으로 뽑혀 있다가 ‘9·28’ 직전에 이북으로 납치되어 간 순희 생각이 왈칫 솟아오른 것이다. 지금 그는 자기 딸 순희가 살아있는지 혹은 죽었는지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옥희 엄마는 지금은 소문도 못 듣는 그 미친 여자가 이북으로 납치되어 간 자기의 딸이라도 되는 것 같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잃어버린 미친 여자가 혹시 이북으로 납치된 순희의 변신이나 아닌가 하는, 이 같은 정신착란(精神錯亂)까지 일으켰다.

“순희야!”

옥희 엄마는 또 한 번 딸의 이름을 이같이 불러보고, 그만 힘없이 언덕 위에 주저앉았다. 그러나 그의 두 눈만은 북쪽 하늘을 향해 광채 있게 쏘아보고 있었다.

(107면에서 계속(繼續))

그의 질문은 그 버스가 중앙공원에 이르렀을 때 저절로 회답을 얻었다. 그들은 버스가 마침내 흑인들의 주거지역인 ‘하렘’에 이르자 예상한 대로 미국의 표면을 보았다는 듯이 일제히 무엇인가 속삭였다. 그러나 그들은 15층으로 되어 있는 방금 건설 중인 한 거대한 아파트를 보고 좀 못마땅해했다.

그 아파트는 놀랄 만큼 완전한 현대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깨끗한 정원도 마련되어 있었고 매우 싼 값으로 입주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역시 기술자라는 ‘알렉산더 로보레프’는 “정말 빈민굴은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다. 한 기자가 그곳을 가리키자 그는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으며 훨씬 더 추하고 심한 곳이 있을 터인데 하는 눈치였다. 제3번가에서는 몇 명의 주정뱅이들이 길바닥에 도사리고 앉아 있는 것이 보였으나 그들은 손가락질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뉴욕 구경에서 가장 보고 싶어한 곳은 월가였다. 그들의 버스가 월가의 어떤 주식거래소에 도착했을 때는 한참 바쁜 시간이었다. 그들이 소련인이라는 것이 알려지자 한 경관이 사람들을 헤쳐서 길을 열어주었다.

‘오를로프’는 “어째서 여기에 경찰이 와 있는가?”를 물었다. 그에 대해서 어떤 기자는 “사람들이 당신들에게 호기심을 느껴서 모여들기 때문에 경찰이 온 것이며 다른 날에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해주었다.

또 다른 소련인은 거래소 내에서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심장마비에 걸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를 물었으며 또 그런 때 파산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하고 질문했다. 그 거래소의 한 안내장이 “그런 사람은 오랫동안 한 사람도 없었다.”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었다.

장가는 잘 갔는데

염상섭(廉想涉)

1

“삼득이네, 메누리 보느라구 펍 지위가 진 모양야.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빛 투 성이라는구먼.”

“그래두 메누리아 잘 봤지. 그 아들 봐서는.”

“왜? 삼득이는 어떻게? 그저 벌이 구멍을 못 뚫어 걱정이지.”

동네 여편네들의 지나는 입담이었다. 삼득이 부모는 아들이 제대(除隊)하기 전부터 일러오던 혼처(婚處)를 제대가 되자 불이야 살이야 우겨대 장가를 들었던 것이다. 삼득이는 입이 헤벌어졌다. 제대해서 나가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걱정보다도, 장가는 언제 가 보게 되려나 하는 은근한 걱정이 앞을 서던 것인데, 이렇게 쉽사라……. 이런 고마운 일이 없다. 그나마 색시가 눈에 안 차도 할 수 없었을 텐데, 이거야 제 생각에도 좀 분에 과할 지경이니, 모두가 뜻밖이기도 했다.

“촌색시라더니, 아니, 서울 색시 외딴 치지 않겠나…….”

“게다가 바느질이 얹전하여 요새 아이론 기특하지! 해가지구 온 저고리가 모두 제 손으루 지은 거라니 말야……!”

아들 가진 동리 아낙네들은 누구나 부러워했다. 사실 바느질 솜씨뿐만 아니라, 음식 솜씨도 그만하면 구차한 집 며느리로서는 뽐혀 다닐 만하겠고, 시아버지까지 친구한테 며느리 본 인사를 받으면 자랑을 할 지경이었다. 그러나 온 집안이 뒤떠들고 이웃 간에 칭찬이 자자해야, 시누이들만은 피 했다. 뉘 집이나 예부터 시누이는 대개 그런 것이라 하지만 “누군 저만 못하기에!” 하고 입을 삐죽거릴 만큼 일에 칠칠하고, 입도 썩 시누이들이기는 했다. 다만 인물에는 큰소리를 못 쳤다.

시골에서 데려온 색시라 해도, 농사를 지어 봤을까, 문 밖에서 좀 떨어진 촌 정 거장거리에서 그래도 명색이 잡화상이라고 별리고 앉았는 집 외딸이니, 계모 밑에서 귀엽게 자라지는 못했을망정 국민학교도 제대로 마쳤고, 원체 살결이 희고 고우니 인물이 귀한 이 바닥에서야 한층 더 돋보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안존(安存)하니 성깔도 곱고 손재주가 있어서 얹전하다는 칭찬을 들어왔지만, 계모

밑이라 해서가 아니라 장사에 바쁜 집안이니, 어려서부터 제 옷은 제 손으로 꿰매 입어야 했고 동생들 치다꺼리며, 부러먹을 만큼 부러먹는 동안에 제 앞가림을 하게 된 것이었다.

“여보, 우리두 어떻게 키다리 영감 메누리만 한 건 얻어야 하지 않겠소?”

“딱한 소리는! 하필 키다리 영감 메누리가 맞인감? 먹을 것만 넉넉해 보우. 어떤 메누리감은 없겠기에!”

“허허허……. 메누리는 소대상이던가, 파 먹으러만 은답디까?”

이것은 뒷집 늙은 내외의 수작이었다.

“얼굴만 해반주그레하면, 그만이군? 메누리 봤다구, 빛 떼미에 올라앉았는데…….”

이 집 마누라는 삼득이 혼인에, 빛 지시를 해서 켓돈 만 환 한뫼를 끌어대준 것이, 이때껏 그대로 나자빠져 있기 때문에 화가 나서도 그렇지만, 삼십을 바라보는 삼득이 또래의 아들을 이때껏 짝을 못 채워주고 밤낮 버르고만 있는 처지니, 키다리 영감집이 썩도 나는 것이었다.

키다리 영감이란 삼득이 아버지 말이다. 환갑이 내일 모레라는데, 싱싱하니 후리후리한 키에 몸집이 우뚝뚝한 늙은이가, 날마다 저녁때면 왕십리에 나가서 채소를 한 차씩 잔뜩 받아다가는, 이 앞 시장에서 저녁나절과 이튿날 온종일 앉아서 푼거리로 파는 것이 생화다.

이런 살림에 며느리 보기가 아무리 급해도 좀체 엄두를 낼 수가 없는 일ियो, 한 식구 더 맡기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마침 농치기 아까운 자국이 나섰고, 삼득이도 제대만 돼서 나오면야 저 먹을 거야 못 별랴 하고 턱 민고 서둘러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별려놓은 일에, 받은 날짜가 있는 대사라, 어떻게든지 꾸려 대자니, 이턱 저턱 일할 번 돈을 쓴 것이 육칠만 환이나 빛을 지고 앉게 된 것이다. 그래도 며느리 본 것만 다행해서 한달에 육천 환이 넘는 이자만 물기에도 쪼쪼매면서도 그리 눈살은 찌푸리지 않았다. 늙은이 내외가 마주 앉으면 맨날 걱정이지만 그래도 걱정하던 보람은 있거니 싶었다.

삼득이는 장가를 들어서 좋고 날이 갈수록 정이 들어 방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할 지경이니, 어머니의 빛 걱정하는 소리를 들으면 송구스러워 못 견디겠고, 늙은 아버지가 새벽같이 나서는 것을 보면 따뜻한 자리 속에 누웠다가 전에 없이 죄 밑 같았다. 저녁때 채소밭에 가는 데만이라도 따라가서 거들고 싶지만, 그

것은 부친이 한사코 말리고, 군식구를 먹고 품삯을 주어가면서도, 전부터 데리고 다니던 아이에게 짐차를 끌러가지고 다니는 것이었다. 부친의 생각으로는 위의 두 자식 다 잃고, 단 하나 삼득이가 남은 것이 고마워서라도 그런 데에 끌고 다니기가 가없어서 그러는 것이요, 군대 가서 죽을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 후에도 몇 해를 고생하다가 간신히 나온 자식이니 좀 편히 쉬라는 것이었다.

“아버지, 한 식구 늘었으니 그 대신 한 식구 줄여야죠. 이젠 제가 나설 테니 그 앤 보내시죠.”

데리고 다니는 윤성이는, 잠만 제 집에서 자고 세 끼를 여기서 먹이는 터이니, 삼득이는 그렇게라도 해서 미안한 생각을 떨자는 것이다.

“걱정 마라. 먹으면 얼마나 먹겠니.”

한 식구 늘었다 해도 새 며느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겠느냐 말이다.

“넌 그저 어서 취직자리나 뚫어 봐. 너마저 ‘구루마’를 끌고 장거리에 나서는 꼴을 보라니? 윤성이 놈두 내가 내보내면 별안간 어디루 가라고.”

정이 들고 일의 묘리를 가르쳐서 쓸 만하게 된 윤성이를 내놓기도 아깝지만, 그보다도 애비의 직업을 자식에게까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일득이란 놈은 ‘6·25’ 통에 이북으로 붙들려 갔는지, 되지 못하게 빨갱이 물이 들어서 제 발로 걸어갔는지, 온데간데없이 없어지고 말았,고 이득이는 전사해 버렸으니, 태산 같이 믿는 것이 삼득이 하나다. 이 자식이나마 출세를 하여 달라는 것이 소원이라, 뭐 얼마동안 놀려두기로 아까울 것은 없다는 생각이다. 형세에 부치는 장가를 빚을 내가면서 시급히 들인 것도, 커가는 딸자식이 돌아나 되는데 무슨 일손이 부족해서 부려먹자는 생각이 아니라, 두 자식을 장가도 못 들이고 없앤 것이 한이 되어서도 그렇지만 어서 죽기 전에 손주새끼나 보고 싶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취직이라는 것이 말과 같이 쉬워야 말이지, 국민학교만 졸업한 것을 중학교 중퇴(中退) 쯤으로 꾸며서 이력서는 두 군데나 들여 놔지만, 벌써 몇 달이 되어도 결말이 날 것 같지 않다. 일선(一線)에 있을 때 시름시름 손에 익게 된 토공(土工)일이라면 조금은 자신이 있지만 그것으로 취직이란 우스운 말이요, 후방 근무로 들어와서는 서무(庶務)도 좀 해본 경험이 있고, 남 하는 대로 영어도 한동안 열심히 독습해서 중학교 삼학년 정도는 되었지만, 그 역시 건성건성이다. 부친이 허덕대고, 출세를 하여 달라고 믿는 것이 딱한 일이거나와 장가를 들여놓고 보니 몸은 점점 더 달아가고, 정이 쓸리니 어서 돈을 만지게 돼서 남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삼득이는 제대가 되기 전에는 민간에 나가면, 세상없어도 영어는 본격적으로 배워놓고 봐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었다. 지금 세상에 영어를 모르면 전 세상에서 일본 말을 모르고는 병신 구실을 하듯이 영어부터 해놓아야 생병신 노릇을 안 하겠거니 하는 짐작은 있었다. 그러나 집에 나와서 얼마동안 어렵어렵하다가 장가를 들고 엉뚱뚱하는 동안에, 그 결심마저 인제는 늦어져 버린 것이 후회도 난다. 생각다 못해 ‘타이프’라도 우선 배워볼까? …… 그러나 그까짓 자기의 영어 정도로는 헛수고만 할 것 같다. 속기(速記)를 배워볼까? 그것 역시 고등학교라도 나와서 어려운 문자를 적척 받아 써야 할 것 같은데, 제 정도썸의 상식으로는 될 성부를 것 같지 않아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다. 게다가 5~6년 동안 거센 일이나 하여 마디가 굵어지고 뻣뻣한 자기 손을 들여다 보면 ‘타이프’니 속기니 하는 것을 연습삼히 해낼 것 같지가 않다.

이럴 줄 알았다면 군대에 있는 동안에 무어나 민간에 나와서 직업이 될 만한 기술(技術)을 한 가지 배워두는 걸……. 일선에서야 그럴 틈도 없었지만, 후방 근무를 하는 동안에 야학이라도 해가면서 꼭 하나 배워 뒀더라면……. 그저 나가면 부모 그늘에 평평거리고 놀며 먹고 살 줄로만 알았던 듯이, 첫째 장가갈 생각만 하고 살아갈 도리를 차리려는 요량은 왜 못 했던지 후회가 난다.

‘그러기로 말하면, 군대에서는 왜 그런 지도방침이나 시설(施設)이 없었던고? 오랜 근무를 마치고 나와서 가뜩이나 어려운 취직에 어중된 나이로 갈 데가 없어 낙오자가 될 지경이니! 그야 이 지경을 일일이 돌봐줄 수 없어야 하겠지만…….’

지난 일이지만 이런 아쉬운 생각도 드는 것이었다.

2

“요셋 돈, 십만 환도 못 되는 걸 가지구…….”

누구나 이렇게 말은 희뜩하게 하지만, 없는 사람이 단돈 백 환은 수월하겠기에! 칠만 환 가까운 빚에 키다리 영감 내외는 몇 달을 두고 쪼들매던 끝에, 이 타개책(打開策)으로 삼득 어머니마저 장거리로 나셨다. 처음에는 된장, 고추장 퍼 내가기 시작했다. 솔솔히 재미가 쏠쏠아서 우선 뒷집 마누라가 지시해준 만 환 빚부터 꺼내갈 수가 있었지만, 간신히 집안 식구나 먹을 것을 남기고는 거덜이 나니까, 이번에는 떡장수로 개업을 했다. 마침 추석이 다가올 때라, 갖은 송편에 시루

떡을 해 내가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시루떡을 안치고 김이 오르는 동안에 시누 올
개 셋이 송편을 후딱 빚는 것인데 오라범떡의 빚는 솜씨가 이쁘지 않다느니 너무
밟진다느니 해 몰아대면, 시어머니는

“애, 좀 큰 것두 있어야 섞어두 주구 잘 팔린단다.”

하고 시어머니가 넌지시 새 며느리를 짜주는 것이었다. 딸들은 그것이 못마땅
해서, 송편 시루를 꺼내고 물에 씻고 하려면 오밤중이 지나 동 틀 머리까지 걸리
기가 일쑤인데, 모른 척하고 오라범떡한테만 쓸어 맡겨놓고 씹씩들 자버리는 것
이었다. 시어머니야 늙은이가 종일 장에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송편 시루까지 안
쳐주고 들어가면 인사정신 모르고 코를 고는 것도 무리가 아니요, 또 날이 새면
어둑하니 나갈 사람이니 아무쪼록 자게 내버려두어야 했다.

“어서 들어가 좀 눈을 붙여요.”

삼득이가 한 차례 자고 나와서, 교대를 하여 부엌 아궁이 앞에 웅크리고 앉아
서 김이 오르는 떡시루를 지키고, 송편을 내외가 마주앉아 씻고 하는 것이지만
한두 번은 재미가 나다가도,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무어기에 이런 호된 별을
서야 하는 것인가 하고 어이가 없기도 했다. 하지만 저희들 혼인 때문에 늙은 어
머니가 떡 목판을 이고 나선 것을 생각하면 단잠쯤 밀지는 것은 신정지초(新情之
初)의 재미로 여겨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오라범떡보다도 오라범이, 더 누이들이 알뜰고 야속하다고 토라졌다.
아직 나이 어리고, 반지빠른 때가 돼서 그렇겠지만, 그렇게 오빠 오빠 하고 따르
고, 영등(靈登)같이 시중을 들던 누이들이 아랫방 두 식구를 아주 돌려내는 눈치
를 보면, 인제는 입자가 말아 갔으니 난 모른다는 시기 비슷하기도 하고, 내가 별
지를 못하니까 넘보고 그러는구나 하는 고까운 생각에 삼득이는 바르르 하며 귀
한 색시를 부려 먹으려만 드는가 싶어 은근히 계집 역성을 드는 것이었다. 누구
나 이 집에 톱 들어서면 무색옷을 곱다랗게 입은 이쁜 색시를 보고 집안이 금새
환해진 것 같다 하며, 며느리 잘 봤구먼! 집안이 늘겠구먼! 하고 덕담을 하는데 어
째서 집안 식구들은 지지고 볶고 위통위통한지 알 수 없는 노릇이라고, 삼득이는
짜증이 나기도 했다.

어느 날인가 올케가 점심을 차려다 놓으니까, 안방에 자빠져서 조잘대던 두 계
집애가 마루로 나와서 상에 앉으며 큰아이 길레가

“아이, 반찬두 없는데 난 밥 먹구 싶지 않아. 나 물 좀 떠다 주우.”

하고 짜증을 내는데 뒤 달아서, 동생 명례는 김칫국을 떠 먹어보고는
“앵, 벌써 시어졌네. 날이 더운데 물에 좀 채놀 일이지.”

하고 눈살을 찌푸렸다.

올케는 물을 떠다가 놓으면서

“어디 오늘은 먹을 물이나 있습니까? 우물 물 아니면 채농기루 뵈 하우.”

하고 변명을 했다.

“오빠더러 좀 길어다 달래지!”

“오빠 물장수든? 왜, 너 좀 길어다가 네 손으루 채워놓진 못하니?”

아랫방에서 삼득이가 올라오면서 핀둥이를 주었다.

“우리가 물을 길으면 오빠 헐 일이 없어 심심해 어찌라구? 호호호.”

“고맙다! 내 사정까지 봐 줘서. 그래 너이 하는 일은 푸지게 잠이나 자는 거냐?
잠 귀신에 걸렸니? 웬 잠들은 그렇게 많으냐?”

삼득이는 쏘아 주었다. 그놈의 송편 때문에 날마다 잠이 부족한 내외요, 낮잠
도 마음 놓고 자지 못하는 색시가 가없어서 하는 말이다. 어머니가 장에 나가게
된 뒤부터는 부엌일까지, 만만하니 오라범떡에게 쓸어 맡겨놓고 저희는 입만 놀
리고 앉았는 것이 못마땅했다.

지금도 눈을 좀 붙였다가 고단해 못 견디어 하면서도 점심을 차리러 일어나기
에, 저희끼리 차려 먹으리지 하고 더 재우려 했건만, 아직도 스스러운 조심성을,
더구나 뒷말이 무서워서 부엌에 내려가 밥상을 차려다가 바친 것이다.

“살찐 놈 따라 붓던가? 쏟아지는 잠이나 실킨 자구 봐야지. 잠두 아껴서 절약
하면 빛 갚게 되던감!”

“입은 까서!”

삼득이는 또 그 빛 노래에 더 발끈해서 곧 손이 올라가려는 것을 참으며

“흥, 넌 몸종이나 하나 데려다 놓구, 열 손가락에 물만 튀기면 그만이나? 별안
간 그렇게 팔자가 늘어지게 됐는진 모르겠지만, 물을 떠 바쳐라, 김치가 시어져서
못 잡숴겠다……. 웬 아니꼬운 수작야?”

쌍엇던 울화와 불평이 그예 터지고 말았다.

“이건 더럽게 뭐야? 색시 역성이나 들구! 어머니가 아셨단 보라…….”

“요년, 말이라면 다 하는 줄 아니? 역성을 들면 어때?”

귀여우니까 역성도 드는 것이요, 마음대로 못 해주고 고생시키는 것이 안됐다

는 위로 삼아서도 타놓고 싸고도는 것이다.

“어렵쇼. 장가가더니 환장을 했구먼! 저 반했으면 반했지, 뉘게 지다원가?”

점점 철없는 어린 누이의 말버릇은 사나워지고, 길례는 동생 역성을 드느라고 오래비를 흘려 보던 눈을 을케에게로 돌린다. 점순이(삼득이 처)는 그 눈길을 피해 외면을 했다. 망단(妄斷)은 하나 남편의 말이 고맙고 속이 시원했다.

“아니, 왜들 이러니?”

어머니가 목판에 커다란 빈 양재기를 얹어 이고 들어오며 소리를 친다. 오늘은 떡이 후딱 나가서 일찍 들어온 것이다.

“꽤나 우리더러 물 안 긴구 부엌일 안 한다구 생트집이라우.”

“그럼, 옳은 말이지 뭐냐? 이년들아 에미는 이꼴루 쪼쪼거리구 눈이 뒤집혀 다 니는데, 배지껏 처먹구 콧노래나 부르며 자빠졌으면 수냐?”

어머니는 한바탕 딸들을 몰아대고 나서, 치마 밑을 훔쳐훔쳐하더니 이쁘다란 크림병 하나를 꺼내서 며느리에게 주며

“이건 좀 저번 거보다 좋다더라.”

하고 금시로 신기가 풀린 목소리다. 요새 장사에 한참 재미를 보기도 하거니와, 떡 해내기에 수고했다는 상급(賞給)이다. 제 남편이 못 버는 대신에, 용돈을 알겨서 툼툼이 화장품을 사다가 주는 것이지만, 이런 것으로나 마음을 붙이려는 것이다.

“아, 언니 벌써 떨어졌어? 크림만 쓰든감? 우린 한 병 가지구 들어서 쓰구두 아직 남았는데.”

명례가 또 입 째 소리를 한다. 언제나 두 병 사다가 며느리는 한 병을 주고, 형제의 몫으로 하나밖에 차례가 안오는 것이 불평인데, 이번에는 그나마 빠질 차례니 두 계집애는 눈에 쌍심지가 솟았다.

“위엄이 느러졌군!”

길례가 비아냥댄다.

“입 좀 닫치구 있어. 위엄이 느러지지 않으면, 너희 녀은 육간대청에서 스란치 마를 느리구 있질 못해 걱정이나? 네간 년들은 서방 맞아 가면 고만이지! 내가 죽을 때 물이라두 한술 떠 넣어줄 사람은 새형밖에 더 있다던.”

이해타산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며느리가 마음에 드니 듣기 좋은 소리만 나오는 것이다.

3

문안 들어온 길에 들렀다고 친정어머니가 와서, 점순이의 얼굴이 까칠하고 눈이 건너질린 것을 보고

“너 웬일이냐? 밥이나 잘 먹니?”

하고 깜짝 놀란다. 생각했더니 보다 살림이 어렵고, 사위가 그저 놓고 있으니 밥이나 굶지 않느냐는 말을 옆에 사위가 들으니까 입덧이 났느냐는 듯이 묻는 것이었다.

“아녜요. 요새 잠이 부족해서 입맛이 좀 제쳐지긴 했지만…….”

“입덧 난 게 아니면 다행이지! 그런데 잠은 왜 못 자니? 그 한참 포동포동하던 얼굴이 어찌면 저렇게 못 됐단 말이나?”

배가 다른 자식이라 해도 이렇게 남의 집에 내어놓고 보니 기른 정을 알겠다. 판엔 혼인 갓 해서는 토실토실 더 귀여워서 시집살이 올랐다고들 했었다. 삼득이는 입덧이 안 난 것이 다행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의아하면서, 점순이가 왜 잠을 못 자느냐는 말에 선뜻 대답을 못 하고 남편의 눈치만 보는 듯싶기에, 자기네끼리 시원히 이야기하라고 자리를 뜨려니까, 장모는 걱정이나 해주듯이

“자네두 어서 일을 부들어야지. 저렇게 놀구 있어 어찌냐?”

하고 인제는 떨미가 나는 그 듣기 싫은 인사를 꺼내며 얼굴을 찌푸린다. 무직이나 실직이 삼득이의 경우에는 사기죄(詐欺罪) 만큼 되기도 했다. 판엔 먹여 살린 언덕거리도 재주도 없이 먹여 살린다고 부도수표(不渡手票)를 떼어준 셈이오, 혼인을 하면 무슨 큰 수나 나는 듯이, 중매 든 사람이 인제 곧 취직한다고 높직한 감투나 쓸 것처럼 허풍을 떨어 놓았던 것이다.

“응? 아주 떡 목판을 이구 나셨단 말야? 그런 집안인 줄은 몰랐구나.”

점순이가 잠 못 자는 이야기를 하자니까, 시집 흥 보자는 것은 아니나 자연 털어놓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어머니는 눈이 뚱그라지며 눈살을 찌푸려 보인다.

“그럴 줄은 몰랐구나. 아버지가 들어보셔라, 그러지 않아두 속아서 혼인했다구 특하면 화를 내시구 데려오라구 야단이신데…….”

데려 오라고야 했을까? 어머니 말에는 좀 보탬도 있기는 하지만, 첫째는 고리대금을 써가며 혼인을 했다는 데에 놀랐고, 사위가 벌써 반년이 되어도 빈둥빈둥 노는 데 실망을 한 것이요, 그러자니 흥이 자꾸 드러나서, 혼인 이를 때 말이 사돈 영감이 등대문 시장에서 점포(店鋪)는 갖지 않았어도 큼직하게 채소장수를 한다기

에 도매로 넘기는 그런 것이려니 했는데, 알고 본즉 지계를 지고 나서서, “무드령 서, 배추드령 서.” 하지만 앓을 뿐이지 이거야 장돌뱅이보다도 더하다고, 자기네 보다 지체가 떨어져서 사돈으로서 창피하고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다. 남들이 탐하는 귀한 딸을 줄 데가 없어 배추장수 떡장수 집에 주었겠느냐고 분해하는 것이다.

“그리구 보니, 그 특무상사(特務上士)란 것두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혼인 이틀째 신랑의 직업은 특무상사라고 했던 것이기에 말이다.

점순이는 남편 대신 자기나 수죄(數罪)나 받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 어머니 말이 옳기야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놓고 있는 것만 혐이지 무슨 죄가 있는가? 하는 것이요, 시어머니도 친어머니보다 더 고맙게 굴고 귀여워하니 어느새 정이 붙어서 시집 쪽을 너무 할어대는 것이 듣기 싫기도 했다.

“나하구 가자. 사람이 잠이나 편히 제대루 자야지. 자식이 달렸니? 팔려 온 종이란 말이야?”

그 말에 점순이는 깜짝 놀랐다. 아이 서는 것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하던 어머니 말이 인제야 짐작이 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위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짐으로 가자는 말이 아주 떴놓고 헤어지라는 말 같이 들려서 겁이 펴져 났다. 난 어머니(生母)가 아니니만치, 위해 주는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어머니, 가길 어딜 가요. 그런 소리 마세요.”

남편두 두둔하는 것 같고, 서방을 떨어지기가 싫어서 그러는가 싶어 할까 봐서 점순이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속으로 끌어들이는 소리를 한마디 했다.

“본가에 좀 쉬러 간다기루 대수냐?”

“내가 가면 떡은 누가 하게요?”

“아니, 떡 방아꾼 같은 딸들은 두었다가 뭘 한다던? 널 뭘 종으루 식모루 내어줬다던?”

어머니는 또 펄쩍 뛰었다. 그것도 점순이에게는 고마운 말이기도 했다. 그러나 점순이는 남편을 혼자만 쓸쓸히 내버려 두고 가기가 가엾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가 가면 시누이들이 일을 다잡아 할 것이니 남편을 쉬게 하기 위해서는, 친정에 며칠 가 있다가 오는 것이 해롭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친정어머니는 사돈 마누라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안 계셔서 자네 처를 데리구 가진 못하지만, 내일이라두 자네가 데리구 오게. 사람이 잠을 자야지. 하루 이틀 아니구, 어린 게 그게 할 노릇인가?”

하며 사위에게 일러놓고 돌아갔다. 장모의 말이 틀린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통명스러운 어투가 듣기 싫어서 삼득이는 그저 좋은 낫으로 배움을 하고 나니 어깨가 거뜨하고 시원하였다.

“내가 거길 왜 또 갈 듯싶은구!”

삼득이는 잊었던 분이 다시 치밀어 오르는 것이었다. 지지난 달 일이다. 장모 생일이라고 하여 없는 돈에 민어에 고기에 술 한 병까지 얹어서, 내외가 킁킁 때며 들고 이른 아침에 인사를 갔더니, 친정 조카사위라는 젊은 애가 아랫목에 떡 버티고 앉았는 것도 첫눈에 틀렸는데, 밥상을 받을 때도 그 애는 그대로 앉혀두고 정작 이집 사위는 맛 겸상의 아랫목 쪽으로 앉게 내버려두는 것이었다. 나이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그래 백 년 손인 이집 사위를 이렇게 홀대를 하는가 하고 삼득이는 심사가 틀렸지만, 견어차고 나설 수도 없어 그대로 앉아서 밥술을 들었던 것이다. 저편은 그때 한참 유행이던 ‘미카오’ 양복에 금시계가 팔뚝에서 번질거리는데, 이편은 혼인 때 처가에서 양복 한 벌도 해주지 않고 관대 벗김으로 조선 옷 한 벌만 얻어 입고 우물쭈물 지냈기 때문에, 초라하게 군대 바지에 ‘노타이’만 입고 갔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때부터 삼득이는 장모가 싫었고, 이 쌍놈의 집! 다시는 안 오리라고 결심으로 했던 것이다. 그래도 색시만은 좋으니 이때껏 그때 말은 입 밖에도 내지를 않았다. 그야 취직이나 하고, 기를 쓰고 벌어서 팔뚝시계라도 하나 장만하고 산뜻한 양복을 입게 된다면 별문제이지만.

그래도 그 이튿날은 못 보냈지만, 이튿 이튿날 삼득이는 제 처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리고 나가서 본가로 보냈다. 그것도 본가에서 쉬러 보내 달라는 것을 모른 척하고 있을 수가 없다고 시어머니가 서둘러서 보내게 된 것이다. 삼득이 어머니 생각에도 며느리를 너무 부러먹은 것 같기도 하거니와 그동안에 아들을 쉬게 하여 잠을 실컷 자게 하여 두고 싶었던 것이요, 그녀의 말썽만 부리는 딸자식들을 얼마동안 부러먹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며느리가 친정에 가더니 닷새, 열흘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이었다. 영감, 마누라는 꽤썸하다느니, 안 보내는 어른이 틀린다느니 말이 많았지만 삼득이는 의심이 부쩍 들고 보고 싶은 마음 같아서는 곧 뛰어가서 끌고 오고 싶은 것을 끌쩍 참아 버렸다. 모친이 좀 가보라고 해도 머리를 내어들렸다. 어쩌나 꼴을 보자는 생각도 없지 않았으나 결국 명례를 보내서 데려왔다. 앉았다는 것이었다. 열흘 넘어나 홀아비로 지내느라고 잔뜩 부아가 났던 삼득이는, 한참 토라져보다가

그래도 귀여운 색시라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래, 그동안 뭘 하구 있었어?”

“뭘 하긴 뭘 해. 지친 끝에 몸살도 났지만, 어머니가 자꾸 부들어서……. 우동 가게를 또 낸다나. 나더러 부덕부덕 그걸 거들라는구만…….”

그 말에 삼득이는 선뜻한 불길한 예감(豫感)이 들어 눈이 뚱그래지며

“우동장수라니?”

하고 채쳐 물었다.

“차차 날이 추워지면 따뜻한 우동장수가 내이(大利)라는데, 자기가 벌일 테니 같이 거들면 이익은 반반씩 하자구. 당신 담배값이라두 댈 수 있지 않느냐는 거야. 좋지 않아? 담배값커녕 모아서 어머니 빚 갚아 드리면 실상은 어머니 빚이 아니라 우리 빚이지 뭐야?”

그 말이 고마워서 삼득이는 이런 때처럼 점순이가 귀여운 때가 없었다. 가슴은 도리어 갑갑할 지경이었으나, 잠자코 꼭 끼어 안으니 속이 시원해지며 전신이 확 풀려졌다.

또 그러나 의심이 부쩍 나서

“탄소리 말어.”

하고 안겼는 색시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치를 살폈다.

“그럼 어떻게? 당신 못 벌면 내라두 벌어야지. 어머니는 너 같으면, 서울 가서 약삭빨리 놀기만 하면, 한 달에 오만 환 십만 환쯤야 문제 없던데?”

아무리 계모기로 딸자식을 꼬여내고 충동이는 말눈치니 아무리 배지 못했기로 그럴 법이 있나 하고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그래, 그렇게 해볼 작정야?”

“으응!”

하고 점순이가 어린애 응석처럼 열정적으로 힘 있게 도리질을 하는 바람에, 삼득이는 또 한 번 안해를 힘차게 끼어 주면서 행복한 자기를 느꼈다.

그러나 생각할수록 장모가 괴씸하다.

‘저번에 왔을 때 가장 딸이나 위하는 듯이 얼렁거리는 것부터 눈치가 다르더라니! 세상이 꺼꾸루 돼두 분수가 있지, 젊은 게 허영에 떠서 돈 없는 놈 알게 뭐냐고 걷어차구 바람이 난대두 말려야 할 텐데, 딸자식을 명동거리로 꼬여내서 팔아를 먹겠단 말야? 갈보를 만드는 게 소원이란 말야?’

삼득이는 당장 처가로 뛰어가서 한바탕 들썩놓고 싶으나, 그랬다가 점순이가 노해서 정만 버드러질까 무서워서 참아 버렸다. 그건 고사하고 눈의 안경으로 본 탓이지만 탄엔 점순이만 하면야 한다하는 일류 요릿집에 내놓더라도 당장 어느 놈에게든지 휘어 넘어갈 것만 같아서 겁이 더러웠다. 삼득이는 정말 너 그럴 테냐? 고 물어 보듯이 점순이의 방그레 웃는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는, 하 어 처구니가 없어 꺾꺾 헛웃음을 쳐버렸다.

“왜 그래?”

점순이는 오랜만에 남편 무릎에 안긴 것만이 좋아서 눈을 게슴츠레 감으며 생글 웃는다.

4

구월달 들어서 며느리가 입덧이 나는 눈치에, 영감 마누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좋아서 수군거리고, 삼득이도 달아나는 계집의 발목이나 붙든 듯이 마음이 툭 놓이는 듯싶었다. 무엇인지 눈에 안 보이는 유혹의 손길이 어린 안해의 몸을 싸고 도는 듯한 불안에 시달리던 삼득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그동안에도 두어 차례나 친정어머니가 문안 들어 왔던 길이라고 와서는 수군거리고 가는 것이 불쾌하고 의심쩍어서 실없는 말처럼

“아직두 우동장수 할 공론야? 명동거리로 진출할 음모야?”

하고 속을 떠 보면, 점순이는 펄쩍 뛰는 것도 아니요, 어정정한 낮빛으로

“객설 말아요.”

하고 신웃음만 치는 것이었다. 그러던 것이 태기가 있는 뒤부터는 본가 불이가 일절 얼씬도 않게 되었으니, 삼득이는 인제는 마음이 놓이는 것이었다. 시아버지의 엄명으로 이후로는 떡에는 손을 대지도 못하게 한 것도 또 한 가지 다행한 일이었다.

그중에도 눈이 번쩍 될 일은 삼득이가 풀려나가게 된 것이었다. 큼직하게 창성 방직(昌盛紡織)에서 채용한다고 엮서 한 장이 날라들어 왔을 때, 온 집안이 큰 수나 난 듯이 떠들썩하고 좋아하던 양이라니! 새댁 - 인제는 배도 눈에 뭘 만지 볼렀으니 새댁이라기도 서투르지만 - 점순이는 남편의 얼굴이 새삼스레 신통한 듯이 말끄러미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래, 무슨 일을 맡게 됐니?”

회사에 갔다 오던 첫날 부친이 물으니까.

“총무과예요.”

하는 아들의 대답에 영감은 우선 사무원으로 채용되었다는 것만 해도 큰 출세가 아니냐고 가문에 없던 일이라고 신바람이 나서 했다. 점순이도 친정에 가서 창성방직회사 사원이 된 남편 자랑을 하고 시집 간 뒤에 처음으로 큰소리를 쳤다. 친정아버지가 사위의 일에 웃어보이는 것도 처음 보았다. 그러나 웬일인지 어머니만은 입으로는 ‘아이, 고마워라!’ 하고 반기면서도 입귀가 배쪽 일그러졌었다. 그런데 삼득이가 회사에 나가기 시작한 지 불과 열흘도 못 되어서다.

친정어머니가 오랜만에 부리나케 오더니 첫 인사가 무슨 큰일이나 발견한 듯이 “애, 사무원이 뭐냐? 수위(守衛)라더라. 문지기래!”

하고 딸에게 소곤거리는 것이었다. 점순이는 좀 서운하기는 했으나, 수위거나 문지기거나 하여간에 삼만 환 월급이 들어올 것은 확실하니 그것을 생각해도 느긋해서, 해 하고 선웃음만 쳤다. 계모는 딸의 얼굴에 아무 반응(反應)이 없는 것을 보자

“아버지께서는 코웃음을 치시더라. 그러면 그렇지, 제가 웬 어엿한 사무원 재목이나 된단데. 그나마 며칠이나 부지할지 누가 아니! 하구 펍 털 좋아 하시더라.”

하며, 아버지를 팔고서 하는 말인지, 박박 소리가 나도록 짖는 것이었다. 남편이 들을까 무섭고, 아들이 문지기라는 말을 시아버지나 들으면 얼마나 낙심할까 싶어 입 밖에 내지도 않았다. 남편에게도 당자가 무안쩍어 할 것 같아서 물어보지를 못했다. 그러나 어느 날 무슨 말 끝인지 시아버지가

“흥, 고작 그거야?”

하고 낙심이 된 소리를 하더니

“별 수 있니! 배추 장수 자식이! 애비를 잘못 만나 그렇지.”

하고 꺾꺾 웃는 소리가 안마루에서 나는 것이었다. 점순이도 제 팔자에 문지기 남편밖에 차례에 안 오는가 싶어 별로 불평은 없었다.

그러나 점순이는 그 소문의 출처가 어딘지, 시아버지는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해했는데, 남편이 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못되어서 친정어머니의 조카사위가 찾아갔더라란 말을 남편에게 나중에 듣고 생각해보니 짐작할 수가 있었다. 처갓집 장모 생일밥을 먹으러 갔다가 와서 반지빠른 자식이라고 못 먹어하던 외사촌동생의 남편을 만났다는 것이다. 가서 염탐을 해보라고 친정어머니가 시켰던 것인지, 정말 무슨 기밀 일이 있어 청을 하러 갔었던지는 모르겠으나, 삼득

이는 시퍼런 수위복(守衛服)에 학생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문을 지키고 섰다가 딱 마주치니 창피하여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 회사에는 관청처럼 수위의 정복이 있었던 것이다. 청을 하러 갔던 사람도 수위쯤이면야 어이가 없어서 말도 붙여보지 않고 돌아갔겠지만, 대관절 친정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그 반지빠른 애를 내세워서 뒤를 캐어보려 들었던지 자다가 생각해도 모를 일이다. 친정어머니가 부리나케 찾아와서, 듣고 싶다는 이야기도 아닌 ‘문지기래, 문지기래.’ 하는 소리를 들려준 것만 봐도 분명 그 농간일 텐데, 시아버지가 알게 된 것은, 그때 명례가 창밖에서 엿듣고 있다가 일러바친 것이었다.

그런데 또 하나 기 막히는 일이 청천벽력 같이 생겼다. 창성방직에 들어간 자가 겨우 이십일 남짓이나 되었을까? 그날이 마침 삼득이가 숙직이었는데 수가 사나우려니까 밤중도 아닌 초저녁에 도난사건이 생겨서 삼득이는 경찰서로 불려 다니고 한바탕 법석이 났었다. 하필 그날은 중역회의가 있어서 날이 저물도록 질질 끌었는데, 사장실로부터 각 중역의 방에 걸어놓은 외투와 모자를 깡그리 잃어버렸다. 외투가 한두 벌도 아니요 십여 벌이나 되니, 도둑은 좀도둑이라 해도 한두놈의 짓이 아닐 것이요, 물건은 담 너머로 넘겨서 저희끼리 릴레이식으로 날라 갔다 하더라도 애초에 들어올 제는 앞문으로 들어왔을 것이니, 도대체 수위는 등신 아니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것이다. 제대병이라 해서 특별히 수위로 채용한 것인데 들어오는 말에 이런 사고를 냈으니 총무과장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도둑놈들과 내통을 하여 함부로 끌어들이는 것이나 아니냐는 의심까지 뒤집어 쓰고서 이리 끌려 다니고 저리 불려 다닌 끝에, 한 달 치도 못 되는 월급만 받아 들고 파면이 되어 쫓겨나고 말았다. 그나마 인정 써서 준 것이요, 유치장 신세를 지지 않은 것만 다행이었다.

점순이는 며칠을 두고 끽끔 혼자 앓고 다니던 남편이, 싸가지고 간 점심도 안 먹고 풀이 죽어서 돌아오는 꼴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 앉았다. 처음 가게 되었을 제 너무 수선들을 떨어서인지, 오랜만에 얼마동안 명랑해졌던 집안이 또다시 음울해지고 맥들이 풀려서 쓸쓸했다.

친정어머니는 무슨 까닭인지 그거 봐라는 낯빛으로 또 달겨들기 시작했다. 삼득이의 불안에 싸인 얼굴은 으드등 찌푸러지고 점순이의 눈자위는 친정어머니가 한참, 드나들던 때처럼 허공에 떠서 무엇인지를 곰곰 생각하는 표정으로 얼굴빛이 달라갔다.

종착역 부근(終着驛附近)

김이석(金利錫)

옛날부터 가을은 등화가친(燈火可親)이라 하여 독서의 계절이라고 한다. 물론 나도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가끔 만나는 친구들이 이번 가을에는 부지런을 피워 공부를 좀 하겠다는 그런 결심을 보여줄 땐 부럽기도 하다. 그러면서도 나는 요즘 같이 날씨가 좋은 날에 집구석에서 책이나 펼치고 앉아 있는 것은 무슨 손해나 보는 것 같은 기분이다. 말하자면 가을과 함께 나의 타성(惰性)이 움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실상 나는 며칠째 써야 할 원고가 밀리고 있으면서도 원고를 쓴다고 책상에 마주 앉아서는 현 잡지만 뒤적이다가 기어이 무슨 핑계를 찾아내고는 거리로 나온다. 마치도 공부를 못 하는 애가 연필만 쥐고 있다가 아버지의 눈을 피해 빠져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다. 그렇다고 거리로 나와 일을 보고서는 곧 집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노여난 아이처럼 나도 노여난 대로 하잘 것도 없이 혼자서 거리를 싸다니기가 일쑤다. 때로는 영등포 쪽으로 나가서 영마전을 기웃거리려 보기도 하고 때로는 왕십리 쪽으로 나가서 맹물 같은 커피에 입맛을 다시고서는 뒤떨어진 영화에 눈물을 흘려 보기도 한다. 이렇게도 어이없게 시간을 보내노라면 자연 날도 저물게 된다. 그러면 어느 술집으로 찾아들어가 낯선 손님들에게 끼워서 대포를 한 잔 들이킨다. 한 잔이 두 잔이 될 수도 있고 석 잔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술기운에 골격이 부드러워지면 공연히 장해진 것이나 같아, 분수 없게도 사치를 부려보고 싶어진다. 허나 사치를 부려보고 싶어야 별 수 없는 노릇이다. 고작 노점에서 포도나 한 송이 사는 일이다. 그것을 한 알 한 알 떼어 먹으며 돌아오노라면 입안엔 이상한 촉감이 느껴진다. 약간 마음도 달떠지는 듯한 싫지 않은 촉감이다.

오늘도 또 나는 거리로 나왔다. 잉크가 떨어졌다는 핑계로 나온 것이다. 잉크나 사자면 골목 어귀에 있는 구멍가게에서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척하고 나는 광화문 네거리까지 나왔다. 그리고는 나도 교통순경이나 되는 것처럼 그 한복판에 서서 오늘은 어디로나 나가볼까 하고 잠시 생각했다. 그곳은 사통오달 되는 것이므로 어디라고 정해지지를 았았다. 그러면서 어느 덧 잉크를 산다는 생각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불광동으로 나가는 버스를 탔다.

며칠 전에 어느 친구가

“자네도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만 살겠나. 요새 불광동에 후생주택을 많이 짓는 모양인데, 그 집이나 한 채 마련해서 살림을 갖게나.”

하고 나를 생각해서 말해주던 것이 문득 생각났기 때문이었다.

실상 나는 일사후퇴 때에 북에서 혼자 나와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다.

그동안 나는 하숙이 싫어지면 자취도 하고, 자취가 싫어지면 하숙도 하고 그러면서 언제나 개킬 줄 모르는 이불 속에서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살아왔다. 환도 후엔 다행히도 그 대중 잡지나마 쏟아져 나와 나의 무딘 붓끝으로도 나의 입만은 어떻게 먹어나 갈 수가 있었다. 피난 나와서 하수도의 소지부도 되어 본 기억이 있는 나로서는 되지 않은 소설이나 내 마음대로 써가지고서 하여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눈물이 나리만큼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웃에 대한 신경도 없어졌고, 사나흘이나 되어 굳어진 빵도 태연스럽게 깨물고 있는 나다. 그렇다고 돈을 굳혀 싸둔 것도 아니다. 내 주머니는 한 달 전도 일 년 전도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가벼웠고, 모름지기 한 달 후나 일 년 후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벼울 것이다. 그러한 내가 불광동으로 후생주택 지역을 가볼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나로서도 정말 알 수 없는 이상스러운 일이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맞아줘 시중을 들어주겠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나마의 집도 마련할 주변이 있는 것도 아닌 나로서 무엇 하자고 집을 보러 갈 생각이 났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역시 그곳도 나의 가을의 타성으로 끌려간 노릇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불광동에는 수백 채의 같은 집들이 줄을 지어 질서정연하게 들어차 있었다. 저편 맞은편엔 역시 같은 집을 한참 짓고 있는 것도 보였다. 아마 내 친구는 그 짓는 집을 얻으라고 일러준 모양이었다.

나는 후생주택들이 들어 있는 골목길로 들어서서 어느 집을 찾듯이 이집 저집을 기웃거렸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똑같아 보였으나 역시 조금씩은 달랐다. 무엇보다도 우선 현관에 달린 문패의 이름이 달랐고, 호수가 달랐다. 울타리를 한 집도 있고 안 한 집도 있었다. 뜰도 역시 조금씩은 달라 다알리아가 있는 뜰도 있고 코스모스가 얼켜진 뜰도 있었다. 장독대를 자랑하는 집도 있고 계사가 눈에 띄는 집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싸전도 이발소도 구멍가게도 그리고 약방과 병원까지도 있었다.

나는 그러한 집을 하나하나 찾아내는 것이 신기한 발견이나 하는 것처럼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돌아다니고 있을 때, 어떤 젊은 청년이 가던 길을 멈추고서

“몇 호를 찾습니까?”

하고 친절하게 물었다. 나는 대답에 궁한 채 서성거리다가

“백삼 호가 어디쯤 되는가요?”

하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물었다.

“백삼 호라면 저 동쪽 옆일 것입니다.”

하고 그는 가르쳐 줬다. 나는 무슨 잘못에서 벗어난 기분으로 동쪽을 넘어 별로 나왔다.

언덕 아래로 논과 밭이 뒤섞인 벌에는 낱알들이 벌써 누렇게 익기 시작했다. 그곳에는 군데군데 허제비들이 서 있었다. 허제비는 물론 새를 쫓기 위해서 세웠을 것이다. 그러나 새들은 그것이 서 있건 말건, 때를 지어 몰려와서 낱알을 쪼아 먹었다. 그래도 허제비는 한 몫 하는 셈으로 바가지를 눌러 쓰고 팔을 잔뜩 벌리고 서 있었다. 그것이 우습기도 한 한편 가련한 생각도 들며 어떻게 생각하면 나와 비슷한 생각도 들었다. 나는 돌을 던져 새들을 날리면서 아직도 햇볕은 따갑다 해도 견딜 만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풀밭에 누어서 그 햇볕을 즐기다가 해가 저물 무렵에야 버스 종점으로 내려왔다. 그리고는 여기 어디 술집이 없는가고 찾다가 아직 불도 켜놓지 않은 술집으로 들어가 앉았다.

안주란 마른 북어밖에 없다고 한다. 나는 그것을 찢어가며 대포를 마시고 있을 때,

“하여간 여기 들어가 한 잔 합세.”

하면서 오십쯤 난 영감이 삼십쯤 난 키가 작달막한 청년을 끌고 들어왔다. 말투가 나와 한 고향인 평안도였다. 그들은 내 앞자리에 앉으면서 나와 마찬가지로 소주를 한 잔씩 부어 달랬다.

“그래, 어떻게 되었어?”

영감은 주인아주머니가 술잔을 갖다놓기 전에 그런 말부터 먼저 꺼내었다.

“어떻게 되긴요. 정만 난 아주반일 이런 데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젊은이는 반가워 서두는 말투였다.

“글쎄 말야. 죽지 않으면 다 만날 수 있는 모양이네. 이렇게도 우연히 만날 수 있을 줄야.”

역시 영감도 보통으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닌 품이 같은 동네서라도 살던 모양이었다.

그제야 주인아주머니가 술잔을 갖다놓고 부어놓자

“하여튼 들세.”

하고 영감이 먼저 술잔을 들었다. 그러나 청년은 지금까지 반가워하던 얼굴이 시르 멍멍해서

“왜 들지 않아.”

하고 영감이 술잔을 재촉했다.

“아주반이가 감자장수를 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하고 청년은 눈물을 머금듯이 다문 입술을 오물거렸다.

“떡기 위해서인 걸 어찌겠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은 그만하고 어서 술잔이나 들게나.”

영감도 말만은 그러면서도 서글픈 빛이 얼굴에 서렸다. 그것을 감추거나 하려는 듯이

“어서 술잔을 들어 쪽 내라니까.”

그제야 청년은 술잔을 들어 절반쯤 마시고 나서 안주로 김치를 집었다.

“그래서 그때 황주에선 어떻게 돼서 떨어졌어.”

“글쎄, 나두 모를 일이지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하고 청년은 일사후퇴 때 일을 터듬는 모양으로

“소변을 보느라고 논두렁에 돌아선 그 동안에 아주반이란 나오던 우리 일행을 잃어버리고 말은 걸요”

하고 어이없다는 얼굴을 했다.

“결국은 그렇게 되었구만. 그걸 모르고 우리들은 남자가 따라오는 줄만 알고 한참가다 보니 없지 않겠나. 그래서 기다리면서 걱정을 하다가 필시 앞선 모양이라고 또 따라가 보지도 않았나.”

“워낙 사람이 많았으니 한번 읽고서는 찾을 길이 없었지요.”

“그래 고생이나 하지 않구 나왔나?”

“고생을 하지 않았다니요. 난 해주로 나와 길을 헛들어 가지구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고 나왔지요.”

“해주로 들어섰다면, 큰 고생을 했겠네.”

“그래두 나왔끼 말이지요.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대구요.”

“그래 자넨 어디 가 있었기에, 전혀 소식이 없었나?”

“그때 난 윈 나중엔 피난 나오다가 말예요. 저 뒤 충청도 보은이라는 데까지 가서 서는 주저앉게 되고 말았지요.”

“충청도에 가서 백여 있으니 누가 알 타미 있는 일이라구. 그런 걸 가지구 우리들은 이 사람이 필시 어떻게 된 모양이라고까지 생각하지를 않았나.”

하고 꺾꺾 웃는 품이 북에서는 꺾 살던 모양이었다.
 “사실 생각하면 정말 별일을 다 겪으면서 살아 왔지요.”
 청년은 술잔을 들다가 말고 웃음을 웃어 보였다.
 “겨야 다 누구나가 매일반이지, 그래두 입자 몸은 아주 좋아졌는데.”
 “그래요? 하긴 북에서 받던 그놈들의 성화를 받지 않고 사니, 마음 편해 좋습
 데다.”
 “그건 나두 그렇습네. 그 좋은 과수원 다 놓고 나와서 고구마 장수 노릇을 해
 도 마음 놓고 사니 씨원하다니까. 그래서 충청도 가선 무엇 하고 살았나.”
 “제가 배운 게 뭐예요. 농사밖에 없던 걸요. 거기 가서두 농사로 살았지요.”
 “거기서 농사를 지어 살았더니 농토는 어떻게 얻어서?”
 “처음에야 남의 고장에 간 사람이 어떻게 농토를 얻겠어요. 남의 일 해주고서
 품삯으로 살았지요.”
 “그것으로서 꺾 살 수가 있던가?”
 “아, 그럼요. 시골에야 손이 발라 맞았지요. 그리고 또 뭐 혼잔데도 먹는 것은
 여기 저기 일해 주는 집에서 얻어먹게 되니 돈두 좀 모입니다.”
 “아니, 그래 돈까지 뭉게 되었어? 거 시골 가서 잘 됐네 그려, 그래서 그 돈으로
 받을 샀나?”
 “그러는 이어 고향도 돌아갈 것만 같은 생각이므로 땅 사고 싶은 생각은 없던
 군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 그 동네에 마침한 색시가 생기길래 장가를 들었지요.”
 “장가를 들었어, 이 사람아. 거 잘했네 그려. 고향에서도 들지 못했던 장가를
 피난 나와서 들었다니!”
 “뉘, 그렇다고 잘한 노릇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 이 사람아. 거 잘한 일이지. 피난을 맨손 들고 나온 사람이 장가까지 들었
 다니 그 이상 더 잘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 색시는 충청도 색신가?”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아, 충청도 사람은 모두가 양반이러는데 자네 집 사람두 양
 반이 아니겠나.”
 “양반은 양반이랍디다만, 그렇다고 얻어놓고 다시 생각해 보니 아내를 아주
 썩 잘 얻었다고는 생각되지가 않아요.”
 “어째서, 뉘 충청도 색신 말이 떠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럼 왜?”
 “왜라니 보라도 그저…….”
 “글이 없던가?”
 “그런 것두 아니구요.”
 “그럼 왜? 양반이겠대, 글두 있겠대. 뉘 눈치가 좀 모자라던가?”
 “눈치 같은 것은 너무 있어서 걱정이지요.”
 “그러면 모름지기 남자하고 나이가 어울리지 않던 모양이구만. 색시의 나이가
 몇 살인데.”
 “스물여섯 살이었어요.”
 “스물여섯이라면 남자하곤 꼭 좋네 그려. 그런데 뭐가 글렸단 말인가?”
 그러자 청년은 역시 말하기가 부끄러운 듯 웃음부터 웃고 나서
 “실상은 얼굴이 없었어요.”
 하고 말했다.
 “뉘, 뉘. 곰보야? 곰보라니 누가 말이야. 남자 색시가?”
 영감은 펄펄 뛰듯이 말했다.
 “그렇기 말이예요.”
 “남자, 그래 눈을 뜨구서 곰보를 얻었다 말인가?”
 “그렇기 말이예요.”
 “아니, 여까지 나와서 곰보색시를 얻다니, 더군다나 요즘은 남아도는 것이 색
 시라는데.”
 “그렇기 말이예요.”
 “사람이 아모리 털 났으면 일생 한 번 얻는 여편네를 곰보로 얻다니.”
 “글쎄, 그때는 뉘 곰보두 아니고서야 나 같은 것한테 누가 오려니 하는 생각으
 로 곰보두 심살할 것 같아서 얻었지요.”
 “아, 이 사람아. 곰보야 언제나 곰보지. 그 말 들으니 내가 분해서 자네하구 말
 두 하기 싫어지네.”
 “그래두 곰보의 마음은 비단결 같다는 말두 있잖아요. 마음은 아주 얹전해요.”
 “아모리 마음이 얹전해두 그렇지. 사람이란 외양부터 보기 마련인데…….”
 “그래두 먼 데서 보면 그렇게 흉하지는 않았어요.”
 “에이, 이 사람아. 그걸 말이라고 해. 어두운 데서야 곰보두 보이지 않는다구
 하겠구만.”

그러자 그 청년은 다시금 주저주저하다가
 “사실은 그 사람이 돈두 좀 있다는 것을 알고서 했지요”
 하고 말했다.
 “뭘, 뭘 돈? 히 이 사람이 자기 궁리는 다 있었구먼. 그래 얼마나 가져왔나?”
 하고 영감은 지금까지 나물기만 하던 얼굴이 확 달라졌다.
 “화폐 개혁 전이니까, 얼마였던지 지금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만. 하여튼 소 두
 어 짝은 살 돈이었어요.”
 “아, 그렇다면 대단한 돈이 아닌가, 이 사람아. 그러면 장가들어서 아주 땅 잡
 았네 그려.”
 “뭘 그런 것두 아니지요.”
 “이 사람아. 땅 잡지 않고 뭐했나. 참 이제 보니 자네 그 귀가 넓직한 게 처 덕은
 좀 있어 보이네. 그래, 그 돈으로 뭘했나?”
 “뭘 할 게 있음디까. 그 돈으로 뭘 할까 하고 생각하던 끝에…….”
 “그래 땅을 샀겠구만. 색시두 얻었으니 이제는 땅두 살 생각을 했겠지.”
 “저두 처음에는 땅을 살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땅을 사는 것보다두 소를 사는
 게 더 수입이 많을 것 같습니다.”
 “소를 사다가 품삯노리 해서?”
 “그렇지요. 6·25 난리 통에 빨갱이 들에게 소를 다 잃어버리고서 소 있는 집이
 몇 집 돼요? 그래서 매일 소 품삯을 놓니까 아주 수입이 좋더군요.”
 “그것 참 잘했구만. 그래서 그걸루 먹을 걱정은 없었나?”
 “먹는 것뿐만 아니라, 돈두 좀 뭉이 두군요.”
 “돈까지 뭉게 댘어? 그래서 그 돈은 뭘했나?”
 “그 돈으로 또 소를 샀지요.”
 “그럼 소가 세 말이나 생겼겠네 그려. 그것 잘 댘네 그려.”
 “뭘 잘된 것두 없어요.”
 “이 사람아. 소가 늘었는데 안 댘다는 게 무슨 소리야?”
 “그사온 소 때문에 집에 있던 소까지 다 죽게 되었으니 말이지요.”
 “소가 다 죽게 되었다니?”
 “글세 그놈의 소가 말입니다. 우질이 있던 소인 줄을 누가 알았어요.”
 “그래서 집의 소까지 옴은 모양이구만.”
 “그렇기 말입니다. 우질엔 소가 맥을 쓰지 못 하더군요.”
 “그랬으면 참 안댘어 그려.”

“그렇다구 뭐 안 될 것두 없었어요.”
 “아, 이 사람아. 그계 안 된 일이 아니라니. 소 세 필이나 죽여 그 동안에 생겼던
 세상 미천을 다 놓게 되었는데 안 될 일이 아니라니.”
 “그래두 괜찮았어요.”
 “어떻게 괜찮았어.”
 “소가 죽게 됐기에 분주히 잡아서 고긴 고기대로 팔고, 가죽은 가죽대로 파니
 까 오히려 소 값에서 좀 남더군요.”
 “그래 하긴 듣고 보니 그렇기두 하겠구만. 더군다나 그때 가죽 시세가 한참 좋
 았으니까.”
 “가죽뿐만 아니라, 고기두 없어서 못 팔았지요.”
 “그랬으면 소 죽어 오히려 더 잘 된 셈이네 그려.”
 “그런 것두 아니에요.”
 “뭘, 그것이 그래 잘 되지 않았단 말인가?”
 하고 영감은 화를 내듯 소리치고 나서
 “소를 죽이고서 못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 필이나 죽이고서도 소 값을
 오히려 더 건졌다니 거야 잘 된 것 아니구.”
 하고 말했다. 그러나 청년은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글세 별루 잘 된 것두 아니라니까요.”
 하고 자기 말을 내세웠다.
 “아, 그만했으면 잘 댘지. 그 욕심이 너무하네 정말. 난 님자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더니.”
 하고 영감은 그대로 화가 난 소리였다.
 “정말 내가 욕심이 너무 한 놈이었어요. 또 소나 사서 샀소나 쥐서 살 생각을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인데, 글세 누가 부산에 무를 해가면 큰 수가 난다기
 에 그 돈으로 무 장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산에 웬 무가 그렇게두 많이
 왔겠수. 전라도에서 왔덴다. 경상도에서 왔덴다. 그 바람에 무를 퍽 내는 샀값도
 되나마나하게 되지 않았어요.”
 “아, 그럼 거기서 쫓닥 망했네 그려.”
 “그렇지요. 쫓닥 망하게 된 판국이었지요. 그러나 사람은 좀처럼 망하지는 않
 는 모양입니다.”
 “무를 씻구 가서 망하구서두 망하지를 았았다니.”
 “글세 말이예요. 무값은 말할 수 없게 내렸지만, 무를 씻고 가느라고 샀던 배

값은 삼 배나 올랐거든요.”

“아니, 그래서 배 값으로 무값을 봉창했나?”

“그렇지요.”

“아무튼 남자 운이 좋았네 그려.”

“운이 좋은 것두 없어요.”

“이 사람아. 그만 했으면 운이 좋은 것이지.”

“운이 좋은 게 뭐예요. 그 돈을 빚을 졌었는데 그 사람이 달아났으니.”

“뭘 빚을 준 사람이 달아나서 그렇게도 힘들게 살린 돈을 갖고서?”

“저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 졌었는데!”

“아, 이 사람아. 요즘 세상에 돈 앞에 좋은 놈이 어디 있어. 그렇게두 어리석은 짓을 하니까 돈을 떼우게 마련이지 그래. 한 푼도 못 건전나.”

“그래두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두 몰랐더니 산판을 하나 가지고 있었더군요. 그 사람이 팔라고 할 땐 작자가 없었는데 마침 작자가 생겨 그것을 동네 사람들의 승낙을 얻고 팔아서.”

“뭘, 뭐 어떻게 됐어?”

“그 산판을 팔아 이자까지 받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 사람아. 그랬으면 거 참 잘 됐네 그려.”

“뭘 그렇게 잘된 것두 아니에요.”

“있었던 돈을 이자까지 해서 받았는데 잘 된 것이 없다니.”

“그 돈이 타버렸으니 말이지요.”

“아니, 돈이 타다니?”

“글세 말입니다. 내가 장에 갔다가 와보니 집에서 불이 나 다 타버리지 않았어요.”

“집에 불이 났대도 그 돈이야 못 끄내?”

“글세 말입니다. 집의 사람이 낮잠을 자다가 불이라는 소리에 당황해서 그대로 그만 뛰쳐 나온 모양이더군요. 그러니 궤속에 넣었던 돈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다 탔구만.”

“그렇기 말입니다.”

“그랬으면 안됐네 그려.”

“뭘 안 된 것두 없지요.”

“아, 이 사람아 돈이 다 타서 재가 돼버렸는데 안 된 것이 없다니.”

“그렇기 말예요. 난들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편네를 탁 차버렸으니 말

입니다.”

하고 청년은 자기 할 이야기를 다 했다는 듯이 술잔을 들어 쪽 들이키었다. 영감도 그 소리에 가슴이 풀리지는 듯

“그거 참 잘했네. 나두 참 속이 시원하네.”

하고 주인아주머니를 불러 술을 한 잔씩 더 부라고 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주인아주머니가 놓는 술잔을 보며 다시 시무룩한 얼굴이 되며

“그래두 생각해 보니 잘한 것두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말했다. 영감은 그 말에 다시금 화를 벌떡 내며

“아, 이 사람아. 쓸모없는 그런 여편네 차 버렸으면 잘 했지 뭐가 잘못했다는 거야.”

하고 고함치듯 말했다.

“그래서 홀몸이 되고 보니 뭐 시원한 것이 있어야 말이지요.”

“그래서 남자 장가 못 들 것 같아서 그런 걱정인가?”

“그래두 살던 정이 그렇지가 않던걸요.”

“예이, 그런 못난 소리 하지 말게나.”

“그러니 돈두 없이 서울 올라와 보니 뭐 시원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서울 올라와선 무얼 했나?”

“공사판에두 다녀보고 음식집에두 있어보았지만 시원한 일이 없더군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갈 차비나 생기에 다시 내려갈 생각을 했어요.”

“여편네까지 버리고 왔다는 사람이 뭐하러 또 시골로 간다는 것인가?”

“글세 살던 정을 잊을 수가 없는걸요.”

“그 곰보 여편네를 못 잊었서?”

“아모리 떠돌아 다녀야 그 사람만큼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없는걸요.”

“이 사람아. 이제 또 그곳엘 어슬렁어슬렁 찾아가겠단 말인가?”

“그래두 그 사람은 내가 다시 가두 그렇게 싫어하진 않을 거예요.”

“그런 못난 소리 하지 말구 여기서 나와 감자 장사나 하며 같이 삽세나.”

“그래두 난 시골로 가야겠어요.”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느라고 술잔을 드는 것두 잊고 있다가 그만 일어서 나왔다. 밖은 아주 어두워졌다. 나는 전등불을 켜 버스에 오르며, 지금 내가 가는 곳은 어디인가고 생각해 보았다.

이원애사(梨園哀史)

홍은표(洪銀杓)

1. 모란꽃 필 무렵

가야금을 처음으로 만들고 수많은 곡조를 지었다는 우륵(于勒)은 신라 진흥왕 23년 1월 그의 조국인 가야가 망하며 가야금을 둘러메고 적의 나라 신라에 투귀하였던 것이다.

진흥왕은 우륵의 예술을 매우 가극하게 생각해 그를 국원(國原, 지금 충주(忠州))에 안치하고 노래와 춤과 가야금을 가르치게 되었으니 그 우두머리 제자에 계고(階古), 법지(法知), 만덕(萬德)이라 하는 세 사람이 있어 그들은 이웃하여 살며 스승되는 우륵을 받들어 모시고 일을 예능의 길에 매진했던 것이다.

늦음이 질어가는 6월 어느 날! 만덕이의 집에서는 가야금에 으뜸가는 만덕이와 춤으로 오직 하나로 꼽아주는 법지와 주안상을 앞에 놓고 권커니 자커니 취흥에 겨워 이야기의 꽃이 피었다.

“여보게 만덕이! 필란이의 가야금도 이제는 제법인걸!”

나그네로 온 법지가 잔을 들고 때마침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에 신기로운 듯이 귀를 귀를 기울이며 주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만덕이는 법지의 주는 잔을 받으며

“무얼 별로 나아진 것 같지도 않으이.”

하고 말하면서 이십 년 어루만지고 뜯어 온 가야금 줄을 따당당 통겨 보는 것이었다.

“천만에. 나아지지 않은 게 무언가? 필란이의 가야금은 일취월장하고 있는 게 역력히 보여지네.”

“자네 며누리 감이년간 그저 아리따움고 신통하게만 보이는 거겠지.”

“일 사람두! 내 며누리가 아니라 해도 아리따움이야 변하겠는가!”

“참 여보게 법지! 자네 아들 시열(時烈)이의 가무야말로 놀랄만큼 숙달하였네 나 그려!”

만덕이는 이렇게 말하며 법지의 빈 잔에 술을 부었다.

“거야 자네 사위감이니깐 갈가마귀 소리 같아도 꺾꼬리처럼 아름답게 들리는 게 아닐까?”

법지는 잔을 받으며 유쾌하게 웃었다.

“이 사람 당장에 오금을 박는가?”

“하하하하. 만덕이 어쨌든지 자네 따님 필란이나 집의 아들 녀석 시열이나 이젠 아주 제법들이던걸.”

“하하하. 우리들이 이렇게 늙었으니 아이들인들 장성하지 않았겠나?”

“세월이 과연 우수처럼 흘러갔지.”

“우리가 우륵 스승님을 모시고 가야를 떠난 것도 이리구러 벌써 십 년 전의 일 이 아닌가?”

“남해 가에서 조개를 줍고 낙동강에서 송사리를 잡으며 소꿉질하던 시절! 시열이와 필란이 두 아이를 끝끝내 해로 동락시키려고 우리 두 사람은 굳은 언약을 했었잖나.”

만덕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고 법지의 빈 잔에 주전자를 기울이며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법지는 지나간 날을 더듬는 듯한 눈매로

“만덕이. 그러나 신라 군사가 여섯 가야 고을 고을에 요란스럽게 북을 울렸을 때는 우리들의 무지개 같은 꿈은 여지없이 깨지고 말았지!”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만덕이는 잔을 들고 모란꽃이 한창 만발한 창박을 내다보았다.

“법지! 그렇지만 우리 가야가 망한 뒤 우륵 스승님의 뒤를 따라 이곳 국원까지 와서 우륵 스승님을 받들어 모시고 우리가 우두머리 제자가 되어 가무와 가야금을 못 사람들에게 전해 주고 우리들의 예능의 길을 연마하게 되었네 그려!”

“모두가 우륵 스승님의 덕택이지!”

“그렇지, 그렇지. 거야 이를 말인가! 참 필란이가 가야금을 뜯고 시열이가 춤을 추는 것을 볼 때는 마치 선남선녀가 하강했는가 의심할 지경이거든! 하하하하.”

법지도 만덕이의 웃음에 따라 웃었으나 얼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서려있었다.

“여보게 만덕이! 그런데 참 우리 마누라는 암만해도 선녀 같은 며누리도 보지 못하고 먼저 갈까 보이!”

“아, 왜. 서라벌에서 명이가 왔다더니 그 사람의 약도 별수가 없는가 보군!”

“별 수 없어! 이젠 말도 제대로 못 하고 허 참. 이것보게나.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집의 시열이의 안질이 암만해도 심상치 않거든!”

법지는 한숨을 쉬고 부어놓은 잔을 한숨에 쪽 들어 마셨다.

“시열이의 안질이라니. 눈자위는 좀 가라앉았지만 잘 보는 모양이든데 무얼 그리 심려하는가?”

“잘 보는 게 무언가? 아주 옆의 사람도 분별을 못 하는 송방일세. 송방이야!”

법지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은 만덕이는 더 약을 쓰면 회복될 터이니 근심 말라고 위로했으나 법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이제는 근심도 하소연도 안 하고 기구한 운명이나 탓할 뿐이라고 말하며 만덕에게 술을 권했다.

“만덕이! 우리 오늘 고주망태가 되도록 취해 볼까?”

“좋지 좋아. 자, 자네부터 잔 내게.”

주객이 서로 따르고 마시고, 마시고 따르고 한창 주흥이 무르익어갈 때 방문이 급히 열리며 십 팔구 세 되어 보이는 처녀가 들어왔다.

처녀는 할딱할딱 숨이 가쁜 듯 조급한 어조로 말했다.

“시열네 아저씨! 크, 큰일 났습니다.”

“필란아! 걱정마라. 네가 아마 시열 어머니의 혼절한 것을 본 모양이구나!”

법지는 태연히 말하며 잔을 들었다.

“아저씨! 혼절이 아니오라 운명하셨습니다. 시열이도 기절하여 쓰러졌사와요.”

필란은 안타까운 듯 울어버렸다.

“법지! 어서 가보게. 급기야 일을 당하고 말았네 그려.”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가여운 생령이 농임을 받아 영원한 안식처를 찾았지. 나무아미타불.”

법지는 엄숙한 태도로 함장했다.

“아지머님은 사바세계에서 육체의 고통이 너무나 크셨지.”

“한 줌 재로 변해 사리탑 밑에 묻히고 말 인생이 그다지 모질고도 기구하였는제!”

“아저씨! 어서 가세요. 시열이가 걱정되옵니다.”

처녀는 눈물을 머금고 법지의 귀택을 재촉했다.

“필란아! 시열 어머니는 너 같이 아리따운 며누리를 거느려 보지 못하고 그만 저승길로 가고 말았구나! 마누라두 딱하지! 전생에 지은 죄가 얼마나 컸길래 복락이란 구경도 못 해보고 근심과 근심과 고통만을 누렸는지.”

“법지! 어서 가세!”

“여보게 사둔! 시어머니도 없는 집에 홀 시아비를 섬기러 올 나의 자부 필란이가 불쌍하이!”

“이 사람! 큰일을 당한 자리에 농담만 하고 있으니 자네가 미쳤는가?”

“농담이 아니라 진담일세. 미친 사람의 진정일세. 아가, 필란아! 가엾은 필란아!”

법지는 필란이를 붙잡고 어이어이 소리쳐 울고 말았다.

2. 밤나무 꽃 질 때

법지는 아내의 장사를 지내고 누어 앓기 시작한 것이 달포가 넘도록 일어나기

는커녕 대소변을 받아낼 정도로 병은 맹랑하게 증태에 빠졌다.

나이 젊은 시열은 어찌 할 바를 몰라 애태를 뿐 향란이가 약 시증을 비롯하여 법지의 손이 되고 발이 되었다. 그동안 서라벌에 가서 명의를 데려온 것도 향란이다. 향란이는 오십 줄에 든 법지의 집의 이름이니 그는 상전마나님의 오랜 병치다꺼리로 지칠 대로 지친 데다가 장사를 치르고 뒤미처 법지의 병 간호로 온 몸은 숨처럼 나른해졌으나 상전을 기어코 회춘시키려고 동분서주했던 것이다.

모란꽃 필 무렵에 어머니를 여의고 밤나무 꽃 질 때 그 아버지마저 사별해야만 할 슬픈 운명에 빠진 시열이는 이즈음 눈은 더욱 침침해지고 말하는 것조차 더듬고 얼버무렸던 것이다.

시열은 아버지의 잠든 틈을 타서 필란이와 같이 강가로 나갔다.

“시열이! 이리로! 이리로!”

필란은 뒤떨어져서 헐레벌떡거리고 있는 시열이를 의아한 듯이 소리쳐 불렀다.

“필란이! 웬일인가? 필란이의 뒷모습이 남정네 같오이!”

뒤쫓아 온 시열은 이렇게 말하고 눈을 비비고 섬벅거리며 필란이의 손을 어루만졌다.

“호호호호. 내가 덩기에 치마를 걸어올려서 그렇게 보인 게지 무슨 남정네 같을라구!”

“필란. 그런 게 아냐! 요새는 그렇게 어여쁜 필란이의 얼굴이 곰보처럼 보이기 도 한단 말야!”

“호호호호. 참 내가 곰보처럼 보인다구! 난 이래봐도 흥역 마마 다 했는데 어떻게 곰보가 되지?”

필란은 시열의 뜨거운 손을 상기된 얼굴에다 대고 비볐다.

“필란이! 나는 암만 해도 오는 가위 절에도 참례하지 못할까봐.”

시열이는 눈을 섬벅대며 강 건너로 시선을 옮겼다.

“시열이! 안 돼! 안 돼! 서라벌에서도 견줄 사람이 없는 시열이의 춤과 노래를 이번 가위절에는 꼭 보여주도록 해야만 해!”

“필란이! 내 춤! 내 노래를 서라벌에서 보여주면 무얼 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야 시열이도 서라벌로 갈 수 있지 않아!”

“서라벌! 서라벌로 나만 가서 잘 되면 무얼 해? 아버님의 병환은 나날이 위중해만 가시는데…….”

시열이는 필란의 상반신에 몸의 의지하며 애연히 말했다.

“시열이! 그래두 안 돼. 아버님은 향란이에게 부탁을 하구 떠나게 해. 4월 8일 에두 내가 가야금을 뜯구 시열이가 노래를 부르고……. 우리들이 두째를 하지 않

있어. 시열이! 이번에는 우리가 기영고 첫째를 하고야 말자구. 응?”

필란은 시열을 가만히 끌어안으며 불타오르는 눈초리로 사나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필란이! 나는 암만 해도 못 가겠어. 우룩 스승님의 아드님 인래와 함께 가도록 하라구.”

“안 돼. 안 돼. 인래는 진정이지 난 싫어! 흥! 글썽, 인래 따위 노래를 서라벌에서 하다니 우리 집 검둥이가 웃게.”

필란은 원망스러운 듯 시열이를 바라보았다.

“필란이! 그렇게 자꾸 인래를 나쁘게만 얘기하지 말아. 인래의 가야금은 필란이 다음은 가구 노래만 해두 인래가 나보다 나은 편이거든.”

“낮긴 무에 나? 앓는 소리가 없어서 나? 이것 봐요, 시열이! 우룩 스승님께서도 아드님보다도 시열이가 꼭 가야만 한다구 그러셨어. 그러지 말구 꼭 가게 해. 응?”

필란이는 사나이의 손을 붙잡고 애원했으나 그는 손을 확 뿌리치고 큰소리 쳤다.

“안 가. 안 간다니깐 그래.”

“아이구, 짹짹이야. 왜 큰소리를 지르며 남을 떠다밀고 야단이야. 내가 미우면 미웁다고 말해봐.”

“필란아! 너는 내가 미울 터이지? 한 자 앞의 사람도 못 알아보는 장님이 다 된 내가 미울 터이지?”

시열은 필란의 팔을 꼭 붙잡고 부르르 떨었다.

“호호호. 참 기가 막혀! 시열아! 네가 미쳤나?”

필란은 사나이의 팔을 확 뿌리치고 일어났다. 시열은 눈을 희번덕거리며

“미쳤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의 노래와 춤의 스승 이시며 아버지되신 분이 안사불성으로 누워 계시다. 나, 난 어, 얼이 빠, 빠졌다. 미, 미쳤다.”

“시열아! 너 정말 얼이 빠졌나? 그러다가는 병어리두 되겠다.”

“피, 피, 필란아! 나, 나, 난 버, 버, 병어리다. 자, 자, 장님이다!”

시열이를 흔들며 정신을 차리라고 말했으나 시열이는 본 척 만 척 주먹을 부르 쥐고 사시나무처럼 전신을 떨며 작은 소리로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필란아! 내가 눈이 멀고 병어리가 된다! 넌, 넌 시열이를 본 체 만 체 눈두 거들 떠보지 않을 테지? 그렇지, 필란아!”

필란이는 공포에 떨며 뒤로 물러섰다.

“바, 바른대로 말해봐라! 바, 바른대로 말해봐!”

시열이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잔디 위에 쓰러져 엉엉 목 놓아 우는 것이었다.

“이것 봐요, 시열이! 약을 더 쓰면 눈도 잘 보이게 되고 급할 때 말 더듬는 것도 깨끗해진다는데 왜 자꾸 비판만 하지? 시열이 짜장 장님이 되고 병어리가 되었다 해도 난 이미 시열네 집 사람이 아냐? 우리들이 솥곱질 동무 시절에 부모님께들 땀어주신 언약을 시열이가 팔다리가 없는 병신이 된들 있겠어? 난 시열이의 눈이 되고 입이 되고 팔다리가 되어서 끝끝내 시열이를 따를 테야.”

필란이는 시열이의 얼굴을 가슴에 끌어안고 눈물지며 목 메인 소리로 말했다. 시열이는 울음을 그치고

“필란아, 내가 바보야. 내가 병신이야. 필란이의 아리따운 마음씨를 몰라주구 필란이의 마음을 괴롭혀 줬으니 내가 미친놈이야. 필란이! 서라벌로 가자구! 필란이가 가야금을 뜯구 내가 노래를 부르구! 이번 가위절에는 기영고 첫째를 하고야 말자구!”

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고마워라! 감격하여라! 시열이! 공주마마 앞에서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시열이의 자태가 눈에 삼삼하여라.”

“필란이!”

“시열이!”

시열이는 필란이를 힘을 다해 꼭 끌어안았다. 처녀는 사나이의 가슴에 얼굴을 대고 비볐다.

이때 언덕 아래서 “필란아!” 하고 부르는 여자의 음성이 들려왔다. 필란은 일어서 언덕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필란이를 부르고 언덕 아래서 올라온 사람은 필란의 어머니 금련이었으니 사십을 바라보는 나이에 아직 젊은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필란이의 오목한 코며 머루 알 같이 검고 시원한 눈과 그려놓은 듯한 눈썹이며 가름한 얼굴의 윤곽까지도 그의 어머니를 닮았다. 모녀가 좀 다르다는 것은 딸의 키가 후리후리한 데 반해 어머니는 바라진 것이라 하겠다.

“필란아! 너 대체 웬일이냐?”

금련이는 이마의 땀을 씻으며 말했다.

“왜 그리셔요, 어머니?”

“왜 그래가 무어냐. 들판으로 강변으로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냐?”

“급한 일이라도 생겼어요, 어머니?”

“우룩 스승님이 인래(隣來) 도령과 같이 오셨는데 오늘은 네 가야금을 꼭 들고 가신다고 그러시더라.”

“싫어요. 어머니가 제 대신 뜯어 들려 드리세요.”

필란이는 시무룩하여 말했다.
 “호호호호. 망칙스러워라. 동네 개가 다 웃게 나보구 가야금을 뜯으라니?”
 금련이는 뚱뚱한 몸에 간드러지게 웃었다.
 “아지머니! 저희 집에 좀 들러 보셨어요?”
 지금까지 모녀의 말을 듣고 앉았던 시열이는 눈을 씹벼거리며 말하는 것이었다.
 “참, 시열아! 빨리 내려가 봐라. 아버님 병환이 아침보다 갑작스리 더해지신 것 같더라.”
 “아주머니! 암만 해도 돌아가시려나 봐요.”
 “지금은 사람도 몰라 보시더라.”
 “아주머니! 전 먼저 가겠어요. 필란이랑 뒤에 서서히 오세요.”
 “그래, 먼저 내려가 봐라. 서라벌 의원도 와있더라.”
 “그 사람도 별 수 없어요. 먼저 갑니다요.”
 “그래 조심해 내려가라. 나도 숨 좀 돌리고 곧 가마.”
 시열이는 비탈길을 뛰어 내려갔다. 그러나 뛰다는 것은 그의 마음뿐인 듯 천방 지축 방향을 잡지 못하고 술 취한 사람처럼 몸의 중심을 잃었다. 허둥지둥 몇 발 자국 내닫던 시열이는 풀숲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야!”
 이것을 바라보던 필란이는 곁에 있는 사람이 놀랄 만큼 크게 소리쳤다.
 “평지 같은 길에 쓰러지구 야단법석이구나.”
 금련이는 이렇게 말하며 혀를 꼰꼰 찼다.
 “어머니! 돌부리를 찼나 보죠?”
 “저, 저 또 쓰러졌다. 이젠 지척을 분별치 못하는 아주 장님이 다 됐구나.”
 “약을 더 쓰면 잘 보게 되겠죠, 뭐.”
 그러나 아버지가 죽은 뒤에는 종의 집이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열의 눈은 점점 시원치 않아 가고 한숨과 눈물 속에서 해가 뜨고 해가 저야 할 불운한 시열이의 가공한 정상을 생각할 때 필란이는 뼈저리게 슬프고 가슴 아팠다.
 “어머니! 시열이를 우리 집으로 오게 하지요.”
 “무어? 우리 집으로?”
 금련이는 하마터면 놀라 자빠질 뻔했다. 그런 소리는 꿈에도 생각 말라고 길 길이 뛰었다.
 “시열이는 필란이의 남편될 사람인데 아내의 집으로 오는 게 그다지 큰 힘이 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필란이의 태도는 엄숙했다.

“애가 한술 더 뜨네. 아가, 그런 맹추 같은 소리 작작 좀 해라. 그 애가 장님이 되구 보면 그 우환덩어리를 어떡한단 말이냐?”
 금련이의 말하는 얼굴에는 살기까지 서리었다.
 “우환덩어리라니요?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코 흘릴 때 정해 주신 부부 인테 팔 다리 병신이 된들 제가 시열이를 배반할 수 있겠어요?”
 필란이는 철썩 같이 굳은 맹세를 어찌 어길 수 있겠느냐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잘 한다, 잘해! 성례도 하지 않구 벌써부터 제 서방처럼 법석이구나! 애, 이것 봐라, 필란아! 글썽, 오직 하나밖에 없는 귀여운 딸자식을 어떻게 병신에게 준단 말이냐?”
 금련이의 말은 짐짓 애원에 가까웠다.
 “어머니두! 시열이가 언제 병신이 됐나요?”
 딸은 야속하다는 듯이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장님은 병신이 아니냐? 서라벌 의원의 딸도 시열이의 눈은 고치기 어렵다더라. 오늘 아침에도 내가 시열네 집엘 갔더니 날 그 집 종년 향란이로 잘못 알고 ‘향란 아, 이리 좀 와.’ 그러지 않겠니? 필란아! 아버지께서도 후회하구 계시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깐 파혼을 하고 인래 도령하구 하루 바삐 성례를 하도록 하자.”
 이것은 필란에게 있어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장님이 되어 홀로 눈물질 가련한 시열이를 배반하고 우륵의 아들 일래에게 간다는 것은 죽기보다도 괴로운 것이었다.
 “인래네 집에는 죽어도 못 가겠어요. 장님이 되거나 병어리가 되거나 다리 팔 병신이 돼도 시열이 하나만이 필란이의 남편될 사람입니다.”
 “아이구, 난 모르겠다. 난 몰라! 이년이 오는 복을 차버린다니깐. 차버려!”
 “어머니. 우륵 스승님 덕 머누리가 되어 호강을 하는 것보다 병신된 시열이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웁니다.”
 필란이는 이렇게 비장한 결심을 토로하고 윗니로 아랫입술을 지긋이 깨물며 애절한 눈으로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연화대를 만들어라! 극락세계를 꾸며 놔! 너두 애비 어미 말 안 듣다가 후회할 날 있을라, 에이.”
 금련이는 별떡 일어나 언덕길을 내려갔다.
 생각하면 필란이에게 있어서 시열이는 소꿉동무 때부터 가장 친히 사귀어 온 친절한 친구요, 떼려 해도 뗈 수 없는 백년을 굳게 맹세한 약혼자인 것이다.
 두 사람의 사랑은 반 숙명적으로 맺어졌다 하겠으니 그들은 청춘의 끓는 피를 온통 쏟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 주었다. 이 사랑이 끊어진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 사형선고와 다름없다 하겠으니, 만약 한 사람이 지옥으로 가게 된다면 또 한 사람마저 천길 만길 지옥의 불구덩이까지라도 따라 가야만 할 비통한 사랑이었다.

필란이는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안고 마을로 향해 발길을 옮겼다. 언덕길로 떨어지는 밤나무 꽃 향기가 필란에게는 향을 피우는 냄새인양 획 풍겨왔다.

3. 애정무한(愛情無限)

필란이가 마을로 내려왔을 때 법지의 집에서는 시열이의 곡성이 들려왔다. 아 빨싸, 시열이의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말았구나.

필란이가 이렇게 생각하며 대문 안으로 들어섰을 때 참말로 향을 피우는 냄새가 담을 넘어 풍겨왔다.

시열이의 아버지 법지는 죽은 것이다. 법지의 죽음 앞에서 시열이가 울다가 지쳐 쓰러졌고 금련이를 비롯해 이웃집 아낙네가 몇 사람 와 있고 필란이의 아버지 만덕이와 스승 우륵을 능가할 재능을 가지고 있는 가야금의 명수 계고(階古)와 그 밖에 서너 사람이 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얼마 뒤에 우륵과 인래가 오고 친척도 없는 사고무친한 법지의 장사는 친지들의 협력으로 준비되었다.

사흘 뒤 쓸쓸한 법지의 장송행렬에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뒤 더욱 심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외아들 시열이가 향란에게 부축되어 상여 뒤를 따랐다.

상제는 이젠 울지도 못했다. 수척한 얼굴에 통통 부은 눈으로 향란에게 매달리다시피 발을 질질 끌었다. 대문 앞에서 이 광경을 내다보던 필란이는 안으로 들어와 방바닥에 엎드려 흐느껴 울었다.

‘시열이는 눈이 먼다. 앞을 못 보는 장님이 된다.’

고 생각할 때 필란이는 제 앞까지 캄캄한 듯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필란이는 내 눈이 멀어서 시열이의 눈이 밝아진다면 머루 알 같은 두 개의 검은 눈동자를 서슴지 않고 빼어서 내놓겠다는 것이 지금의 그녀의 심정인 것이다.

이때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나서 필란이가 방문을 열었을 때 인래가 뚱뚱한 몸을 뒤통거리며 들어와 마루 위로 올라섰다.

“필란이! 왜 그렇게 나만 보면 내빼기만 해? 난 아주 섭섭한데.”

인래는 두꺼비 같은 손으로 필란이의 옥 같은 손을 덥석 잡았다. 필란이는 사내의 손을 획 뿌리치고

“섭섭하거든 오지 말지 무엇 하러 침침스럽게 쫓아다니는 거야.”

하고 냅다 쏘아부쳤다.

“필란이는 너무 매정스러워 필란이를 사랑하는 인래의 가슴속을 왜 그다지도 몰라 주는나 말야?”

“인래가 날 사랑하면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정혼한 시열이가 있지 않아?”

“장님이 다 된 시열이를 선녀 같은 필란이의 남편으로 삼을 작정이야?”

“장님이 되거나 꼽추가 되거나 걱정 말아. 시열이는 한평생 내 남편될 사람이야.”

처녀는 사나이를 쏘아보았다.

“내가 무에 보기 싫고 원수스러워서 그렇게 독살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야?”

“내 마음을 괴롭히는 사람은 모두 보기 싫고 원수 같아!”

“필란이! 모란꽃 같이 아리따웁고 연꽃 송이 같이 고운 필란이의 마음을 내가 왜 괴롭히겠어? 나는 선녀 같은 필란이의 가슴속에 행복을 부어넣고 흑진주 같은 두 눈동자에 기쁨을 불어넣으려고 이렇게 오는 거야. 이 내 절절한 사랑을 필란이는 왜 몰라주고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하고 말하는 인래의 얼굴에는 참으로 애원의 물결이 굽이치고 작은 눈 속에서는 눈물까지 비치는 듯했다.

“그렇게도 괴로운 걸 무엇 하러 쫓아다녀? 나는 인래를 만나는 게 괴롭고 인래는 나 때문에 괴롭다니 만나지 않으면 되지 않겠어?”

하며 뜰로 내려서려 할 때 인래는 필란이의 두 팔을 덥석 잡고 부르르 떨며

“필란이! 난 진정 너 때문에 죽겠다.”

하고 비죽비죽 울었다.

필란이는 구렁이가 몸에 감긴 듯이 징그럽고 무서워서 문어발처럼 달라붙은 사나이의 손을 전력을 다해서 뿌리치고 뒷문으로 빠져서 뒷동산 숲속으로 탈도와 같이 다름질쳤다.

인래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뒷동산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눈물을 씻으며 힘없이 언덕을 넘어갔다.

법지의 장사를 지낸 지 한 이레 되던 날 필란이가 밖에서 들어오니 만덕이 부처는 피난가는 사람 모양으로 부라부라 짐을 꾸렸다.

“필란이! 네 옷들은 네가 좀 챙겨라.”

금련이가 남편과 부엌세간을 꾸리다가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짐은 싸구 야단이셔요?”

“응, 오늘이 날이 좋다구. 그래서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었단다.”

“역시 우룩 스승님 댁 옆집으로 가게 되나요?”
 “그럼 거기밖에 또 있나?”
 “싫어요. 전 안 갈 테야요.”
 “이 집은 소부리 사람이 오늘 이사를 오는데 넌 뭐 남의 집에서 살 테냐?”
 “전 시열네 집으로 갈 테야요.”
 하는 필란의 말을 들은 만덕이는 꺾충 뛰며
 “뉘, 뉘! 이년아! 네가 환장을 했냐?”
 하고 딸을 노려보았다.
 “환장을 한 것은 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세요. 앓고 누워 있는 불쌍한 시열이를 혼자 내버리고 이사가 무슨 이사예요?”
 “이년! 애비 말에 거역을 할 작정이냐? 네가 가지 않으면 부들어 매어 끌구라도 갈 테니까 맘대로 해라.”
 만덕이의 태도는 자못 강경했다.
 “아버님은 딸자식을 개돼지로 아십니까? 굳게 언약을 맺은 시열 아버님이 이젠 돌아가시고 아들 시열이는 하루하루 더 어두워만 가는 눈을 감고 캄캄한 방에서 저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열이가 장님이 된다고 저는 시열이를 배반하고 저 하나의 복락만을 꿈꾸며 다른 사내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인간의 도리겠습니까?”
 하고 필란이는 울면서 눈물겹게 말했다.
 “언약이구 도리구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만덕이는 한마디 딱 잘라 말하고는 수레에 짐작을 실었다.
 이때 대문 밖에서 향란이가 혈레벌떡거리며 들어와
 “아가씨! 큰일 났습니다요. 빨리 좀 시열 도령님을 가봐 주세요.”
 하고 필란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왜 그러지? 무슨 번고라도 갑자기 생겼나?”
 “네, 시열 도령님의 병환이 심상치 않사와요.”
 “어쩌면!”
 필란은 놀랐다.
 “영감마님이 돌아가신 뒤부터 도령님의 풍증이 심해지셔서 눈은 아주 절벽이 되고 말은 한마디도 아물리지를 못합니다 그려.”
 향란의 말을 들은 필란은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다.
 “가엾어라! 시열 도령님이 무슨 업보로 장님이 되고 병어리까지 된단 말이고.”
 필란은 흐느껴 울었다. 향란이도 따라 울며

“어두운 방구석에서 한숨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시는 도령님의 양자는 참말로 보기에 민망하고 측은하옵니다요.”
 하고 말했다.
 “원통하여라! 그렇게 아름답던 노랫소리도 이젠 못 듣게 되었지.”
 필란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장롱 속에서 금은 패물을 몇 개 꺼내어 향란에게 주었다.
 “향란이! 이걸 팔아서라도 시열 도령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대접해 줘요.”
 “고맙습니다. 병신된 도령님을 위해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해 주시니 지하에 계신 두 분께서도 얼마나 고마워하시겠습니까?”
 “향란이! 눈이 멀고 병어리가 되었어도 시열 도령님은 필란이의 낭군이 아니겠소?”
 필란이의 말에 너무나 감격한 향란은
 “필란 아가씨! 아가씨의 은혜는 백골난망이옵니다.”
 하고 비죽비죽 울어버렸다.
 “내가 돌봐줘야 할 사람을 상전의 아들이라는 의리 때문에 향란이가 애를 쓰구 있으니 향란이의 은혜야말로 잊지 않고 결초보은하리다.”
 “고마우신 아가씨! 선녀 같은 아가씨!”
 “우리는 우룩 스승님 댁 이웃으로 이사를 간다니깐 향란이를 보기도 어렵겠소.”
 “그럼 우룩 스승님 댁 자체 인래 도령하고 정혼이 됐나요?”
 “부모님들끼리 하시는 일이지만 나는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인래네 집으로는 안 갈 작정이요.”
 필란의 눈과 입에는 굳은 결심의 빛이 서리었다.
 “시열 도령님이 가엾기는 하지만 필란 아가씨의 앞길을 위해서는 우룩 스승님 댁으로 가서야죠.”
 향란의 말을 들은 필란은 분노의 소리로 외쳤다.
 “향란이! 어서 가요. 그런 소릴 하려거든 나를 찾아오지도 말아요.”
 “필란 아가씨! 필란 아가씨!”
 향란이는 너무나 감격하여 필란의 손목을 붙잡고 눈물지었다. 필란이도 금련이의 소리가 들리자 향란이는 부랴부랴 뒷문으로 빠져 달아났다.

(다음 호 계속(次號 繼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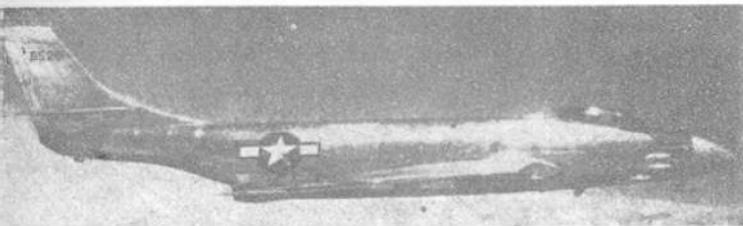
Model: XFV-1 (Navy)

VTO (Vertical Take-Off Figh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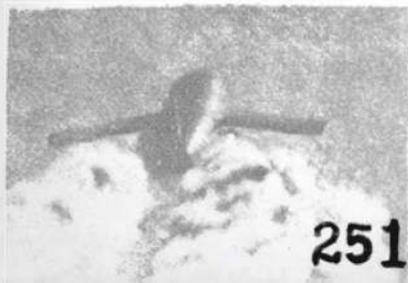


Model: 88A (U.S.A.F.) "Voodoo"

Fighter-Bomber



Model: T-33 (U.S.A.F.) TV-2 (Navy)



251



코메트

발행처(發行處) 공군본부정훈감실(空軍本部政訓監室)

발행(發行) 겸(兼) 편집인(編輯人) 공군대령(空軍大領) 김기완(金基完)

인쇄처(印刷處) 공군본부고급부관실인쇄소(空軍本部高級副官室印刷所)

인쇄인(印刷人) 공군중령(空軍中領) 이계환(李繼煥)

IMPORTANT CONTENTS OF COMET 35

Foreword

By Kim, Kee Wan

To The Republic of Korea Air Force

Kim, Chung Yul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ROK

..... Chang, Duk Chang Chief of Staff, ROK Air Force

"Letters of Congratulation" on the Third ROK Armed Force's Day

..... Walter C. Dowling, U.S. Ambassador to Korea

..... Eduardo Quintero, Philippine Ambassador

..... Richard Hertz, German Minister to Korea

Introspection Needed in U.N

..... Hwang, Sung Soo

Unstabled Area of the World

..... Kong, Chin Hang

Periscoping Taiwan

..... Kim, Kwang Sup

Theory of Military Power

..... Lee, Kyung Choon

I Ask Communists

..... Kim, Chang Soon

On the Spirit

..... Lee, Eun Sang

An Explanation of Modern Government.

Kun, Kyung Soo

Latest Map of the World

..... Choi, Bok Hyun

The 'Soldier' and the Printed Word

Ryang, Choo Dong

The Principle of Artificial Rainfall

Chung, Chang Hee

The "Bi-Kyuk-Chin-Chun-Roe" and the "Bul-Rang-Ki"

(The bomb and the flying ladder in ancient times of Korea)

Hong, Hyo Mynn

POEM

Flying Over the Blue Sky

Shin, Seuk Chung

A Paraboloid

..... Kim, Yong Ho

Composing Aboard a Plane

... Park, Mok Wol

A Mid-day Nap

..... Kim, Nam Jo

Autumn and My Plane

..... Park, Doo Chin

The Fish and the Air Plane

.. Kim, Kyu Dong



코메트

THE COME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